

2012 상반기

북한 공개정보 자료집(II)

통일부 정세분석국
[공 개 정 보 센 터]

목 차

-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관련 공개 언급 현황<2012.2.16(木)> 1
- 北 휴대폰사업 투자사 ‘오라스콤’社(공개정보 종합)<2012.2.16(木)> 6
- 북한 핵보유 관련 언급·기술 현황 (미국 제외 기타 국가)<2012.2.23(木)> 11
- 中·北,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 관련 보고<2012.2.23(木)> 23
- 美·北 고위급 회담 관련 6자회담 주변국 여론<2012.2.29(水)> 28
- 월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2.28)<2012.2.29(水)> 35
- 월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2.28)<2012.2.29(水)> 38
- 최근 탈북자 단속 및 송환 관련 해외여론 동향<2012.3.5(月)> 39
- 최근 韓·美연합군사훈련 관련 해외여론 동향<2012.3.7(水)> 50
- 6자회담 추진 관련 주변국 여론 동향<2012.3.9(金)> 58
- 美 의회조사국(CRS) 분석보고서<2012.3.15(木)> 67
- 중국 제11기 제5차‘전인대’및‘정협’회의 결과<2012.3.16(金)> 85
- 북한 지역내 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 해외 공개정보<2012.3.22(木)> 89
-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의도 관련 해외 분석 종합<2012.3.28(水)> 105
-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I
 (“中·北 인프라 정비 협력 / 북한과의 경제 인프라 연계 과제”) <2012.3.30(木)> 121
- 日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NIDS) 분석보고서
 (2012년 동아시아전략개관) <2012.4.5(木)> 130
-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II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2012.4.6(金)> 141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분석보고서
 (“러시아와 세계 2012: 경제 및 대외정책”/“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2012.4.2(月)> 156
-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III
 (북한의 경제발전 정책의 입안 및 추진체제) <2012.4.17(火)> 164
-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해외동향 일지 <2012.4.18(水)> 178
- 北 장거리 미사일 성능, 의도 및 기대효과 관련 해외분석 <2012.4.23(月)> 188
-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IV
 (“북한에서 본 對中·對러 경제관계”) <2012.5.1(火)> 206

- 최근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들의 현지 르포 종합<2012.5.4(金)> 215
- 최근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추진 동향<2012.5.11(金)> 240
- 北 휴대폰 시장 / 오라스콤 관련 日 언론보도<2012.5.17(木)> 263
- 최근 북한 사회 관련 중국 언론 보도 종합<2012.5.24(木)> 275
- 2012~2014년 북한 중기 지원 계획 - 스위스개발협력처(SDC) -<2012.5.30(水)> 292
- 최근 북한 사회 관련 일본 언론 보도 종합<2012.5.31(木)> 300
- 최근 북한 사회 관련 러시아 언론 보도 종합<2012.6.5(火)> 318
- 북한 황해도 지역 식량위기 관련 분석보도<2012.6.12(火)> 332
- 북한 김경희 관련 일본 언론 분석보도<2012.6.13(水)> 348
- 최근 북한 사회 관련 서방 언론 보도 종합<2012.6.14(木)> 354
- 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 “2012년 세계분쟁지역 예측분석 자료”<2012.6.21(金)> 379
- 북한 현 체제 분석 / 경제 문제에 대한 고찰<2012.6.28(木)> 385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관련 공개 언급 현황

□ 주요 내용 요지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02. 10월	「캘리」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가 있다.
'02.12.29	「파월」 국무장관 기자회견	북한이 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08.11.25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 등 5개 핵보유국이 있다
'08. 11월	미 국가정보위(NIC)	...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 ...
'08.12.18	미 국방부 핵무기 관리 T/F	북한이 핵무기들과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다.
'09. 2. 5	「파네타」 CIA 국장 미 상원 정보위	북한이 '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
'09.12.11	「게이츠」 국방장관 Foreign Affairs 기고문	북한은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
'09. 12월	핵과학자 회보	현재 전 세계에서 북한을 포함한 9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10년(불상)	카네기국제평화기금 (CEIP)	북한 핵무기 생산잠재력 112~253개로 추정.
'10. 3.30	「클린턴」 국무장관 G8 외무장관 회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이다.
'10. 4. 9	「클린턴」 국무장관 Louisville大 연설	북한은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1.12.19	美 핵전문가 주장(FA)	북한은 핵무기 7개 제조 가능한 공장을 갖고 있다
'11.12.20	월스트리트저널 핵전문가 인용	북한은 12~24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2. 1.11	핵위협방지구상(NTI)	북한을 9대 핵보유국에 포함.
'12. 1.31	「클래퍼」 DNI 국장 미 상원 정보위	북한의 2개의 핵장치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평가를 뒷받침.

□ 세부 언급 내용

- ① 「켈리」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방북 時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에게 언급 (Selig Harrison, "Did North Korea Cheat?", Foreign Affairs, '09년 1·2월호)
 -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와 기타 합의에 위반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
 - * U.S. lead negotiator James Kelly told North Korean First Deputy Foreign Minister Kang Sok-chu that the United States had evidence of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for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and other agreements.
- ② 「파월」 국무장관 기자회견 (Meet the Press, '02.12.29)
 - “북한이 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 * “We now believe [the North Koreans] have a couple of nuclear weapons and have had them for years.”
- ③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 연례보고서 : ‘2008 합동작전 환경 평가 보고서’ ('08.11.25 발간)
 -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 부분에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 등 5개 핵보유국이 있다.”고 기술
 - * “The rim of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 : China, India, Pakistan, North Korea, Russia
 - '08.12.10 중통은 “미 국방성 연례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로 조선을 지목했다.”고 소개
- ④ 국가정보위원회(NIC) 2025년 판단보고서 : ‘세계 추세 판단’ ('08년 11월판)
 -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라고 기술
 - * “The Possibility of a future disruptive regime change or collapse occurring in a nuclear weapon state such as North Korea...”
 - 3.3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또다시 규정하고, 조선을 중국, 러시아와 나란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다고 보도

2012.2.1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⑤ 게이츠 국방장관, Foreign Affairs '09년 1·2월호 기고문 : 균형 전략 (A Balanced Strategy)
- 미국에 대한 위협요인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음”을 언급함.
 - * “North Korea has built several bombs, and Iran seeks to join the nuclear club.”
- ⑥ 美 국방부 핵무기 관리 T/F 보고서 : 국방부 핵활동 검토 (Review of the DoD Nuclear Mission, '08.12.18 발간)
- “북한,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들과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
 - * “North Korea, India, and Pakistan have acquired bo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livery systems.”
- ⑦ 파네타 CIA 국장,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 시 언급 ('09.2.5)
- “북한이 '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김정일이 핵능력을 일단 또는 영원히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
 - * “We know North Korea detonated a nuclear weapon in 2006. But We don't know whether Kim Jung-Il is prepared to give up that nuclear capability once and for all.”
- ⑧ 핵과학자 회보 '09년 11·12월호 : 2009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
- 북한을 핵무기 보유 9개국 중 하나로 포함시킴.
 -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 핵무기 저장 장소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기술
 - * “The largest concentrations of nuclear weapons reside i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 In addition to the seven other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 stockpiles(Britain, China, France, India, Israel, North Korea, and Pakistan) ... We are not aware of credible information on how North Korea has weaponized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y, much less where those weapons are stored.”

2012.2.1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⑨ 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 핵확산방지 프로젝트 보고서: 북한의 점검되지 않은 핵무기 생산잠재력 추정(Estimates of North Korea's Unchecked Nuclear Weapons Production Potential, '10 발간)

○ 북한 핵무기 생산잠재력 112~253개

* North Korea's Unchecked Nuclear Weapons Production Potential by 2010

	High End Estimate	Mid-Range Estimate	Low End Estimate
Total Weapons	253 weapons	185 weapons	112 weapons

⑩ 「클린턴, 국무장관, G8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 (‘10.3.30)

○ 북한을“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로 묘사

* “But speaking for the United States, we recognize the new threats that are coming that are aimed at both of our countries, at Europe, at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from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that already has nuclear weapons, and regimes like that in Iran that are clearly seeking nuclear weapons.

⑪ 「클린턴, 국무장관, 핵 비확산 주제로 Louisville大 연설 (‘10.4.9)

○ “북한은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

* “And the countries that we know that have actively pursued nuclear weapons that are still doing so today - North Korea, which we know has somewhere between one and six nuclear weapons, and Iran - and that's why we're emphasizing so much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both of them to try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 Iran from getting nuclear weapons in the first place.”

⑫ 「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센터(CIP) 선임연구원이자 핵전문가), 북한 핵무기 제조 공장 보유 주장(‘11.12.19 Foreign Affairs)

○ “북한은 핵무기 7개를 만들 수 있는 플라토늄이 풍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 “Selig Harrison, a US nuclear expert who inspected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in 2009, said that the country had manufacturer sufficient plutonium for up to seven nuclear weapons.”

⑬ 월스트리트저널, 북핵 전문가 인용 ('11.12.20 Wall Street Journal)

- “북한은 12~24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당 얼마의 플루토늄을 사용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

* “North Korea has one to two dozen nuclear devices, nuclear experts say. The number varies because experts aren't sure how much plutonium Pyongyang uses for each device. But experts say there is no firm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turned its nuclear devices into operational warheads, which would require miniaturizing and toughening the nuclear devices so that they could fit into a long-range missile.”

⑭ 美 군축관련 비정부기구(NGO) 핵위협방지구상(NTI) 보고서: '핵물질 안전지수'(12.1.11)

- 북한을 9대 핵보유국에 포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안전 지수 최하위국”이라고 기술

* “North Korea and Pakistan have the world's worst overall atomic material security conditions among a set of 32 nations holding a threshold level of substances that could be used in nuclear weapons. Following North Korea with its score of 37 out of a possible 100 points and Pakistan with its score of 41, Iran was given the third-lowest score for overall nuclear security conditions 46 points. The three states, which all either possess nuclear weapons or are widely seen as moving in that direction, were particularly faulted under the index's methodology for poor societal factors ….”

⑮ 클래퍼 美 DNI 국장 상원 정보위 보고(12.1.31)

- “우리는 북한이 두 개의 핵 장치(device)를 실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들은 북한이 핵무기(power)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강화해 줌”

* “We judge North Korea has tested two nuclear devices. These tests strengthen our assessment that North Korea has produced nuclear weapons.”

北 휴대폰사업 투자사 '오라스콤'社[공개정보 종합]

□ 개요

북한내 휴대폰사업 투자사 이집트 오라스콤社 관련 공개정보 종합보고임.

□ 오라스콤 텔레콤社 기업 현황

○ 주요 연혁 (출처 : 오라스콤 텔레콤 홈페이지 / 위키피디아)

- 1950 「온시 사위리스 (Onsi Sawiris)」, 오라스콤社 창업
 - * 「온시 사위리스」는 과거 무역 / 하청업을 주로 하던 인물로 알려짐.
 - 1976 「오라스콤 그룹」 설립
 - 1997 「오라스콤 그룹」 분리
 - * 「오라스콤 텔레콤 홀딩」, 「오라스콤 건설 산업」, 「오라스콤 호텔」, 「오라스콤 테크놀로지」, 「OTV」 방송사 등의 자회사로 분리
 - * 「온시 사위리스」의 장남인 「나기브 사위리스」가 「오라스콤 텔레콤 홀딩」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른 회사를 운영
 - 2011.4 빔펠콤(Vimpelcom)社에서 「오라스콤 텔레콤 홀딩」의 모회사인 「윈드 텔레콤(Wind Telecom)」을 인수 합병, 「오라스콤 텔레콤 홀딩」社의 지분 51.7% 확보
 - * 「빔펠콤」社는 러시아 2위 수준의 휴대전화 업체이며, 「빔펠콤」社의 주주회사인 노르웨이의 텔레노어(Telenor)에 미국계회사 다수 투자
 - * 「빔펠콤」社 합병시 북한과의 모바일 사업 부문은 매매 범위에서 제외
- ☞ Vimpelcom과 Orascom Telecom의 거래 조건
- ① Orascom Telecom에서 Orascom Telecom Media and Technology Holding(OTMT)는 분리시킴
 - ② 북한 고려링크, 이집트 통신사업자 ECMS, Orascom Telecom Ventures, 해저케이블 회사를 포함한 그밖의 지분은 Orascom Telecom Media and Technology Holding(OTMT)에서 보유

2012.2.1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1.5.16 「오라스코 텔레콤」 회장 칼리드 비카라(Khaled Bichara)로 교체 ⇨ 「나기브 사위리스」는 政黨 창당 후 정계 주력위해 사임
- 2012.1.12 「오라스코 텔레콤」 회장 조 런던(Jo Lunder)로 교체

- * 「조 런던」는 노르웨이인으로 1999년부터 러시아 빔펠콤社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빔펠콤」社 CEO이기도 함.

o 위치 / 규모(출처 : 오라스코 텔레콤 홈페이지)

- 위치 : 이집트 카이로 소재
- 규모 : 「빔펠콤」社와 「윈드 텔레콤(모회사)」社 합병으로 2010년말 가입자 기준으로 세계 6위 거대 이동사로 거듭남.

o 사업 부문(출처 : 오라스코 텔레콤 홈페이지)

-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고성장 시장에 대한 글로벌 휴대통신 네트워크 사업을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중

- * 오라스코 텔레콤과 북한 체신성間 합영회사인 「고려링크(Koryolink)」외, 알제리("OTA"), 파키스탄("Mobilink"), 방글라데시("banglalink") 등

- 2010년말 기준, 전 세계 1억 200만명 가입자 보유

□ 「고려링크」社 기업 현황

o 주요 연혁

- 2008 「오라스코 텔레콤」에서 75%의 지분 투자로 북한 체신성과 합영회사 「체오(CHEO)」 설립

- * 2007.1월 오라스코 텔레콤과 북한 체신성間 북한의 전기 통신 분야에서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합의(출처 : '09.5.22 / 닛케이신문)

- * 2007.5 체오 평양에 설립(출처 : '09.5.22 / 닛케이신문)

- 2008.1.30 「체오」, 북한 당국으로부터 25년간의 W-CDMA 방식의 휴대폰 사업 면허 취득, 4년 독점권 획득

- * 오라스코 텔레콤은 「체오」를 통해 면허료 지불 및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위해 3년간 총 4억 달러 투자 추진(출처 : '09.5.22 / 닛케이신문)

2012.2.1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08.12.15 3G 서비스 '고려 링크'를 평양을 포함한 3개 도시에서 개시
- 2008.12.16 오라스콤 텔레콤 북한무역은행과 합작 「오라 은행」 설립
(출처 : '08.12.17 아랍파이낸스)
- 2009.5 모바일용 사이트 개설, 한정적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개시
 - * 북한 PC용 웹사이트 '여명'의 모바일 판으로 세계 각국에서 접속 가능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체제 선
진 수단으로 활용 계획(출처 : '09.5.22 / 닷케이신문)
 - * 평양에 2개소의 대리점 설치, 라디오·신문·옥외 광고 적극 추진중

□ 「오라스콤 텔레콤」社 / 「고려링크」社 경영 실적

○ 「오라스콤 텔레콤」社

- 2008년 대북 휴대폰사업 투자 이후 경영실적 분석

단위 : US\$M(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투자금 CAPEX	1,576	1,037	660	213
영업이익 EBITDA	2,384	1,518	1,584	913
수익률 EBITDA Margin	44.7%	40.4%	41.4%	46.8%

○ 「고려링크」社

- 2008년 이후 「고려링크」社 운영 실적

단위 : US\$M(백만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투자금 CAPEX	-	27	47	17 (3분기)
영업이익 EBITDA	-	17.2	57.8	84.8 (1~9월)
수익률 EBITDA Margin	-	66%	87%	83% (1~9월)

2012.2.1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1년 「고려링크」社 경영실적 세부 분석

- 2011년 3/4분기 매출 US\$4천1백만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 수익률 83%으로 「오라스콤 텔레콤」社 해외진출 시장 중 최고의 수익성을 보였으나, 가입자당 평균매출액 2010년 대비 -8.6% 감소
 - 2011년 3/4분기 설비지출투자 \$1천7백만, 전년동기대비 89% 증가
- ※ 오라스콤이 수익으로 공표하고 있는 실적 수치는 '감가상각전 이익'인 EBITDA이며, CAPEX(설비투자액)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감가상각비 등을 빼더라도 과연 흑자일지는 미지수임.(출처 : '09.5.22 / 닷케이신문)

□ 「오라스콤」社 의 「고려링크」 투자수익금 회수 여부

- '수익의 75%는 오라스콤社 몫이지만 전액 북한에 재투자' 보도
(출처 : '12.2.4 조선일보)
- '오라스콤이 수익을 북한 인프라나 호텔, 아파트 공사 등에 재투자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북한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임.'
(출처 : '11.11.23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코리아헤럴드)
- '북한과 오라스콤 계약 불이행 예방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
 - * 오라스콤은 첫 해 \$2억 투자, 나머지 \$2억은 향후 조건에 따라 투자하기로 계약하여 투자위험 분산하였고, 전문 장비 또는 기술자를 포함한 턴키방식 계약일 가능성이 큼.
 - * '오라스콤 건설社와 북한 '상원시멘트'間 계약 조건으로 중동의 오라스콤 건설 프로젝트에 북한 노동자를 제공했으며, 오라스콤 텔레콤과의 계약차질시 북한은 중동에서의 건설 노동자를 통한 외화수익이 끊길 수 있음.
(출처 : 2008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보고서, Telecommunications in North Korea: Has Orascom Made the Connection? Marcus Noland)

□ 「오라스콤」社 의 북한내 추가 투자사업 현황

- 상원시멘트공장 투자사업 : 총 1억 1,500만 달러 투자
- '07.7.16 1억1500만달러 투자해 지분 50% 인수(출처 : '07.7.16 월스트리트저널)

2012.2.1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메드 술탄」(오라스콤 투자담당국 대변인), '프랑스 투자회사 「라파즈」에 2007년 시멘트 계열사를 매도했으며, 더 이상 북한에서 시멘트 투자 사업을 하지 않음.'(출처 : '08.7.2 RFA)
- 「라파즈」社 생산량 수년째 제자리, 생산량 증대로 인한 영업이익보다 공장 가동만하는 실정(출처 : '11.6.2 RFA)

○ 평양 '류경호텔(105층)' 보수공사 투자

- 1987년 건설 시작 후 자금 부족으로 중단, 2008년 오라스콤의 투자로 공사 재개(출처 : '12.2.9 워싱턴포스트)
- 북한은 현재 호텔 완공을 위해 오라스콤 투자에 의존, 2012년 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할 예정임.

□ 추가 참고사항

○ '12. 2. 3 北 방문 '나기브 사위리스' 인물정보(출처 : '12.1.2 위키피디아)

- 나이 : 59세(1954년생)
 - * 오라스콤 그룹 창업자 '온시 사위리스'의 장남
- 가족관계 : 남동생 나세프 사위리스 (오라스콤 건설 CEO)
남동생 사미 사위리스 (오라스콤 호텔 CEO)
- 학력 : 스위스 취리히 소재 스위스연방공과대학에서 경영학·기계공학석사 학위 취득
- 기타 참고
 - 2011.4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자유이집트당' 창당으로 본격적인 정계진출
 - 2010년 재산 25억 달러로 세계 부호 374위(출처 : '10.3.10 포브스 지)
 - 이집트에서 소수 기독교 종파인 콥트정교회 신도로 이슬람교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
 - 美 CIA측과도 일부 연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출처 : '12.2.4 조선일보)

북한 핵보유 관련 언급기술 현황 (미국 제외 기타 국가)

□ 일본

○ 주요 내용 요지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02.10.22	「오쿠보 요시노부」 군사연구가 인터뷰	소형화 어려우며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적어도 1~2t의 무게가 될 것
'04.3	군축·비확산 촉진 센터 보고서	북한이 '92년까지 사용후 핵연료(폐핵연료)로부터 핵무기 1~2개분의 플루토늄을 회수했다고 추측되고, 저장중의 사용후 연료(폐연료)로부터 2~5개분, '01년 가동을 재개한 원자로로부터 年 1개분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04년까지 4~8개분의 플루토늄이 저장될 가능성이 있음. 또 50MW원자로가 완성되어 완전 가동될 경우 수년 후에는 年 8~13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
'06(이하 불상)	「다키자와 소이치」 토야마국제대학교수 기고문	북한이 미·영·불·중·러,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8번째 핵보유국(이스라엘까지 더하면 9번째)이 된 사실은 ..., 일·미 정부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최대 6~8개로 추정
'09.5.2	「야노 요시아키」 군사연구가 컬럼	북한이 BM-25(중거리 탄도미사일) 제조에 성공해 이란에 수출하고 있는 점이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뒷받침함.
'09.6.24	「야노 요시아키」 군사연구가 컬럼	북한은 강화형 핵탄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10.10.10	「에야 오사무」 저널리스트 뉴스 포스트 세븐 인터뷰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폐핵연료봉)으로부터 추출한 플루토늄은 적게 어림잡아도 총 90kg. 이를 핵폭탄 한 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 8kg로 나누면 11발의 핵폭탄이 제조됨.
'11.6.30	「사쿠라이 요시코」 저널리스트 주간 신조 기고문	북한은 현재 소형핵으로 무장했음.
'11.7.14	「사세 마사모리」 방위대학교 명예교수 산케이 신문 인터뷰	일본을 둘러싼 핵 보유 4개국(미·러·중·북한)
'11.9.2	「고바야시 요시노리」 사회 평론가 단행본 “고마니즘 선언 SPECIAL 국방론”	핵보유국인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
'11.12.22	「세라 미츠히로」 군사평론가 인터뷰	(북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음.

○ 세부 내용

① 오쿠보 요시노부 군사 연구가, ZAKZAK 인터넷 뉴스 인터뷰 : '북한의 핵 표적은 도쿄 그러나 너무 무거움' ('02.10.22 인터뷰)

- "소형화 어려우며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적어도 1~2t의 무게가 될 것"라고 언급
- * "小型化が難しく、北の技術力では少なくとも1~2トンの重さになってしまうはず"

② 군축·비확산 촉진 센터 보고서 : '제 6장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미사일 문제' ('04.3)

- "북한이 '92년까지 사용후 핵연료(폐핵연료)로부터 핵무기 1~2 개분의 플루토늄을 회수했다고 추측되고 저장중의 사용후 연료(폐연료)로부터 2~5개분, '01년 가동을 재개한 원자로로부터 年 1개분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4년까지 4~8개분의 플루토늄이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 50MW 원자로가 완성되어 완전 가동될 경우 수년 후에는 年 8~13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라고 기술

- * "北朝鮮は1992年までに使用済み核燃料から核兵器1, 2個分のプルトニウムを回収したと推測され、さらに貯蔵中の使用済み燃料から2~5個分、昨年運轉を再開したといわれる原子爐から年に1個分のプルトニウムが抽出されると考えられるため、2004年までに4~8個分のプルトニウムが貯蔵される可能性がある。また、50MW原子爐が完成し、完全に稼動するという最悪のケースでは、數年後には年に8~13個の核兵器が製造可能であるとされる。"

③ 다카자와 소이치 교수, 토야마 국제대학 홈페이지 기고문 : '북한 핵실험-벼랑끝 전술의 미래' ('06 기고)

- "다수의 미사일 배치를 마친 북한이 미·영·불·중·러·인도·파키스탄에 이어 8번째 핵보유국(이스라엘까지 더하면 9번째)이 된 사실은..."이라고 기술

- * "多數のミサイルを配備済みの北朝鮮が、米英仏中露、インド、パキスタンに續いて8番目の核保有國(イスラエルを加えれば9番目)になった事實は..."

- "일·미 정부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최대 6~8개로 추정"고 기술

- * "日米兩政府は北朝鮮が保有している可能性のある核兵器を最多で6~8個と推定しているという。"

2012.2.23(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④ 야노 요시아키 군사 연구가, 이치하시 종합 연구소 칼럼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과 그 의의' (09.5.2 기고)

○ "구소련제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 SS-N6의 육상배비형인 BM25을 북한이 제조에 성공해 이란에 수출하고 있는 점이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기술

* "北朝鮮が核弾頭の小型化に成功している可能性は、旧ソ連製の潜水艦發射弾道ミサイルSS-N-6の陸上配備型であるBM-25を、北朝鮮が製造に成功し、それをイランにも輸出していることから裏付けられる。"

⑤ 야노 요시아키 군사 연구가, 이치하시 종합 연구소 칼럼 :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징후' (09.6.24 기고)

○ "북한은 강화형 핵탄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기술

* "北朝鮮が目指しているのは、おそらく「強化型核弾頭」の開発であろう。"

⑥ 에야 오사무 저널리스트, 뉴스 포스트 세븐 인터뷰 : '북한 적어도 9발의 핵폭탄 보유' (10.10.10 인터뷰)

○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봉(폐핵연료봉)으로부터 추출한 플루토늄은 적게 어림잡아도 총 90kg. 이를 핵폭탄 한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 8kg로 나누면 11발의 핵폭탄이 제조되었다."라고 언급

* "北朝鮮が抽出したプルトニウムは、少なく見積もっても計90kgという計算になる(最大値は105kg)。科學者たちの心理から察すると、8kgのプルトニウムなら實驗を成功させる自信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だとすると、プルトニウム生産量90kgを必要量の8kgで割れば、11發という答えになる。"

⑦ 사쿠라이 요시코 저널리스트, 주간 신조 기고문 : '새로운 위기 북한이 핵을 소형화' (11.6.20 기고)

○ "현실적으로 북한은 현재 소형핵으로 무장했다고 선언한다."라고 기술

* "現實に北朝鮮はいま小型核で武裝したと宣言する。"

⑧ 사세 마사모리 방위대학교 명예 교수,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 : '원자력 연구 후퇴로 2급 국가로' (11.7.14 인터뷰)

○ "일본을 둘러싼 핵 보유 4개국 - 미·러·중 및 북한"이라고 언급

* "日本を取り巻く核保有4カ國－米露中および北朝鮮－"

⑨ 고바야시 요시노리 사회평론가, 단행본 “고마니즘 선언 SPECIAL 국방론” (11.9.2 출간)

○ “핵보유국인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라고 기술

* “核保有國の中國や北朝鮮に對する抑止力を持つために、...”

⑩ 세라 미즈히로, ZAKZAK 인터넷 뉴스 인터뷰 : ‘일본 잠복중인 공작원에게 원폭테러 관측.. 장군님 없는 군의 공포’ (11.12.22 인터뷰)

○ “(북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언급

* “核彈頭の開發に成功している。”

□ 중국

○ 주요 내용 요지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09.5.27	홍콩 봉황망	이미 6,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세계는 긍정, 건설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10.4.9	중국국방대학전략연구소 「양이샤오」 전임소장 <국제선구도보紙>	북한은 이제 막 ‘핵보유’의 길로 들어섰다.
'10.4.12	홍콩봉황위성TV, <시사개강> 대담	현재 알려진 핵보유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이다.
'10.11.7	중국 전략망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핵 위협력을 갖고자 한다면 소형화와 탑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1.3.8	홍콩 봉황망	핵무기 소형화는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로 1~2차례 핵실험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11.6.29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리빈」 교수	북한은 아마도 내부 폭발 원리(내부에서 핵반응을 일으켜 제조)에 기초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
'11.6.29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쉬원지에」 교수	중국 또한 적극적인 중재로 긴장국면을 해소하려 했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 세부 내용

① 홍콩 봉황망 뉴스: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제조하게 하는가?' (09.5.27)

- "이미 6~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세계는 긍정, 건설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
 - * "簡言之, 已經可以造出六七枚核武器的朝鮮現在需要的是一種建設性的國際姿態, ..."
- "중국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극단적인 국가에서 국제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
 - * "中國沒有決心和能力外科手術式地廢掉朝鮮的核武功, 就更有義務幫朝鮮 從一個有核武相撐的極端國家重回國際社會懷抱, 這是中國只要介入朝鮮 核問題就必採取的姿態"

②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양이샤오' 전임소장 국제선구도보紙 기고문 : '중국, 주변지역 핵밀도 가장 높아' (10.4.9 / 국제선구도보紙 ☞ 관영 신화 통신이 발행하는 국제 시사 전문지)

- "현재 세계 핵정세를 2, 3, 3, 1로 묘사하면서, "미러 양대 핵대국, 중국·영국·프랑스는 합법적인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은 비밀리에 핵보유, 북한은 이제 막 핵보유의 길로 들어섰다"고 언급
 - * "當今世界的核態勢是2、3、3、1、, 中國國防大學戰略研究所前所長楊毅少將用4個數字描述了國際核擴散的基本形勢：美俄作為兩個超級核大國, 擁有全球95%的核武器；中英法三國擁有一定數量的核武器, 其擁核的合法性得到了廣泛的國際認可；印度、巴基斯坦和以色列則非法但秘密擁有核武器；朝鮮正在邁過核門檻。"

③ 홍콩 봉황위성 TV "시사개강", '정하오' 박사(국제문제 전문가) 대담 : '핵안보 정상회의, 어떤 새로운 정보 나올까?' (10.4.12)

- "현재 알려진 핵보유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我們現在知道, 現在世界上大概有九個國家擁有核武器, 就是聯合國安理會常任理事國這五個國家, 加上巴基斯坦、印度、以色列, 現在有說朝鮮也是擁有核的。但是如果嚴格的來講, 就是國際社會現在還不承認它, 特別是美國和韓國也不承認它擁有核武器。"

- ④ 중국 전략망(중국 군사전문 뉴스사이트) 분석기사: '북한 핵무기의 허와 실' (10.11.7)
-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핵위협력을 갖고자 한다면 소형화와 탑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 "朝鮮雖說已經邁開了核試驗的第一步，但朝鮮要想形成一支真正的核威懾力量，還需要具備兩個條件：一是彈頭小型化；二是運載系統。"
- ⑤ 홍콩 봉황망(홍콩 전문 뉴스사이트) 분석기사: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은 제로' (11.3.8)
- "핵무기 소형화는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로 1~2차례 핵실험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 * "首先是核武器的小型化是朝鮮目前的最大難題，僅僅依靠一兩次核試驗是很難解決核武器小型化的核心技術的...."
- ⑥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리빈 교수 연구 보고서: <북한의 군비 발전> (11.6.29)
- "북한은 아마도 내부 폭발 원리(내부에서 핵반응 일으켜 제조)에 기초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
 - * "朝鮮可能擁有一到兩枚基于內爆原理的核武器，但是，朝鮮可能對其缺乏信心。"
- ⑦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쉬원지에 교수 연구 보고서: <현재 한반도 안전과 안정에 대한 평가 및 대책> (11.6.29)
- "중국 또한 적극적인 중재로 긴장국면을 해소하려 했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 * "中國新一屆政府果敢決策，從穩定地區安全，和平解決朝核問題的愿望出發，開展積極的外交斡旋。緩和了緊張局勢，實現了由戰爭一觸即發，中經三方會談到六方會談的轉化，但能否真正解除朝鮮的核擁有，有待各方的積極努力。"

□ 러시아

○ 주요 내용 요지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05.2.27	「빅토르 예신」 前러시아 전략비사일군 총사령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확신할 수 없다.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07.10.11	「빅토르 예신」 前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총사령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무기급 플루토늄을 활용한 단순화된 구조의 핵폭탄을 보유했을 수도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09.5.25	러시아 국방부	북한 핵 실험규모는 TNT 10~20kt급
'09.5.25	「카라가노프」 외교국방정책위원장	북한에 핵무기가 등장... 북한 영토에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 입증
'09.6.11	「알렉산드르 피카예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군축실장	북한은 미사일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소형화 시키는데 몇 년 걸릴 것이다.
'10.5.12	「블라디미르 셰프첸코」 이론물리학연구소장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핵융합 반응을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10.24	「아르바토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국제안보센터 소장	핵보유국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다. 북한은 미사일 또는 발사체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2.7	「이바노프」 부총리	전략핵무기가 북한, 파키스탄, 이스라엘, 중국...

○ 세부 내용

① 「빅토르 예신」前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총사령관 주간지 기고문 : '북한의 핵무기- 위협 혹은 협박' ('05.22 / 네자비씨모예 보엔노예 아보즈레니예 ⇨ 주간지)

○ “핵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기술

* “достовер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КНДР обладает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нельзя. Да, у нее, пожалуй,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созда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② 「빅토르 예신」前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총사령관 기고문 : '21세기 핵 개발 추세' ('07.10.11 / 마케예프 ⇨ 정보포털사이트)

2012.2.23(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무기급 플루토늄을 활용한 단순화된 구조의 핵폭탄을 보유 할 수도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기술
- * “Аналогичной оценки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и у кого не осталось сомнения, что Пхенья н не блефует, утверждая, что КНДР обладает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По оценке, КНДР может располагать несколькими ЯЗУ упрощенно й конструкции на основе оружей ного плутония. Эти заряды, скор ее всего,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устрой ства массой до нескольких т онн, что не позволяет их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снаряжения головных частей существующих северокорей ски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③ 러시아 국방부 발표, 언론 보도 (‘09.5.25 에코 모스크바)

- “러시아 국방부는 “25일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규모는 TNT 10~20kt급이다.” 라고 발표
- * “Мощность проведенного 25 мая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ядер ного устрой ства составила от 10 до 20 киллотонн.” сообщ ает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④ 「카라가노프」 외교국방정책위원장, 언론 인터뷰 (‘09.5.25 / K2KNews)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등장함으로써...”, “북한 영토에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라고 언급
- * “Для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явле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С еверной Корее обернется еще одним послаблением в режи ме н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планете... но ве дь уже доказано,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ес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⑤ 「알렉산드르 피카예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ИММО) 산하 군축실장, 언론 인터뷰 (‘09.6.11 / 가제타 신문)

-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소형화 시키는데 몇 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
- * “У Пхеньяна вряд ли есть боезаряд, который можно пом естить на ракету: нужны годы для его миниатюризаци и. Пока, по-видимому, КНДР обладает несколькими сыр ыми ядерными устрой ствами, достаточно громоздкими.”

2012.2.23(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⑥ 「블라디미르 웨프첸코, 이론물리학연구소장, 언론 인터뷰 (10.5.12 / 가제타 신문)
-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핵융합 반응을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
 - * “Получение технологии мирного регулярного ядерного синтеза при том уровне, на котором находится эта область науки в КНДР, невозможно”
- ⑦ 「아르바토프,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ИММО) 산하 국제안보센터소장, 러시아 원자력에너지협회 보고서 : ‘군사 프로그램 및 전략관련 핵보유국 동향 (10.10.24)
-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 각국의 핵 전략관련 언급하며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라고 분류
 - * “КНДР с ее "штучным" производством ядерных боеприпасов и попытками испыт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ную систему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дальности.”
 - “북한은 미사일 또는 발사체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
 - * “Наконец,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ка не вписывается в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диапазон, поскольку, видимо, не создала еще комплектов ядерных боезарядов для ракетных или авиационных носителей. Ее потенциал скорее можно 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как «провокационный» или «диверсионный» (то есть доставляемый нетрадиционными носителями вроде гражданских судов или самолетов).”
- ⑧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 뮌헨안보회의에서 언급 (11.2.5)
- 이바노프 부총리는 “전략 핵무기가 나토와 러시아 권역 밖에서 점차 등장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이웃국가인 북한, 파키스탄, 이스라엘, 중국...”이라고 언급
 - * “Тактиче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се больше появляе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НАТО и России. Для РФ это важно и по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КНДР, Пакистан, Израиль, Китай - они все наши соседи.”

□ 영국

○ 주요 내용 요지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11.7.21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	북한은 1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1.10.30	영미안보정보협의회 (BASIC)	북한은 최소 6기의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이다.
'11.12.20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 세부 내용

- ①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 보고서 : '북한의 안보도전' ('11.7.21)
 - "북한의 핵보유 현황에 대해 4~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1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 "North Korea has enough plutonium for a handful of nuclear weapons. How much plutonium and how many weapons are impossible to estimate accurately except within broad ranges: enough for 4~12 bombs, although most likely fewer than ten."
- ② 영국 민간 연구기관 영미안보정보협의회(BASIC) 보고서: '전세계 핵보유국 핵개발 현황 및 정책' ('11.10.30)
 - "북한은 9개 핵보유국 중 하나, 적어도 6기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 * "Analyst estimates of an arsenal of around six weapons are based on the amount of separated plutonium that North Korea may have been able to produce. These estimates suggest overall production of around 50kg of separated plutonium, enough for at least six nuclear weapons but possibly more."
- ③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페트릭」(비확산 군축담당 국장),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11.12.20 파이낸셜타임스)
 - "북한 정권은 오판이나 안보위협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
 - * "Mark Fitzpatrick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ays: "The regime might use nuclear weapons through miscalculation or because of a misperception of threats to their own security."

□ 파키스탄

○ 주요 내용 요지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04.4.13	「압둘 카디르 칸, 파키스탄 과학자, 뉴욕타임즈(NYT) 보도	'99년에 비밀 지하 핵시설에서 북한 측이 세개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보여줬다.

○ 세부 내용

① 뉴욕 타임즈, 파키스탄 당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아시아와 미국 관계자들의 진술 인용 ('04.4.13 New York Times)

○ 「압둘 카디르 칸, 박사, “'99년에 평양에서 1시간 거리의 비밀 지하 핵시설에서 북한측이 세 개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보여줬다”고 언급

* “Abdul Qadeer Khan, the Pakistani scientist who sold nuclear technology around the world, has told his interrogators that during a trip to North Korea five years ago he was taken to a secret underground nuclear plant and shown what he described as three nuclear devices, according to Asian and American officials who have been briefed by the Pakistanis.

According to officials with access to the intelligence reports, Dr. Khan described being taken to a secret plant that appears to have been different from the main North Korean nuclear plant at Yongbyon. “It was about an hour out of the capital, Khan says,” according to one senior Asian official. “But it’s not clear in what direction.

Dr. Khan was shown what was described to him as three plutonium devices, he reported. He told his interrogators that they appeared to be full weapons, not just a jar full of warm material that the North Koreans handed to a visiting America weapons expert earlier this year, telling him it proved their “nuclear deterrent force.”

□ 스웨덴

○ 주요 내용 요지

일 자	주 체	주 요 내 용
'07.6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2006.10월 핵실험을 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평가

○ 세부 내용

- ①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군비·군축·국제안보연감 : 2006.10월 핵실험을 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평가 ('07.6)
 -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플루토늄 비축량을 근거로 할 때 소량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수 있다”며 핵보유국으로 평가
 - *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produced enough plutonium to build a small number of nuclear warheads...”

中·北,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 관련 보고

□ 개 요

中·北이 공동개발 추진중인 「황금평」 경제특구 관련 공개정보 보고임1).

□ 「황금평」 자유무역지대 개발

○ 배경

- 中·北, 2011. 6월 「황금평」 과 「위화도」 에 자유무역지역 설립합의 발표
-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설립을 통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중국 정부 및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황금평 경제특구의 발전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

* '11.6.8 개최된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는 북한의 실세 장성택 국방위원장 부위원장, 중국 천더밍 상무부장이 참석할 정도로 비중있는 프로젝트로 추진 중



【그림 1, 2】 2011.6.8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공동개발 착공식

○ 위치

- 2011.6.6일 발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르면,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행정구역상 ‘평북 신도군 황금평리, 신의주시 상단리·하단리·다지리, 의주군 서호리’로 개발구역은 황금평부터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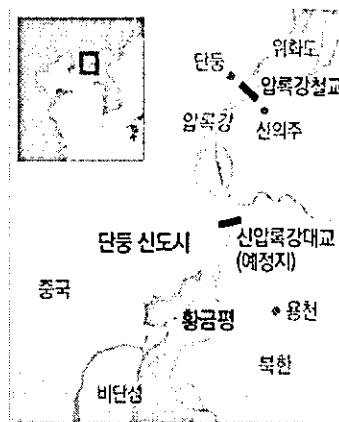
* 「황금평」 과 「위화도」 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 있는 압록강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중국 단둥에 인접한 북한의 미개발지로 면세구역이기도 함.

1) 출처: 美 「38 North」 분석기사(www.38north.org)

○ 황금평의 지정학적 여건

- 황금평은 압록강의 입구 서쪽에 위치해있고, 대부분은 작은 늪 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이 개펄로 둘러싸여 있고, 간단한 철책과 용수로들이 설치되어 중국 영토와 분리되어 있음.
- 황금평은 중국 단둥 시골지역 모습과 흡사하며, 협동농장의 일부인 마을 하나가 있고, 가장 큰 지역에 주택 200채가 들어서 있음.
- 황금평에는 전력소가 없어 대규모로 소요되는 전기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3】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곳이 황금평



【그림 4, 5】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위치

* 【참고】 ‘황금평’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북한에서 비옥한 땅이며, 면적은 11.45km²로 여의도 면적 8.48km²보다 넓음. 중국 단둥지역에 붙어 있으나, 1962년 김일성 주석과 주은래 총리間 체결한 ‘조·중 변계조약(압록강에 분포한 205개 섬중 북한이 127개, 중국이 78개 분할 합의)’에 따라 북한 영토가 됨.(출처 : 2011.6.9 / 내일신문)

○ 황금평 개발 추진

- 황금평·위화도 특구에 대한 계획은 1년 이상 진행될 전망이며, 중국의 동북 개발에 적합하나, 북한 경제의 발전없이는 계획 달성이 불가능
 - * 중국은 북한에 기반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 및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됨.
-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건설된 교량 개선 및 재건, 중·북間 새로운 철도 건설(표면상 관광용), 북한 광산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
- 북한은 '북한의 홍콩'을 만들기 위해 황금평과 위화도를 중국에 임대 하도록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에 임대 기간은 50년으로 추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 황금평과 위화도는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중국인과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황금평과 위화도를 여행할 수 있음.
- 투자자들에게는 △세금환급, △생산용 수입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금융서비스를 위한 은행 선택 및 설립의 자유, △거래용 외화 사용, △고용 및 해고 권리, △자산 이전 및 상속, △가격 책정 권리,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 및 인터넷 접속 등 인센티브 부여
 - * 이러한 인센티브는 북한에 대한 중국 투자와 관련된 현재 관습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나, 황금평·위화도의 궁핍한 인프라 조건과 필요한 인프라 지원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문제임.
-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 농업, 경공업' 등 4대 주요 산업을 개발하며, 향후 건설 계획에는 황금평과 신의주를 오가는 승객 및 화물선을 위한 부두, 황금평·위화도 내의 도로망, 황금평과 중국 단둥 경제구역을 연결하는 진입로 등 포함
 - * 「다이위린」 단둥시 당서기는 "황금평과 단둥시에 조선공학, 특수강, 칼라강, 카 오디오 등의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가 조만간 정착할 것"이라고 언급
 - * 중국은 황금평에 인접해 '대규모 거주지, 학교, 비즈니스·금융시설, 공업지대, 항구지대, 병원, 스포츠단지' 등이 포함된 대규모 산업 및 주거 지역 건설을 계획

【그림 6】 황금평 인근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발계획(랴오닝 항구 공업지대 세부 규제 계획)

【그림 7, 8】 2005, 2010년 촬영 중국 단둥 교외지역 변화 모습(중국의 대규모 투자 입증)

【그림 9】 중국측이 북한 접경지역에 건설중인 스포츠 단지 건설 조감도

【그림 10】 중국측이 북한 접경지역에 건설중인 스포츠 단지 위성사진
(좌측: 2010.10, 우측: 2011.12)

○ 결론

- 중국은 황금평과 위화도에 인접한 압록강쪽 중국 영토에 대한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중이나, 아주 대조적으로 북한 영토는 농업 지역으로 인프라가 빈약하고 공업용으로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 자유무역지역 발표 이후 건설중인 중국 스포츠 단지에 인접지역의 토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북한 영토에 대한 새로운 개발은 없었음.
- 황금평 특구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의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들여놓으려는 전략적 결정임.
- 중국은 황금평 특구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며, 황금평 특구가 섬인지 북한 본토인지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임.
- 지금 중요한 것은 황금평 특구 발표 후에도 북한 영토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위화도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개발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않은 상태임.
- 또한, 누가 제조업 등에 착수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
- 이는 과거 개성공단의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아산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명석을 깔아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황금평 인프라 건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 북한 시장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특혜권을 가질 가능성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동기부여를 받는 중국의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음.

美·北 고위급 회담 관련 6자회담 주변국 여론

'12.2.23~24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美·北 고위급 회담과 관련 6자회담 당사국 중 주변국(미·일·중·러) 여론에 대한 공개정보를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 미국

① 핵문제 대한 北 태도 변화 없다. (2.25 뉴욕타임즈)

-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 시작이 목적이었던 美·北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없이 끝났음.
- 데이비스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北의 협상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하루 뒤 北 국방위원회에서 “핵무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韓·美 연합훈련과 관련된 의례적인 맹비난 공세를 시작하였음.
- 북한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임.
- 반면, 대화 지지자들은 협상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더 큰 핵확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② 美·北 베이징 회담, 북한의 입장 변화 없다. (2.26 월스트리트저널)

-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하에 첫 직접 접촉했으나, 협력 강화나 변화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음.
- 이틀간 열린 베이징 회담 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새롭게 얻은 것이 없으며, 핵무기 감축에서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함.
- 북한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주말 동안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례적인 비판을 지속함.

□ 일본

①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 발언 (2.24 외무성 북도에서 기자 인터뷰)

- 美·北 회담이 열린 것은 좋은 것이며,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
- 북한의 비핵화, 우라늄 농축의 즉각적인 중단을 포함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

② 김정일 사망 이후 첫 美·北 회담 개최 (2.23 TBS 뉴스)

-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가 초점이 되겠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아직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큰 진전은 없을 것
-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大 교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미국측에 있다. 북한에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
- 「진보 켄」 게이오大 조교수, '미국과 중국이 협조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은 동북아 안정의 핵심이며, 이번 美·北 회담은 美·中 관계의 안정까지도 내다 보고 있음.'

③ 「여기에 주목」 美·北 회담 (2.23 이데이시 타다시 NHK 해설위원)

- 김정은 체제로 바뀐 이후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없음.
- 미국과의 직접 협의는 김정일 시대 때부터 북한이 강하게 바라던 것이며, △미국과 협상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 안전을 보장받는 것, △식량지원, △경제제재 해제 등과 같은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체제가 되어도 변하지 않을 것임.
- 신중했던 미국이 대화에 나선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임. 그러나 다음 주까지 韓·美 합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북한으로써도 큰 양보를 하기 어려울 것임.
- 6자 회담 재개는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구두 약속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지에 달려 있음.

④ 타협점 찾는 미국과 북한, 토대 만들기로 끝날 것인가 (2.24 산케이)

2012.2.29(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데이비스 대북특별정책대표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직전에 대략적으로 합의된 식량지원 문제를 먼저 꺼낸 쪽이 북한이며, 이는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⑤ 美·北회담 무조건적인 지원은 금물 (2.26 산케이 사설)

- 협의의 최종목적은 핵무기 포기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북한에 깨닫게 하는 것이며, 성급하게 진전을 요구할 필요는 없음.
- 김계관과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진지한 대화'였다고 말한 점이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지 표시라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의 지도부가 쉽게 타협할 것 같지는 않음.
- 韓·美·日은 북한의 핵포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견지해야 함.
-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하여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함.

⑥ 북한의 딜레마가 드러난 美·北회담 (2.26 닷케이 사설)

- 북한은 신체제 하에서 핵개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美·北회담은 그 진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익한 대화였음.
- 북한은 핵역지력을 김정일의 공적(功績)으로 삼고 있으며, 아직 어리고 실적도 없는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 통치로 권력계승의 정당성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음. 애초부터 북한의 신체제가 쉽게 비핵화에 응할 상황이 아님.
- 신체제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 대화를 요구한 것도 해외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일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딜레마를 명확히 드러낸 美·北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음.

⑦ 농축 중단을 위해 결속해야 한다. (니시니혼 신문 사설)

- 북한은 이번 회담을 당초부터 「년지시 떠보는 협의」로 삼은 듯함.
- 권력이행기에 있는 북한은 김정은을 「타협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김정일의 「혁명유산」인 핵개발의 양보는 강경파인 군부를 자극할 수 있음.
- 경제 재건을 위해 외교환경도 개선해야만 하고 대외 정책에서 강경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써야만 하는 미묘한 상황이 이번 애매한 결론이 나온 배경에 있는 듯함.

⑧ 美·北회담의 열쇠는 '합리적'인 착지점 (2.24, 2.26 하신기)의 깊이 읽기)

2012.2.29(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협의는 진전될 것임.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 고 약속한 적이 있으며,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선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다소의 진전은 있었지만 획기적인 진전은 아니다'고 말하는데 그쳤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과 북한이 요구한 식량지원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중국

① 美·北 대화는 6자회담 재개의 신호 (2.25 중국신문사 2) 중국 반관영 통신사)

- 6자회담 종료後 개최된 中·러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실질적 합의가 있는 뒤,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측
- 6자회담 재개는 △南·北 대화, △美·北 대화, △6자회담 등의 3단계로 이뤄져야 하며, 이번 美·北 대화는 그 중 두 번째 단계임.
- 전문가들은 '6자회담은 南·北 대화와 美·北 대화에서 실질적 합의 도출 후, 이전 대화의 성과와 협의 문서를 다시금 확인하고 각 당사자국의 감독下에 이뤄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

② 제3차 美·北 회담은 양측의 필요에 의해 개최 (2.24 홍콩 봉황위성 TV)

- 미국은 오바마 정권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新정권은 다자외교를 표방하고 있음.
- 「팅취엔춘」(중국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이번 회담은 표면적으로 북핵문제가 의제이지만 지난 6~7개월 동안 각국의 대북 정책 조정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오바마 정권 초기에는 북한의 약속 이행 및 진정성 표시 없이는 어떠한 접촉도 없다고 했으나 작년 7월과 11월 2차례 대화 진행, 이는 오바마 정권이 올해 대선을 맞아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임.
- 북한의 경우, 김정은 취임後 2개월의 행보는 다자 외교를 표방하는 김정일 시기의 정책노선과 일치하며, 이에 이번 회담은 美·北 양측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음.

2) 日 조선대학교 강좌장 및 조선신보 기자 출신의 재일동포로 북한 관련 정치 평론가

③ 중국의 역할은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는 것 (2.24 홍콩 봉황위성 TV)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국가도 아님.
-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 및 도발 행위를 중용한다고 여기지만, 북한은 자주독립 국가로서 중국의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 국가의 주권 및 영토 안전을 위해 일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종의 중재자·조절자로서 양측을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음.
- 중국이 보는 미·북 회담 전망 : 북한의 경우 장기적으로 6자회담보다는 계속해서 한국·일본의 개입없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희망하며,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계속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할 것임.

④ 美·北회담, 식량원조가 북한의 주된 목적은 아닐 것 (2.24 / 홍콩 봉황위성 TV)

-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인 식량원조는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선 주된 목적은 아닐 것임.
- 북한이 미국에 식량원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응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영리하다면 식량원조를 놓고서 미국과 대화에 나선 것은 아니었을 것임.
- 예상보다 일찍 개최된 美·北회담은 북한 정권의 순조로운 안착을 보여줌.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새로운 정치 노선을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경험없는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은 김정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운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며, 김정일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개입없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임.

⑤ 美·北회담, 실질적 성과없이 서로 탐색만 했다. (2.27 홍콩 봉황위성 TV)

-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미국은 바로 한국과 연합군사훈련 진행, 매년 열리는 훈련이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 혹은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됨.
- 이에 북한은 강경한 어조로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으며, 이를 보면 미국, 북한 모두 관계 개선없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음.

⑥ 美·北 회담을 통해 신뢰회복과 평화 기대 (2.24 중국 신문사)

- 美·北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의 핵안보정상회의 및 韓·美 연합훈련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으며, 이를 보면 북한이 스스로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반도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평화의 문제. 한반도의 냉전구도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며 담판 카드로 삼고 있음.
- 「왕준성」(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스스로의 안보를 걱정하게 된 것은 미국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왕준성」, 북한 입장에서 보면 韓·美 양국은 밀접한 관계이며, 일본은 미국을 따라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음. 또한 미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제재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왕준성」, 미국 또한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이외에 동북아전략에 있어 미국은 대북관계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에 미군 주둔의 구실을 마련하고, 이로써 한국과 일본이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음.
- 6자회담은 핵을 의제로 평화를 찾는 회담이며, 반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성의, 소통이 필요
- 이번 회담에서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은 '기다려 달라'는 한 마디 외에는 말을 아꼈음. 이처럼 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 남북통일도 시간이 필요함.

□ 러시아

①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원 인터뷰 (1.10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북한을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국제 사회와의 대화가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함.

②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인터뷰(1.26 리아 노보스티)

- 북핵문제는 정치·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현재 6자회담 참여국들은 회담 재개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 중임.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은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함.

- ③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인터뷰 (1.28 리아 노보스티)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접촉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있음. 러시아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람.
- ④ 「발레리 수히닌」 駐北 러시아 대사 인터뷰 (2.2 인테르팍스 ㉸ 통신사)
-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모든 참여국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국들간 양자 회담이 작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6자 회담 재개는 참여국들이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함. 美·北대화 관련, 북한은 항상 대화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⑤ 「루카셰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외무부 브리핑 (2.22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 현재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자회담 참여국들은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회담재개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확실한 것은 회담재개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고 있음. 차기회담의 실질적인 착수를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회담재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⑥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 과장, 북핵문제 관련 전문가 대담 (2.23 리아 노보스티)
-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 김정일의 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유연한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북한이 핵을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힘든 과정이겠지만 모든 관련국들의 노력으로 궁극적인 핵 포기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⑦ 「파벨 레샤코프」 모스크바 국립大 한국학센터 소장, 북핵문제 관련 전문가 대담 (2.23 리아 노보스티)
-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며, 현재 美·北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안을 중단했다는 것과, 또한 북한의 갑작스런 정권교체가 양측의 대화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함.

월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2.28)

- 로버트 월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北 위협에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긴급해짐' 주장(2.28 美 상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발언)
 - 동북아 리스크로 태평양군사령부 기지는 일본과 한국에 있음.
 - 북한 등 도전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한편, 동남아 등 주변지역의 필수 주둔군 유지를 위해 병력을 배치하고 지탱하는 태평양군사령부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김.
 -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임.
 -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심각한 우려사안이며, 북한의 핵프로그램·미사일 개발·확산활동·비대칭적 군사적 도발이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이런 위협들은 태평양군사령부의 정보·감사·정찰(ISR) 역량이 북한의 군사 조직들을 확실히 살펴보고 적절치 않은 상황 전개를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 탄도미사일 시스템 진전은 태평양군사령부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부추김.

- 로버트 월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김정은, 강경전략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2.28 美 상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
 - 북한은 역사상 정보기관이 정보를 얻기 힘든 국가로, 북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12.2.29(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으로 분단된 북한은 29세 지도자 김정은 통치 하에 동북아 평화와 안보 위협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는 북한의 불안 징후나 권력 승계에 이상 조짐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음.
- 김정은은 부친의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현재로서는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김정일과 같이 핵무장화,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도발, 등 강경한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윌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 기조발언(2.28) 원문 >

美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 o As a consequence of both history and the nature of challenges in Northeast Asia, US PACOM forward, permanently based forces are concentrated i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o While affording a strong deterrent against challengers such as North Korea, this has placed a premium on US PACOM's ability to deploy and sustain forces elsewhere in order to maintain the required presence in sub-regions such as Southeast Asia, South Asia and Oceania.
- o The DPRK continues to pose one of the most likely and persistent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to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o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of serious concern and its nuclear program, missile development,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asymmetric military provocations are destabilizing.
- o Collectively, these threats demand that US PACOM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capabilities and capacities be sufficiently robust to view across the DPRK's military apparatus and warn of unfavorable developments.
- o North Korea's continuing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advanced ballistic missile systems places a premium on US PACOM ballistic missile defenses and close cooperation with allies.

< 월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2.28) 원문 >

美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 o In PACOM's AOR, I'm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 and the rising power in China both economically and militarily. North Korea has historically proved difficult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gather information.
- o In contrast, North Korea, the world's only remaining nation divided by armistice, continues to threate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now under the leadership of a 29-year-old son of Kim Jong-Il.
- o We're observing closely for signs of instability or evidence that the leadership transition is faltering.
- o As General Thurman will attest when he testifies, we believe Kim Jong-un to be tightly surrounded by KGI associates and, for the time being, the succession appears to be on course.
- o That said, we also believe KJU will continue to pursue his father's course of strategy that embraces nuclearization, missile development, WMD proliferation, provocations and totalitarian control over North Korean society.

윌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2.28)

- 로버트 윌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해 '北은 식량지원 받으려면 핵실험 중지해야' 주장(2.28 AP통신)
 - 북한은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핵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함.
 - 대북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해야 함.
 - * 북한은 지속되는 식량 부족으로 2011.1월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유엔과 인도주의단체들은 북한 주민들 수백만명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보고
 - 미국은 2011.6월 북한에 임무평가를 보냈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임.
 - 미국은 식량이 강력한 군대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 북한의 요구를 필 요와 식량 배분을 모니터하는 미국의 능력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

< AP통신 원문(2.28) >

美 AP통신 홈페이지

"US officer: North Korea nuclear halt needed for food aid"

- North Korea needs to halt its nuclear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o receive American food aid, the top military officer in the Asia-Pacific said Tuesday.
- Willard, chief of U.S. Pacific Command, said that U.S. conditions for providing food aid also could include North Korea allowing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U.N. nuclear watchdog, into its nuclear facilities at Yongbyon.
- North Korea suffers perennial food shortages, and requested aid from the U.S. and other nations in January 2011. The U.N. and other humanitarian agencies have said millions of North Koreans need help and have reported rising child malnutrition.
- The U.S. sent its own assessment mission to North Korea last June, but has yet to reach a decision.
- It has previously said that the request for food would be judged purely on the basis of need and the ability of the U.S. to monitor its distribution because of concerns that aid could be diverted to the North Korea's powerful military.

최근 탈북자 단속 및 송환 관련 해외여론 동향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단속 및 송환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여론을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 중국

① 중 전문가들 '중국의 탈북자 송환 비난할 문제 아니다.' (2.20 / 환구시보)

- 「스위엔화」(북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주임), '한국은 탈북자를 인권·정치 피난 문제로 보는 반면, 중·북은 국경 및 출입국 관리 문제로 간주'
- 「스위엔화」, '북한 주민들의 중국 밀입국은 정치 피난,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인권 유린"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
- 「뤄차오」(요녕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주임), '중국의 탈북자 처리는 주권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며, 중·북간 체결 규정, 국제법규, 인도주의에 근거하므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

② '韓, 탈북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 앓으면서 오히려 중국에 압박' (2.21 / 환구시보)

- '한국은 탈북자 북송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지만 한국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韓·中 양국은 모두 북한 사회의 혼란이나 동서독 통일時처럼 난민의 대거 유입을 원치 않음.'
- 「뤄차오」(요녕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주임), '탈북자 문제는 韓·中간의 문제이지 국제문제가 아니며, 국제이슈화는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없다고 언급'

③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회견 「홍레이」대변인 발언 (2.22, 24, 28 / 중국 외교부)

- '탈북한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중국 국경內로 들어온 불법 밀입국자들이다.'
- '중국은 계속해서 국내법,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이는 각국의 이익과 국제 관례에도 부합하다.'
- '유엔인권보장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며, 이 문제를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은 계속해서 국내법,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관련 문제를 처리하며 이는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
- '불법 밀입국한 북한인들을 북송한 것은 10여 차례 이상이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국경을 월경한 것이기 때문에 난민이라고 규정지를 충분한 근거가 없다.'
- '중국의 법률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며, 불법 밀입국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법 행위로 한국 언론들이 탈북자 문제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경향이 있다.'
- '이는 실제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은 계속해서 국내법,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것.'
- '韓·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므로 이에 한국이 이번 문제에 대해 좀 더 침착하기를 바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韓·中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④ '탈북자 처리, 한국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2.23 / 홍콩 봉황위성 TV)

- '탈북자 문제는 韓·北·中의 3국간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두고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결과는 역효과만 날 것'
-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불법 밀입국자들을 북한으로 보낸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압박할 방법이 없고 결과는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에게 좋을게 없다.'

⑤ '난민문제는 중국이 피할 수 없는 문제'

(2.23 / 환구시보 사설 베이징 이공대학 법학과 리우궈푸 교수)

- '중국의 난민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난민 관련 법률 법규를 공포하지 않아 피난자 혹은 난민 자격을 부여한 공개적인 선례가 없다.'
- '중국의 <헌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난민에 관련된 규정은 원칙적인 대략적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또한 난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기준 및 방법, 관리 부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 '2011.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출입국관리법(초안)을 심의해 난민 규정에 대해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 자격 심사 기간 동안 공안기구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난민신분증으로 중국 국내에 체류 및 거류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법률 내용이 더 풍부하고 난민 관리에 대한 입법 규정이 있다면 관련 이익당사자들이 더욱 명확하게 중국의 난민 처리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것!’
- ‘문화적으로 볼 때 중국은 난민을 포함한 국제 이민에 대한 관리 및 법률이 발전되지 못했다. 주된 원인으로 평등, 상호존중의 다원화 문화가 부족해 포용·융합의 국제이민사회를 만들지 못했고, 외국인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입장에서 난민의 대거 유입을 걱정하는 등 난민은 중국에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 ‘난민에 대한 관심, 난민 관리 규범, 법률 제정은 중국이 대외개방 정책과 국제화 전략이라는 목표下에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며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론 연구, 실질적 실천,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의무 이행과 중국의 이익 보호, 난민과 중국 국민의 권익 보호 사이에 평형을 이룰 수 있다!’

⑥ ‘韓·中, 탈북자 문제로 날선 대립’ (2.23 / 환구시보)

- 중국의 한 학자는 ‘지금까지 난민 규정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국제적 표준은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표준」 이란 「한국표준」 같다고 언급
-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 ‘난민자격 부여는 중국 정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렇게 비난하는가? 이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다.’

⑦ ‘탈북자 처리문제, 한국은 국제표준 아닌 한국표준 주장’ (2.23 / 환구시보)

- ‘리우귀푸」(베이징 이공대학 법학과 교수), ‘난민에 대한 국제난민조약은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수정된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있다. 그러나 각국이 어떻게 난민을 구분해야 하느냐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난민의 정의는 정치적 요소가 많이 고려되어 있으며, 굶주림으로 도망친 자를 난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 '위 두가지 문서에 의하면 난민자격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다.'
- '각 국이 난민자격 인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하며, UN은 이에 대해 한 가지 기준으로 선을 긋지 않는다. 오랫동안 국제법이 수정되지 않았던 원인도 바로 많은 국가들이 난민의 유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 '최근 국제사회의 폭동, 내란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그 기준을 약화했을 때 각 국은 이에 따른 후폭풍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⑧ '한국은 탈북자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2.23 / 환구시보)

- '한국이 탈북자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으로 중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중국과 한국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 '이러한 불법밀입국자들은 미·멕시코 국경지역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사항이고 또한 부유한 유럽에서 쫓겨나 가난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 '중국의 탈북자 복송은 줄곧 관대했다. 만약 엄격히 처리했다면 복송된 탈북자는 수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 '중국 동북지역에는 적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숨어있는 것을 보면 그 관리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북 인도 협의를 이행할 것인지는 중국의 일이지, 한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 '한국 헌법에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탈북자를 환영하지만, 중국이 탈북자의 한국 진입을 막자 괜히 과잉 대처하면서 好人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 '사실 한국 국민들도 탈북자를 반기지 않고 그들의 대거 유입을 걱정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 무시를 당하면서 고생한다.'
- '韓·中 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급진 인사들이 이번 탈북자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정부는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이 한국 여론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인권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한국이 이로 인해 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중국이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
- '그러나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국으로 현재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있지만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에 중국은 침착하게 한국 여론에 기름을 붓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평행노선을 갈 것이다. 中·北 관계, 국경질서, 인도주의, 중국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인들의 감정을 모두 고려해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 '한국인들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결코 중국 정책 결정의 유일한 출발선은 아니다.'
- '한국 여론이 이렇게 떠들썩한 것은 그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은 大國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매번 한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 '물론 중국이 탈북자를 북송한 뒤, 이들의 인도주의적 처리 및 소식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도 이로운 일이다.'
- '국경관리를 더욱 삼엄하게 해 탈북자의 중국 진입을 막아야 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할 일이다.'
- '한반도에 원성이 가득하다. 서로에 대한 남북한의 적대감정은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도 많고 부유한 나라로서 근본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중국이 모든 일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그 이후는 그들이 하도록 하면 된다.'

⑨ '인권문제로 타국을 압박해서는 안돼' (3.2 / 인민일보)

- '탈북자들은 경제적 목적을 갖고 불법으로 중국 국경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다.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 '한국이 탈북자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겠다는 것은 인권문제를 빌미로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美·北이 직접 대화에 나서니 한국은 북핵문제에서 소외될까봐 상실감이 더 커진 것 같다. 그러나 공연히 탈북자 문제를 들고 일으킨다고 이게 무슨 작용을 하겠는가?'
- '유엔의 시리아 문제 결의안이나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로 타국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통하지 않는 길이며, 인권은 정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다.'

□ 러시아

① '연해주 지역 탈북자 수 증대' (2.11 / 모스크프스키 콤소몰레츠 ☞ 일간지)

- '최근 3년 사이 연해주에서 제3국으로 인도된 탈북자 수가 20명이 넘어서고 있다.'
- '러시아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3개월 형을 선고하는 등 탈북자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탈북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총 40,000명의 북한 노동자 거주 중이고, 이 중 10,000명이 탈북자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3,000명 이상이 난민 지위를 받기위해 대기 중이다.'라고 보도

② 【참고기사】 '불법 국경통과 탈북자에게 3개월 형 선고'

(11.10.5 / 인테르팍스)

- '러시아 법원은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한데 대하여 탈북자에게 러시아 연방 형법 제 322조 1항에 의하여 3개월을 선고했다.'

□ 미국

① 美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한국과 깊은 우려 공유하고 있음."

(3.2 / 美 국무부 녹취록)

- 마리아 오테로 美 국무부 차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UNHRC) 회의에서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
- '미국은 제3국에서 이뤄지는 북한 난민·망명자 처리와 관련해 한국의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② 「로버트 박」(在美 북한인권운동가), '中 탈북자 강제북송은 대량학살을 초래할 것' (2.28 / 머큐리뉴스)

- '중국은 탈북자들을 색출해 강제로 송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이들은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처형 또는 포로수용소 수감될 것이다.'
- '송환된 탈북 임신부의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은 유엔 학살조약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 '중국내 탈북자 중 60~70%가 여성인데 70~80%가 법적 권리나 보호 없이 성매매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무국적 고아로 버려지고 있다.'
- '한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 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은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
- '2012.1월 김정은은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맹세했다.'
- * 로버트 박 : 북한 내 인권신장 촉구를 위해 2009년말 북한에 들어간 뒤 억류됐다가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로, '북한의 집단학살 종단을 위한 전세계적 연대'의 회원임.

③ 美 탈북자 수용 현황 보고서에서 '탈북자 적극 수용해야' 권고
(11.9.20 / 美 브루킹스 연구소)

-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은 불과 122명의 탈북자를 수용했으며, 약 25명만이 정치적 망명 허용 받음.'
- * 난민과 달리 망명 신청자는 미국 내 또는 통관항에서 망명 신청.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재정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국이 수용한 난민 총 73,293명 중 탈북자는 25명에 불과'
- * 미국 수용 난민 현황 : 이라크(18,016명), 버마(16,693명), 부탄(12,363명), 소말리아(4,884명), 쿠바(4,818명), 이란(3,543명), 콩고(3,174명), 에리트레아(2,570명), 베트남(873명), 에티오피아(668명), 북한(25명) 등
- '美 이민항소위원회(BIA)는 2011.5월 타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경우 재정착 입증의 충분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난민이나 망명 지위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
- '탈북자들은 한국에 정착한 후에도 미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소수만이 정치적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행 선택'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정치적 망명 승인 받으려면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박해 또는 고문 위험을 입증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차별을 이유로 미국이 탈북자에 망명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함.'
 - '또한, 생계형 탈북의 경우에도 망명 자격이 안되는 등 미국 망명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인식이 팽배함.'
 - '또한, 미국에서 난민 지위 승인 절차는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고 신속한 승인 절차와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함.'
- *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238명 중에서 107명이 신청 철회
- '탈북자들이 제3국행을 기다리는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손상이나 난민의 대량 유입을 우려해 미국이 자국 영토 내에 탈북자 재정착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음.'
 - '美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동남아시아 국가 주재 美 대사관 및 영사관은 웹사이트에 망명 및 난민 지위 희망자들을 위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해서 미국 재정착 가능성을 알려야 함.'
 -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한 후에도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백에서 수천 명의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숨기고 미국과 서방 국가에 유입될 것.'
 - '2008년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탈북자의 미국 재정착 촉진을 위해 타정부들과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음.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의 논의는 성과가 있었으나 중국과의 협의는 어려운 실정임.'

□ 일본

① '주권, 인권 감각이 의심되는 일본' ('11.12.9 / 산케이 신문)

- '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중국정부에 제출하여 5명의 탈북자를 출국시킬 수 있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02년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으로 탈북자들이 뛰어들 사건 이후 중국측은 경비를 강화해 외부에서 탈북자, 지원자와 접촉하여 총영사관으로 데려가는 케이스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이런 형태로 탈북자를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 「가토 히로시」 일본 NGO 북한난민구조기금 이사장, '중국 이외의 제 3국에서의 보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며, 서약서 제출이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② '탈북자 강제 복송 중지를 요청하는 일본 NGO 긴급성명'

(2.27 / 아시아자유민주연대협의회 홈페이지)

- '우리들은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강제 복송을 반대하며 중국정부를 향한 한국내의 항의 활동에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으로서 연대의지를 표명한다.'
-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불법입국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귀국하면 정치적 이유로 고문,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소지한다.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면 중국 정부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가령 중국 정부의 말대로 난민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입국자를 강제 출국시킬 때에는 본인의 의지와 수용국의 동의를 확인한 뒤, 출국처를 정하는 것이 문명국으로서의 최소 의무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인권 존중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보편적 인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 '일본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신과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지하도록 요청해달라'고 발표

③ 【참고기사】 '일본內 탈북자 수는 약 200명으로 추정' (1.18 / 마이니치 신문사)

- '2011년말까지 약 200명으로 추정되며, 이름이 확인된 사람이 160명으로 그 중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100명이고, 2011년 13명의 입국이 확인됨.'
- '일본內 탈북자는 귀환 사업 때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 조선인, 일본인 처,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대부분임.'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④ 【참고기사】 ‘납치문제 해결과 그 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정부의 입장 보고 (2010 / 외무성)

- ‘정부는 탈북자 보호 및 지원을 법의 취지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 탈북자가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인 경우,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당사자를 적절히 보호해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 ‘또한, 재일 조선인인 경우 각자의 사안에 관계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한다는 방침에 의거해 대처하고 있다.’
-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일본에 입국했고, 정부는 입국한 탈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탈북자 개별 상황에 맞게 생활보호수급 등을 위한 지원, 직업 상담, 정신과 상담, 일본어 교육기관 소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⑤ 【참고기사】 ‘북한난민구호기금, 북한난민정착 일본어 교육센터 신설’

(‘11.6.30 / 잉카 뉴스)

- ‘2011.6.29 일본 최초로 북한난민구호기금이 「북한난민정착 일본어 교육 센터」를 신설하여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위한 교육 코스를 창설.’

⑥ 【참고기사】 ‘「간 나오토」 총리,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 정기국회 답변서’ (‘11.2.1 / 참의원 정기국회 답변서)

- ‘정부는 일본판 하나원과 같은 정착지원 시설을 설립할 생각은 없지만, 향후 일본에 귀국 혹은 입국한 탈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하고 있음.’
- ‘탈북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생활보호수급 등을 위한 지원, 직업 상담, 정신과 상담, 일본어 교육기관 소개, 공영 주택 입주에 관련된 협력 요청 등의 시책을 실시할 예정임.’
- 탈북자에 대한 생활보호금 지급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시킬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생활보호법 제 1조에 규정된 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同법에 의거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급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同법은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됨.’
- ‘자립을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생활보호수급자인 탈북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중요하며 일본에서 취직이 가능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공공직업 안정소에서 희망자에 맞는 세심한 직업 상담, 직업 소개 등을 함으로써 취업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2012.3.5(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 촉진의 관점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에게 탈북자의 고용을 의뢰할 때 탈북자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과 지원자 및 북한에 살고 있는 친지의 안전 확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탈북자를 위한 의료비 공적지원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후생노동성에서는 의료비 공적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은 없으나, 무료 진료사업 실시기관에서 생계가 어려운 탈북자 등을 同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

⑦ 【참고기사】 「나카가와 마사하루」 민주당의원, 탈북자 지원 언급
(11.12.21 / 민단 신문)

- '한국의 통일부가 소관하는 탈북자 지원시설 하나원과 같은 것을 일본도 만들어야 한다.'
- '탈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내용은 미흡하다. 만들어진 법률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다.'

최근 韓·美연합군사훈련 관련 해외여론 동향

최근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등 韓·美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여론을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 중국

① 韓·美 '키 리졸브 연습'은 대규모 전쟁 대비한 훈련(3.4 / 인민일보)

○ 「인주어」(군사전문가 겸 해군정보전문화위원회 주임)

- 최근 진행되는 키리졸브 韓·美연합군사훈련은 목표성이 뚜렷한 대규모 전쟁 대비 훈련임.
- 이번 훈련의 실질적인 의도는 북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북한을 간섭하고 정권을 이양받아 남북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임.
- 이 구상은 북한 정권 와해 後 또는 내란 발생 및 인도주의 측면의 재해 발생時, 韓·美가 인권을 이유로 북한의 대규모 살상무기를 통제하고 심지어 파괴하는 것으로 북한을 간섭하는 것임.

② 韓·美는 정례훈련, 북한은 의례적 비판(2.29 / 중국 인터넷매체 v1.cn)

○ 「자시우둥」(중국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대담

- '韓·美훈련은 정례훈련에 속하고, 북한의 비난 또한 의례적이라 할 수 있음. 韓·美훈련은 이미 다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매년 봄에 두차례 대규모 훈련을 시행함.
-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 韓·美간 단결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임. 북한에 자신들의 힘을 보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의 비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
- 북한은 비난도 하고, 대화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韓·美에 대응하고 있으며, '북한측의 대화 대상은 한국이 아닌 미국'임.

③ '韓·美 해병대 상륙작전, 숨은 의도있다.' (3.3 / 신화사)

- '이번 훈련이 연평도, 백령도와 떨어진 동남부 포항에서 이뤄지는 것은 훈련 규모와 관련이 깊다.'

2012.3.7(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올해 해병 훈련이 크게 강화된 것은 미군의 새로운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駐日 美해군이 한국으로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韓·美연합군사훈련이지만 올해는 여러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의 강경한 비난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며, 이외에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국내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도

④ '韓·美연합군사훈련 전략적 배경이 있다.'(3.2 / 인민망 군사채널)

- 「인주어」(군사전문가 겸 해군정보전문화위원회 주임) 대담
 - 韓·美연합군사훈련은 군사훈련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전략적 배경이 있음. 그 전략적 배경은 韓·美 양국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압력을 가해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임.
 - 선군정치의 북한이 전면적으로 국방 및 안보에 자원을 투입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압력으로 변화를 끌어내 내부 불안정을 유도하는 것임.
 - 키 리졸브 연습은 강성(強性)적 훈련으로 작계 5027, 5029 훈련은 북한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 것이며,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북한이 군사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런 압력으로 변화를 피하려 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생각임.
 - 군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긴장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내 통치에도 이로우며, 미국은 이런 긴장태세를 이용해 동맹국과 군사관계를 강화함.
 - 미국의 구상은 韓·美·日이 「小 NATO」를 만들어 군사적 동맹국에 대한 제어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원하지는 않지만 긴장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유리함.
 - 동북아의 긴장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일본, 한국에 대한 제어와 「아시아로의 회귀(重返亞洲) 전략」에 유리하며, 지정학적 전략에 따르면 이는 미국 군사력 유지에도 이로우며.
 -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 특히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원치 않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지역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미국은 중·러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과 전쟁 발발 및 북한의 핵보유를 막고자 함.

2012.3.7(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 회복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긴장 태세 유지를 원하며, 미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미국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⑤ '탐색'의 색깔이 농후한 韓·美연합군사훈련 (2.29 / 중국청년보)

- '연평도 사건 이후 한국의 서해안에는 여러 차례 기선제압식의 훈련이 진행되어 긴장감을 조성했다. 올해 들어서 한국은 서해에서 미국과 전술 토론, 지형 정탐, 실탄사격 등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 배후에는 복잡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표면적으로 韓·美의 빈번한 군사훈련은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다.'
- '한국은 이를 통해 북한에 군사적 우위와 압력을 행사한 것이고, 미국은 북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 외에 북한 지도자 교체 후 김정은이 이미 정권을 장악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은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가의 관심은 중동에 있고, 군사전략 조정 및 군비지출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동북아와 서아시아에 동시에 두 차례 「뜨거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 '북한은 김정은 취임 후 안정적이지만 북한이 과도한 압력이나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를 원한다면 예상치 못한 행동도 할 것이다.'
- '만약 북한에서 자신들의 도발이 한국 집권당(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⑥ 美·北 관계의 양면성을 간과해서는 안돼 (3.5 / 신화사)

- '美·北회담 종료 3일 만에 韓·美는 북한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보여주며, 美·北관계 발전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⑦ 계속되는 韓·美연합군사훈련, 美·北 대화에 변수? (3.5 / 봉황망)

- '韓·美는 키 리졸브에 이어 독수리훈련까지 진행하면서 줄곧 정례 훈련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략적 의도가 있다.'
- '韓·美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된다면 美·北 대화에도 변수가 생길 것이다.'

2012.3.7(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6자회담 재개에 또다시 암담해지는 것이다.'

⑧ '계속되는 美·北 힘겨루기' (3.3 / CCTV)

- 「진산룡」(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학원 부원장)
 - 美·北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함.
 -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대화로 북한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훈련으로 위협, 이에 북한도 관계개선에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보냄.
- 「명상칭」(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부소장)
 - 美·北 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없거나, 한반도 냉전구도가 계속된다면 韓·美의 정례 군사훈련은 계속될 것임.
 - 韓·美연합군사훈련은 또 다른 의미는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임.
 - 올해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어떤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대선시 득표를 하기위한 미국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훈련을 진행함.

□ 러시아

① '상대국의 특수한 상황 고려해야한다'(2.2 / 인테르팍스 ⇨ 통신사)

- 「수히닌」(駐北 러시아 대사)
 -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더군다나 강대국의 참여로 비무장지대 혹은 서해 분쟁수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함.
 - 북한 주민들은 얼마 전 지도자가 사망함으로써 감정이 불안한 상태임. 러시아는 군사 부문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한반도의 안정 상태를 유지시키며, 또한 상대 국가의 특수한 상황 고려를 촉구하는 바임.

② '韓·美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 반응이다.'

(2.27 / 크라스나야 즈보즈다 ☞ 일간지)

-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앞두고 북한은 대남 비방전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통상적인 반응이며,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③ '북한은 과거에도 항상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27 / RBK ☞ 인터넷 뉴스)

- '북한은 과거에도 韓·美연합군사훈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부대를 시찰하는 등 韓·美훈련을 의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북한의 이유 있는 반응이다' (2.27 /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韓·美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날카로운 반응과 위협은 이미 「통상적인 답변」으로 간주된다.'
-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규모를 생각할 때 북한은 군사적으로 큰 위협을 느낄 것이다. 韓·美 훈련을 연일 비난하고, 조용한 선전포고라고 말하는 북한의 반응이 이유 없는 것 같지는 않다.'

⑤ '젊은 지도자에게 독수리가 발사되었다.' (2.27 / 골로스 러시아 ☞ 라디오)

- '韓·美연합군사훈련이 김정일 사후 주민들의 애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데 대해 북한은 격분하고 있다.'
- '韓·美훈련은 그다지 좋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는데다, 2달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2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군사 부문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 특히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될 훈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교체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젊은 지도자는 이제 막 권력을 잡았고 경험이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군 장성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美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을 가진 명백한 도발인 것이다.'

2012.3.7(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 다른 우려할 점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6자회담도 교착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는 이웃국가로서 조속히 긴장이 걷히고 남북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해 본다.'

⑥ 【참고기사】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 군사력 강화는 적법·필수적이다.'

(2.10 / 디비 로스 러 인터넷 뉴스)

- '최근 러시아의 일본 영공 근접비행 횟수 증대 관련, 핵심지역에서 러시아의 존재감 강화는 강대국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의 역할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영어권

①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北 위협,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2.27 / 美 국무부 정례브리핑)

- '韓·美연합군사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으로, 우리는 훈련할 때마다 전통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대단히 새로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② 북한의 '키 리졸브' 공세 관련 전문가 견해 (2.27 / 美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 '연례적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김정일 사망 전 보다 다소 강해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 「빅터 차」(前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

- 우리는 김정은이 동일한 전술을 고수할지, 경험이 부족해 강인한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목적으로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할지 모름.

- '미군은 키 리졸브 연습을 사실상 전적으로 비도발적이라고 규정했고, 북한은 식량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키 리졸브 연습 공세는 핵프로그램 포기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 「데이비드 스트라우브」(前 美 국무부 한국과장)

- 최근 북한의 어조와 협박이 한층 위협적으로 보이며, 2006·2009년 핵실험 및 새 정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미국과 한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함.

③ '北 위협, 김정은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3.4 / 英 로이터통신)

- 대북 전문가들, '북한의 무력 위협은 김정은 권력장악을 공고히 하고 미국과 비핵화-식량지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2012.3.7(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④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 공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 (2.20 / 美 AP통신)
- '북한은 韓·美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지만 南·北 및 美·北 관계, 북한 내부 정치를 위한 신중한 시기에 즉각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⑤ '北, 韓·美연합군사훈련 대응으로 실사격 훈련 실시 (3.6 / 美 AP통신)
- '한국의 백령도를 마주보는 북한의 서남해안에서 금주 실시된 훈련을 외신기자단에게 공개했다.'
 - '북한군은 전차 및 트럭 동원과 로켓 설치에 동분서주했으며, 실사격 훈련시 인근 주민들은 위장망을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고 보도'
- ⑥ '김정은 권력 승계후 첫 독수리훈련으로 北 반응 예의주시' (3.2 / 美 AP통신)
- '김정은 권력 승계 후 첫 독수리 연습인 만큼 세계 최연소 최고사령관의 리더십 스타일을 엿보기 위해 북한의 반응이 예의주시 되고 있다.'
 - 몇 명의 주한미군 지휘관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언급
 - 「데이비드 레이먼」(오산기지 25전투비행대대장)
 - 향후 한 두 달간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훈련 하고 있음.
 - 25전투비행대대에서는 미국이나 아프간에서도 하지 않는 화학전 장비 및 방독면 착용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임.

□ 일본

- ① '북한이 싫어하는 것' (2.9 / 현대코리아 ☞ 일본내 한반도 문제 연구소)
- '한국이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도 대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해야 한다. 연료와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는 대대적으로 축하 행사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 '韓·美훈련이 표면화된 이후 북한은 매일같이 비난, 중단 요구를 반복 하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기 보다는 싫은 일임을 증명하고 있다.'

② '北, 韓·美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할 자격 없다.' (2.15 / 마이니치 신문)

- '2월말에 예정된 대규모 韓·美연합군사훈련은 최대 마찰 요인이 될 것.'
- '그러나 2년 전에 한국군 함정을 침몰시키고, 그 후 한국령의 섬을 포격해 민간인까지 죽인 북한은 韓·美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③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훈련의 부당성' (3.1 / 다나카 카츠미 의원 블로그)

○ 「다나카 카츠미」(공산당 의원)

-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韓·美연합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도발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임.
- 도발은 도발로 그치기에 도발이며, 더 나아가면 전투 행동이 됨. 한반도에서 전투 행동 즉 북한의 침략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임.
- 도발에 지나지 않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도발에 대응해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과민 반응임.
- 북한이 이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리가 있음.
- 북한의 과민 반응, 즉 도발 행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미국의 방침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세계의 여론이 중요하며 세계적 규모로 재편하려는 미군에 자금을 빌려주려는 일본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임.

6자회담 추진 관련 주변국 여론 동향

최근 美·北 고위급 회담 및 후속협상 등이 진행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가능성 관련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회담 당사국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 중국

① 단기간內 6자회담 재개 어렵다.(3.2 / 홍콩 봉황위성TV)

- 「장렌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인터뷰
 - ☞ 중공중앙당교 :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국립 단기 교육기관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6자회담 재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6자회담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은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다만 현재 북한의 태도는 새로운 의제와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며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 '먼저 對北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경수로 제풍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핵보유국 지위와 기타 국가들과 평등하게 핵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기타 국가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렵기에 단기간內 6자회담의 재개는 어렵다.'
 - '설령 재개되더라도 이런 순서의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② 「양제츠」 中 외교부장 기자회견 (3.6 / 인민망)

-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안정, 비핵화, 관련 당사국들의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전 시스템 구축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이다.'
- '현재 6자회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시스템이다. 최근 6자회담 각 당사국들간에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들이 보인다.'
- '중국은 6자회담의 주체국으로 각 당사국들과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유지하며 대화와 기타 당사국들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성과도 거두었다.'
- '중국은 최근의 美·北 회담과 같은 각 당사국들의 대화를 환영한다.'

2012.3.9(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은 각 당사국들이 지혜를 모으며 간섭을 지양하고, 6자회담 진전 및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의 장기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③ 美·北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해제 기대(3.2 / 중국신문사)

- 「쭈핑」(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홍콩<대공보>인터뷰
 - '김정일 이후 시대의 북한이 경제 개선을 통한 생존력 강화를 위해서는 對美관계 회복으로 제재 해제를 기대할 수 있다.'
 - '한반도 정세 회복을 위한 美·北대화라는 방식은 200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다. 美·北관계 회복 및 대화가 이뤄져야만 6자회담 및 한반도 정세 회복에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④ 美·北대화 경색 벗어났지만, 6자회담 재개는 여전히 어렵다.(3.2 / 인민망)

- 「위샤오화」(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사설
 - '2008년 6자회담 중단으로 인한 지역 정세 긴장감 형성과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후 미국의 임무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 '이에 6자회담 재개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2011년부터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 '美·北대화 합의를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 및 지역 정세 회복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만 현재로선 크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먼저, 북한의 약속 이행과 미국이 북한과 같이 성의를 보이느냐하는 것도 지켜볼 문제이다.'
 - '美·北대화만으로는 6자회담 재개 및 지역 정세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줄곧 남·북한 대화와 관계 회복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 '그러나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이 한국정부와의 대화 거부를 밝힌 가운데 6자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 조정 및 남·북한의 대화 재개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 '美·北이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가운데 각 측은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후속 행동을 해야 된다.'
 - '각 측은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좋은 시작으로 해서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年内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⑤ '계속되는 美·北 힘겨루기' (3.3 / CCTV)

○ 「명상칭」(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부소장)

- '미국의 다음 행보는 24만톤 영양지원 외에 민생 부분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식량지원으로 對北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6자회담 재개이며, 최종 목표는 북한의 핵포기이다.'
- '적어도 이번 美·北간의 협의는 6자회담 재개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첫걸음일 뿐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南·北관계 개선이다.'

○ 「진산룡」(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美·北관계 개선은 6자회담 재개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지만, 먼저 南·北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 '미국, 한국의 입장에서 南·北관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부분인데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있다.'
-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 하지만 현재로선 한·미관계가 미·북관계 보다 깊다. 북한의 남한과 거리를 두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은 6자회담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또한 美·北관계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⑥ 6자회담 조속 재개 필요 (3.8 / 신화사)

- 3.6일 IAEA이사회의 북핵문제 관련 심의에서 「청징예」(중국 駐UN 사무처 및 기타 국제조직대표) 대사,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각국이 기회를 잡고 지혜를 모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러시아

① '러시아는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월 호 / 러시아전략 ㉠ 국가정책전문 월간지)

○ 「게오르기 톨로라야」(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소장)

-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가 6자회담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지지한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유일한 의제가 되는 것은 옳지 않고,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2012.3.9(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하는 역할은 아마 적을 것이다. 비록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회담재개를 위해 러시아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균형적인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②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 (1.10 /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o 「발렌티나 마트비엔코」(상원의장),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며, 해법은 정치·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회담 재개를 위한 최적방안 모색 중이다.' (1.26 /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o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부 장관)
 -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 재개를 위한 최적방안을 모색 중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긴장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한반도를 비핵화 시키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내에 안정과 상호협력을 구축한다는 6자회담의 핵심목표를 확실히 봐야 한다.'

④ '6자회담, 올해 또는 상반기內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8 / 외무부 홈페이지)

- o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부 장관)
 - '중요한 신호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이다. 우리는 이를 작년 8월 김정일 방러 당시 북한은 선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그 밖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만간 회담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보장이라는 주요 과제에 역점을 두고 회담을 올해 안은 물론이고, 상반기 내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사전접촉에서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있다. 러시아는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2012.3.9(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⑤ '회담재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2.2 / 인테르팍스 ㉠ 통신사)

○ 「발레리 수히닌」(駐北 러시아 대사)

- '6자회담이 상반기에 재개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는 최근의 회담 상황에 따른 평가가 아니다. 2008년말 마지막으로 회담이 개최된 후 벌써 3년이 지났고, 긴 휴지기가 있었다.'
- '러시아 뿐 아니라, 여타 6자회담 참가국 모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참가국들간 양자회담이 자주 개최되었다.'
- '6자회담 재개는 참가국들이 우호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식에 기반을 둔 합의를 이끌어 낼 준비가 됐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⑥ '6자회담 조속한 재개 촉구한다.' (2.27 / 모스크프스키에 노보스티 ㉠ 일간지)

○ 「블라디미르 푸틴」(당시 총리, 현 대통령)

-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러시아는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 '정치·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⑦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29 /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게오르기 툴로라야」(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소장)

- '핵실험 중단과 IAEA 사찰단 허용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감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 '다시 말해 6자회담을 지체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⑧ 2.23~24일 베이징 美·北회담 결과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 논평

(3.1 / 외무부 홈페이지)

-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동시다발적인 노력 덕택에 회담 재개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은 같은 목표를 가진 다양한 국가의 공동의 노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012.3.9(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상호협력을 계속해나갈 준비가 돼있다.'

⑨ '금번 美·北합의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예견하게 하고 있다.'

(3.1 / 리아 노보스티 러 통신사)

○ '비록 미국과 북한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금번 美·北합의는 6자회담 재개를 예견하게끔 하고 있다.'

⑩ '美·中회담 후,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3.1 / 라디오 스바보다 러 라디오)

○ 「안드레이 란코프」(러시아 북한학자, 국민대 교수)

- '6자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미국, 북한, 중국이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

- '이 때문에 얼마 후 美·中 회담이 이루어지고,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는 형식으로 회담이 계속될 것이다.'

⑪ '美·北합의 이행이 6자회담 재개의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3.7 / 골로스 러시아 러 라디오)

○ 「게오르기 톨로라야」(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소장)

- '美·北합의 이행이 6자회담 재개의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AEA 사찰단 복귀, 그리고 이 기관과의 협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제조건 중 하나이다.'

-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외무부 차원에서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요인 중 하나로 영변 핵시설 IAEA 사찰단 복귀를 주장한 바 있다.'

⑫ 【참고기사】 북한외무성 대변인 이타르타스 통신사와 단독인터뷰

(2.5 / 이타르타스 러 통신사)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한과 러시아는 6자 회담재개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 '하지만 회담을 재개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생겨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북한측에 불공정한 요구를 내세우는 미국에 있다.'

○ '6자회담 전망은 한반도에 평화, 안정,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달려있다.'

□ 영어권

① '北 6자회담 복귀시 핵시설 불능화 이상의 협상 필요'

(2.29 / 美 CRS '북한핵무기: 기술적 문제들' 보고서)

- '북한이 6자회담 복귀해 과거 약속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상당할 것이다.'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로, 향후 대화에서는 추가적인 우라늄농축시설 확인 등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북한은 그동안 투명성 수준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 다음 단계는 원자로 폐기 처분과 핵무기 생산시설 해체로, 이는 여전히 협상이 필요하다.'
- '협상 단계에는 핵물질 비축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실제 핵무기 해체 확인 등이 포함될 것이다.'

② '美·北회담은 6자회담 재개에 도움될 것이다.'

(3.4 / 美 The Diplomat ⇨ 국제 정세 / 시사 분석 언론)

-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2.29일 발표된 美·北합의는 중단된 6자회담 및 다른 협상의 재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여전히 부실하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쉽게 철회될 수 있다.'
- '美 관료들은 다른 새로운 합의를 하기 전에 최근 합의 내용을 북한이 이행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들은 향후 가능 조치들에 대해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③ '美·北회담 합의는 北의 초반 포석' (3.7 / 美 Foreign Policy ⇨ 시사 잡지)

- '이번 합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도 6자회담 복귀 및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북한의 초반 포석일 것이다.'

□ 일본

① 「젠바 고이치로」 외무상, '지금 당장 6자회담 열 상황 아니다.'

(3.1 외무성 기자회견)

- '지금 당장 6자회담을 열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조율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6자회담을 위한 환경이 점차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 ②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기자회견 (3.1 / 산케이 신문)
 -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 ③ '美·北합의와 6자회담의 미래'(3.6 / NHK 이데이시 타다시 NHK해설위원 인터뷰)
 -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작은 첫걸음을 확실하게 하는 즉 합의 사항 하나 하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북한, 우라늄 농축 중단'(2.29 / 교도통신)
 - '6자회담 재개문제 중 최대 장애물이었던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이 중단 됨으로써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계국간의 조율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⑤ '북한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은 체제 안정 의도' (3.1 / 마이니치 신문)
 - '오바마 정권은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일본, 한국, 중국 등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를 담은 2005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으로 가는 로드맵이 이번 합의로 그려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 ⑥ '美·北합의 실질적인 비핵화로 연결시켜야한다.' (3.2 / 애히메신문사 사설)
 - '이번 미북합의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6자 회담이나 관계국과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안고 있는 日·北간 대화는 재개될 상황이 아닌 듯 하다.'
 - '일본은 韓·美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납치문제 해결이 등한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⑦ '김정일 사망발표 직후 日 외무성 간부 극비리 중국 방문'
(3.4 / 산케이신문)
 - '韓·美·日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 포기 약속 등 5대 선결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과 중국이 요구하는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야마구치」 외무성 부대신이 김정일 사망 후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났을 때 「우다웨이」는 수개월내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2012.3.9(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은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상 주도권을 갖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고 있으며 美·中간 기싸움도 격화될 전망이다.'

⑧ '핵 전면 포기로 가는 첫걸음' (3.6 / 공명신문 1면, 공명당 신문)

-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일본도 북한의 대응을 신중히 파악하면서 미국, 한국과 협력해 합의사항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뒤 6자회담 재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이를 납치문제 진전으로 연결시켜주길 바란다.'

⑨ '美·北합의 국제 공조로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3.2 / 교토신문 사설)

- '6자회담 재개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일본 정부는 관계국과 협조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한다.'

美 의회조사국(CRS) 분석보고서

'12.2.29일 美 의회조사국(CRS)에서 '북한 핵무기의 기술적 과제들'이라는 題下의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는바, 원문자료를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개 요

- 이 보고서는 무기급 핵분열 물질 및 미사일 탄두 추정치 등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정보에서 얻을 것을 요약하고, 현재 비핵화 정도를 평가한 것임.
-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탄두의 정교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범위와 성공 정도, 핵확산 활동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찾을 수 없었음.
- 북한은 30~50kg의 분리된 플라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임.
- 과거 10년간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은 플라토늄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이르렀음.
- 북한은 2009년 UEP을 공개하며 이는 원자력 연료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2010.11월 북한은 방북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영변지역에서 건설 초기 단계의 100MW급 경수로와 새롭게 건설된 기체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 공장을 보여줬음.
-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공장은 가동되고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에 다른 은밀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
- 2012.2월 美·北대화 합의에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감시하에 영변 우라늄농축 중지를 비롯해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등을 약속함.

□ 최근 전개된 사건들

- 북한의 6자회담內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향한 노력은 2009년 봄 이후 지연되었고, 2009.5월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강화시킴.
- 미국과 북한은 2012.2.23~24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마치고 2.29일 합의내용을 동시 발표했고, 이는 2011년 여름 이후 여러 차례 열린 양자회담의 결과임.
- 북한은 2012.2.29일 발표한 합의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핵실험 유예,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유예,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약속
- 미국은 일단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에 합의하고 북한의 식량 수요를 토대로 추가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며, 양국이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
- 美 국무부는 1953년의 휴전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책무 등 광범위한 안보 문제도 강조
- 북한은 성명 발표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와 경수로 제공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북제재와 경수로 제공 관련 양국간 의견충돌이 지속될 전망
- 미국 당국자들은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정 전에는 대북제재 해제를 지지하지 않았고, 2005년 6자회담 합의 당시에도 단지 경수로에 관한 논의만을 지지
- 그러나 북한이 △IAEA 사찰단 복귀를 위한 협상에 나설지, △IAEA 사찰단의 북한 내 활동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북한이 지원식량의 분배 감시와 관련한 미국의 조건에 동의할지, △영양지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미사일과 핵 실험 유예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함.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일부 美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탄두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대부분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기화 활동과 은밀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통해 무기급 물질 생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배경

- 1980년대초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확산을 추적했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1950년대말 영변 인근 핵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소련과의 협정으로 시작
- 북한의 첫 실험용 원자로는 1967년 가동되기 시작했고, 영변 소규모 핵 원자로(5MWe급) 건설에 고유 전문기술과 외자조달을 사용했으며, 이는 연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1986년부터 가동
- 1986년말 미국의 인공위성은 고성능 폭약 실험과 원자로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새로운 공장을 발견
- 대규모 원자로 2개(영변 50MWe급, 태천 200MWe급)의 건설은 심각하고 은밀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북한은 소련의 압력으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안전보장조치 사찰은 1992년 북한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시작됨.
- 북한은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핵 합의하에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예하고 다양한 원조를 받는 대가로 이를 해체할 것을 약속
- 당시 서방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1~2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분리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
- 북한은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 재처리 동결 등에 대한 IAEA 사찰과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원격 감시를 허용
- 미국 협상가들은 2002년 북한 당국자들이 은밀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소개했으며, 북한은 이를 처음으로 확인한 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양국간 충돌로 제네바 핵 합의가 빠르게 결렬됐고,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중대한 의무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의 합의 후 중유 공급을 중단
- 이에 북한은 국제적인 사찰단을 축출하고 영변 핵시설 동결 8년만에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
- 6자회담 국가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2003.8월 회담을 시작했고, 이들 국가는 2005.9월 향후 합의의 기반이 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협상은 결렬됐고, 북한은 2006.10월 핵폭발 장치를 실험 실시
- 북한은 2007.2.13일 6자회담 국가들과 비핵화에 대한 2005.9월 공동성명의 초기 이행 조치(60일)를 취하기로 합의
 - 첫 단계에는 중유 제공에 대한 대가로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포함
 - 두 번째 단계는 중유와 이에 상당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 핵활동에 대한 정확한 공표, 적성국교역법(TWEA) 및 테러지원국(SST) 지정 삭제 등을 포함
- 미국은 2009.4월까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자금과 기술지원을 제공했으며, 에너지 원조는 합의의 두 번째 단계에서 6자회담국간 동등하게 부담
- 북한은 2007.10.3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에 합의한대로 2008.6월 과거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신고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검증 조항에 동의한 후 TWEA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의회에 SST 지정 해제 의도를 알림.
- 그러나, 북한은 초기 미국 검증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2008.9월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로 위협 실시
- 미국은 2008.10월 검증에 대한 양자 합의를 발표했으며, 부시 행정부는 SST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킴.
- 양국간 합의는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과거 플루토늄 생산을 검증하는데 핵심요소인 핵시설 지역의 표본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6자회담 국가들은 2008.12월 만났지만 검증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영변 불능화 활동은 2009.4월 북한이 국제 사찰단을 추방할 때까지 지속됨.
- 북한은 당시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하고 우라늄농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곧이어 핵무기를 실험함.
- 2007.2월 비핵화 실천 계획은 우라늄농축 관련 활동이나 미사일 탄두 해체 대신 영변의 주요 플루토늄 생산 시설 가동 중단 및 불능화에 초점을 맞췄음.
- 북한 핵시설 불능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추진될 세 번째 단계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다룰 것으로 기대했음.
- 그 이유는 핵프로그램과 무기 능력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했음.

□ 무기 생산의 종대 시점

- '플루토늄-239' 또는 '고농축우라늄(HEU)' 등의 핵분열 물질을 획득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의 최대 난관이며, 이 두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전적인 과제이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무기화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함.
- 북한은 산업 수준의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제조·정제·개조 공장, 연료 가공 공장, 핵원자로, 재처리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는 '플루토늄-239' 생산에 모두 필요한 것임.
- 북한은 핵원자로에서 마그네슘 합금 피복으로 덮힌 천연 우라늄 금속 (우라늄-238 99% 이상)인 산화마그네슘으로 피폭된 우라늄 연료를 사용
- 약 8,000개의 연료봉이 핵원자로의 연료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원자로에서 방사능 처리된 천연 우라늄 연료는 중성자를 흡수하고 '플루토늄-239'로 부식됨.
- 장기간 동안 원자로에 남은 연료는 핵무기의 기능에 독약과 같은 동위원소 '플루토늄-240'에 의해 오염됨.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방사능위험에 노출된 이미 사용되거나 방사능 처리된 연료는 원자로에서 제거된 후 냉각과정을 거쳐야 하며, 냉각과정은 5개월 정도 걸리고, 연료 연소에 비례함.
- 다음 단계로 폐기물과 우라늄으로부터 분리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야 하고, 북한은 미국처럼 전통적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식인 '퓨렉스(PUREX)' 공법을 사용하고 있음.
- 연료 피복을 뜯은 후 연료는 질산에 용해되며, 플루토늄·우라늄·폐기물 등 연료의 구성성분은 유기용제를 사용한 다른 줄기와 분리됨.
- 양이 적을 경우에는 분리가 고방사성 물질 처리용 차폐 구획에서 이뤄지지만, 양이 많을 경우는 방사선에 치명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커다란 차폐가 필요함.
-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숙달한 것으로 보이며, 핵원자로 가동은 사용후 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한은 무기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자는 2004.1월 미국 비공식 대표단에게 플루토늄 생산 활동에서 나온 합금 조각을 보여줬고, 미국 대표단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보여준 물질의 밀도가 ‘갈륨’ 또는 ‘알루미늄’으로 합금된 플루토늄과 일치한다”고 분석함.
- 그렇다면 이는 북한의 플루토늄 금속 처리가 무기 생산에 필요한 세련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해커 박사는 “이 물질에 대한 실험없이 플루토늄인지, 합금인지, 언제 생산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

□ 핵 미사일 탄두와 플루토늄 보유량 추정치

- 2002년 콜린 파월 前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몇 개를 수년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북한은 2005.2월 “자기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이 다수의 핵폭탄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핵폭탄을 제조할 것”이라고 밝힘.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IAEA 기준으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8Kg, HEU 25kg에 비례해서 북한이 이러한 물질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달렸음.
- 각 무기에 사용된 핵분열 물질의 양은 디자인의 정밀함에 의해 결정되며, 북한 핵무기 디자인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공식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음.
-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추정치는 30~50kg으로, 이중 5~6kg은 2006.10월 핵실험에 사용됐으며 2009.5월 두 번째 핵실험에도 추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무기당 6kg이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5~8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임.
- 핵실험을 고려할 때, 북한은 4~7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 2007년 美 의회에 제출된 정보기관 보고서는 “북한은 핵실험前 핵무기 6개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 50kg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플루토늄이 영변 원자로의 연료에 있다”라고 제시함.
- 북한은 2009년 여름 이 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주장했으며, 문제는 IAEA 사찰단이 추방되고 영변 핵시설 동결이 파기된 2003년과 국제적 감시가 재개된 2007년 사이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여부임.
- 美 국방부가 2006.12월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이 지난 3년간 핵폭탄 5개를 제조할 수 있는 3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추정함.
- 美 국방부의 국방백서는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은 총 50kg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 6자회담에서 북한이 신고한 분리된 플루토늄은 37kg으로, 한국과 미국이 추정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당시 감시를 통한 플루토늄 보유량을 검증하는데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 2009.1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 학자는 “북한 사람들이 30.8kg의 플루토늄이 무기화됐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분리된 플루토늄이 미사일 탄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북한 당국자들은 이 학자에게 “핵탄두가 감시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 플루토늄 생산

-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추정치는 △원자로 평균 출력 수준, △가동 일수, △재처리된 연료량과 속도, △생산과정에서 플루토늄 손실량 등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에 결정됨.
- 북한 당국자들은 1975년초 高방사성물질 처리용 차폐구역에 분리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1990년 재처리 공장을 실험함.
- 북한 영변의 5MWe급 핵원자로는 1986~1994년 가동됐고, 북한은 1994년 이전 플루토늄 10kg 이상을 생산하고 분리한 것을 추정됨.
-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은 1994~2003년 제네바 핵 합의하에 동결됐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함.
- 2003.2.6일 북한 당국자는 5MWe급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그 해 3월 상업위성 사진이 이를 입증해줬음.
- 2004.1월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 비공식 대표단에게 원자로가 100%의 정격 출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방문자들은 원자로 통제실과 냉각타워의 스팀 기둥이 가동을 통해 원자로 가동을 확인했으나, 전년에 얼마나 가동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미국 대표단은 “1992년 IAEA가 사찰한 재처리 공장은 매우 원시적이었던 것과 달리 재처리 시설의 상태가 좋아보였다”고 보고함.
- 2004.1월 북한 당국자들은 “재처리 공장은 매년 사용후 연료의 110t을 처리하고 있으며, 2003.1~6월 5MWe급 원자로로부터 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다”고 주장
- 당시 연료봉 8,000개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4~6개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 25~30kg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은 알려지지 않았음.
- 2004년 북한 당국자들은 “재처리 캠페인(6시간 4교대제)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힘.
- 2005.4월 5MWe급 원자로가 폐쇄되고 북한은 연료봉을 거둬들였으며, 2005.6월 원자로 가동을 재개함.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의 한 전문가는 2005.4월 원자로에서 10~1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북한은 2006년 중반까지 모든 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추측
- 2005.8월~2006년 원자로는 6kg의 플라토늄을 추가 생산하였고, 북한은 또다른 핵무기 3개 제조에 충분한 분리된 플루토늄을 재처리함.(연료봉 8,000개 재처리로 4~6개 폭탄급 무기가 만들어짐.)
- 2007.7월 IAEA가 방지 및 감시 수단, 방사선 모니터 장치를 설치하자 5MWe급 원자로는 다시 폐쇄되었고, 원자로의 냉각타워는 2008.6월 붕괴됐으며 다시 재건되지 않았음.
- IAEA는 2009.4월 모니터 장치 제거를 요청받고 추방당함.
- 2009.11월초, 북한의 통신사는 폐연료봉 8,000개가 모두 8월말 재처리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고, 당시 재처리를 통해 분리된 플루토늄 7~8kg 또는 핵탄두 1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재처리 시설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가 IAEA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리된 플루토늄으로 추가적인 탄두를 제작함.
- 2002년 이후 영변의 50MWe급과 대천의 200MWe급 원자로는 건설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건설이 중단됐을 당시 완공되려면 수년은 더 걸릴 상태였고, 영변 50MWe급 원자로 시설은 현재 해체됐음.
- 미 중앙정보국(CIA)은 두 원자로가 가동될 경우 연 275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것이라고 추정했음.
- 「해커」 박사는 “50MWe급 원자로가 가동된다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10배 커질 것이다”라고 주장
- 북한은 6자회담에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IAEA는 2007.6월부터 사찰단이 추방된 2009.4월까지 핵시설에서 추가적인 건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신함.
- 거대한 두 원자로가 완공되고 가동될 경우에만 북한의 플루토늄 기반 무기가 크게 발달할 것이며, 이는 보고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과정에 달려있음.
- 2010.12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을 비공식 방문했고, 언론과 리처드슨 주지사의 웹사이트는 북한이 영변에 비축된 새 연료봉 12,000개를 한국 등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협상을 원했다고 전함.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 연료봉은 50MWe급 원자로용으로 제조됐으며, 북한이 재개를 선택 할 경우 5MWe급 원자로에 사용되기 위해 다시 덮여졌을 것임.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 신시설 공개

- 2010.11월 북한 당국자들은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해커」 박사가 이끄는 비공식 美대표단에게 영변 핵시설에서 가동 가스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
- 방문 보고서에서 「해커」 박사는 연간 8,000kg SWU 규모 농축 역량의 원심분리기 2,000개(P-2형 원심분리기일 가능성이 큼)가 캐스케이드 6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
-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동력용 원자로 연료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 되었다고 주장
- 북한에는 가동중인 원자력 동력용 원자로가 없지만 열출력 100MW급 (25~30MW급) 시험용 경수로를 건설 중에 있다고 한 바 있고, 위성 이미지와 시설 방문객들이 건설 초기단계를 입증하고 있음.
- 알려진 농축 시설 규모는 3.5%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필요로 하는 100MWT급 경수로의 연간 필요 연료량과 맞아 떨어짐.
- 그러나 연간 90% 고농축 우라늄 40kg를 생산하도록 시설이 개조될 수 있고, 저농축 우라늄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
- 그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대표들은 2010년 12월 비공식적으로 평양 방문중인 뉴멕시코 주지사 Bill Richardson에게 “영변 농축 시설 감시를 위해 IAEA 사찰단을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이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검증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측됨.
- 2009.4월 북한은 6자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서 핵불능화 작업을 감시하던 모든 미국 및 IAEA 사찰단을 추방
- 사찰단의 영변 복귀는 북한과 IAEA간 합의사항이며, 현재까지 북한이 IAEA를 직접 초청했다는 보고는 없음.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절차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변시설에 사찰단을 보내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국가들은 신시설의 투명성 조치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 Hecker박사 방북전에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졌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시설의 규모와 수준에 놀라워했음.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플루토늄 기반이었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지난 10년간 입수되었음.
- 2010.11월 북한이 시설공개 하기 전에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위한 부품과 계획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진행 단계는 불확실했음.
- 특히, 핵시설 공개는 북한의 자체 부품 생산 능력과 어떻게, 언제 시설을 위한 장비나 부품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과거 A.Q.Khan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과의 협력과 중국을 통한 환적(換積)에 무게를 실고 있음.
- 영변 시설의 규모에 미루어볼 때 북한 타지역에 연구수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또다른 우려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HEU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시설의 존재 가능성임.
- 2010.12월 IAEA 주재 미국대사 「Glyn Davies」, "IAEA 이사회에 미국은 영변 외 지역에 다른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보고했음.
- 북한이 어디에서 원심분리기를 개발 또는 제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은 2006.9월 출간된 회고록 'In the Line of Fire'에서 "Abdul Qadeer Khan 박사가 24개 가량의 P-1, P-2 원심분리기를 북한에 넘겼으며 유량계, 원심분리기용 특수 기름, 극비 원심분리기 시설 방문을 포함한 원심분리기 기술 전수를 제공했다"고 밝힘.
- 그러나 미국은 Khan에게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관 150톤을 수입했다고 주장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의 과거 성명 발표

- 2009.5월까지 북한은 무기생산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했었음.
- 2009.4월 북한은 UN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실험을 규탄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경수로를 건설하겠다고 협박함.
-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6.12일자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며,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성명을 발표함.
- 6월 성명에서 북한은 최소한 연료를 위한 시험단계의 우라늄 농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임.
- 북한은 2009.9월 추가적으로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으나, 기술적으로 “마무리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했음.
- 2010.11월 미국 과학자들에게 영변 시설을 공개한 후, 북한은 성명을 통해 “현재 북한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수천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인 우라늄 농축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발표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관련 미국 정보 평가

- 2002년 CIA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01년에 북한은 원심분리기 관련 재료를 대량 물색하기 시작했음.
- 또한 우라늄 공급-제거 장치(feed and withdrawal systems)에 적합한 장비들을 확보했음.
- 북한의 목표는 완전가동시 연간 2개 이상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보임.
- 2002년 북한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CIA 평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완전가동시 연간 2개 이상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5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정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러한 시설은 연간 50kg 이상의 HEU를 생산해야 하기 위해 수천개의 원심 분리가 필요할 것이며, 2002년 추정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美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자, 6자회담 前대표였던 Joseph DeTrani는 2007.2.2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정보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이며 HEU 프로그램이 현재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중간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변
- Joseph DeTrani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있는 정보가 2002년에 있었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 확보를 위한 과거 노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는 적어도 중간 수준의 신빙성이 있다”고 밝힘.
- 2007.2월 Christopher Hill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일부 기술은 확보했지만, 고도의 생산 기술 수준을 확보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
- 2007.8월 美국가정보국(DN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우라늄 농축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여 왔는데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정보기관들은 최소한 중간 수준의 신뢰도로 이러한 과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축 우라늄 생산의 진전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 2008.2월 美의회 증언에서 국가정보국장 Michael McConnell는 “북한의 국제 조달 감소로 인해서 신뢰도 수준이 변화했을 수도 있다. 북한 내 활동보다 우라늄 농축 관련 수입이 정보기관에 의해 더 쉽게 파악될 수 있다”고 언급
- Michael McConnell, “우라늄 농축 시설은 플루토늄 시설보다 쉽게 항공 감시로부터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이 탐지를 하는 것조차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 프로그램의 진전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 Michael McConnell, “게다가 소규모 원심분리기 농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동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대규모 시설을 위한 조달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언급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Siegfried Hecker 박사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연구 개발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평가
- 2007년 북한은 무기를 목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수입 재료는 재래식 무기 또는 이중 용도 프로젝트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에 알루미늄관 샘플을 보냈음.
- 그러나 미국 과학자들이 샘플 증거로 제공된 알루미늄관을 분석한 결과, 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됐음.
-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일 가능성 외에도 북한이 알루미늄관을 제공받았을 때, 우라늄 흔적이 이미 묻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 2008년 미국측이 북한의 핵 신고의 일환으로 제출된 문서에서 고농축 우라늄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진전 정도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됐음.
- Hill 대사는 의회에서 “북한이 2008.6월 핵 신고서의 일부로 지금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작성한 서한을 포함시켰다”고 언급
- 2008.1.1~12.31일까지의 기간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721 섹션에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의 일부를 중지하고 불능화했지만, 적어도 과거에 우라늄 농축 역량 확보를 추구했다고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 일부 정보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 우라늄 농축과 핵 협상

- 우라늄 농축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한 2002년 10월부터 비핵화 협상에서 핵심 사안이 되었음.
- 美 특사 James Kelly는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 1부상에게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와 기타 합의에 위반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함.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Kelly 특사는 “그 자리에서 강석주가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차후에 강석주는 이를 부정했고 백남순 외무상은 “강석주가 Kelly에게 북한은 미국의 선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나 더 강력한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
- 2010.11월 소규모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후, 교섭단은 북한이 발전소 연료 생산을 위한 평화로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비핵화 절차의 일환으로 다른 시설들의 폐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음.
- 미국 공식 성명은 북한의 새 농축 시설과 관련 제안에 큰 무게를 실지 않으면서 놀랄 일이 아니며 회담 복귀에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밝힘.
- 일례로, 국무부 대변인 P. J. Crowley는 2010.12월말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발언
- 연료 판매 또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국제 사찰단 초청 제안도 미국과 한국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
- 韓·美 정부 관료들은 협상이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외교적 “덫”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원함.
-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연료를 제거하면 5MWe급 원자로가 재가동됐을 때(재가동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음)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료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새로 지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 국제 사찰단이 방문하면 접근 허용 범위에 따라 북한 농축 프로그램의 기술적 역량 수준과 종류를 알 수 있을 것임.
- 2012.2.29일 국무부 대변인 Victoria Nuland는 “북한이 영변 시설의 농축 활동 유예와 IAEA 사찰단의 복귀에 합의했다”고 발표

□ 2006.10.9 핵실험

- 美 국가정보국장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으나, 폭발력은 1킬로톤(KT)에 미달한 것으로 볼 때 무기 설계나 제조공정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실험 전에 북한이 중국에 폭발력이 4킬로톤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진파 자료에 의하면 1킬로톤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
- 방사능 물질 잔해는 폭발이 핵실험이었고, 플루토늄 폭탄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며, 탄두 설계는 내파형 무기였다는 의견이 우세함.
- 저명한 미국 핵과학자는 북한이 실험을 위해 플루토늄 6kg 가량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언제 실험에 사용된 플루토늄이 생산됐는지, 그리고 사용된 양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
- 낮은 폭발력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낮은 폭발력이 의도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음. 노동 중거리 미사일을 위한 정교한 장치였을 수도 있는 것이며, 다른 가능성으로 시험장에서 방사능 유출을 막거나 플루토늄 사용량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음.
- Clapper 국가정보국장은 2012년 의회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2006년 실험은 부분적 실패였다”고 언급

□ 2009.5.25 핵실험

- 2009.5.25일 북한은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시험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고 보도
- 이것은 2006년 실험의 낮은 폭발력과 관련된 설계 문제를 말하는 것일 수 있으며, 북한은 2009.4.29일 공식 성명에서 “자위적 조치로 핵 실험을 단행하겠다.”고 협박했었음.
- 美 지질조사국은 5.25일 지하 폭발을 리히터 규모 4.7로 등록했고, 美 국가정보국은 6.15일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2009.5.25일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성명 발표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폭발력은 수 킬로톤이라고 초반에 추정되었으며, 2012.2월 의회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Clapper 국가정보국장은 “2009.5월 북한이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핵실험의 폭발력이 대략 TNT 2킬로톤에 해당했으며, 2006년 핵실험에 비해 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의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우리의 평가에 힘을 실어 준다”고 발언
- 무기의 설계나 사용된 핵재료의 양에 대한 공개출처 정보는 없으며, 2006년과 다르게 국제 방사선 감시소에서 방사능 비활성 기체가 감지되지 않았고, 이러한 자료를 발표한 정부도 없었음.
- 북한이 시험장에서 이러한 기체와 입자의 방출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실험을 입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용된 무기의 종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음.

□ 운반 시스템

- 2005.4월 Lowell Jacoby 前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차후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평가를 철회했음.
- 美 의회에 제출된 DN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탑재했는지는 모른다”, “북한은 수백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노동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2006.7월 실험에 실패한 대포동 2호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 2008년 DNI는 “대포동 2호가 핵무기급 페이로드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지만 실험에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
- 2009.4월 실패한 위성 발사의 일부로 시행된 대포동 2호 발사는 과거에 실패한 발사보다 사정거리가 연장되긴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음.
- 파키스탄 과학자 A.Q.Khan이 리비아나 이란에 제공한 중국의 핵무기 설계도를 북한에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설계도가 HEU 기반 핵무기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탄도 궤도의 악조건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고 튼튼한 탄도 미사일 탄두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탄도 미사일 탄두의 소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북한의 소형 핵무기 실험 목적이었을 수도 있음.

□ 정책과 의도

- 美 당국자들은 위협 평가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전쟁 목적보다는 전쟁 억지와 국제적 위상, 그리고 외교적인 강압 수단이며,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제한된 상황에서만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美 국가정보국장은 2012.2월 “신뢰도는 낮지만, 북한 정권이 군사적 패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미군이나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
- 북한 관료들의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노력은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강조
- 또한 핵무기는 외교협상의 수단이 되고, 위협성 발언들은 위기나 협상의 전환 시점에 주로 등장함.
- 2008.1월 북한 언론은 미국측의 테러국 리스트에서 북한이 제외되지 않은데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미국의 핵전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전쟁 억지 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보도
- 2009.1월 북한의 성명도 핵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거나 핵 정책 수립에 있어서 북한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음.
- 2009.4.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핵 억제력을 포함한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동시에 북한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2010년 신년 공동사설과 같이 정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음.

중국 제11기 제5차 '전인대' 및 '정협' 회의 결과

'12.3.5~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兩會)에서 논의된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등을 종합 보고드립니다.

□ 개 요

- 기간 : 2012.3.5~3.14일
- 장소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 참가자 : 후진타오(주석), 원자바오(국무원 총리), 시진핑(부주석), 우방귀(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자칭린(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리창춘(중앙정치국위원회 상무위원), 리커창(국무원 부총리), 허궈창(중앙정치국위원회 상무위원/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저우융캉(중앙정치국위원회 상무위원/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등 중국 지도자들 및 지방별 직능별 전국 대표 3000여명
- 주요 의제
 - 2011년 정부사업 결산 및 2012년 정부사업 계획 보고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 심의
 - 연도계획보고, 예산보고 심사 및 비준,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원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 초안,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12기 전국인대대표 선거 방법 초안 등 심의

□ 주요 진행사항

- 3.5일 「우방귀」(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양회(兩會)³⁾ 개막 선언
- 3.5일 개막식에서 「원자바오」총리 연례 국정보고 주요 내용

3) 양회(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월 3월초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두 회의를 통칭한 용어이며, '정협'에서 건의한 내용을 '전인대'에서 심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2012.3.1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 7.5% 성장, △일자리 9,000만개 창출, △실업률 4.6% 이내로 억제 △주민소비 가격 상승폭 4% 이내로 억제 등 국정보고

* 「원자바오」 총리는 국정보고를 통해 '개혁'이라는 용어를 70여 차례나 언급하면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 양회(兩會)간 주요 논의 / 협의사항

- 美·中관계 :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마찰과 문제점들은 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
- 시리아 문제 : 중국의 입장은 국제사회와 다르지만 시리아 문제 해결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의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할 것
- 기타 분야 : △양안(兩岸 : 중국과 대만) 교류, △정치체제 개혁, △부동산 가격 문제, △홍콩·관련사항, △민생 문제, △경제성장, △공평 정의, △티베트 문제, △지방채무, △빈부차이 문제, △왕리쥘(王立軍) 총칭시 부시장의 미국 망명 기도 사건 / 처리 관련사항

* 회의가 진행되는 안팎으로 대표위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보건위생, △문화, △수익분배, △세금, △정부, △사회보장, △사회관리, △三農문제, △의료개혁, △부패척결, △물가안정, △부동산가격 억제, △식품안전 등을 둘러싼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 진행

□ 「양회(兩會)」間 북한 관련사항 논의 / 언급사항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일명 '정협') 제11기 5차 회의 안건 제0314호 제의
 - 훈춘市에 「중·러·북 국제관광 협력지구 건설」 제의
 - 중국 훈춘시와 북한, 러시아와의 관광협력은 지역적 접근성, 문화적 유사성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개혁개방의 성공 선례가 될 것임.
 - 중국의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의 나선을 잇는 국제 관광 협력지구 건설은 국가 이익 및 이웃국과의 협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2012.3.1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투먼강 지역은 특수한 역사성을 띠며 정치적 특성도 많은 곳으로 이곳에 관광협력지구를 건설하게 된다면 외교적 신뢰도 상승 효과 예상되고, 보아스 포럼 / 中·北회담 / 6자회담 등 국제회의의 개최도 가능

○ 3.6일 「장안순」(연변주 공산당위원회 서기) 길림성 대표단 기자회견

- 훈춘市에 「중국 투먼강 지역 국제관광 협력 시범지구」 건설 구상, 현재 시범지구는 입안 및 심의 단계임.

○ 3.6일 양회(兩會) 기간중 「양지에츠」 외교부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

- 2012년 중국 외교업무의 중점은 국가안보와 권익보호에 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협치·담판으로 지역 및 국제문제를 해결할 것임.
- △한반도 평화안정, 비핵화, △관련국들의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정 시스템 구축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임.
- 현재 6자회담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며, 최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각 국과의 접촉 및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계속해서 관련국들의 대화 추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요한 성과도 거두었음.
- 중국은 최근 美·北회담의 성공적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와같은 각 측의 대화를 환영함.
- 각 측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 △6자회담 추진,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의 영구 안정과 번영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있음.
-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에 중국 지도자들도 참석해 핵테러 예방을 위한 논의할 예정임.
- 각 국의 노력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마련되리라 믿고 있음.

2012.3.1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3.9일 「국경지대의 날(邊境節)」 설립을 잇따라 제의
 - 전인대 상임위원회 위원, 정협 상임위원 등이 중국인들의 국경지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국경지대의 날」 설립 제의
 - * 「거지앤송」(복단대학 교수), '특히 길림성 연변자치구의 경우에 지리적 위치, 한반도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외부세력 침입 및 국제범죄가 발생하는 민감한 지역으로 방위력이 취약하다.'고 환구시보(언론지)에 논평
 - * 「튀차오」(요녕사회과학원 변경연구소 소장), '국경지대의 날을 통해 러시아, 북한 등 주변 이웃국들과 선린우호 관계 구축 가능하다'고 환구시보에 논평
- 전인대 5차회의 참석한 흑룡강省 대표 인터뷰(3.10, 내몽고일보)
 - 흑룡강·길림·요녕·내몽고와 러시아·몽고·북한의 접경지역 개발 추진해 동북아를 잇는 거대 물류 시스템 건설 가능

□ 「양회(兩會)」 관련 총평

- 금번 '전인대' 및 '정협'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조절, 민생보장 및 개선, 개혁개방 심화, 경제 성장, 사회보장, 사회주의 문화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안건 논의, 당·정 제안 정책 등에 대한 표결 확정 등이 실시됨.
 - * '전인대'에서는 6개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정협'에서는 6,069개의 안건 중 126건이 통과되어 유관 부문에서 연구할 예정임.
- 제11기 5차 '전인대' 및 '정협'에서는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3.14, 인민일보)
- 올해는 정치세력의 권력 이양이 있는 중요한 한 해로 안정 속에서 성장해나가며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써나가야 함.(3.14, 인민일보 사설)
- 中·北 및 韓·中 관계 / 탈북자 문제 /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사안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한반도 관련사항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문제로 일부 논의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며, 세부적인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상 공개되지 않았음.

북한 지역내 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 해외 공개정보

최근 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자동차 관광, 금강산 관광, 태양절 행사 관광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외 공개정보를 종합 보고드립니다.

□ 중국

① 북한 관광 관련 중국측 정책

○ 북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

- 중국은 북한의 해외 관광객중 최대 인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해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현재 중국 전역에서 자율적으로 북한 관광 신청 가능
 - * 중국은 1988년부터 북한 관광을 개시하여 매년 2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내 도박 열풍이 불자 2006.2월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2008년 양국간 협의를 거쳐 2009년부터 요녕성-길림성 등 변경에서 제한적 허용을 시켰다가, 2010.2월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2010.4.12부터 관광 전면 허용 (출처: '10.4.11, '10.4.13 조선일보)
- 中·北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2011.4월 북한을 단체관광 국가로 허용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여유국은 2010.3월 발표한 '동북지구 관광업 발전계획'을 통해 '길림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혜산' 관광노선과 '연지(延吉)~훈춘~광찬(防川)~라선~청진' 관광노선 개발 예정(출처: '11.4.13 조선일보)
- 북한의 관광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통제가 심하다는 이유로 한 때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으나, 최근 북한측이 관광루트와 상품을 다변화한 이후 북한 관광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음.(출처: '11.10.4, '11.11.4 / 조선일보)
- 중국인 관광객, '만경봉호'를 활용한 북한 금강산 관광 증가
 - * 라선-금강산특구 관광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위원회, 라선특별시인민위원회, 조선대풍 국제투자그룹'의 주관으로 실시(출처: '11.10.3 / 조선일보)
 - * 2011.8월부터 '훈춘~라진항~금강산 코스'로 개통 2개월만에 4차례에 걸쳐 중국인 400여명이 관광 실시했고, 관광객의 대부분은 연변 거주 조선족임.(출처: '11.10.4, '11.11.4 / 조선일보)
 - * 요금은 3,300~3,800위안(58만~66만원)으로 중국내 관광비용보다 다소 비싼 편임.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 지방정부 / 주변국과 연계한 북한 관광 활성화 추진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북한 변경관광을 취급하는 관내 30여개 여행사 관리감독 강화 및 변경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출처: '10.4.28 / 연합뉴스)
- 중국 요녕성 단둥市 국제관광산업 발전(출처: 3.7 / 요녕성 정부 홈페이지)
 - * 2011년, 단둥에서 출발해 북한을 여행한 관광객은 4만5천여 명으로 50%이상 증가, 1박 여행자 수가 3만명 이상으로 북한여행 개방 이후 성장이 가장 빠른 한 해임.
 - * 단둥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200km 거리로 관광객들은 兩國의 색다른 자연과 주민생활을 볼 수 있음.
 - * 21일 미국·영국·오스트리아 관광객, 단둥을 거쳐 북한 여행 실시함. 최근 歐美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고, 주로 평양과 금강산 여행 실시.
- 길림성, 중·러·북 잇는 국제 관광 규모 확대(출처: 3.14 / 신문화망)
 - * 3.11, 「왕루린」 길림성 성장, △중·러·북 국제여행, △항공편 증설, △개인 자동차 여행 개방 등 2012년 관광 분야 중점 발전 계획 밝힘.
- 2011.4월 '중국 길림성 창춘(長春)~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북한 라선'을 잇는 3國 무비자 관광 허용
 - * 북한에 대한 '3국 무비자 관광'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를 함께 관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시 6개월만에 27개 관광단 460여명이 다녀옴.(출처: '11.11.4 / 조선일보)
- 2011.7월 고려항공 '중국 상하이~평양' 직항노선 개통(출처: '11.8.5 / 경향신문)
 - * 본 노선을 통해 '평양~개성~금강산' 4박5일 코스와 '평양~개성~묘향산' 3박4일 관광 상품 등장.(출처: '11.11.4 / 조선일보)
 - * 북한 고려항공은 베이징과 선양(瀋陽) 등 2개 도시에서 정기노선을 운항, 이 외에도 북한 관광을 위해 '중국 항저우(杭州)~평양', '중국 칭다오(靑島)~평양', '중국 하얼빈~평양' 구간에 필요시 특별전세기 운항중이며, 향후 '창춘, 우한, 내몽골 후허하오터, 광저우, 충칭' 등 중국내 16개 거점도시로 확대할 예정임.(출처: '09.7.16, '11.10.3 / 조선일보)
- 2011년 '중국 길림성 창춘~훈춘~북한 라선' 관광코스, '중국 훈춘~북한 온성~칠보산' 관광코스에 대한 자동차 관광 추진(출처: '11.8.5 / 경향신문)
- 2011년 '훈춘~온성'間 1일 관광을 20년만에 재개하고, 종전의 '중국 화룽~북한 삼지연'間 관광코스를 혜산과 평양까지 연장 합의(출처: '11.11.4 / 조선일보)
- 2012.4월부터는 철도 이용 '베이징~평양~금강산' 관광 개시 예정(출처: '11.10.3 / 조선일보)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 기존 중국의 북한 관광 노선은 '연변~신하(三合)~청진~칠보산' 관광코스와 '백두산~삼지연~평양' 관광코스 등이 운행되고 있음
- * 현재 북한 관광 전용 열차로 2010.4월부터 '중국 절강성 항저우(杭州)~하북성~요녕성 선양(瀋陽)~단둥(丹東)~북한 신의주' 구간을 운행 후 북한 열차로 갈아타고 평양 개선문, 김일성 생가, 판문점, 묘향산, 보현사 등을 관광하는 열차 운행. (출처: '10.3.10 / 조선일보)
 - ↳ 본 열차는 14량 규모의 침대칸으로 최대 800명 정원이며, 비용은 고급 침대칸이 5,280위안(87만원), 일반 침대칸은 4,680위안(77만원)임.
- * 최근 신설된 북한 관광 전용 열차는 '중국 길림성 투먼(圖們)~칠보산~청진 / 경성온천' 구간의 3박4일 관광코스인 '칠보산 관광열차'가 2011.10.8부터 개시되어 중국 단체 103명이 첫 관광 실시.(출처: '11.10.9 / 조선일보)
- 연변자치주, 철도 이용 '중국 훈춘~북한 라선~평양~판문점'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 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의 중(출처: '11.4.13 / 조선일보)
-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업가가 홍콩에서 임대한 호화유람선 '길미호'가 '12.4~10월까지 나선시~고성항까지 금강산 관광 운행(출처: '12.3.10 / 길림신문)
 - * '길미호'는 승객 600여명 탑승 가능하며, 선내에는 스위트룸과 카지노, 고급 식당, 시우나실, 나이트클럽 등이 있고, 금강산 관광은 3박 4일 코스로 비용은 3천원(50여만원)임.
 - * '길미호' 관광상품 판매는 북한 조선관광부와 금강산관광객 모집자격을 얻은 중국 길림성 강취여행사에서 주관

② 최근 '북한 관광' 관련 중국 언론보도

○ 중국 지방정부 중심 / 주변국과 연계한 북한 관광 활성화 추진

- 중국 길림성, 동북아 국제관광벨트 구축 및 남북한·중·러 연계 관광루트 개발 (출처: 2.8 / 차이나뉴스)
 - * '12.28일 「장웨이」 중국 길림성 여유국(관광부) 부국장, 2012년 '두만강 동북아 국제관광 벨트' 구축해 조선족 거주지 관광 등 南·北·中·러를 잇는 관광루트 조성 계획 발표
 - * 길림성 훈춘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나진·선봉을 지나는 여행 가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무르灣, 중앙광장,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지리한 군항, 골든 호른 [Golden Horn] 부동항, 나선 비파도 등 여행)
 - * 2011년 총 29개 여행단체에서 500여 명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잇는 관광 체험을 실시 했고, 2012년 증가 전망
 - * 2012년 자동차 북한 여행 증가 전망(최초로 자동차 개인여행 개방), 개인 차량으로 길림 훈춘에서 나선시까지 여행 가능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 2012년 중·러, 중·일, 한·중 관광 협력 강화로 동북아 국제관광벨트 구축 후 △남·북·중·러 陸海를 잇는 관광상품 개발, △호화 크루즈 여행, △남·북·중·러·일 5개국 여행
- 중국 요녕省 단동市 국제관광산업 발전(출처 : 3.7 / 요녕성 정부 홈페이지)
 - * 2011년, 단동에서 출발해 북한을 여행한 관광객은 4만5천여 명으로 50%이상 증가, 1박 여행자 수가 3만명 이상으로 북한여행 개방 이후 성장이 가장 빠른 한 해.
 - * 단동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200km 거리로 관광객들은 兩國의 색다른 자연과 주민생활을 볼 수 있음.
 - * 21일 미국·영국·오스트리아 관광객, 단동을 거쳐 북한 여행 실시함. 최근 歐美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고, 주로 평양과 금강산 여행 실시.
- 길림省, 중·러·북 잇는 국제 관광 규모 확대(출처 : 3.14 / 신문화망)
 - * 3.11, 「왕루린」 길림성 성장, △중·러·북 국제여행, △항공편 증설, △개인 자동차 여행 개방 등 2012년 관광 분야 중점 발전 계획 밝힘.

○ 북한 관광 홍보성 보도

- 북한 경제 안정, 관광분야 발전 눈에 띄어(출처 : 3.14 / 참고뉴스)
 - * 김정일 사망後 개방의 문을 닫지 않고 경제 안정 및 발전, 외자 유치에 힘썼고, 특히 작년 한 해는 관광분야 발전이 눈에 띈.
 - * 지난 두 달 동안은 관광 비수기였지만 평양을 찾는 관광객 증가, 주로 월요일 도착해 금요일 떠나는 일정으로 출장 및 사업차 방문한 것으로 보임.
 - * 「아리랑」 공연 기간에는 정기 항공편 외에 △평양 - 상해, △서안, △쿠알라룸푸르, △하얼빈 편 항공 개설
 - * 작년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0만 명으로 집계, 관광객 증가로 아리랑 공연 기간까지 연장

○ 북한 관광 관련보도

- 북한 자동차 여행 5월 재개 (출처 : 2.15 / 중국신문망)
 - * 지난해 추위와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되었던 북한 자동차 여행이 5.1일 노동절 휴가 때 재개 예정
 - * 현재 60대 차량이 예약완료되었으며, 5월에는 6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측의 수용능력이 가능하다면 더 확대할 예정임.
 - * 길림성 훈춘시 권하항에서 출발해 북한 나선지역에 도착하는 여행을 통해 북한의 나진항, 해양촌, 망해각 등을 둘러보고 어린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음.

- 자동차로 북한 나선 특구 여행 (출처 : 2.21 / 환구망)

- * 「나선 자유경제무역구」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제3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지역임.
- * 2011년 들어 중국인들이 북한의 투자 및 여행 목적으로 나선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재 자동차 여행이 개방됨에 따라 나선은 북한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음.

【참고사항】 북한 관광 수칙

- * △ 남한 여권 소지자의 여행신청 금지(남한 주민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은 여행신청 가능), △ 운전사, 안내원 등에 대한 팁 지급(운전기사에게는 감사 표시로 담배 선물, 관광 코스마다 안내원에게는 팁 제공, 조 중 우의탑과 민수대 김일성 주석 동상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1인당 20위안(3,300원)짜리 꽃 한 송이 이상을 구입 후 헌화) △ 아리랑 공연 필수 관람(입장료 900위안, 헌화 13만원) △ 달러 및 유로화, 위안화 환영(북한 화폐 사용 금지), △ 휴대폰, 망원렌즈 카메라 소지 금지

□ 러시아

① 북한 관광 관련 러시아측 정책

○ 북한측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 / 참여

- '중국은 러시아-중국-북한을 잇는 3國 관광루트 제안했다.'

(출처 : '11.12.13 / 아무르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 2011.12.13일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된 러·중 접경지역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측 관계자는 러시아 극동지역-중국-북한을 잇는 3國 관광루트를 제안함.

- '러시아 전역에서 북한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출처 : 2.13 /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 러시아 전역에서 김일성 100회 생일맞이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러시아어권 전역(우크라이나 등)에서 문의전화와 오고 있으며, 5~7개 그룹(작년에는 2~3개 그룹)의 방북이 예상되며 2월 말까지 신청 마감 후 4.9일을 시작으로 관광이 시작될 것임.

- * 과거 북한은 내부적으로 관광객을 경계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② 최근 '북한 관광' 관련 러시아 언론보도

○ 북한 관광 홍보성 보도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관광부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출처: '11.9.7 / 이타르타스 통신)
 - * 북한은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관광서비스 질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 이와 관련 관광인프라 현대화 및 서비스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 루트 조성 및 자전거·의료·산악관광 활성화 작업에 착수함.
- '북한은 관광을 재개하는 등 관광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처: 1.8 / 투르프롬 ⇨ 관광관련 인터넷신문)
 - * 북한은 '11.12월부터 국경을 단았었으나, '12.1.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을 재개. 김정일이 사망했지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공지사항은 없었음.
 - * 북한은 2011년부터 유람선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관광 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 '김정일 사망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관광객에게 국경 개방한다.'
(출처: 1.10 / 투르프롬 ⇨ 관광관련 인터넷신문)
 - * 2010년에는 서방 관광객 약 3,000명을 비롯하여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됨
 - * 북한은 매년 12월부터 1월동안 관광을 금지하며, 또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100일 동안 입국을 금지시킨 바 있음.
 - * 하지만 1.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더욱 흥미로운 장소 방문과 함께 관광 프로그램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는 발표를 보면 과거 체제를 따르지 않는 듯함.

○ 북한 관광 관련보도

- '김일성 생일 앞두고 북한 호텔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하다.'
(출처: 2.1 / 루스코르 ⇨ 인터넷 언론사)
 - * 4.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두고 북한호텔들이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 고려투어는 4.7~20일까지 호텔 방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음. 평양에는 약 9개의 호텔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북한은 해외 고위급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사항】 프로그타아에로 관광사 홈페이지 게재 북한관광 프로그램

- * 관광 일정 : 7박 8일
- * 관광 상품 : 「평양~묘향산~개성~남포~용강」 코스, 「평양~묘향산~원산~시종~개성」 코스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 관광 비용 : 42,000루블(한화 약 160만원 상당)~19,800루블(한화 약 74만원 상당)
 - 관광비용은 인원수에 따라 변동(1~10명 이상)
 - 항공료 별도 : 약 12,800루블(한화 약 48만원 상당)
 - 비자 : 10유로
- * 주요관광지 : 김일성·김정일 묘 참배, 만수대 기념비, 평양 지하철, 평양지수연구소, 주체 사상탑, 인민대학습당,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서해갑문, 조선영화촬영소, 묘향산, 용강온천,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만수대 예술극장, 학생소년궁전 및 공연관람, 판문점, 고려역사 박물관, 왕건왕릉(옵션 : 시중호 해수욕장)
- * 숙소 양각도 국제호텔, 향산호텔, 용강호텔, 송도원 여관

【참고사항】 아트크리티예 관광사 홈페이지 게재 북한관광 프로그램

- * 관광 일정 : 7박 8일 ~ 14박 15일
- * 관광 상품 : 「평양~묘향산~원산~금강산~개성」 코스,
「평양~묘향산~원산~금강산~백두산~남포~개성」 코스,
「평양~묘향산~원산~송도원~평양」 코스
- * 관광 비용 : 980유로 ~ 1890유로(2인 1실 추가 280유로 ~ 560유로)
 - 관광조건: 최소 2인 이상
 - 항공료 별도 : 블로디보스토크 기준 430유로
 - 비자 : 60유로(급행 100유로)
 - 공항이용료 : 약 11유로
- * 주요관광지 : 평양지수연구소, 주체사상탑,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서해갑문, 묘향산, 보현사, 학생소년궁전 및 공연관람, 판문점, 고려역사 박물관, 시중호, 조선영화촬영소, 용강 노동당 요양소, 만경대, 김일성 동상, 구월산, 서커스공연, 구룡폭포, 금수산 기념궁전, 용문대굴, 공민왕릉, 대성산 혁명열사릉, 조선미술박물관, 동명왕릉, 울림폭포, 대동강유람선, 천삼 농업협동농장,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금강산, 백두산(천지), DMZ
- * 숙소 양각도 국제호텔, 향산호텔, 용강호텔, 송도원 여관
- * 추가사항: 8월~10월 중순 아리랑공연 관람가능(좌석표 80달러부터)

* 북한 관광당국의 사전 특별허가 후 실시되는 관광 프로그램

관광 형태	진행 장소
등산 탐험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트레킹	백두산
태권도 수업	평양
골프 관광	평양
한국 전통춤 교습	평양
감탕(머드) 치료	시중호 요양소
한국어 교습	평양
한방 치료	평양
전통혼례	평양, 개성
에코(친환경) 관광: 자연서식지 동식물 관찰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사냥	청단군, 연산군
송도원 국제소년단 아영소 여름휴가	원산

□ 일본

① 북한 관광 관련 일본측 정책

- 일본 외무성에서는 2006년 10월 13일에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인에 대한 북한 관광은 중·소규모 관광회사들 위주로 소규모 관광객 / 조총련 계열 인원을 대상으로 방북 신청시 허용
- 현재, 일본에서는 '쓰리오세븐 인터내셔널 여행사(조총련계와 관계없음)'와 '츄가이 여행사(조총련계)'가 주로 북한관련 여행상품 취급.

* 올해의 경우 4.10~4.20까지 비자 발급 문제로 북한 여행이 마감된 상태임.(출처: 현지 여행사와 직접 통화 확인)

② 최근 '북한 관광' 관련 일본 언론보도

- 북한 관광 관련 객관적 사실 위주 보도

- '북한, 4월부터 금강산 크루즈 투어 시작' (출처: 3.14 / 테레비 아사히)

* 북한, 4월 14일부터 김일성 생일100주년 축하행사에 맞춰 금강산 크루즈 투어 시작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 길림성을 출발해 여객선을 타고 금강산을 관광하는 일정으로 3박 4일과 4박 5일 일정 있음(요금 : 4만에 가량)

* 2011년에 실시된 테스트 투어에는 만경봉호가 사용됐지만 선체의 노후화가 심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투어에는 홍콩의 여객선이 사용되며 정원이 오버됐을 경우에 만경봉호를 사용할 예정임.

- '4월부터 금강산 투어' (출처 : 3.14 / 산케이신문)

* 4월 14일부터 금강산 관광 시작. 관광시즌이 끝나는 10월까지 계속될 예정.'

- '북한, 금강산 해로 관광 4월부터 시작' (출처 : 3.9 / 길림신문, 조선족 사이트)

*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해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코스가 4월 14일부터 시작.

* 전국에서 4개社만 금강산 관광객 모집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연변천우국제무역 유한공사도 포함됨.

* 홍콩에서 빌린 호화 유람선을 타고 라선시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탑승시간도 2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됨.

* 유람선에는 약 600명이 탑승가능하며 선내에는 스위트룸, 카드 보드 게임실, 고급 식당, 사우나실, 나이트클럽 등의 호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약 20년간 북한 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 연변 조선족이 임대해줌.

* 중국 관광객은 육로로 훈춘권 하동상구를 통해 출국한 뒤 북한 원정리를 거쳐 라선시, 고성항에 도착. 당일 저녁에 유람선을 타서 다음날 오전 9시에 금강산 도착 예정.'

* 관광객은 금강산에서 1박한 뒤 비로봉, 만물상을 비롯해 해금강, 구룡연, 필담, 모란관 등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그날 저녁 유람선을 타고 라선시, 고성항을 회항한 뒤 훈춘시를 거쳐 귀국.

- '평양공항에 新 터미널 완성' (출처 : '11.6.28 / 산케이신문)

* 평양국제공항에 新 터미널이 완성돼 2011.6월부터 운용 시작.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인 2012년을 위한 수도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정됨.'

* 新 터미널은 단층이며 벽면은 흰색으로 되어있고 유리를 많이 사용해 태양광이 들어올 수 있는 설계로 되어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리운지는 없으며, 책을 파는 작은 가게만 있음.

- '中-北, 압록강 중류 벌등도 개발 구상' (출처 : '11.10.26 / 요미우리 신문)

* 북한과 중국이 벌등도(筏登島)를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자는 구상이 부상되고 있음.

* 북한 식당과 토산물 판매점 등을 지어 북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주력으로 내세워 유람선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임.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참고사항】 '쓰리오세븐 인터내셔널' 관광사 북한관광 특별 프로그램

[평양, 원산, 금강산 관광 상품(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4박 5일 / 매주 화, 금 베이징 출발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원산~금강산」 관광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38,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28,000 엔,
1명 참가일 경우 270,000엔+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민경대, 개선문, 시중호, 송도원, 주체사상탑, 평양지하철 승차 체험, 구룡폭포, 삼일포관광, 국제소년단야영소, 동방식공원, 올림폭포 등

[국제열차 여행 상품(단둥 / 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4박 5일 / 매주 일요일 출발
- * 관광 상품 : 「단둥~신의주~평양~용강온천~베이징」 관광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01,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28,000 엔,
1명 참가일 경우 234,000엔 +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민경대, 민수대기념비, 개선문, 주체사상탑, 평양지하철 승차체험, 서해갑문 관광, 용강온천, 판문점, 개성 고려박물관, 선죽교

[이씨왕조 발상지 여행(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5박 6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원산~함흥~부전~원산~평양~베이징」 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44,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35,000 엔,
1명 참가일 경우 283,000엔 +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송도원, 송림, 시중호, 동흥산 혁명사 유적지관광, 함경남도혁명사 유적지 박물관 혹은 혁명박물관, 함흥대극장 외부참관, 함흥신사(이조 초대 왕조의 집), 흥남비료공장, 부전고원, 부전혁명사 유적지(석천, 옥련산맥), 함주군 공동농장 참관, 교육기관 참관

[평양골프 여행(베이징 경유)] : 이번에 최초로 일본인 참가 허가

- * 관광 일정 : 5박 6일, 5월 21일, 9월 17일 / 베이징 출발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평양골프장~베이징」 관광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28,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28,000엔,
1명 참가일 경우 252,000엔 + 국제선 항공권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북한 여행(심양 경유)]

- * 관광 일정 : 3박 4일 / 매주 수, 토요일 출발
- * 관광 상품 : 「심양~평양~판문점~개성~평양~베이징」 관광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93,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21,000엔,
1명 참가일 경우 219,000엔 +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만경대, 개선문, 주체사상탑, 지하철, 판문점, 고려역사박물관, 선죽교

[스페셜 여행(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2박 3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베이징」 관광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76,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14,000엔,
1명 참가일 경우 192,000엔+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만경대, 개선문, 주체사상탑, 지하철

[평양, 개성, 묘향산 여행(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5박 6일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개성-묘향산」 관광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28,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28,000엔,
1명 참가일 경우 252,000엔 +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만경대, 개선문, 주체사상탑, 지하철, 판문점, 고려역사박물관, 선죽교, 묘향산

[세계유산등록 '고구려고분과 조선 여행'(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5박 6일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개성」 관광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28,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28,000엔,
1명 참가일 경우 252,000엔 +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고구려고분의 옛 도읍, 평양 성벽 및 건축물 관광, 모
린봉, 덕흥리고분, 강서삼묘, 단군릉, 고구려 신성대성산, 안희궁지, 대성산고
분군 관광, 민속박물관 참관, 동명왕릉 및 고분군관광, 고려역사박물관,
만월대, 공민왕릉, 왕권왕릉, 안악3호 고분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평양, 개성, 구월산, 용강온천(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5박 6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개성-시리원-구월산-남포-용강온천-평양-묘향산」 코스
- * 관광 비용 :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44,000엔 + 국제선 항공권, 1인실 요금 35,000엔,
1명 참가일 경우 283,000엔 + 국제선 항공권
- * 주요관광지 : 고려역사박물관, 선죽교, 판문점, 구월산, 월정사, 만경대, 개선문, 주체
사상탑, 평양지하철, 묘향산

[참고사항] '츄가이 여행사' 북한관광 특별 프로그램(요금 확인 불가)

[백두산 관광(심양 경유)]

- * 관광 일정 : 4박 5일
- * 관광 상품 : 「심양-평양-백두산-평양」 관광코스
- * 주요관광지 : 삼지연 대기념비, 백두산, 만경대, 만수대, 주체사상탑, 개선문, 지하철

[고구려 벽화 관람 투어(심양 경유)]

- * 관광 일정 : 3박4일 4박 5일
- * 관광 상품 : 「심양-평양-개성-평양」 코스
- * 주요관광지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평양성적(칠성문, 을밀대, 현무문), 덕흥리 벽화고분,
강서 삼묘(사신도), 단군릉, 고구려 산성대성산, 안학궁지, 대성산고분군 관
광, 민속박물관 참관, 동명왕릉, 고분군, 평양에서 서커스 관람

[국제열차로 가는 평양, 개성(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5박 6일
- * 관광 상품 : 「베이징-신의주-평양-개성」 코스
- * 주요관광지 : 만수대, 만경대, 주체사상탑, 개선문, 지하철, 묘향산 당일치기 관광, 국제
친선전 관람, 보현사, 고려박물관, 선죽교, 판문점, 서커스 관람

[평양, 개성 관광(심양 경유)]

- * 관광 일정 : 3박4일 4박 5일
- * 관광 상품 : 「심양-평양-백두산-평양」 코스
- * 주요관광지 : 만수대, 만경대, 주체사상탑, 개선문, 지하철, 묘향산 당일치기 관광, 판문점,
서커스 관람

[평양, 개성 관광(베이징 경유)]

- * 관광 일정 : 4박 5일/5박 6일
- * 관광 상품 : 「베이징-평양-묘향산-개성」 코스
- * 주요관광지 : 만수대, 만경대, 주체사상탑, 개선문, 지하철, 묘향산 당일 관광, 판문점, 서커스 관람

□ 영어권

① 북한 관광 관련 서방 국가측 정책

- 서방 세계에는 20개 남짓한 북한 전문 여행사가 있으며, 여행객들은 이러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 관광 실시(출처 : '11.5.7 / 조선일보)
 - * 대표적인 북한 전문 여행사로는 중국 베이징에 영국인이 설립한 '고려여행사'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 스웨덴의 '코리아콘솔트(Korea Konsult)' 등이 있음.
- 1987년 북한이 서방 관광객에 대한 문호 개방 이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에서는 북한 관광 신청시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 관광이 허용되고 있음.
- 서방 세계에서 북한 관광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호전적이며, 비밀스러운 국가'라는 이미지와 '멈춰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호기심으로 인한 관광이 대부분임.
 - * 2011년 영국여행사 폴리티컬 투어스(Political Tours)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나라로 여행을 갑시다. '11.10.15~24까지 2,350파운드(400만원), 항공료는 별도'라는 북한 관광 상품 판매(출처 : '11.7.17 / 조선일보)

② 최근 '북한 관광' 관련 서방국가 언론보도

○ 북한 관광 관련 냉소적·비판적 보도

- 외자유치 부진 北, 관광으로 '푼돈' 눈독 (출처 : 3.9 / 美 RFA)
 - * 「존 박」(美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 관광은 싸기 때문에 중국 서민층에 아주 매력적이며, 미개발 자연경관이 북한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평가
 - * 하지만 여전히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자가 여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외화 획득에 그리 큰 기여는 하지 못하는 상태임.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 여행객이 북한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수익이 늘 수 있어 북한에 더 좋은 여행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하지만,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그리 많지 않음.

- 세계 최고 은둔국의 새로운 여행 소개 (출처 : 3.4 / 美 USA투데이)

- * 美 Mountain Travel Sobek社가 9.21~29일 8,995달러(항공료 미포함)의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평균 연수입에 비해 5배 많은 수준임.
- * 중국 고려여행사도 9.13-22일 같은 여행일정으로 3,000달러의 관광상품을 제공함.
- * 여행 일정에는 외지고 경치가 좋은 칠보산과 북한에서 3번째 큰 산업도시인 청진이 포함돼 있고, 북한의 연례행사인 아리랑 마스게임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아리랑 공연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지고 기괴하며 장엄한 정치적 행사라고 불리고 있음.

- 北 '아리랑' 공연,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쇼 (출처 : '11.11.27 / 英 데일리메일)

- * 독일의 사진작가 베르너 크란웰토보젤이 북한 공산당 관계자를 설득해 찍은 북한 집단 예술공연 '아리랑'의 세부사진이 최초 공개됐음.
- * 계속해서 바뀌는 카드 섹션, 체조선수 등 10만명의 참가자를 동원한 민기 힘든 공연임.

- 北 호화 여행하는 국제 친북단체 '조선우호협회' (출처 : 3.2 / Washington Post)

- * 북한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도 수백 명 또는 수십 명의 북한 지지자들이 있고 세계 각국에 1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선우호협회(Korean Friendship Association)가 대표적인 국제친북단체임.
- * 조선우호협회는 이념보다는 몇 천 달러로 북한 호화 여행을 할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임.
- * 북한 당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입국, 성대한 만찬과 아름다운 여성들이 대동하며 일거수 일투족이 신문에 실림. (조선우호협회의 방북은 다큐멘터리(2006) "Friends of Kim"에도 기록되어 있음)
- * 협회 대표인 스페인 국적의 Alejandro Cao de Benos가 북한에서 회원들을 인솔하며, 2월 16일 김정일의 70회 생일에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도 방북할 계획임.
- * 북한측이 호텔객실 사정으로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나이와 총성도 등을 감안해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인 등으로 구성된 인원을 선발함.

o 북한 관광 관련 객관적 사실 위주 보도

- 英 여행사 "4월에 北 경제관광" (출처 : 1.17 / 美 RFA)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 폴리컬투어스(Political Tours), 4.7~17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주간에 북한 경제를 중점적으로 돌아보는 경제 관광을 기획함.
- * 「니콜라스 우드」(폴리컬투어스 대표), '이번 관광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미래를 경제리는 측면에서 전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 경제 관광 상품은 동해안의 원산과 함흥 대신 서해안의 남포 방문이 포함돼 있으며, 비용은 2,500파운드에 달함.

- 北관광 전문 첫 온라인 여행사 출범(출처 : '11.12.16 / 美 VOA)

- * 주체여행사, 북한 조선국제여행사로부터 여행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2011.11.22일부터 영업을 시작함.
- * 북한 관광 전문 온라인 여행사는 처음이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중국 고려여행사나 미국 아태여행사 등 전통적인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음.

- 고려여행사, 서양 관광객 대상 첫 北 동북해안 여행 상품 출시

(출처 : 3.5 / New York Daily News)

- * 고려여행사(1993년 영국인 Nick Bonner 설립), 김정일 사후 사업에 악영향 우려와는 달리 서양 관광객 대상 첫 북한 동북해안 여행 상품 출시
- * 주요 공업 중심지인 청진시와 칠보산은 평양에서 전세기를 취향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기 가장 어려운 여행지로 손꼽혀 왔으나 이제 청진시에서 北 유일의 민박 여행이 가능해 짐.
- * 작년 9월 백두산과 동북해안을 포함한 상품도 출시
- * 3박 일정의 나선 여행 상품은 일인당 1,176달러(6명 이상 단체 예약은 1인당 740달러)이며, 9박 일정의 북한 순회 여행 상품은 2,498달러임.
- * 김일성 생일 100주년 맞아 북한에서 일년 내내 대규모 축제가 열릴 예정임.
- * 현재 소수의 사업지만 있고 개인 여행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작년 8월 최초로 北 동해안 크루즈 여행을 선보이는 등 관광 개방 조짐이 있음.

- 중국 관광객 개인 자가용 북한 여행 5월부터 재개

(출처 : 2.14 / CNN English 中國국제방송국 영어 서비스 홈페이지)

- * 중국에서 북한으로 개인 자가용 여행 5월부터 재개 가능
- * 2011.6월 북한이 최초로 중국인 자가용 여행자에게 일부 지역을 개방했으며 중단 전 3차례에 걸쳐 150명 정도가 여행함.
- * 첫 번째 여행객들은 길림성 훈춘 권하항에서 출발, 나선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나진항 및 해안마을을 구경하고 어린이 공연 관람.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 작년 10월 한파로 북한 도로가 얼어 안전 상의 이유로 중단. 김정일 사망도 영향을 미침.
- * 중국 여러 지역의 관광객들이 여전히 자가용 여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여행사들이 5월 노동절부터 재개 계획하고 있으며, 5월까지 차량 600대가 북한 여행을 위해 등록 될 것으로 전망.
- * 중국~러시아 순환 여행, 중국~북한 자유 자가용 여행, 두만~길림~북한국경 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길림성에서 북한 여행은 주요 관광 상품 중 하나임.

□ 총 평

- 최근 북한 관광의 경우, 북한 정부측이 해외 관광객을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해 부분적인 지역 범위내에서 다양한 관광코스과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관광 유치로 추진중에 있음.
- 북한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규모는 약 2~3만명 수준임.
 - * 중국, 한국, 베트남의 연간 외국관광객 유입 수가 각각 2,612만명, 880만명, 550만명 수준임을 감안시 매우 초라한 수준임.
- 중국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북한 관광에 적극 협력하여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의 외화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동북 3성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모집에 대한 인·허가 활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된 러·中·北 3國 연계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이 가능하므로 북한 관광 활성화에 적극 참여가 예상되나, 북한의 핵·로켓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日·北간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 수준에서의 북한 관광이 지속될 것이며, 북한의 핵·로켓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많은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북한측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중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핵·로켓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의도 관련 해외 분석 종합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관련, 발사 의도 및 대응 방향, 명칭 등에 대한 해외 공개정보를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 영어권

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의도

○ 「Jonathan Pollack」 (美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분석

(출처 : 3.25 / 브루킹스연구소)

- 북한의 지구 관측 위성 발사 계획은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짐.
- 북한의 최근 경고가 제3차 핵실험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예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그런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음.

○ Newyork Times誌 분석기사(출처 : 3.20 / NYT)

- 미사일 유예 합의 후 로켓 발사 발표는 미국에 대한 외교적 모욕인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北의 로켓 프로그램을 얼마나 용인할지 시험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미사일 개발 야욕을 위장한 것

(3.21 / Flight International 英 항공 전문 주간지)

- 「James Moltz」 (美 해군대학원 교수)

-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장 자명한 해석이며, 북한이 해외 고객을 위한 저비용 우주 접근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신빙성이 없음.
- 위성 제조를 시도하고 타국 로켓에 발사하는 것이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국가의 정상적 수순인데 이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음.
- 북한이 충분히 자체 위성을 중국 로켓에 발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성 개발보다는 미사일 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임.

- 「David Wright」 (美 압력 단체 'Union for Concerned Scientists' 소속), '이번 발사에 이용하는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분석

- 「Carl Baker」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발사 계획 발표의 이유로 北의 내부 권력 문제를 꼽고 있지만 발사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으며, 새로운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서 위성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임.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방향

○ 「오바마」 대통령, 韓·美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北 발사시 식량 지원 철회, 제재 강화 및 6자회담 차질 언급 (출처 : 3.25 / 백악관 홈페이지)

-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북 영양 지원 패키지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회담 당시 북측에 분명히 명시하였음.
- 영양 지원 시 어려운 점은 엘리트나 군부가 아닌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것임.
- 긴장과 마찰이 있을 때 모니터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움.
-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때마다 추가적인 고립, 제재 강화, 더 강력한 제재 집행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더 강력한 지지가 있어 왔으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함.
- 북한은 나쁜 행동이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함. 수십년간 북한은 도발을 하면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왔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처음부터 이러한 패턴을 단절시키는데 동의하였음.
- 결국엔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이루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 가장 큰 희생자는 북한 사람들이 될 것임.
- 만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임.
- 적어도 분명히 이전 약속과 국제 법에 역행하는 현재 행동을 중지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임.
-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할 일이 상당히 많고 결과물이 없는 협상은 하지 않으려고 함.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빅토리아 놀랜드」 美 국무부 대변인, “위성(satellite)” (출처 : 3.22 / 美 국무부)
 -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발사를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
- 美 北 위성발사와 미사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 3.21 / Bangkok Post, CSIS Pacnet series 게재 사실)
 - 「Carl Baker」(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미국은 반사적으로 합의 위반이라며 비난했지만, 미국의 반사적인 반응은 북한에 대해 적개심이 없다는 미국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성 발사가 미사일 발사와 같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미국의 적개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임.
 - 미국과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위성발사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같다고 인식하더라도 북한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둘의 차이점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임.
 - 미국이 미사일과 위성의 차이를 인정하면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약하게 비취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둘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 유예를 파기할 구실을 주는 것임.
 - 북한이 위성 프로그램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 전문가 및 기자단 초청을 받아들이고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이 적대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전략임.
 - 또한,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위성을 발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UN 결의안에 위배되는 도발로 취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새 발사 시설과 추진 장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음.
- 北 위성 발사 막는 방안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 (출처 : 3.26 / CNN 기고)
 - 「스콧 스나이더」(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한반도 전문가)
 - 미국은 북한의 위성을 궤도에 들어서게 하는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제3자를 찾아 6자회담국 내에서 지원을 동원해야 함.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위성 발사前 미국은 유엔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중국과 협력해 북한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1874호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함.
- 미국은 북한 위성 발사 반대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새 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의 증거로 북한에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특사를 보내야 함.
- 美·北은 대치를 피하기 위해 229 합의 이행으로 북한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北 로켓 발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장악 (출처 : 3.26 / AP)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북한 문제에 묻혀 버렸으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의도한 것일 수 있음.
- 「리홍」(中 군비통제군축협회 사무국장), '핵안보 논의가 묻히게 하려는 북한측의 수작에 넘어가면 안된다.'
- 「Ralph Cossa」(CSIS 태평양 포럼 회장), '북한은 기대를 높인 다음 그 기대를 깨고 또 다시 복귀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가 고조 될수록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③ 광명성 3호 발사체에 대한 공식 호칭 사례

일자	출 처	내 용
3.16	국무부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 / 위성(satellite)
	브루킹스연구소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센터 소장 / 위성(satellite)
	상원 외교위	「존 케리」 위원장 / 위성(satellite)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 미사일(missile)
3.19	국무부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 / 위성(satellite)
	타임	위성(satellite)
3.20	브루킹스연구소	「에반스 리비어」 前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 / 위성(satellite)
	뉴욕타임스	로켓(rocket)·위성(satellite)
	블룸버그통신	장거리 로켓인 위성 (satellite atop a long-range rocket)
3.21	국방부	조지 리틀 대변인 /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
	ABC뉴스	타라 리글러 부대변인 / 미사일(missile)
	월스트리트저널	위성(satellite)

일자	출 처	내 용
	AP통신	장거리 로켓(long-range rocket)
	LA타임스	위성(satellite)
3.22	국무부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 / 위성(satellite)
	브루킹스연구소	「제프리 베이더」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 위성(satellite)
	CNN	「지그프리드 헤커」 스텐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겸 교수 / 위성·우주선(space)
	AP통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장거리 로켓(long-range rocket)·미사일(missile)
	USA투데이	위성(satellite)
	VOA	미사일(missile)·로켓(rocket)·위성(satellite)
	보스턴글로브	위성(satellite)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장거리 로켓(long-range rocket)
3.24	AP통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장거리 로켓(long-range rocket)
3.25	백악관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 / 위성(satellite)
	브루킹스연구소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센터 소장 / 위성(satellite)
	AP통신	「존 케리」 위원장 / 위성(satellite)
3.26	CNN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 / 위성(satellite)

□ 중국

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의도

○ 광명성 3호 발사, 북한 1석 3조 효과 예상 (출처 : 3.20 / 재심 1차 경제포털사이트)

- 美·北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탑재로켓 은하3호 발사 발표를 한 것은金正은의 계산된 생각이 있을 것임.
- 미사일 발사를 통해 △향후 美·北 회담에서 미국에 압력을 가해 더욱 신속한 식량지원 확보, △김일성 생일 기념 행사를 위한 국내 안정, △총선을 앞둔 한국에 혼란을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예상했을 것임.
- 지난 美·北 합의시 핵포기로 미국에 투항해 식량지원을 얻은 것은 김정일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한국의 군사훈련 또한 김정은을 압박했을 것, 이에 따라 미사일로 위신을 세우려는 것임.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위성 발사 발표로 일거양득 효과 노려(출처 : 3.26 / 홍콩 봉황위성TV)
 - 「리홍」(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사무총장)
 -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는 4.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
이자,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회의를 방해하고자 하
는 1석 2조의 효과를 노린 것임.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방향

-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 (출처 : 3.16, 19, 23, 26 / 중국 외교부)
 - 북한의 4월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
정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라고 생각하며,이
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중국 외교부 장즈권 부부장이 16일 지재룡 주중북한대사와 만나 4월 중순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 중국은 북한의 관련 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한반도 지역의 평화안정이 공동의 책임이자 이익이라 생각함. 각국이 냉정
하고 침착한 태도로 사태의 악화를 막았으면 함.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최근 북한,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책임임을 강조하였음. 현 상황에서
각국이 냉정한 태도를 취해 사태의 악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자제하길 바람.
 - 중국은 북한 위성 발사 계획 발표 후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현 상황
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공동의 책임임. 각
국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신중히 행동해주길 바람.
-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재룡 駐中 북한대사 만나 우려 표명 (출처 : 3.16 / 신화사)
 - 중국 외교부 「장즈권」 부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
 - 「장즈권」 부부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계획 및 국제사회의 반응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 각국의 책임이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위성 발사 말릴 수 없으며 제재 또한 합리성 없어 (출처 : 3.26 / 세계신문보)
 - 일부 국가들이 북한 광명성 3호에 대해 위성이나 미사일이나를 놓고 내린 결론은 성급한 면이 있음.
 -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을 추측하고 대응한다면 북한의 반감을 사고, 이런 강경한 대항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오히려 한반도를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로 빠지게 할 수 있음.
-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출처 : 3.26 / 홍콩 봉황위성TV)
 - 「정하오」(국제문제 전문가)
 - 이번 사건 발생 후 중국은 계속해서 평양을 설득해 위성 발사를 취소하도록 노력했지만 북한의 결정을 중국이 저지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러나 발사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결국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따른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 이에 각국이 얼마나 냉정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합일된 의견으로 북한 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
(출처 : 3.20 / 홍콩 봉황위성TV, 「치우젠하이」 시사평론가 대담)
 - 북한의 로켓발사 발표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반응이 거세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합일된 의견으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함.
 - 각국의 일관된 일장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느끼면서 4월 위성 발사 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과도한 태도는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침착해야 함.
 - 지난 30년 간, 북한의 위성 발사 후 국제사회의 과도한 반응으로 북한이 핵 실험을 진행한 전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1년 반 만에 찾은 화해의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며 강경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함.
- 북한 위성 발사 위기,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출처 : 3.21 / 동방조보)
 - 「리우밍」(상하이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
 - 북한이 주변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성을 발사한다면 中·北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은 제3차 美·北 고위급 회담을 주선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였음. 이런 좋은 분위기가 북한의 도발로 깨어지기를 원치 않음.
- 그러나 현재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으며,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 유연성이 관건임.
- 중국도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중재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외교 이미지 수립에도 이로움.

○ 북한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출처 : 3.20 / 환구시보, 「진더빈」 상하이 대외무역학원 학자 사설)

- 광명성 3호 발사예고에 세계가 놀랐지만 북한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는 침착해야 하고, 북한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 현재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위성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북한은 이번 로켓이 위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기 드물게 국제전문가 및 언론의 현장 취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함.
- 이를 보면 이전과는 다른 성의가 드러나며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국제 여론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음. 이를 보면 이번에는 정말 위성을 발사하는 것일 수도 있음.
-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조급하게 북한을 비난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행동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
- 韓·美·日이 이번 사건에 호들갑 떨게 되면 정세는 더 악화되고 북한 내 강경파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미 발사 일정을 발표한 북한의 계획 취소는 어렵기에 각국은 적대적 태도가 아닌 침착한 모습으로 북한의 로켓발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함.

③ 광명성 3호 발사체에 대한 공식 호칭 사례


일자	출 처	내 용
3.16	中 외교부	위성(卫星)
3.19		
3.23		
3.26		

□ 일본

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의도

- 북한의 위성발사는 모험인가? 쾌거인가? (출처 : 3.17 / 하신기⁴⁾의 깊이읽기)
 - 최대 목적은 강성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군과 인민을 고무시켜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데 있음.
 -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국위 선양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임.
 -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능력을 과시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경수로문제와 평화조약 체결을 일괄처리하려는 의도임.
- 북한 미사일 발사예고 (출처 : 3.17 / 마이니치신문)
 - 김정은의 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발사 후 '발사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김정은의 공적이라고 칭찬할 것임.
 - 북한은 이전부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번 발사예고는 이를 방해하려는 것임.
 - 김정은의 성과 만들기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4월 중순에 개최되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때 김정은이 당총서기 등의 요직에 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1998.8월에도 대포동 1호가 발사돼 미사일 발사와 최고 지도자 인사와는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함.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지도부내에서 외교와 경제정책을 중시하는 그룹과 조선인민군 대외강경파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미국의 '소, 돼지 취급'에 불만, 미사일 발사로 협박 (출처 : 3.18 / 이타가키 에이켄 평론가 블로그)
 - 북한은 미국이 1년간 '옥수수과 영양식품 24만t' 밖에 지원해주지 않는 점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음.
 - 북한 상층부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쌀과 밀'은 커녕 '사치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라는 경사스러운 행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선물로도 쓸 수 없음. '무례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며, 이런 항의하는 마음을 담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임.

4) 日 조선대학교 강좌장 및 조선신보 기자 출신의 재일동포로 북한 관련 정치 평론가

- 美·北 합의를 배신한 '축포' (출처 : 3.17 / 이자뉴스)
 - 경제와 식량공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군사, 과학 분야의 성과를 강조해 김정은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축포임과 동시에 韓·美 양국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위성발사 (출처 : 3.22 / 국제전략컬럼)
 -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주도로 체결한 美·北합의를 군부가 옳은 것이라고 지적함. 미사일 발사실험 결정은 김정은 시대의 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무성과 군부가 주도권 쟁탈을 한 결과라는 것임.
 -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 '김정일 정권 말기 때 외무성은 군부에 밀려 힘을 쓸 수 없었으며, 김정은 시대가 열림과 함께 외무성이 대미대화로 영향력 확대에 나서자 군부가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
 - 이 견해가 맞다면,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기관을 전혀 장악하지 못한 채 외무성과 군부의 다툼에 휩쓸렸다는 해석이 가능함.
- 중국, 러시아의 이례적인 북한 포위망 (출처 : 3.27 / 마이니치)
 - 북한은 위성발사가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유훈을 관찰 시킴으로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의 국가운영 방침을 유지해 김정은이 정통 계승자임을 과시하는 등의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임.
- 북한, 미사일 다음은 핵실험? (출처 : 3.27 / 닷케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정보사이트)
 - 美·北 합의 발표 후 불과 16일 만에 약속을 어긴 이유로 처음에는 대화과와 강경파의 '내부대립설'이 거론되었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 미사일 실험을 결정했지만 미국과의 거래에 응했다는 '북한의 속임수' 혹은 '미국의 실패설'이 주류가 됨.
 - 탄도미사일 발사는 식량부족과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에게 실적 없는 젊은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얼마 되지 않는 수단임.
 - 핵무기의 운반수단 확보를 보여줌으로써 3대 세습이라는 기형적인 왕조의 존립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것임.
 - 미국이 영양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매달 2만톤씩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그렇게 큰 양이 아니고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올해 말까지 참으면 한국의 차기정권이 식량지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됨.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음. 발사하더라도 그 전에 합의를 했으므로 결국엔 미국이 양보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음.
- 북한이 남쪽을 향해 발사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이라는 견해가 있음. 동쪽으로 쏘면 미국의 안보관계자는 도발로 받아들여 나중에 미국 정부는 쉽게 타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 대북강경론이 다시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임.
- 북한은 미사일 발사예고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IAEA의 핵시설 사찰을 받겠다'라고 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수면하에서 일본인 처 귀국 협상을 요청하는 등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인 미국을 적으로 돌려 협상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이유는 최대 당사자인 한국이 전쟁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각오가 없기 때문임.
- 미국도 지금은 동맹국이지만 언제 갈라설지 모르는 나라를 피 흘려서까지 지킬 마음은 없음.
- 미사일과 핵실험은 군사적 필요성·정치적 선전면에서 하나의 세트임.
- 전문가들은 첫 번째 핵실험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의 폭발 규모가 컸던 점에서 세 번째 핵실험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핵탄두의 소형화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음.

○ 인공위성 북한의 의도 (출처 : 3.19 / 이데이시 타다시 NHK 해설위원)

- 다음 달 중순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려 김정은이 당과 정부의 최고 지위에 오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4.15일에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기념일도 앞두고 있으며, 당대표자회와 김일성 생일에 맞춰 '국위선양'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권력을 과시하고 실적을 만들고 싶은 의도가 당연히 있을 것임.
- 미국은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란의 핵개발 문제로 벅찬 상태이므로 북한은 지금이라면 다소 미국을 흔들어도 진심으로 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한국도 4월에 총선,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군사기술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함.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방향

- 「노다 요시히코」 총리 서면 인터뷰(출처 : 3.26 /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단)
 -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목소리를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국과 긴밀한 연계·협력하에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생각임.
-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 자위대 요격 태세 준비명령(출처 : 3.27 / 마이니치)
 - 일본 방위상이 3.27일 오전 자위대에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발사를 앞두고 자위대에 요격 태세를 갖추도록 준비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자위대는 'BMD(탄도미사일방어) 통합임무부대' 편성에 착수함.
 - 이는 북한이 '위성' 명목으로 발사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낙하에 대비해 요격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자위대는 지대공 유도탄 PAC3 배치 후보인 오키나와와 이시가키 섬, 미야코 섬, 도쿄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갈 계획임.
 - 한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3.30일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파괴 조치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언급

③ 광명성 3호 발사체에 대한 공식 호칭 사례

일자	출 처	내 용
3.17	요미우리	「젠바」 외무상 /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3.21	방위성	「다나카」 방위상 / “IMO로부터 북한이 위성발사를 한다는 사전통보를 했다는 내용 받았다.”
3.23	교도통신	「노다」 총리 / “위성이라고 칭한 미사일 발사”라고 단정
	니치테레	「후지무라」 관방장관 / “북한의 위성발사 발표로 4월로 예정된 총리 주재의 벚꽃행사 취소”

□ 러시아

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의도

- 우주 프로그램의 군사적인 이용이 자명하다.(출처 : 3.16 / 리아 노보스티 러 통신사)
 - 「콘스탄틴 보그다노프」(군사평론가)
 - 북한은 소련제 전술미사일 P-17 관련기술 전수 후 개발을 상당히 진행시켰으며, 아직 북한제 미사일은 발사가 잘 되지 않는 않지만, 꽤 멀리 나감.
 -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할만한 수준의 미사일시스템 대량생산은 전술무기 차원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정확도와 적하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금번 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100% 활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봄.
- 북한의 위성발사 이유 (출처 : 3.19 / 스토레티에 러 정보분석 인터넷신문지)
 - 북한의 위성발사 이유는 김일성 생일 100회를 기념하고, 핵프로그램 중단 상황에서 과학기술 부문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 북한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란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 제재 상황 속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대북 식량지원·군사협력을 하는 우방국이며,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노선을 따를 것이고, 러시아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위성발사를 계획함.
- 북한은 우주개발과 핵프로그램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출처 : 3.20 / 이즈베스티야 러 일간지)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은 우주개발과 핵프로그램을 별개의 문제라 확신하고 있으며, 역내 발생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음.
 - 사실상 한국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금지된 국가지만, 위성발사체를 2차례 발사하였음.
 -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얼마나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며, 이는 중동의 사례처럼 결의안이 채택 후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북한의 위성발사 의도 분석(출처 : 3.26 / 골로스 러시아 러 라디오)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알렉산드르 보론초프」(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
 - 북한은 김정일 100회 생일 기념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실현해주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를 원함.
 -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일을 계획한 것임.
 - 북한은 위성발사가 매우 평화적이고 국가경제에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함.
 - 하지만 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함.
 - 로켓실험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의 지표면으로 적하하중(payload)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이라는 한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임.
- 「게오르기 틀로라야」(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북한이 미국, 한국, 국제사회에 도전하기 위해 위성발사라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행보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은 김정일 생전에 결정한 사항이고,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집권 초반부터 북한 인민과 내부에 아버지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처럼 비춰지는 행동을 보일 수 없었을 것임.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방향

- 북한의 위성발사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출처 : 3.16 / 외무부)
 -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공간 개발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만, UN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라 UN 회원국의 의무사항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해서는 안됨.
 - 북한은 국제사회에 반하고, 역내정세를 긴장시키며, 6자회담 재개를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함.
- 「아나톨리 치가노크」(군사예측센터 소장) 분석(출처 : 3.22 / 글로스 러시아 ⇨ 라디오)
 - 위성의 궤도진입은 탄도미사일 기술보유를, 발사성공은 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의미
- 북한은 사실상 ICBM 개발능력 없다. (출처 : 3.16 /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2012.3.2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고르 코로트첸코」(국제무기거래 분석센터소장)
 - ICBM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은 핵 소형화, 궤도진입, 관련기술, 재료보유임.
 - 이전 2번의 발사실패로 알 수 있듯 북한은 궤도진입 능력이 없으며,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때문에 외부에서 관련기술 재료를 들여오는 것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군사비 지출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ICBM 개발능력이 없음.
 -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문에서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 기술개발의 최대치는 스커드(액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타입을 북한식으로 현대화 시킨 모델임.

○ 북한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출처 : 3.16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 「알렉산드르 젤레즈나코프」(치올코프스키 우주과학아카데미 우주비행학 전문가)
 - 북한의 2차례의 발사실패를 고려할 때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임.
 - 북한이 성공적인 궤도진입을 시킨다 해도 위성 자체는 단순화된 구조일 것임.
 - 인공위성 자체 무게는 10kg 이하, 최선의 경우 애국가 등을 내보내는 위성에 무선송신기가 장착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위성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발표는 사실상 이전 2차례 발사된 위성이 성공했다고 믿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용임.

③ 광명성 3호 발사체에 대한 공식 호칭 사례

일자	출 처	내 용
3.16	외무부	인공위성(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 '이스쿠스트벤느이 스푸트니크'로 발음)
	즈보즈다(국방부 군사방송채널)	인공위성(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러시아 연방우주청	인공위성(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인공위성(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3.19	스토레티예(정보분석 인터넷신문)	인공위성(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골로스 이사이(라디오)	인공위성(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 총평

- 미국은 북한측의 229 美·北 합의에 대한 외교적 배신행위와 UN 결의안 위반에 대해 대체로 강경한 어조로 비난을 하면서 다양한 대응방향을 주문하는 여론이 많으나,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도 일부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광명성 3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호칭없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의식한 듯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이 대부분이나,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무시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며, 광명성 3호에 대해서는 '위성'이라는 용어를 거의 대다수 사용중임.
- 일본은 4개국중 가장 강도높은 태도로 북한측을 비난하고 일본 열도 자위 차원에서의 요격 준비를 갖추는 상태이고, 광명성 3호에 대해서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상태임.
- 러시아의 경우는 대체로 중립적 성향을 보이면서 사실 위주의 보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북한측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광명성 3호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이라는 용어로 대다수 통일하여 사용중인 상태임.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I
["中·北 인프라 정비 협력 / 북한과의 경제 인프라 연계 과제"]

'12.2월 日 '동아시아 무역 연구회'에서 작성하고,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서 발행된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라는 題下의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분석내용의 원문자료를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中·北간 인프라 정비협력

- 중국은 중국 국내 인프라 정비와 연계하여 북한의 인프라 정비(도로, 항만, 철도, 도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의 인프라 정비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연장으로 물류망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의 양 축이 중심이 되어 '단동~신의주 지역'과 '연변(투먼, 훈춘)~라선·청진' 물류 교통망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그 구체적 사례가 중북간의 '일구양도(一區兩島)' 공동개발 계획임.
 - '일구(一區)'는 '라선경제무역지대(특구)'이며, '양도(兩島)'는 압록강하구(신의주)의 두 개의 지역(위화도, 황금평)임.
 - 단동~신의주 루트와 훈춘~라선 루트의 경제통로에 있는 '일구양도'를 중국과 북한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임.
- 이 외에도 신압록강대교 건설, 고속도로 건설, 철도 정비, 원정세관~라진항 도로정비, 라진항 부두정비·신설, 청진항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中·北국경세관 정비, 압록강 상류지역의 수력발전소 건설 등도 추진중이며,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의 국제협력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 2011년 말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 인프라 정비협력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도표 : 중국의 대북경제협력(인프라정비) 동향]

시기	주요내용	비고
2005.7월	훈춘시 소재의 기업(동림경무유한공사(東林經貿有限公司), 변경경제합작구(邊境經濟合作區) 보세유한공사)와 라선시와의 '라선국제물류 합작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정~라진 도로정비, 라진항 개발 · 북한정부 허가 없음

2012.3.3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시기	주요내용	비고
2008.3월	산둥성 영성시기업의 남포항 보세구역 개발(50년간)	· 380만 유로 투자(MOU)
2008.8월	대련의 창력집단, 라진항 제1부두사용권 확보(10년간)	· 2010년 12월에 시험운송 개시
2009.10월	中·北, 압록강 중상류 2개 지역에 수력 발전소 건설 합의 : 북한의 문악발전소, 중국의 만강앵발전소	· 총 9억위안 투자 · 문악발전소(4만kW) - 2010.3.31일 착공 - 2013년 완공 목표
2009.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라진항 사용과 관련해 북한이 동의	· 2010.12.31일 신압록강대교 착공식(공사비 17억 위안)
2010.2월	단둥화상해외투자유한공사, 압록강 위화도·황금평에 8억달러 투자해 자유무역지대화 추진(보도)	· 정부간 공동개발·공동 관리방식으로 전환
2010.6월	中·北국경의 원정교 보수완료 (중국부담)	· 총투자 360만 위안
2010.9월	중국 연변주와 라선특별시 협력 협정(신도로 건설 등)	· 총투자 2,266만 달러 예정
2010.10월	中·北정부간 협력협정	· 중국 상무부와 북한의 합작투자위원회 사이에서 경제협력협정 체결 (라선시, 신의주지역 공동개발 등)
2010.12월	신압록강대교 착공식	· 단둥시에서 개최(3년 공사, 22억 위안을 중국측이 부담)
2011.2월	'中·北공동개발·공동관리계획 요강' 작성	·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中·北이 공동개발·공동관리 하기 위한 공동 지도위원회를 설치해 계획요강 작성
2011.6월	황금평과 라선에서 공동개발 착공식	· 中·北공동지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개최
2011년중	수풍발전소 보수(덩 수리)	· 2000년의 홍수 이후, 중국 국가발전 공사의 투자로 공사완료
2011.12월	황금평 경제지대법 제정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채택(발표 2012.1월) : 2012년부터 인프라정비·기업유치 개시

2012.3.3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상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북한은 2010.10월에 정부간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라선시와 신의주지역의 두개의 섬(황금평, 위화도)을 공동개발 하기위한 '中·北공동개발·공동관리계획요강'도 2012.2월에 작성함.
- '총 계획요강'에 따르면 中·北 공동개발·공동관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中·北 공동개발·공동관리의 주요내용】

- 원칙 : '총체적 계획, 단계별 실시, 정부인도, 공동개발, 기업주체, 시장 운영, 우세의 상호보충, 호혜공영'
- 목표
 - 북한의 공업화 수준과 인민생활 수준 향상
 - 북한산 제품의 외화획득 능력과 제품의 경쟁력 향상
 - 북한의 인력·토지·광물 등의 자원 우세를 경제우세로 전환
- 방식
 - '中·北공동지도위원회' : 정부간의 협조지도체제
 - '공동개발관리위원회' : 지방정부간의 공동관리체제
 - 실제 개발·경영 : 각 지역의 '투자개발공사'에 위탁해 '투자개발공사'가 토지 개발·상업개발의 책임을 가지고, 이에 따른 투자권·경영권·수익건(件) 보유
- 북한 정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책
 - 세금우대정책
 - 투자보호(국유화와 징수금지), 투자 사용기한내의 양도, 임대, 재임대, 청부, 저당, 상속 인정
 - 결제통화 : 조선 원, 중국 위안화, 법정 외화
 - 노동력 : 노동시장의 형성, 노동계약제의 실시로 기업과 노동자간의 자주 선택을 인정(노동력의 자유고용, 해고 가능)
 - 시장운영 : 제품의 국내판매비율, 가격 설정, M&A, 파산, 청산 등의 기업 의사결정을 기업이 시장원칙에 근거해 자주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

2012.3.3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상과 같은 中·北공동개발·공동관리의 총계획 전체상에서 中·北의 경제연계는 상호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2011.6.8~9일에는 황금평 입구인 단동시와 라선시에서 中·北공동개발을 위한 대상사업 착공식이 개최됨.
- 황금평은 법적 정비로써 2011년 12월 '황금평 경제지대법'을 제정했고, 2012년부터 본격화 됨. 황금평 개발에 대해서는 中·北간에 인프라 정비와 외자 기업의 유치에 추진 중임.
- 북한은 황금평 지역에 위탁가공, IT, 관광·서비스 등을 3대 업종으로 지정해 외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측은 위탁가공, 현대도시 근교농업, 관광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듯함.
-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 홍콩, 대만 등의 기업이 상담중이며, 대만의 전자기기업체 Foxconn사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 中·北 공동의 '총개발요강'에 따르면 황금평 경제지대는 신의주와 단동의 연계성을 살려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식 시설농업, 경공업 등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에서는 상업, IT, 관광, 시설농업, 복장 가공 등의 개발을 설정하고 있음.
- 인프라는 단동에서 용수, 전기, 열, 통신, 인터넷 망을 연결 및 제공 예정임.
- 길림성은 '북한의 육로-항구-개발구의 일체화'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라진항을 보유하고 있는 라선시와의 관계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음.
- 길림성은 '북한을 경유해 중국 동남 연해항만에 이르는 육해 수송에 관한 안'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정식 비준을 얻었으며, 북한의 라진항을 이용한 중국 국내 대상 수송 루트를 확보했음.
- 구체적 이용 사례가 훈춘의 풍부한 석탄(매장량 12억 톤)을 라진항을 이용해 상해시 등 중국 동남부에 공급하는 사업임.
- '훈춘창력(대련창력의 자회사)社가 2010.12월부터 3주에 걸쳐 트럭으로 라진항으로 운송한 훈춘산 석탄 2만톤이 2011.1월에 라진항에서 상해·영파로 수송이 시작된 후 2011년에 3번의 석탄 수송(훈춘~라진항~상해·영파)이 이루어졌음.

2012.3.3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러한 일본해 수송 루트는 중국에서는 동북부내륙과 동남부 연해지역을 직접 잇는 경제회로가 되어 중국 국내경제통합은 물론 국제경제를 연계 하는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물류루트가 되고 있음.
- 향후 석탄 수송의 경제 비용 삭감을 위해 훈춘에서 라진항으로의 트럭 수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철도 연결(훈춘~라진)이 계획되어있음.
- 한편, 도문市도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2010.10.13일에 투먼세관 부근에 '투먼中·北변경호시무역시장'을 개장(1회 운영이후 휴무중)하거나 투먼경제개발구내에 '투먼조선공업단지'를 설치 (2011년9월에 길림정부가 비준)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기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등 적극적임.
- 요녕성에는 단둥시에 북한 노동력을 수용하는 공장이 있지만 길림성에서는 투먼개발구가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음.
 - * 북한 노동자를 위해 600명이 수용가능한 숙소와 식당이 투먼개발구내에 건설 중이며, 북한 노동자 수용에 대해 계약은 기업과 기업과의 계약 베이스로 실시해 관리는 투먼시 개발구관리위원회가 담당함.
- 투먼시는 철도를 경제통로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의 청진항으로의 접근을 추진 중임.
- 투먼시에 본사를 둔 연변해화수출입회사가 5,000만 위안을 투자해 청진항의 제3호 부두에 40톤 크레인을 설치했으며, 청진항을 이용해 동북지역의 곡물을 수송할 계획임.
- 또한 2011.10월에는 투먼~칠보산의 관광열차를 개시해 한 달 동안 5번 운행함.
 - * 2011.10.9일에 개통해 1주일에 1회(3박4일)운행하는 관광열차였음. 요금은 1인당 1,600~1,800위안임.
- 길림성에서는 북한, 특히 라선특별시와의 협력 시스템의 체계가 아직 정비 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훈춘시가 2010년에 라선시에 대표처를 설치하자 연길시와 연변 주정부도 대표처 설립을 비준했고, 길림성은 2011년에 省 차원에서 직접 대표처의 관리를 결정하는 등 정부조직 내에서 관리체계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며, 이 문제는 中·北간 협력이 추진됨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임.

2012.3.3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길림성과 북한간의 경제 인프라정비 사업에서 2011.12월 시점에서 진행중인 항목은 아래와 같음.

[도표 :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청진에서의 中·北공동개발의 구체내용]

구분	대상	내용
도로	원정세관~라진항(54km) 舊도로의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길림성·연변주·훈춘시)가 3,000만 달러를 투자해 2011.3월에 착공, 2012년 초에 완공 예정: 6m폭을 9m로 확장, 부분 직선화, 교량 건설 등 (장성로교와 훈춘로교가 시공) → 트럭 150만대/年の 통과로 연간 750만 톤의 화물 운송능력으로 확대 (현재 150만t/年 능력) · 라선시는 라진항 부근 1km² 부지를 중국측에 제공해 공업단지 건설: 육로-항만-개발구의 일체화
	원정세관~라진항(67km) 고속도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무부와 조선합작투자위원회와의 협정 (2010.11월)에 따라 신설 합의 · 2013년에 착공 예정
철도	투먼~청진항(171.1km) 보수	· 투먼시와 청진시 간에 기본합의(2010년)후 2011년에 측량 실시 중
	투먼~라진항(160km) 보수	· 투먼시 회사가 차량 구입 등 북한측과 협의중
	원정~선봉(40km) 신설	· 훈춘~라선의 철도수송으로 계획중
항만	라진항 제1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춘창력집단의 투자 (2008년 7월, 사용권 10년) · 부두 정비로 2011년에 150만 톤 처리능력
	라진항 제2부두	· 현재는 러시아 상선도 정박하고 있음.
	라진항 제3부두	· 러시아가 50년간 사용권, 2012년에 정비 개시
	라진항 제4,5,6,7호 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이후 신설 4호 : 컨테이너 부두(1~4호 부두에서 총 940만톤 처리능력) · 2017년 이후 5,6,7호 :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1~7호 부두 합계 4,500만톤 처리능력
	청진항 제3,4호 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변해화수출입유한공사(투먼시)의 투자 · 청진항 제 3·4 부두가 '투먼부두'로 명명돼 부두 개선 (크레인 투입 등)으로 2010년 11월말에 시험 운행
발전소/전력공급	화력발전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kW급의 선봉화력발전소(중유발전)을 석탄화력으로 변경(화룡집단의 투자) · 석탄발전소 신설
	전력공급	· 훈춘시에서 66,000kW의 전력을 송전
제조업	시멘트 공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産 100만톤 규모(50만톤은 라선시에 50만 톤은 러시아 수출) · 6월 9일 착공식(길림아태집단의 투자)
	자동차 공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춘 제 1자동차 트럭부품을 라선에서 조립생산하여 무산 철광산에 공급 · 장춘 제 1자동차는 장기적으로 승용차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중
	제유공장 보수	·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국유)가 20억 달러 투자 (그외 도로, 제철소 등)

□ 중국 동북지역 개발프로젝트와 북한과의 경제 인프라 연계과제

-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지역 개발과 북한과의 경제 인프라 연계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 요녕성만 보더라도 2010년 3월에 선양~단둥 여객수송전용선, 단둥~대련 고속철도건설, 선양南역과 대련역 신축공사, 선양역과 선양北역 개조 공사 등 6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투자 총액은 612억 위안(약 97억 달러)에 달했는데 중국 정부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7월 중국에서 2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고속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 열차 제어 시스템의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었다는 점이 밝혀져 (2011년 12월 28일에 공표된 중국국무원 철도사고보고서) 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또한 2011년 이후 중국 정부의 경기 버블 대책으로 인한 자금공급 조절의 영향으로 동북지역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중앙,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투입에 억제 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동북지역 경제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 진흥시는 '동북3성 2010년 경제형세 분석보고(2011년 3월 17일)'에서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로 이하 6가지를 지적하고 있음.
 - 첫째, 산업의 고도화가 여전히 어려움.
 - 동북 3성의 철강, 야금, 화학공업 등 高에너지 소비형산업이 회복,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산업의 편향, 기술 및 제품의 동일화가 관찰돼 현대산업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 2010년 동북 3성의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길림성 및 흑룡강성의 제 3차 산업의 비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음.
 - 둘째, 농업발전 기초가 여전히 불안정
 - 농업 인프라, 특히 농업용 관개시설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수해, 가뭄피해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상기후 외에 관개용 시설, 홍수방지 시스템의 미정비 등이 있음.

2012.3.3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0년 식량가격이 올라가 농민의 수입이 증가했지만 주로 재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민의 지속적 수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셋째, 투자로 인한 경제성장 견인력에 과도 의존
 - 11.5 계획기(11차5개년계획)의 동북 3성 투자율은 전국 평균수준을 웃돌지만 투자효율은 저하됨.
 - 2010년 동북 3성의 고정자산투자액은 GDP의 82.8%. 특히 길림성은 112.1%, 요녕성은 87.7%.(전국평균은 69.8%)
- 넷째, 대외 개방 수준의 또 다른 향상이 필요
 - 전국 수출입총액에서 동북 3성의 수출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외 경제지표와 비교했을 때 낮으며 대외 개방 불균형이 보임.
 - 동북 3성의 수출입 총액에서 요녕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6%, 외자 이용액은 74.7%이며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수출입총액 및 외자 이용액은 낮음.
- 다섯째, 물가상승 압력이 비교적 높음.
 - 2010년 요녕, 길림, 흑룡강의 CPI는 각각 전년 대비 3.2%, 3.7%, 3.9% 상승.
 - 길림성, 흑룡강성의 2010년 12월 CPI는 전년동기 대비 4%이상 상승해 식품 관계의 물가 상승압력이 높음.
- 여섯째, 길림성 및 흑룡강성의 도시부 가계 수입의 증가 속도가 늦음.
 - 2010년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도시부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전국 평균 수준에 대해 각각 92.7%, 80.6%, 72.5%에 상당. 2003년에는 85.5%, 82.3%, 78.8%이었고, 요녕성이 전국 평균 수준과의 차이를 좁힌 반면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차가 확대됨.
-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 동북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낮은 대외 개방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 가는 경제 통로를 확보하는 경제연계가 중요함.
-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북한과의 경제연계가 상호 이익이 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2012.3.3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첫째로 지역의 특성을 중시한 개발의 추진임. 동북 지역은 자원과 농산품의 보고(寶庫)이지만 저렴한 노동력과 정부 주도형 개발에 길들여져 있음. 문제는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관료의 자질임. 장래에 민간 주도의 시장원리가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정부의 '선택집중'형 개발 프로젝트의 입안과 추진이 필요함.
- 두번째로 개발 재원확보의 다원화임. 최근 몇 년간의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 금융긴축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동북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은행음자에 의존하게 되면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재조정을 당하게 됨. 향후 개발프로젝트는 민간, 정부협력방식 (PPP : Private-Public Partnership)에 의한 개발 혹은 민간 투자유치로 인한 개발과 정부의 관리를 융합하는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세번째로 동북지역 경제성장의 '핵'이자 후배지인 대도시의 개발 엔진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구축임. 국경지역과 대도시와의 인프라 연결과 함께 '핵'도시가 생산거점 기능보다 소비거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라도 생산거점을 국경지역으로 이전하고 국제 협력의 이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네번째로 동북지역의 낮은 국제협력(무역, 투자)를 개선하는 것임. 러시아,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시아 국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연계의 가교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日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NIDS) 분석보고서 [2012년 동아시아전략개관]

'12.3월 日 '방위연구소(NIDS)'에서 발행된 '2012년 동아시아전략개관'의 북한 관련 분석내용을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북한 - 현체제 계승의 진전과 강경한 대외전략

① 권력계승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움직임 가속화

- 2011.12.17일 김정일의 사망은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권력계승 준비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지향한 정상외교가 잇달아 이루어진 시점이라 사망보도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
- 북한은 2011.1.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서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 공동사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2011년 국가적 슬로건도 2010년의 반복이며 대중 경제의존이 계속되는 속에서 '자력갱생'이 강조됨과 동시에 南·北이 대결 상황인 가운데 '대화, 협력추진' 등이 강조됐음.
- 2011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시 최영림 내각 총리가 2010년을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 해'라고 선언함.
 - 경제면에서는 외국의 제재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의 탈피를 시사했고, 각종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
 -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됐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은의 권력계승이 착착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각종 제재에 대해서 서서히 극복할 길을 찾고 있다는 점이 시사되어 있음.
-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인민생활 향상'과 '자력갱생'의 대폭적인 진전과 만성적 식량난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음.
-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11.4.8일 북한 중앙보고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차수가 아래와 같이 보고를 함.
 - '국방작업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국방력 강화에 최고의 힘을 쏟아 붙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변함없는 원칙적 입장이다.'
 - '핵융합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분야' 특히 '국산 기술의 발전을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강조됐으며, 또한, '韓·美의 핵전쟁훈련'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반복했음.
 - 이상에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종 제재를 극복하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전략목표는 △김氏일가 체제의 존속, △내부 위협 제거, △북한에 유리한 형태로 남북통일, △재래전력 유지 및 강화,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 △對美 및 對韓 억지력 향상 등으로 집약되며, 권력계승 과정이 시작된 후에도 이러한 목표가 바뀌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증거는 보이지 않음.
 - 2009년 탄도미사일 발사와 두 번의 핵실험 실시 발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나타내듯 권력계승 과정 개시 이후 매년 드러나는 강경한 행동에서 오히려 목표실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음.
 - 2012.1월 현재, 김정일의 사망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김정은을 영도자로 하는 신체제는 김정일의 '유훈'실현, 선군정치 계승 그리고 강성대국 완성을 내걸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향후에도 추구될 가능성이 높음.

② 노동당 규약개정과 지도체제의 세대교체

- 2011.2.2일 전년 9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내용이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에서 공표됐음.
- 이미 2009.4월에 북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번에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괴리를 일치시켜 향후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법제도 정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임.
-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새로운 헌법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삭제됐음.
 - 특히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군사분야에서 제기된 모든 사업을 당으로써 조직, 지도'하는 점과 '국방사업 전반을 당으로써 지도'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돼 권한이 강화됐음.
 - 군내 黨조직인 정치부, 정치위원의 권한이 처음으로 명기되었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해서는 '인민군 黨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의 부서와 같은 권한으로 활동한다'고 규정됐음.
 -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맞먹는 북한의 지도적 사상이 된 선군사상에 대해서는 조선인민군을 '당의 선군 혁명영도를 가장 앞장서서 지지해 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라는 형태로만 언급했음.
 - 오히려 '사회주의적 강성대국 건설'이 강조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동원, 결속이 중시되어 있음.
 - 이 배경에는 조선인민군이 黨 밑에 있으며 당의 주도하에서 선군혁명을 지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듯함.
 - 즉 북한의 선군정치란 이른바 당고군저(黨高軍低)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정치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된 것임.
- 국방 관련 人事면에서도 세대교체의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남.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은은 결국 국방위원회의 어떤 직위에도 취임하지 않았지만 정치국원이었던 전병호(85세)가 '직무변동'을 이유로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됐고, 군수 부문의 유력자였던 박도춘 정치국후보 위원·서기(67세)가 선출됐음.
- 또한, 이명수 인민군대장·국방위원회 행정국장이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에 임명됐음.
- 前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78세)은 3.16일에 '병'을 이유로 해임됐음.
- 2011.4.13일 오일정 조선노동당 군사부장(57세)이 상장으로 승진했고, 오일정은 오진우 前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노농적위대를 비롯한 400만명의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황병서 당조직지도부 부부장도 상장으로 승진시키고, 허영호 인민보안부 부부장을 중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보도됐음.
- 오백룡 前 호위총국장의 아들인 오금철 상장(前 공군사령관)도 2010.9월 당대표자회의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됐음. 또한 오금철 상장의 동생인 오철산 상장은 해군사령부에서 정치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최현 前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용해(63세)도 2010.9월에 김정은과 함께 대장에 취임해 현재는 당서기,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고 보도됐음.
- 또한, 중앙당 차원에서의 군부 세대교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일선부대에서는 사단장급 이하 간부 중에서 세대교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를 위한 군부 재편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세대교체의 목적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새롭게 기용해 김정은을 보좌하기 위한 경험을 쌓게 하려는 것임.
- 물론 舊 세대도 공존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맨 앞에는 28~29살로 추정되는 젊은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최고사령관이 적혀 있었지만, 그 뒤에 김영춘 인민무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력부장·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총참모부장 등의 원로 이름이 써져있었음.

- 또한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경공업부장·인민군 대장은 명단에서 14번째, 김양건 당통일전선부장은 15번째, 김경희의 남편이며 김정은의 섭정적 존재로 여겨지는 장성택은 19번째로 기재되어 있음.
- 명단의 서열이 김정은 체제내의 권력구조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자주 지적되듯 명단에 기재된 인물이 향후 김정은 체제의 실제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 틀림없음.
- 이런 인사의 배경에는 최고지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黨, 軍, 치안기관의 파워 엘리트의 기득권익을 보장함과 함께 이런 기득권익을 세습시킴으로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음.

□ 북핵문제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의 활성화

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 상승과 美·北 회담의 실현

-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은 2008.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2011.7월 후반부터 활발해져 같은 해 12월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이어졌음.
- 2011.4월 중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우라늄농축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감사요원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南·北, 美·北 등 양자회담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표명한 사실이 밝혀졌음.
- 특히 7월 후반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활동이 활발해짐.
- '11.7.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南·北 외교장관이 2008.7월 싱가포르에서의 ARF이후 3년 만에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접촉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공감'이 드러나기도 했음.

- 또한 7.28~29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대표와 북한의 김계관 제1부상 간에 회담이 이뤄졌음.
- 2011.4월에 지미 카터 前 대통령이 이끄는 '디 엘더스' 대표단이 4.26~28일까지 방북했고, 북한에 구속되어 있던 에디 전(한국명 전용수)의 석방이 실현됨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졌음.
- 그 후 5.20일에는 미국이 5.24~28일까지 북한인권 담당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식량지원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한다고 발표했고 8.11일에는 180만톤 상당의 식량 지원 실시를 발표했다.
- 한편 북한측은 在美 이산가족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등 美·北관계 진전과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아졌음.
- '11.12월에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중단과 미국의 식량지원을 둘러싼 美·北협약이 개최됐다고 보도됐지만 12.19일에 북한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사망을 공표하면서 美·北협약과 6자 회담 재개 전망은 불투명함.

② 전도다난한 북핵문제 - 6자회담 재개의 어려움

- 북핵문제의 동향은 美·北관계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 크게 의존되는데,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첫번째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다시 분명해진 점임.
 - 두번째로 2011.7월 美·北회담에서 미국의 대북협상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드러난 점임.
 - 세번째로 지금까지 南·北접촉이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사후 북한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등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되어 있는 점 등이 있음.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는 4.4일 시점에서 UN군축위원회 회의 북한 대표는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항상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또한 '한반도의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와 반세기 이상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해서 생겨난 것이며 한반도의 핵 대결구도는 철두철미 美·北의 대결구도이다'라고 언급
- 4.8일 북한 중앙보고대회에서 공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차수의 보고에서도 '핵융합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韓·美 핵전쟁훈련'에 대한 경계태세도 강조됐음.
- 이와 같이 북한은 계속하여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 △핵문제는 美·北간의 문제라는 인식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
- 한편 7.25일 클린턴 美 국무장관은 '북한이 협상의 장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보고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음.
- 또한 커트 캠벨 국무차관보(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담당)는 보스워스 대표와 김계관 제1부상과의 회담은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
- 당초 북한의 외교 및 안보상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의 종언' 즉 對美 관계개선이며, 南·北 관계개선은 물론 다른 외교관계도 목적에 맞는 한 추구할 것이라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향후 6자회담이 개최될지 여부는 美·北 관계의 진전에 달려있음.
- 북한은 지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응할 것이 예상되지만, 가령 재개가 실현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양보를 하는 북한에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6자회담은 빈껍데기로 끝날 것임.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현안 사항으로써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중단 문제 외에 향후 이를 6자회담 재개로 어떻게 연결시킬 지(북한의 수용을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할지) 혹은 재개 후 협상에서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도 남아있음.
- 북한은 국위선양을 비롯한 국내용 목적과 더불어 군사능력의 대외적 시위와 국제사회의 지원 재촉 등을 목적으로 또다른 도발행위를 거듭해왔음.
- 앞으로도 북한이 미사일발사나 핵실험을 시위목적 뿐만이 아니라 지원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대외카드으로써도 이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함.

③ 심각함이 더해가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

- 6자회담을 둘러싼 활발한 외교적 활동과는 다르게 북핵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한층 더 위협하고 있음.
 - 첫번째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음.
 - 두번째로 우라늄 농축활동이 드러난 결과 핵무기 개발계획의 전모는 한층 더 불투명해지고 있음.
 - 세번째로 핵을 비롯한 WMD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연장과 이동식 발사기의 안정성 및 기동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2011.6월 한국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 이유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들었으며, 김장관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약 40kg으로 추정했음.
- 그러나 이는 2008년 이후 한국정부가 발표한 견해를 반복한 것이며 새로운 견해가 아님. 2008.10월 국회에서 김태영 합동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참모의장은 북한이 6~7말의 핵탄두를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약 40kg를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 있음.

-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에 대해 북한 당국은 2010.11월에 미국 지그프리드 해커 前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에게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음.
- 해커 前 소장은 이 시설에 2,000기의 원심분리기가 있었다고 발언했음.
- 한편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0.11.30일자에서 발전용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며, 원심분리기를 '수천 기'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 해커 前 소장은 연간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추정이 맞다면 이론상 북한은 연간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2006.10월과 2009.5월 핵실험에 이어 3번째 실험을 실시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영국과 한국 등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 예를 들어 2011.2.20일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과거 두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롭게 지하갱도 몇 개를 굴착했다고 전했다.
-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4월 한국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은 국회에서 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아직 징후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음. 비슷한 평가가 8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국회답변에서도 나왔음.
- 북한은 WMD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
- 2010.12월 발간된 한국 '2010년 국방백서'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이 2007년에 실전 배치됐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정권은 기존의 일본열도 등에서 꺾까지 늘어난 것임.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2011.1월 게이츠 美 국방장관(당시)은 5년 이내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언급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더욱 증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함.
-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해서도 북한 북동부의 무수단리의 발사기지와 함께 2011년에는 북한 북서부의 동창리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가 완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 2011.6월에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동창리 기지가 완성단계에 있는 점을 인정했음.
 - 동창리 기지는 中·北 국경에서 80km정도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있으며 서해를 마주하고 있음.
 - 1998, 2006, 2009년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무수단리 기지가 일본해를 접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창리 기지는 중국에서 가까워 한국 등에 의한 공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한국내에서 나오고 있음.
 - 최근에는 북한이 이미 이동식 ICBM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존 미사일 요격시스템의 취약성과 발사원점 공격의 어려움을 더욱 높일 것임.
 - 향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진전돼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지고 나아가서는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난다면 이는 韓·美·日에 있어 큰 위협이 될 것임.
- 한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해 관련 자재 및 기재와 기술이 외국에 확산되고 있는 징후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1.9월 IAEA는 북한이 '핵 암시장'에서 자재 등을 조달하고 있으며, 리비아와 시리아에 자재 및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2011.5월말에는 미사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북한에서 동남아 방면으로 항행 중에 인도한 일도 있었음.

2012.4.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 북한이 2011.6월 지대공 미사일 KN-06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직후 한국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견해를 밝혔음.
- 6.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N-06은 KN-01/02 미사일(사정 120km)의 사정거리를 늘려 지대공용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함.
-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은 韓·美공군의 행동을 한국 영공을 포함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도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음.
- o 이같이 북한의 핵문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의 지속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II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12.2월 日 '동아시아 무역 연구회'에서 작성하고, '일본무역진흥회 (JETRO)'에서 발행된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의 북한 관련 분석내용의 원문자료를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경제개발(최신 동향)

-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이란 행정면에서는 '극동연방관구전역'(1공화국, 3지방, 3주, 1자치주, 1자치관구)를 가리키며, 지역면에서는 바이칼 지역(시베리아 연방관구 중 브리야드 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및 이르크츠크州)을 포함한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을 넓은 의미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라고 호칭
 - ※ 바이칼 지역에서 이르크츠크州를 뺀 지역이 자바이칼 지역임. 여기에서는 행정면에서의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를 '극동지역'이라고 표기하기로 함.
- 극동지역은 면적 약 622만 km², 인구 650만명(2010년)이며 러시아연방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5%에 불과하며 인구밀도가 낮음.
- 1991년에 860만 명이었지만 90년대에 100만 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 평균을 밀도는 경제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점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좋지 않는 점이 이유일 것임.
- 근접한 중국 동북지역 인구가 1억명을 넘어선 점을 봤을 때 인구규모 격차가 크고, 노동력 부족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추진의 큰 과제가 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정책은 1990년초 급진적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무를 포기했고 극동지역에 대해 특별한 경제 개발정책을 실시하지 않아 경제가 침체됐음.
- 1996년에 엘친 대통령이 극동 자바이칼지역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해 에너지, 운송, 어업부문 등 몇 가지 분야에서 개발이 이뤄졌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역 GDP가 반대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음.
- 2000년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강한 러시아'정책을 내걸어 극동지역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했음.
- 극동지역이 방치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전략상 밸런스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또한 아시아의 지역 파워로 등장한 중국의 위상에 대한 견제이기도 했을 것임.

2012.4.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따라서 푸틴 대통령 등장 이후의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극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전략이라기 보다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전략임.
- 2000년대 이후 러시아 정부의 극동정책 목표는 러시아 연방의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이해와 안전보장을 고려하면서 극동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경제적 기반의 강화, 우위성이 있는 경제부문의 우선적 발전, 국제 협력 및 국경협력 프로젝트의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지역의 사회적 안정 등이 정책에 포함됐음.
- 구체적으로는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운송 시스템의 형성, 석유·천연가스의 개발 및 파이프라인망 확대, 수산생태자원 확보와 보존, 경제부문의 구조조정, 사회 인프라 정비 등이 정책내용에 포함됐음.
- 이상의 내용을 담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계획·정책은 여러가지 '프로그램' 및 '전략'으로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책정되어 왔고, 그에 따른 경과를 다음과 같음.

[도표 : 극동러시아지역의 경제개발 계획 정책 경과]

기간	구분	내 용
1996년 4월	사업계획적 문서: 엘친 대통령	'1996~2005년의 극동자바이칼 지역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정부결정 제 480호)
2002년 3월	사업계획적 문서: 푸틴대통령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지역경제사회 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정부결정 제 169호)
2007년 11월	사업계획적 문서	연방특별프로그램 '201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정부결정 제 801호)
2008년 8월	사업계획적 문서: 메드베데프 대통령	연방특별프로그램 '201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 수정(정부결정 제 644호)
2009년 11월	사업계획적 문서	연방특별프로그램 '201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 수정(정부결정 제 965호)
2009년 12월	전략적문서	'2025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사회경제발전 전략'(정부 통달 제 2094-r호)
2010년 12월	사업계획적문서	연방특별프로그램 '201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 수정(정부결정 제 1004호)

- '전략문서'란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 등을 정한 문서로 '프로그램 문서'와는 전략에 비해 명확한 제도적 증거를 가진 구체적인 사업계획적 문서이며 '전략문서'가 상위 문서, '프로그램 문서'가 하위 문서의 구조임.

2012.4.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현재 극동지역 개발에 관한 '전략문서'는 2009.12.28일에 정부가 승인한 '2025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사회경제발전 전략'이 유일하며, 그 전에는 몇 가지의 '프로그램'이 정부 결정으로 실시됐음.
- 또한 러시아에는 지역별이 아닌 부문별 '전략'과 '프로그램'이 있음. 운수부문과 에너지 부문이 그것에 해당하는데 운수, 에너지부문은 독점 분야의 국영기업이 그 배경에 있음.
- 구체적으로는 철도 부문의 '러시아철도社', 천연가스 부문의 '가스프롬社', 원유 파이프라인 수송의 '트랜스네후치社', 석유 개발회사 '로스네후치社', 전력분야의 '통일에너지시스템社' 등이 있음.
- 이들 국영기업은 정부의 운수, 에너지 부문전략에 의거해 각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음.

[도표 : 운수, 에너지 부문의 정책문서]

구분	운수	에너지
전략적문서	'203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철도 운수발전 전략'(2008.6월, 정부통달 제 877-r호)	'2030년까지의 러시아의 에너지전략'(2009년 11월, 정부통달 제 1715-r호)
	'203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운수전략'(2008.11월, 정부통달 제 1734-r호)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2003년 8월)을 수정
사업계획적 문서	연방특별 프로그램 '러시아운수시스템의 발전(2010~2015년)' (2008년 5월, 정부결정 제 377호),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의 장래 수출을 고려한 동부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천연가스의 통일된 생산, 수송, 공급시스템의 창설' (2007년 9월, 산업 에너지성 지령 제 340호)
	연방특별 프로그램 '러시아운수시스템의 발전(2010~2015년)' 수정판 (2010년 12월, 정부결정 제 1088호)	'2020년까지의 전력시설 배치 마스터플랜' (2008년 2월, 정부통달 제 215-r호)

※ 출처: ERINA(경제전문리서치기관) 자료

- 2008년까지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제개발 계획, 정책은 실시정책과 계획 프로젝트(사업비, 재원 포함)를 기술한 '프로그램'이 중심이었지만 2009년말에 처음으로 지역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전략'이 책정되었음.
-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여력의 확대로 2008년경부터 연방정부가 프로그램 개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추진이 현실화 됐음.
- 현재 극동지역의 지역경제 개발계획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은 '2025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2009.12월)' 및 '201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2008.8월)' 임.

2012.4.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부문별 프로그램으로는 일찍이 2003년 8월에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결정돼 2009.11월에 '2030년까지의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으로 수정됐음.
- 이 에너지 전략은 에너지 자원개발 확대와 에너지 운송망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강화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과 대외 영향력 확대를 꾀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푸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극동지역의 구체적 예로 '동시베리아~태평양 파이프라인(ESPO)'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우선 2009년 12월에 정부결정된 '2025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사회 경제발전전략'은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유일한 전략 문서이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도표 : '2025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사회경제발전 전략' 내용]

(우위성)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 ② 풍부한 자원 등
(과제)	① 러시아 여타 지역에서의 먼 거리, ② 적은 인구, ③ 불충분하며 높은 비용의 경제인프라, ④ 자원공급 중심의 산업구조와 저가공 수준, ⑤ 나쁜 주거환경
(전략적 목적)	① 경제발전과 쾌적한 거주환경의 실현 ② 러시아의 평균 사회경제발전 수준의 실현
(수치목표)	① 지역 GDP 연성장율: 2011~25년에 러시아 평균+0.5% ② 최저 생활수준 이하의 주민 비율 : 24.5%에서 9.6%로
(목차구성)	제1장 순서(사회경제발전, 경쟁우위, 발전 시나리오, 전략 수단 등) 제2장 연방적 의의를 가진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및 사회적 인프라 현황과 발전 전망 제3장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연방구성주체의 사회경제발전 제4장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주요경제부문의 현황과 발전 전망 (에너지, 운수, 지하자원, 임업, 어업, 농업, 야금, 화학공업, 기계공업, 건설, 관광, 水利, 환경보호) 제5장 러시아 연방구성주체와 중국동북 각성 및 몽골과의 국경협력 및 그 외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교류 (운수, 정보통신기술, 에너지자원, 하이테크, 채굴산업, 목재부문, 농업·어업부문, 관광, 사회발전, 투자, 환경)
附表	사회발전 지표, 경제발전 지표 등

※ 출처: 러시아 연방정부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사회경제발전 전략' (2009.12월, 정부통달 제 2094-r호) ; ERINA REPORT 2011.9월호, p25에서 재인용

2012.4.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전략문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극동발전 전략의 목표를 인구 정착이라는 지정학적 과제의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경제발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의 실현 및 사회경제 발전수준의 러시아 국내 평균 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그런 뒤 최우선 수행과제로 아래의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연방구성 주체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위한 조건 정비
 - 쾌적한 주거조건을 갖춘 선도적 경제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 분포 구조 형성
 - 국내 여타 지역과의 일체화를 저해하는 장애 저감
 - 경제적 과제에 대응하는 인재, 노동력 확보
 - 원주 소수민족의 전통생활을 유지 및 지원
- 발전 시나리오으로써는 기술혁신형 시나리오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GDP성장율이 2011~25년에는 러시아 평균을 0.5% 웃도는 등 빠른 속도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음.
- 각 지역의 경제성장율은 이하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역시 경제 규모가 큰 사하공화국, 하바로스크 지방, 사할린주 등의 경제성장율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성장율이 떨어질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도표 : 지역 GDP의 연평균 성장율 목표치 (%)]

구 분	2006~10	2011~15	2016~20	2021~25
사하공화국	5.6	8.0	8.3	4.0
하바로스크 지방	3.5	8.5	9.1	7.3
사할린주	11.2	9.4	6.7	4.6
연해지방	4.9	7.7	7.2	6.9
아무르주	4.9	6.0	7.3	6.1
유태인 자치주	7.7	4.7	2.5	5.2

※ 출처: 러시아 연방정부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사회경제발전 전략' (2009.12월, 정부통달 제 2094-r호) ; ERINA REPORT 2011.9월호

- 또한 2007.11월에 정부결정된 '2013년까지의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에서 상세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의 분야별 사업비 계획 및 개별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도표 : '2013년까지의 극동 바이칼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의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 루블

분야	합계	연방예산	지방예산	자치체 예산	예산외 자금
연료·에너지부문	124,249	92,840	8,008	372	23,029
운수부문	187,469	161,558	25,561	0	350
통신부문	4,667	4,660	7	0	0
수리환경보호	1,405	1,024	278	103	0
도시시설인프라정비	37,559	28,779	3,196	3,585	2,000
사회분야발전	18,891	14,737	3,980	175	0
코만덜스키제도 종합개발	1,154	1,127	19	8	0
과학연구·실험설계업무	301	301	0	0	0
합 계	375,695	305,024	41,048	4,243	25,379

※ 注: '블라디보스톡 거점화 서브프로그램' 사업 제외

※ 출처: ERINA REPORT 2011년 9월호 p 21에서 재인용

- 분야별에서는 '운수부문' '연료·에너지부문'비율이 높으며 각각 50%, 33%를 차지해 이 두 분야에서만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자금원으로써는 연방예산이 사업비 전체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 가운데 극동지역의 역할로 아·태지역과의 대외 경제교류, 문화 교류 등의 접점, 외국자본유치, 외국화물유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거론되고 있음.
- 同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이 기계생산과 IT분야 등에서 비교적 우위의 경쟁력을 갖는 것은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지하자원의 채굴, 가공 및 중계수송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 정비'라고 정했고, 정부의 지원 수단으로써는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정부협력(PPP) 방법 활용에 의한 종합 개발지구 설정과 '투자기금', '특구'등의 활용, 운수부문의 프로그램 활용을 꼽고 있음.
- 이상에서 봤을 때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운수, 에너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 자금과 외자를 활용해 개발하는 것으로 보임.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계획에서 본 러시아와 북한

-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한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 경유의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러시아와 추진한 점과 관련있음.
- 한국가스공사(KOGAS)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이르크츠크 지역과 사할린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구상을 1990년대 초기부터 추진해왔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협력을 둘러싼 움직임은 다음과 같음.

[도표 : 한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협력을 둘러싼 동향 경과]

시 기	추진내용
1992년	· 한-러정상회담에서 사하가스전 공동개발의정서 체결
1994.11월~ 1995.12월	·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3개기업)과 러시아(가스프롬, 러시아 기업가 연맹 등)에 사하(사하네프테가스 등 2개사)가 타당성 조사를 공동 추진 · 조사결과: 북한통과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영구동토지역 사하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사업경제성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업 중단
2000.11월	· 한·러·중 3국이 이르크츠크 PNG(Pipeline Natural Gas)에서 사업공동 타당성조사 추진위한 협정서에 서명
2001.1월~ 2003.11월	· 이르크츠크 PNG 사업공동 타당성조사 실시 · 한국(가스공사 등 9개기업) 과 러시아(RP)에 중국(CNPC)가 타당성조사를 공동추진 · 조사결과: 4,000km 이상의 가스배관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 연간 각각 20bcm, 10bcm 가스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러시아정부측이 사업승인을 보류해 2003년에 가스프롬을 조정자로한 '극동· 동시베리아 가스개발 및 아시아태평양시장 수출계획의 통합가스개발계획(UGSS)'를 발표함으로써 이르크츠크 사업이 잠정 중단
2004.9월	· 한-러정상회담에서 정부간 가스협력 협정 체결에 합의(시베리아, 사할린)
2006.7월	· 러시아정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스에 대한 독점수출권을 가스프롬社에 부여하는 법률 제정
2006.10월	· 한러 양국정부가 가스공급 관련 정부간 협력협정 체결 · 양국정부는 가스프롬과 KOGAS를 PNG공급정부위임기관으로 지정(양사간에 가스협력 의정서 체결)
2007.9월	· 러시아정부: UGSS추진계획에 동부가스프로그램 계획에서 가스프롬社 가 조정자로 지정
2008.9월	· 한-러정상회담에서 KOGAS와 가스프롬이 PNG도입과 가스협력사업에 관한 MOU 체결(사할린천연가스)
2009년~ 2010년	· 사업타당성조사의 공동실시(북한 경우 PNG, 석유화학 플랜트, LNG플랜트)
2011.8월	· 한-러 정상회담(울란우테)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북한통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

시 기	추진내용
201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GAS와 가스프롬 사이에서 천연가스도입을 위한 MOU 체결 (로드맵 합의) - 2012년 1월까지: 천연가스 공급가격 합의 - 2012년 4월까지: 천연가스 공급협정 체결 - 2012년 9월까지: 파이프라인 설계와 공사개시 - 2016년 12월까지: 가스 파이프라인 완공 - 2017년 1월부터: 북한 경유의 천연가스 공급 개시
201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PNG도입에 관한 원칙 합의

- 이상의 경과에서 알수있듯이 한국과 러시아간에는 ① 사하가스유전 개발, ② 이르쿠츠크 PNG사업, ③ 사할린천연가스사업 협력이 추진됐는데, 그 가운데 사할린천연가스 도입이 현재 추진중임.
- 우선 사할린II프로젝트(가스프롬, 셸, 미츠이사가 참가)의 천연가스 부문은 2009.2월에 액화천연가스 (LNG)기지가 사할린에 완공돼 일본과 한국으로 해상 수송의 LNG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같은 해 4월부터 20년간에 걸쳐 매년 150만톤의 LNG도입계약을 가스프롬사와 계약해 도입 중에 있음.
-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프롬사가 사할린 I 프로젝트(엑슨모빌, 가스프롬사 참가)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PNG)로 하바로프스크를 경유해 블라디보스톡까지 부설하는 공사를 2009년에 시작해 2011.9월에 완공했음.

[도표 :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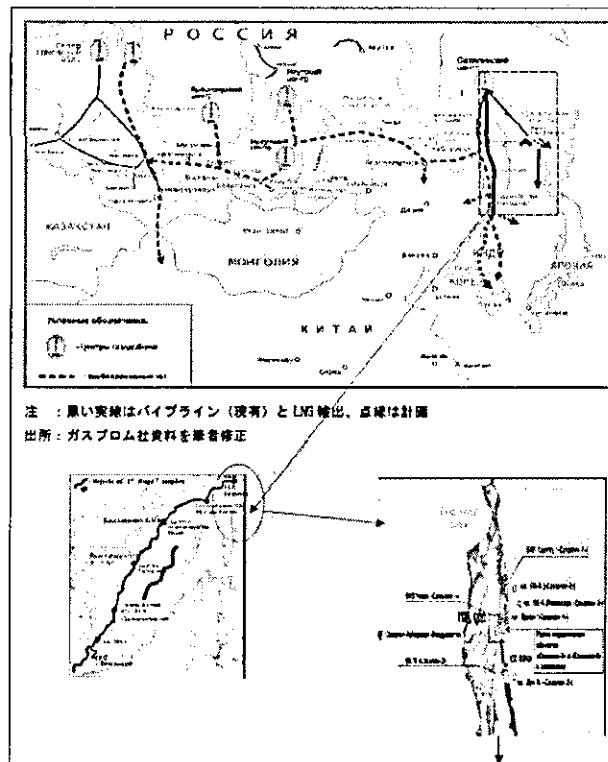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9월 산업에너지성의 계획채택 · 2008.7.23일 가스프롬의 사업비준 · 2008.11월 설계·노선 탐사 완료 · 2009.7.31일 착공식(푸틴총리 참가) · 2011.9.8일 개통식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섬, 푸틴 총리참가) 총연장 1,822km, 최대송출량: 연간 365억 m³ · 최종소비자: 블라디보스톡 열병합발전소 Combined Heat&Power Plant (CHHP-2)의 가스전환 (←석탄) · 세벨나야 열병합발전소의 가스전환(2012년)
--

- 이 사업은 러시아정부의 에너지 관련사업 프로그램인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의 장래 수출을 고려한 동부시베리아·극동지역의 천연가스의 통일된 생산, 수송, 공급 시스템의 창설'(2007년 9월, 산업에너지성 지령 제 340호)에 의한 것임.

2012.4.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 프로그램 하에 서브프로그램으로 '동부통합 가스프로그램'이 추진돼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망화와 도시가스 보급을 실현하고 있음.
- 러시아극동지역의 천연가스망이 정비됨과 함께 천연가스의 아시아·태평양 시장 수출이 추진되게 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LNG 수출과 가스 파이프라인에 의한 PNG 수출을 병행해 추진했다. 또한 북한을 경유한 한국으로의 PNG 수출이 러시아, 한국, 북한 사이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 구체적으로는 2008.9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공식 방문 때 KOGAS와 러시아 가스프롬社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는 각서(MOU)를 체결했음.
- MOU에 따르면 KOGAS는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10BCM(Billion Cubic Meter; LNG환산으로는 약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함.
- 30년간 가스공급의 총 가격은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 이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연결된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도표 : 동부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가스파이프라인 통합망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의 수출]



※ 注: 검은 선은 파이프라인(現有)와 LNG수출, 점선은 계획
※ 출처: 가스프롬社 자료

2012.4.6(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경유의 천연가스파이프라인 추진에 대해서는 하단의 도표에 따른 일정으로 실시해 2015년부터 러시아의 PNG를 북한경유로 한국에 공급하는 내용이 한-러간에 합의됐으며, 양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은 한국, 러시아 및 북한의 자재, 기술인재, 자본을 상호 이용해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음.

[도표 : 북한 경유의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 추진 일정(2008.9월 MOU)]

내 용	일 정
타당성조사 실시	2009년부터 약 2년
최종계약(KOGAS-가스프롬)	2010년말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2011~2014년
러시아PNG공급	2015년부터

※ 출처: KOGAS 자료

- KOGAS는 2009년에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북한 현지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 제안서를 북한측에 발송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KOGAS는 중국을 경유하는 안과 경유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음.
- 먼저 중국을 경유하는 안에서는 '러시아~심양~베이징~산둥반도~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해저 파이프라인과 '러시아~심양~북한~일산~평택'으로 이어지는 육로 파이프라인을 함께 검토해 북한의 반응에 따라 더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음.
- 2010년까지 실시된 2년간의 타당성 조사 가운데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안은 해저에서 가스파이프가 부식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가 동의했음.
- PNG 라인에서 남아있는 안은 북한의 육지를 경유하는 안이었지만 북한 으로부터 답변을 못 받은 채 타당성 검토에 시간이 걸려 PNG 도입은 당초 목표인 2015년에서 2년 늦어져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수정됐음.
- 한편 2010년 시점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PNG 도입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천연가스를 LNG 혹은 CNG(Compressed Natural Gas)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공동 검토하기로 했음.

※ PNG는 t당 수출가격이 16달러로 LNG 48.7달러의 3분의 1, CNG 31.1달러의 2분의 1 수준임.

- 또한 KOGAS와 가스프롬社는 공동으로 극동지역에서 석유화학 컨비넨트과 LNG 플랜트를 건설해 공동운영, 판매(수출포함)를 추진하는 내용에도 합의했음.

2012.4.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즉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한국의 석유화학 기술을 활용해 폴리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컨비넌트를 건설함과 동시에 KOGAS의 LNG 분야의 노하우와 구매력을 활용해 블라디보스톡에 LNG 플랜트를 건설함으로써 아태지역으로의 LNG 수출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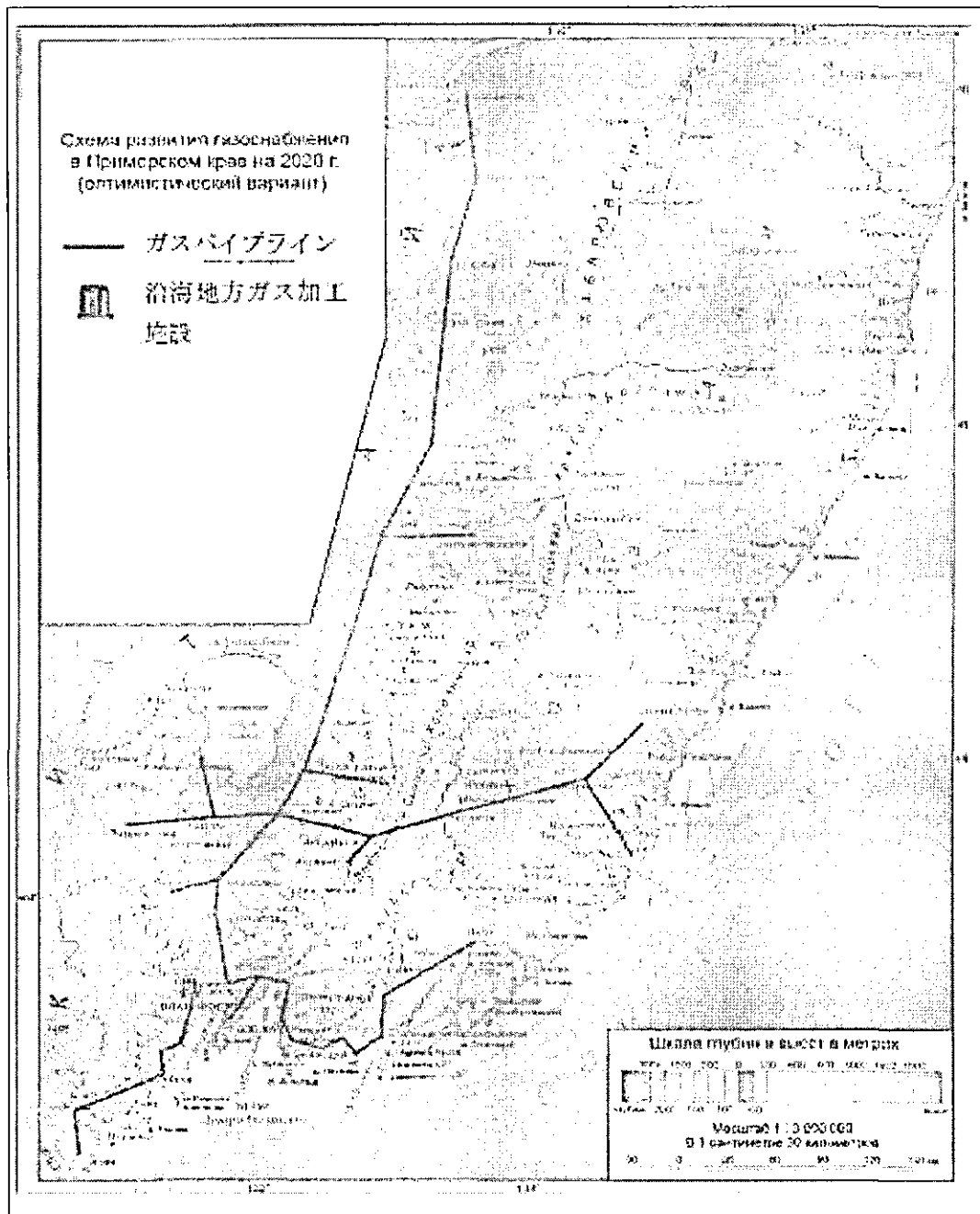
[도표 : KOGAS와 가스프롬의 공동프로젝트 내용]

구분	석유화학 컨비넌트	LNG 플랜트
생산능력	폴리에틸렌 100만톤 폴리프로필렌 50만톤	500만톤
투자액 (총계 1,020억 달러)	건설비 90억 달러	한국:30년간 천연가스 구매액 900억 달러 PNG추진 시: 북한경유 배관 건설비 30억 달러

※ 출처: KOGAS 자료

- 그러나 2011.8월에 한-러정상회담에서 북한 육로 경유의 PNG 통과가 합의돼 그 후 PNG의 한반도 통과구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북한의 원유공업성이 PNG 부설에 대한 기본합의(MOU)를 체결했고, 가스프롬과 KOGAS사이에서도 9월에 MOU가 체결돼 2017.1월부터 북한 경유의 PNG 공급을 시작하는 로드맵이 합의됐음.
-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으로 가는 루트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협의 중에 있는데 한국으로 가는 길과 관련해 ① 한반도의 일본해 연안선을 따라 강원도 삼척시에있는 LNG 생산기지에 공급하는 방안과 ② 러시아가 검토해온 한반도 횡단철도(라선~원산~고산~철원)를 따라 한국 평택시에 있는 LNG 기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가스프롬社は 한반도 횡단철도를 따라 건설하는 안이 경제적 비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2번째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
※ 출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기술대학 석유 가스연구소에서의 청취조사
- 향후 일정은 러시아, 한국, 북한이 공동으로 협의해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 한국은 2009년에 150만 톤의 LNG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지만 이는 국내 전체 LNG수입량 2,580만 톤 중 6%수준임.
- 한국은 천연가스 도입처를 다원화함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청정에너지의 이용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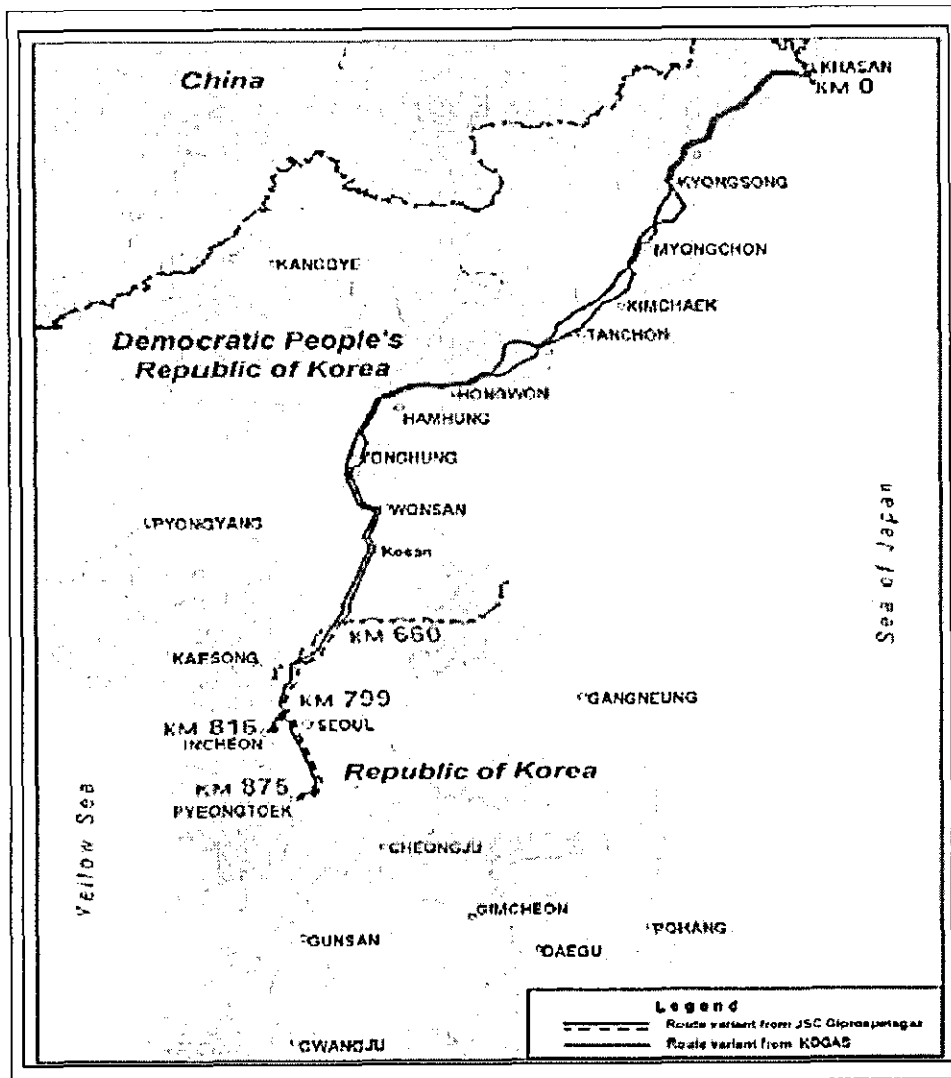
[도표 : 2020년 연해지방의 가스공급 발전도]



※ 출처: 극동기술대학 석유·가스연구소 자료

- 북한은 PNG파이프라인 부설로 연간 1~1.5억 달러의 통과료 수입을 얻게 되며, 러시아·북한·한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북한 경유 PNG 파이프라인 건설은 건설비용의 부담문제, 가스가격과 통과료 산정문제, 북한의 가스관 폐쇄 가능성 문제 등 러시아와 한국에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음.

[도표 : 한반도 PNG파이프라인 건설구상]



※ 출처: 가스프롬社 자료

[도표 : 북한경유 PNG부설의 이점과 과제]

구분	이익	리스크와 과제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수출지역의 다양화 안정적인 외화획득 중국 및 유럽과의 가격협상력 증가 동북아시아 에너지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관 건설비용부담 북한의 가스관 폐쇄 가능성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렴한 PNG수입 에너지 수입원의 다원화 남북관계 긴장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관 건설에 불참 가스가격 결정에서 불리한 입장 가스관 폐쇄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로부터 LNG수입 병행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외화획득(통과료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관 바이패스(중국)와 러시아의 LNG수송 가능성

□ 러시아와 북한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 2006.3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와 북한, 한국의 철도 대표가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라진~하산의 철도 구간을 보수하고 라진항에 화물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음.
- 그 후 2008년에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었지만, 러·북간에는 2008.4월에 2006년의 한·러·북 3국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서가 서명됐음.
- 라진~하산구간 철도는 구소련시대에 광궤·표준궤의 4개의 궤도가 부설됐는데 2011.10월에 1990년대에 사용이 불가능해진 광궤의 보수가 완료돼 시험 운행이 시작됐음.
- 러·북간 철도 보수를 위한 투자액은 80억 루블(2억 7천만 달러 이상)이며, 최종 정상운행은 2013년이 될 예정임.
- 철도연결 이외의 경제협력 사업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북한 노동자 수출이 있음. 이전부터 별채 노동자 수출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톡 건설현장에 건설 노동자 1만명이 수출됐음.(루스키 섬에 8천명,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2천명)
-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사이에는 철도, 에너지, 노동력 수출 면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임.
-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인데 러시아 정부는 2011.8월 러·북정상회담 때 북한의 대러 채무 약 110억 달러를 90% 삭감해 나머지 10%를 북한내 공동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채무를 탕감할 방침을 정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에 새로운 투자와 원조 등을 할 수 있게 됨.

□ 2008년 이후의 새로운 동향

- 2010.5월부터 러시아철도 자회사 'RZD스트로이'가 참가해 빠른 속도로 철도 정비가 추진됐음.
-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진출 특히 라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 더 이상 지연시키면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임.
- 러시아가 장래적으로 라진항을 이용하는 옵션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분명함.

2012.4.6(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1.10.13일에 하산~라진 54km 가운데 러시아에 가까운 약 32km 공사가 완성돼 시험 운영을 했으며, 2012년 여름에는 모든 구간이 표준궤와 광궤의 혼합 궤도로 완성될 예정임.
- 2011.8월에 라진항에서 항만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취 조사를 실시했으며, 러시아는 2011.9월경에 라진항 제 3부두의 바다 쪽 절반 개수 공사에 착수하고 그 후 육지쪽 절반을 개수하는 플랜을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함.
- 러시아가 이처럼 프로젝트에 속력을 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중국이 제 3부두의 사용권 취득에 적극적이며, 러시아가 필요 없다고 하면 중국이 권익을 사들이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점이 큰 결정타가 된 듯함.
- 북한측도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점에 지쳐 중국의 제안에 응해 러시아에 강하게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분석보고서

["러시아와 세계 2012: 경제 및 대외정책"/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스탈린 시대 경제 및 국제관계 분야 싱크탱크로 출범하여 러시아의 대외전략 수립과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주요 연구기관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2011년말 발행한 '러시아와 세계 2012: 경제 및 대외정책'과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보고서의 원문자료 중 한반도 관련사항을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러시아와 세계 2012: 경제 및 대외정책⁵⁾

○ 동아시아

-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중국은 접경지역에서의 공동개발지대 조성 및 합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대외적으로 한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역내 국가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팽창'의 심화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는 2012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6자회담을 둘러싼 분위기에 긴장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는 나머지 '5개국'의 분열을 초래할 만큼은 아니다.
- 한반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은 동아시아 주요국가인 중국, 대만, 한국,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 한반도

- 남·북한의 내부 정치상황에 따라 북한 정권의 새로운 도발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에서는 국회의원(2012년 4월) 및 대통령(12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여당은 4월 국회의원 선거 후 의회통제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5) 본 보고서는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례 예측보고서임.

2012.4.2(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주요 원인으로서는 청년 실업률 증대로 인한 젊은층 유권자(20~40대)가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011년 말 치러졌던 서울 시장 선거를 들 수 있다. 당시 여당 후보는 야당 단일후보에 패했고, 이후 2012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쇄신바람이 불었다.
- 대선정국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어쩌면 4월 국회의원 선거 참패 후 정치균형 논리에 따라 여당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대선 결과는 2가지 주요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첫째,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처럼 강력한 단일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냐이다.
 - 둘째, 여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이다. 만약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나설 경우 여당의 승리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연령층이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선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리더 교체와 사회·경제 문제가 될 것이고, 북한문제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여당은 선제조건 없이 6자회담 재개라든지, 국제 및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증대, 혹은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선전물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동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이전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당은 북한이 한국안보의 실질적 위협 요인이며, 약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핵 폐기 의향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 한국 정부는 대북 실용주의·강경정책과 유화·양보정책이라는 2가지의 노선을 통한 접근법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전반적으로 실용주의·강경정책을 계속 취할 것이다.

○ 북한

2012.4.2(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2012.4월 북한에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 북한 지도부는 2012년까지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동안 주창해왔던 목표달성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 그리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2012년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 우선 북한은 2012년 행사를 치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정·물질 자원을 끌어들이고,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물을 계속 나눠줄 것이다.
- 미국과 한국이 대북 지원관련 강경정책을 유지할 경우, 북한은 중국, 러시아, 유럽,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효과가 떨어지는 5월 초부터 북한은 '강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 구호를 주창하면서 강성대국 만들기 두 번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다.
- 하지만 본 연구소는 북한이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북한은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고농축우라늄 필수질량을 생산해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과 DMZ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한국 대선을 앞둔 시점인 2012.9~11월 사이에 크다고 보고 있다.
- 북한은 한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야당(대북 유화정책 재개 및 새로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할만한 논거를 주려 할 것이다.
- 사실상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북한은 매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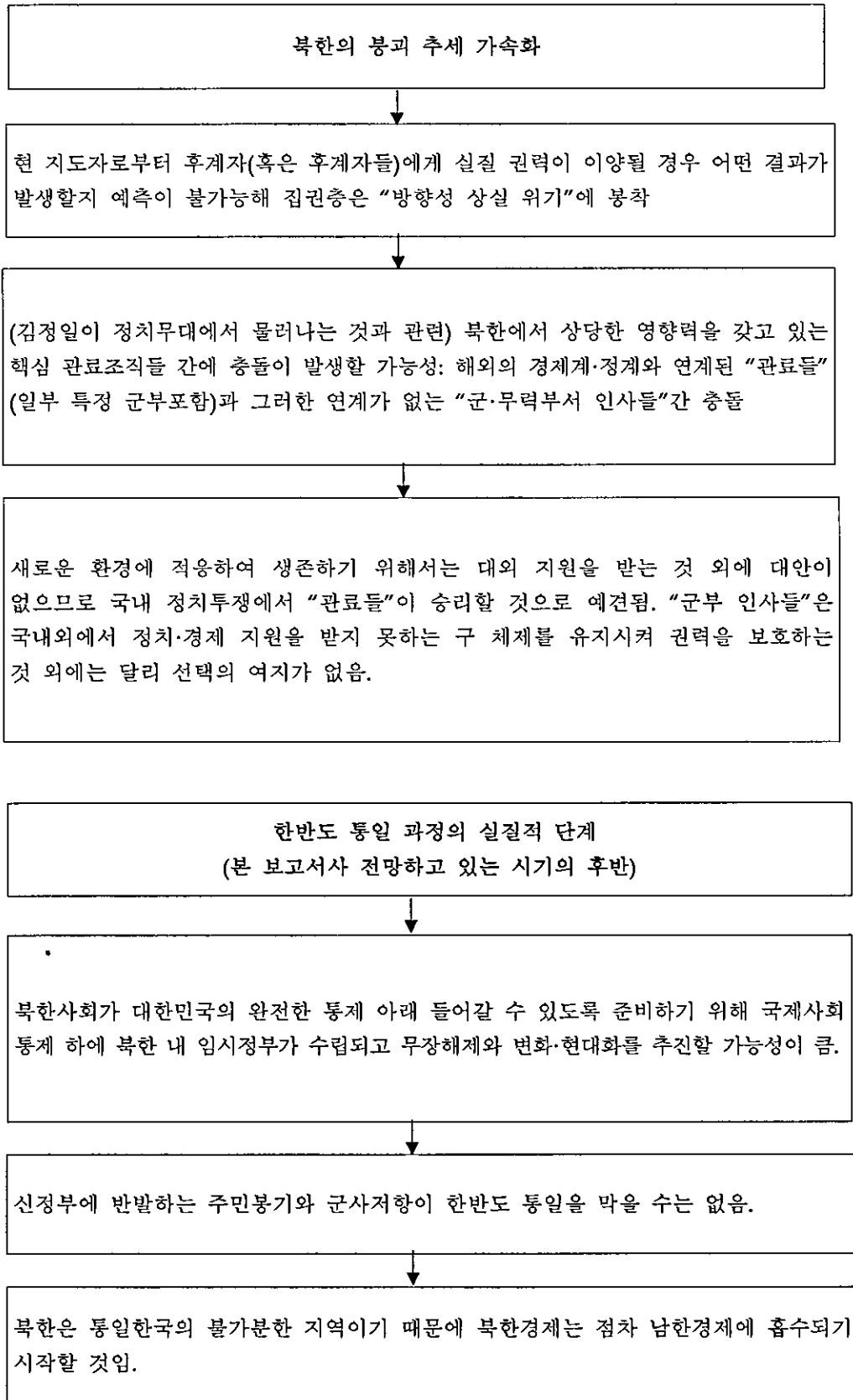
□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 본 보고서는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100여 명의 연구진이 3년 이상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완성했고, 향후 러시아 국가 전략의 기본 틀이 될 미래예측 보고서임.

【한반도: 변화와 통일의 시나리오】

○ 통일의 단계

- 한국은 앞으로 20년간 인구증가, 연령별 인구분포 변화, 도시화, 경제 성장, 산업구조 개선, 사회제도 개혁, 국민권리 보호, 정치사회단체 발전 등에서 점차적으로 더욱 선진 민주국가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 또한, 경제 및 사회문화·정치 변화 과정에서 민족적 특수성이 계속 유지 되면서 남한과 북한(붕괴추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본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는 시기(2011~2030년) 후반에는 완전한 한반도 통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통일과정이 실질적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 현재 남한 인구는 5천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천 5백만 명이나 통일 한국의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30년에는 인구가 7천 6백만에서 7천 7백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다.
- 통일과정에서 북한 내 1백만 명 정도의 舊 체제 지지자들이 북한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중국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러시아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 남한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동함에 따라 통일한국에서는 인구 불균형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 또한 남·북한의 도시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한국의 도시인구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30년에는 85%까지 증가할 것이다.
- 한반도의 통일 단계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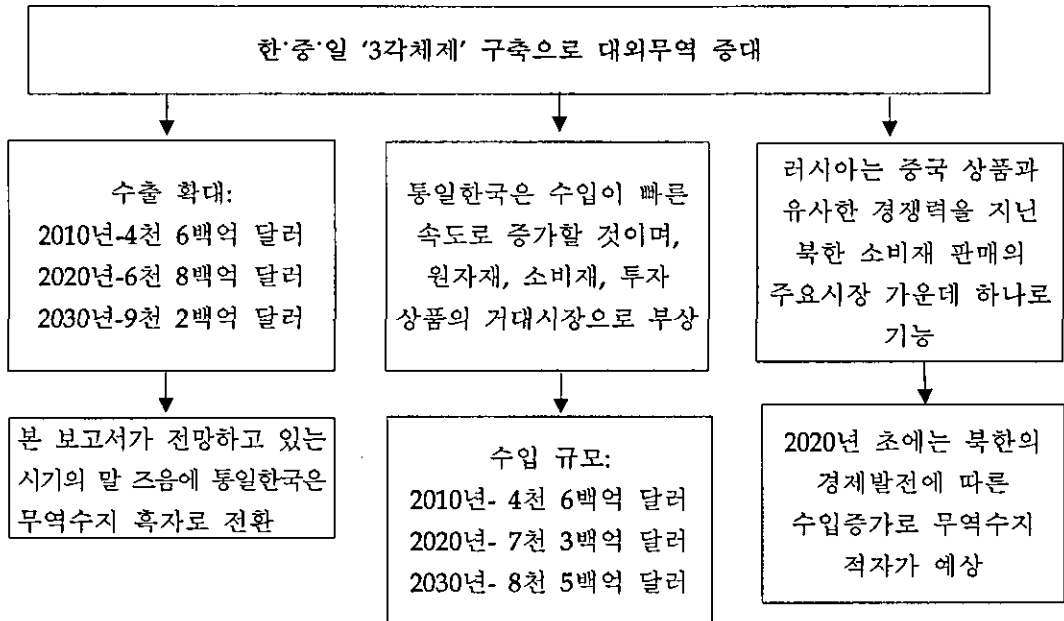
○ 경제성장 둔화: 통일의 부담

2012.4.2(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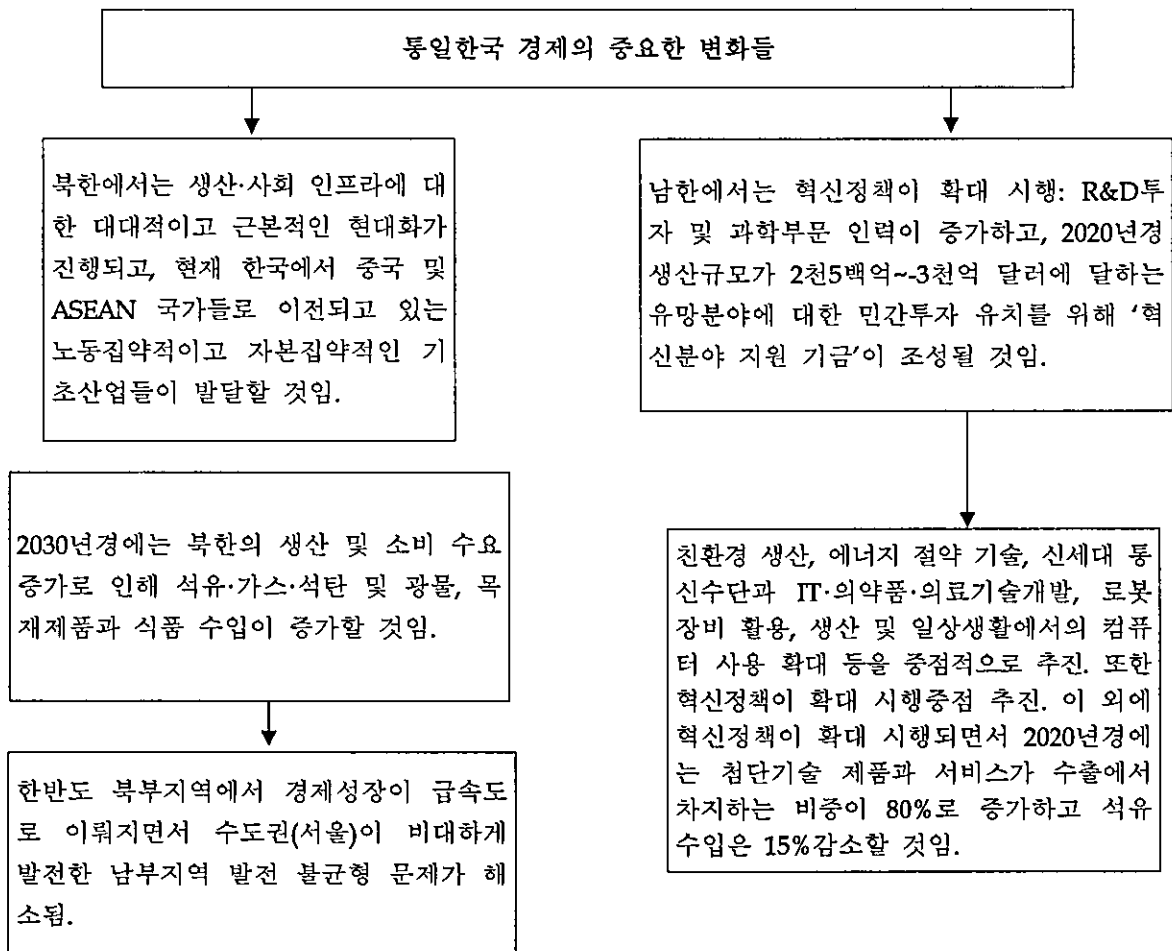
- 2011~203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은 3.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20년까지 GDP가 매년 3.5%씩 성장할 것이다.
- 2020년 전반에는 한반도 통일의 실제적 부담(본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는 시기의 중반에 특히 부담이 큼)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2.0%까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대 후반에는 북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일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 5-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2021-203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은 4%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전망치는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인 중국의 발전이 둔화될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다.
- 가장 가능성이 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통일한국의 GDP는 2010년 1조 1천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7천억 달러, 2030년 2조 3천억 달러까지 증대될 것이다(2009년 집계치 기준).
-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한국 양측의 경제 격차는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일본과의 '3각체제' 구축

- 본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는 시기의 통일한국 경제발전은 태평양·아시아 지역 통합과정을 포함한 역내 협력, 특히 중국·일본과의 '3각체제' 구축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 역내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형성될 수 있다.
 - 환율·금융통화 정책 조정
 - 무역 및 투자 제도의 자유화
 - 혁신·교육 관련 공동 프로그램 실시
 - 환경보호 및 전염병 퇴치에 관한 기초 프로젝트와 조치들
 - 중·일과의 양자 FTA를 통한 관계 설정(통일한국과 ASEAN 국가들간 경제·통상 관계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조정될 것이다)
- 한·중·일 3각체제 구축으로 인한 통일한국의 대외무역 증대는 다음과 같다.



- 통일 한국의 경제의 중요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 통일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러시아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통일한국은 러시아가 극동

2012.4.2(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지역에서 외교력을 제고하고 지역협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

- 러시아 기업과 정부가 한반도의 대규모 교통운송, 에너지, 산업프로젝트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수출품(연료, 원자재 상품, 반제품, 목재 및 목재가공품, 금속, 화학·석유 화학 제품)과 기계제품(에너지 설비, 철도장비, 헬리콥터 및 관련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 통일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남한간 북한에 대한 통제력 확보 경쟁이 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이 합리적인 북한흡수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북한은 오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은 가능성이 낮다.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Ⅲ [북한의 경제발전 정책의 입안 및 추진체제]

'12.2월 日 '동아시아 무역 연구회'에서 작성하고,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서 발행된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의 북한 관련 분석내용의 원문자료를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경제발전 정책 입안의 보편적 요인

-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소련군에 의한 군정을 거쳐 1948년에 분단국가로 독립을 맞이한 북한은 인도와 베트남 등 식민지에서 독립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족자본의 결여와 산업화의 지연이 현저했음.
- 한반도 북부의 주요 산업이었던 공업 분야는 소련군의 군정 하에서 '인민위원회' 등에 의해 접수돼 건국 후에는 국유자산이 됐음.
- 하지만 군정기때 소련군에 의한 설비 반출(약탈)과 일본인 기술자의 귀국,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 부품의 공급부족, 동서 냉전으로 인한 서쪽으로의 판로 폐쇄 등으로 공업 플랜트는 식민지때와 같은 실적을 낼 수 없었음.
- 한국전쟁 후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기반산업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업국가 건설을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삼았으며, 이는 지도부가 한국전쟁 때 자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임.
-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북한이 6.25 전쟁을 겪고 폐허에서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심각한 자본과 외화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자본과 외화부족을 극복해 국가를 건설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열강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의 보편적 과제였음.
- 북한 경제는 한국전쟁을 치루는 중에 '전시통제경제'라는 지극히 중앙 집권적인 상의하달식 지도체계가 국민을 굶어 죽이는 일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결과를 낳자 그 후 이 체계를 부연하는 형태로 북한의 경제 정책이 전개되게 됐음.
-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후에도 냉전 아시아에서의 최전선으로서 한국, 미국과 치열한 대립을 계속하게 된 북한은 정치와 군사가 경제, 민생에 선행된다는 발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현실의 경제 상황보다 이론, 원칙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음.

-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동서냉전 하에서 동서진영이 대립하는 최전선으로서의 지위는 한국전쟁 휴전 후에도 동구권 진영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근거한 복구지원 획득으로 이어졌음.
-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실제로 그같이 노력하면서도 자본과 기술, 북한에서 생산할 수 없는 석유와 코크스 등의 연료 및 원자재를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조달해 무역적자 중에 대부분은 사실상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내포하며 성장했음.
- 중공업은 석유와 석탄, 코크스 등의 연료를 자급할 수 있는 소련과 동독, 폴란드 등을 모델로 하여 지원을 받으면서 플랜트를 건설했고, 그 결과 에너지 고소비, 저효율형 공업이 완성됐음.
- 이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공업을 동구권 진영의 지원을 받으며 가능한 한국의 원료, 연료를 이용해 가동시키는 것이 북한형 성장모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국이 되기 위해 또 주요 국방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중공업을 증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음.6)
-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북한의 특징이며, 그 결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도 주변국에 비해 매우 높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7)
-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은 북한 인구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과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됨과 동시에 주변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안정돼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 북한의 산업정책은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정책 전반을 보면 지금까지의 수입대체형 산업구조를 서서히 수출지향으로 개조해나갈 것이나, 북한의 산업에 어떠한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현 상황에서는 불분명하며 이같은 산업정책의 변경이 소기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함.
-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외화가 필요하며, 또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6) 중공업 우선정책을 변경한 것은 1993년 제3차 7개년 계획이 일부 지표 미달성으로 종료된 후 '신경제전략'이 취해진 시기뿐임. 그 후 1998년에는 제차 중공업 우선전략으로 돌아갔음. 2009년 이후 농업과 경공업에 주력한 정책에서 '신경제 전략'과의 유사성도 보이지만 중공업 특히 군수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점은 90년대 중반과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7) 북한은 국가예산 중에 국방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16%임. 그러나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 계산에서 지출되는 것 이외에도 공표되지 않은 '제 2경제위원회' 등의 예산에서도 지출되고 있음. GDP대비 몇%의 국방비가 지출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표시한 통계자료는 없음.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 등의 에너지 수입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런 요소를 고려해보면 북한은 국제관계가 호전됨과 함께 외화를 얻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시기별 요인

- 1945년 소련군의 점령 이후 북한에서는 소련군과 이에 협력하는 조선인들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개조가 진행됐고, 1946년에 불과 수개월 만에 급진적 '토지개혁'을 실행했음.
-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진영의 지원을 받았고 전후 복구를 할 때에도 동구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경제 건설의 기초로 삼은 북한은 노동당에 의한 사회 장악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했으며, 동서냉전의 최전선에 섬으로써 이에 따른 혜택(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을 이용하며 성장했음.
- 자본과 외화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복구건설을 할 때 국내 자력갱생으로 부족한 부분은 소련, 동유럽, 중국의 원조로 충당했음.
- 1960년대 국제정세가 긴장돼 군비를 확장해야만 했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액은 1950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음. 1970년대 전반에는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으로 생산설비, 기술을 도입했음.
- 오일 쇼크로 인해 아연 등의 1차산업 제품의 가격 침체로 대외상환 지불이 어려워졌고, 1980년대 이후 서방국가와의 거래가 제약됐으며, 대외적 신용하락으로 외화부족도 현저해졌음.
- 1980년대에 들어 북한은 무역대상국을 사회주의 국가 이외의 개발도상국 국가로까지 다각화함과 함께 1984년에 합영법(합작법)을 입법시켜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외화준비에 제약받지 않는 기술도입을 도모하려 했음.
- 그렇지만 대규모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舊 소련, 동유럽의 지원을 얻어 경제 건설을 하려 했음. 그러나 이것이 막 시작된 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시장이 붕괴해 '프롤레타리아 국제

8) 제 4장에서 기술한 대로 북한의 석유 수입은 연간 약 50만 톤에 머물러 있음. 이는 구 소련, 동유럽의 사회주의정권 붕괴전인 5분의 1~ 6분의 1과 비슷함. http://oilgas-info.jogmec.go.jp/pdf/3/3487/1001_out_1_cu_exploration.pdf 에서 인구 1100만 명인 쿠바의 1년간 석유수요량은 2400만 톤 정도이며 50만 톤이라는 수치가 인구 2400만 명인 북한에 있어서 얼마나 적은 수치인지를 잘 알 수 있음. 북한은 석탄과 수력 의존도가 크다고 하지만 같은 사회주의국가 간에서도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북한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놀라울 정도임. 에너지자원의 부족은 북한의 산업발전의 주된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북한경제 복귀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은 틀림없음.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주의'에 따른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러시아와 중국 모두 경화 결제가 기본이 됐다.

- 이는 즉 한국전쟁 이후 약 40년에 걸쳐 북한이 유지해온 성장모델이 파탄난 것을 의미함.
- 사회주의 시장붕괴 시점부터 북한은 자본 부족과 함께 경제 운영에 필요한 석유와 코크스를 비롯한 연료와 여러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부족에 시달렸음.
- 외화가 필요해진 북한은 서방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991.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라선·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함.
- 1992.4월에는 20년만에 헌법이 개정돼 외교 기본노선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서 '자유, 평화, 친선'으로 변경됐음.
-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원조만 알던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통하지 않았음.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임을 선전해온 북한에서 이 원칙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임.
- 1993.1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회 총회에서 강성산 총리에 의해 제3차 7개년 계획의 총괄보고가 발표됐으나, 공업생산과 지방공업 생산 모두 계획을 밀돌았고 농업생산은 수치의 발표조차 없었음.
- 경제성장 모델의 파탄으로 장기 경제계획도 파탄 나버렸음. 그러나 이것을 원조의존형 사회주의 계획체제의 파탄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한국과 대립상태에 있던 북한에는 어려운 일이었음.
-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했으며, 일본과는 비교적 빠른 1990.9월에 이른바 '카네마루 방북단'의 방북을 계기로 1990.11월부터 12월에 걸쳐 예비협상이 3번 개최됐고, 1991.1월부터 1992.11월까지 8번의 국교정상화 협상이 진행됨.
- 대미 관계에서는 1994.4.28일 북한의 외교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고, 같은 해 10월 21일에 핵문제와 관련된 '미북 기본합의서'가 서명됐음. 같은 해 6월에는 남북간에 정상회담 준비협약이 열려 남북 정상회담을 7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1994.7.8일 국가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남북 정상회담은 일시적으로 연기돼 결국 2000.6월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리지 않았음. 후계자는 1974년에 이미 김정일로 결정돼 국가 체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시작하여 제도적으로 고정된 것은 4년 후인 1998년이었음.

-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북한은 능동적으로 경제개방을 할 능력을 상실했고, 사회주의 간판은 있지만 국가에 의한 식량과 생필품 공급에는 한계가 생겨 1980년대 이전과 같은 '은혜와 봉공'적인 국가와 국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
-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때에는 배급제도가 유명무실화돼 국가를 믿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음.
- 현재 북한 국민은 그 때 국가의 공급을 받은 일부 엘리트층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은 강인한 서민으로 양분화 되어 있고, 많은 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국영 부문 이외의 곳에서 얻는 수입과 상품유통에 종사하게 됐으며, 그 한 예가 이전부터 인정받은 '농민시장'의 암시장화임.
- 1998년 헌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개혁은 2002.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농민시장을 공업제품의 판매도 허용하는 지역시장으로 공인했고, 국영기업 시장과의 연결도 일부 용인하는 등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 없었던 큰 변화를 낳았음.
- 이것은 모두 약해진 국영경제를 대신하는 형태로 부상한 비공식 경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소극적 조치이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경제개혁은 아님.
- 그러나 경영 자주권의 확대와 실리 중시, 시장을 매개로한 국영 부문의 비국영 부문과의 거래증가 등 북한경제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게 된 것은 사실임.
- 2009.11월 화폐개혁의 실시 때 경제면에서의 국영부문의 지배적 지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 비국영 부문에 축적된 화폐자산의 몰수가 시도됐음. 이와 함께 시장운영도 금지돼 다시 국영 상업망에 의한 소비재 공급이 기획됐음.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정통이며 이를 부활시키는 것이 국민 생활의 향상이라는 관념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됐음.
- 그러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영 부문은 국민에게 충분한 소비재를 공급할 수 없었고 국민생활에 혼란을 가져왔음. 이는 북한 정부에 자국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비국영 부문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현상을 인식시켰으며, 이는 지금까지 금과옥조로 삼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신할 경제발전 모델의 모색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09년에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발생한 경제적 혼란은 북한 지도부에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취하게 했음. 즉, 현재 국가에 의한 식량과 소비재 공급 능력 부족을 인정해 시장에서 식량과 소비재 판매를 다시 허용하게 했음.
-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고 선언한 북한에서는 중공업 일부에서 생산 증가가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생활은 여전히 어려움.
- 2010~11년 김정일의 3번(러시아 방문 후 돌아오는 길까지 합치면 4번)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최고지도부는 북한에 한층 더 경제적 개방을 촉구했음.
- 2010.5월의 방중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고, 8월 장춘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력갱생 모델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시대의 조류라는 점을 강조함.
- 이같은 직설적인 발언이 중국의 공식발표에 게재되게 된 것은 2010년부터이며, 그 결과 2011년부터 中·北간 경제관계에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함.
- 북한이 경제건설을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삼은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많음.
- 지금까지의 경제정책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정리할이지,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을 근본부터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 이 때문에 새로운 경제정책으로의 이행은 정권 내부로부터도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임.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생활 향상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으며, 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정권의 정통성을 잃을 것임. 이 때문에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임.
- 2011년 말에 김정일이 사망해 김정운을 후계자로 세운 신체제가 시작됐지만, 북한 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와 극복해야할 국제정치적 관계에는 변함이 없음.

□ 북한의 국내경제 현황과 경제 정책 입안의 상황

- 1998년 이후의 경제개혁으로 북한에서는 국내경제 운영의 방법이 더욱 현실화됐음.
- 국영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와 재무지표 도입, 시장공인에 의한 시장 가격으로의 상품판매 가능성 확대로 국영기업의 행동도 국가계획의 수행이라는 사명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윤을 올려 내부유보를 원천으로 하는 투자를 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이는 국영기업의 행동을 지금까지처럼 상부기관의 행정적 지도에 의해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함.
- 국영기업에 의한 이익추구는 경제계획의 수행에서 벗어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될 때 '기관본위주의'로써 부정됨.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올리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충분한 월급을 줄 수 없고 투자를 할 수도 없게 됨.
- 앞서 말했듯이 사회주의 물자 교류시장의 등장으로 국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일이 많아졌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낮은 가격으로만 상품을 사는 국영상업망에 상품도 도매로 파는 것만으로는 원가도 못 건지게 됨.
- 이렇게 되면 기업 운영자체가 설립되지 않게 되고, 기업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무지표로 기업이 평가를 받아 그 명운이 결정되는 시대가 왔음.
- 이같은 국영기업의 비국영부문과의 연결은 지금까지 중앙은행 계좌에서 일괄 관리돼 무현금 결제로 처리된 국영기업간 결제에도 변화를 가져왔음.
- 현금 결제가 늘어나 같은 통화공급량이 있더라도 현금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는 구조를 만들게 했고, 이는 2009년 11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됨.
- 긴축기에 들어선 2007년 이후의 '경제연구' 등 북한에서 출판되고 있는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현재의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부각되어 있음.
- 거기에는 국가재정부족, 경제의 시장화억제, 중공업 우선의 개발전략 정당화, 국영기업의 경영자주권 통제강화, 식량관리 강화, 국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의 적극적 이용 등이 적혀 있음.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경제적으로 국가재정에 여유가 없고, 이것이 중공업을 비롯한 국가경제 계획 수행의 발목을 잡아 화폐가 비국영부문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논문이 많음.
-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경영자주권 통제강화와 '밑에서부터의 시장화'에 의해 국가 통제를 벗어난 부문을 재차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음.
-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생산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국영부문에서 거래되고 있는 소비재와 생산재를 국가통제 하에 두어 국영사업망에 의한 거래로 전환함으로써 비국영부문에 머물러 있는 화폐를 국가의 수중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여기에서 현재 북한경제에는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경제개혁 조치가 제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남아있으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적 요소 내지는 비국영부문, 계획외생산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를 긴축하는 방향성을 취하려는 점을 알 수 있음.
- 특히 국영기업의 계획외 생산은 자본 도입에 있어서도 국가 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자본도입이 이루어져 원자재 조달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시장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음.
- 자금력을 확보하게 된 상인들은 개인기업이 허용되지 않은 사회조건 하에서 국영기업의 '간판'을 빌리는 형태로 장사를 했다고 추측되는데 이같은 계획외 생산은 2002년경부터의 국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가 가능해진 것임.
- 국영기업의 독자적 자금에 의한 확대재생산에 대한 세제우대 등 2002~2004년경에 나온 각종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영경제와 비국영부문의 결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음.
- 경제개혁을 통한 사회변동 속에서 비국영부문이 경제적으로 부상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찾아 비국영부문에 접근했고, 비국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력의 비호를 받기 위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접근하게 됐음. 북한 사회는 이미 돈과 처세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음.
-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앞서 말한 것 같은 이익 우선의 개인주의 확산과 국영기업의 '기관본위주의'에서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경제 이익 추구가 일반화되어 국가와 소속된 집단 이익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발상의 만연을 경계하고 있는 것임.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국영기업이 시장과 사회주의 물자 교류사정을 매개로 비국영부문과의 연결을 강화한 것은 국영기업 행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
- 북한은 국영기업 경영에서도 기업내 당위원회 지도를 받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리모델로 채택해왔으나, 국영기업의 생존이 국가계획의 충실한 실행뿐 아니라 재무지표에 의해서도 평가되었고 독립채산제 강화로 이전보다도 기업노력에 의한 채산성 향상이 요구받게 되자, 당을 중심으로 한 지도체계 외에 금전을 매개로하는 사회관계도 중요해짐.
-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제창하면서도 실제로는 비국영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북한 국영기업에서도 일상이 되고 있으며, 국영기업은 자사의 종업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각종 시장과 계획외 생산을 실시하는 다른 국영기업, 협동단체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게 됐음.
- 자연발생적인 '밑에서부터의 시장화'가 북한사회의 또 다른 일상이 돼 조선노동당의 지도체계를 잠식해 나갔다고 할 수 있고, 이같은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2009.11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을 추진시킨 정치적 요인임.
- 북한은 화폐교환의 성격을 인플레이션 억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따른 경제관리 강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원칙과 질서에 근거한 경제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영유통망을 통한 국산품의 유통증대 등 국가 경제능력 강화로 시장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비국영부문에 축적된 통화를 회수해 국영부문의 지배적 지위를 되찾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한 연구원은 '사적 경제영역에 화폐를 대량으로 축적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높여온 비공식적인 상인계층 혹은 지하계층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함.
- 화폐교환과 함께 시장폐쇄, 일반상점 및 식당 등에서의 외화 거래 금지가 실시됐음. 이와 함께 국영 상점에서 식품과 생필품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품목이 대량으로 돌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물자 부족은 계속되었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했던 임금만 가지고 살아가는 근로자층에게 여파가 가는 상황이 됐음.
- 즉, 국가는 이미 국민에게 충분한 분량의 식량과 소비재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화폐개혁 후의 혼란 속에서 분명해졌음.
- 또한, 화폐개혁은 자국통화에 대한 신임을 매우 악화시켜 외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낳았음. 화폐의 기능 가운데 교환매개로써의 기능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치의 보장 즉 저축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아 상대약화되고 있다고 함.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를 주로 하고 있는 한국의 한 연구원은 본 진흥회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대상인들은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화폐개혁 실시를 사전에 파악해 북한정부가 예상한 큰 타격은 입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음.
- 화폐개혁 후에 시장이 폐쇄됐지만, 북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국영 상업망에 의한 저렴한 식량, 소비재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며,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깨달았음.
- 북한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2006년 이후 비국영부문의 성장도 어느 정도 허용한 전반적인 경제정상화를 지향하는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정상화를 전제로 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점부문의 중공업, 특히 국방공업에 투자를 집중해나가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 같음.
- 동시에 금속공업,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의 4개의 우선정비대상 상호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된 점도 관련있음.9) 정치적인 면에서는 개인주의 확산에 의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함.
-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한 화폐개혁은 시장 폐쇄와 외화사용 금지라는 조치와 함께 실시됐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식량과 소비재 공급이 동반되지 않았고 국민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됐음.
- 이같은 혼란이 향후 북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우선 국민이 국가를 신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지키려는데 박차를 가하는 것을 들 수 있고, 이는 북한정부가 경계하고 있는 지도 사상의 상대화 내지는 개인주의적 발상의 확산으로도 이어지며, 이는 북한의 현 체제의 기초를 꾸준히 침식시켜나갈 것임.
- 현 정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긴축이든 개혁이든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임. 생활이 향상되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도 재차 확인하게 된 것임.
- 북한 정부는 2009년 150일, 100일 전투라는 대중동원운동이 전사회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다는 점과 화폐개혁 후의 혼란을 더욱 크게 했다는 교훈을 얻었음.

9)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대규모(5만kw 이상) 수력발전소가 완공돼 전력사정에 비교적 여유가 생겼다. 전력공급의 원활화는 탄광에서의 석탄생산과 철도(전환율이 높음)수송을 활성화시켜 화력발전소의 가동율을 한층 더 끌어 올리는 선순환을 낳았다.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는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해 실제 경제 상황의 파악에 근거해 실리적인 경제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것임.
- 김정은 신체제는 권력기반이 전 체제와 비교해 취약하기 때문에 당분간 前 체제에서 남긴 과제소화로 정책방향성을 돌릴 것이며, 前 체제와 비교했을 때 정통성이 약한 만큼 표면상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민심'에 다가감으로써 정통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은 1992년까지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등의 장기경제계획을 제정했지만, 그 후 이러한 장기의 지령성 계획(계획수행이 법적의무로써 규정된 경제계획)은 책정되지 않았음.
-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경제계획 외에 각 국영기업과 정부의 부서는 단년도의 경제계획을 책정해 실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런 단년도 계획은 현재도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계획 책정 방법도 경제개혁의 영향을 받아 변화했으며, 2001년에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위로부터의 생산 기준량 의무인 '통제수치'가 폐지되었고 각 국영기업은 능력에 따라 '자주적'으로 계획을 책정하게 되어 있음.
- 그렇지만 2010년 개정에서 통제수치가 부활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제계획책정에서 국가의 통제가 재차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음.
- 그 요인으로서는 각 기업이 스스로의 이윤 추구에 나선 나머지 국가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점, 하단의 도표 #1과 같은 중대형 수력발전소 신설에 의한 전력사정 호전 등 국영부문의 생산연계의 조건이 이전보다 개선돼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의 경제운영이 다시 가능해진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도표 #1 북한에서 최근 준공된 중대형 발전소]

발전소명	소재지	출력(만kW)		비고
		계획	조업중	
남강발전소	평양시			상원시멘트공장에 전력공급
영원발전소	평안남도			2008년 준공
성천강발전소	평안북도			2008년 10월에 청년1호발전소 준공
태천수력발전 종합기업소	평안북도		수십만	2007년에 4호가 준공 1~5호 발전소 완공
예성강발전소	황해북도			2008년에 1호발전소 준공, 2~6호 건설중
안변청년발전소	강원도	80	10	
월비산발전소	강원도			인민군 제 512군부대가 건설

발전소명	소재지	출력(만kW)		비고
		계획	조업중	
원산청년발전소	강원도		6	2009년 1월 준공. 1호 4만kW, 3호 6,000kW, 4호 8,000kW
금야강발전소	함경남도			건설중
어랑천발전소	함경북도			2007년 1월에 1호발전소 준공
홍주발전소	자강도			청년2호발전소
장자강발전소	자강도		8	
강계청년발전소	자강도		22	
삼수발전소	양강도			
10월5일발전소				인민군 제 757군부대가 건설

※ 출처: 조선신보 등 각종보도를 바탕으로 작성

- 이러한 변화가 있지만 장기경제계획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음. 예를 들어 1998년~2002년, 2003~2007년, 2008~2012년까지 각각 5년간 '과학기술 발전 5개년계획'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된 계획이며, 이전과 같은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아님.
- 장기 경제 프로젝트로써 외국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2010.1.20일 평양에서 '대풍그룹 이사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돼 관련보도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대풍그룹 활동을 보증하는 것에 대해'와 국방위원회 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대풍그룹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가 나왔다고 보도됐을 때였음.
- 대풍그룹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을 확보하는 경제연합체'라고 소개했음.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그룹 이사장이며, 재중 조선인인 박철수가 상임 부이사장 겸 총재가 됐음.
- 이사회에는 국방위원회, 내각, 재정성, (익명의)관련부서와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등의 대표 7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징은 국가예산 이외에 국제 금융시장을 이용해 국가개발 목표를 실현해나간다는 것임.
- 대풍그룹의 상임 부이사장 겸 총재에 선출된 박철수는 평양에서 '조선신보'의 인터뷰에서 당분간의 10년 계획에서는 6가지 경제 인프라구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식량,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가 추진 항목이라고 말했음.
- 구체적으로는 5년 이내에 '평양~신의주(평안북도)', '평양~원산(강원도)~라선(함경북도)', '평양~개성(황해남도)', '혜산(양강도)~김책(함경북도)' 간의 철도와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를 바탕으로 각 도시 개발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임.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사업은 '국가예산에서 완전히 독립된 프로젝트'로 대풍그룹 자체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함.
- 2011.1.15일에는 내각 결정으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 채택됐고, 이 계획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제정돼 인프라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료, 금속 등의 기초공업과 지역개발이 중심이 되었음.
- '국가경제개발 전략의 대상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써 내각에 국가경제개발 총국이 신설됨. 그러나 이 계획에서 확정된 프로젝트 실행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해 대풍그룹이 전면적으로 담당해서 실행한다고 함.
- 이 프로젝트의 재원은 어떻게 될 지 보도를 통해 알 수 없지만 대풍그룹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보도를 봤을 때 아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자금을 주된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측됨.

[도표 #2 북한의 최근 장기 프로젝트]

경제계획명	제정기간	기간	제정기관	실시기관	재원	대상
대풍그룹이사회의 제 1차회의	2010.1	10년	대풍그룹 이사회	대풍그룹	대외 투자	식량,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
경제개발 10개년계획	2011.1	10년	내각	대풍그룹	불명	인프라건설, 농업, 전력, 석탄, 연료,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

※ 출처: 조선신보 등 각종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

- 외자유치라는 점에 주목해보면 도표 #3과 같이 내각 산하에도 2010.7월에 신설된 내각 직속의 중앙지도기관으로써 '합작투자위원회'가 있음.
- '합작투자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투자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해 지도·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해 투자정책 집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무역성과 동급기관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음.
- '무역성'은 나라의 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중앙지도기관이며, 합작투자위원회는 투자유치와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합작투자위원회 산하에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있음.
- '합작투자위원회'는 외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는 개인, 민간기업의 창구 역할을 함.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는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내각이 관할하는 계획부문에 대한 투자와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대한 투자 담당을 주요 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북한의 외자유치는 국가계획 부문과 계획외 부문의 두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공개 자료에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군과 비밀경찰인 '특수기관'이 경영하는 무역회사가 다수 존재해 재외 지점(특히 중국 국내)이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 중국 무역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졌음. 이런 무역회사의 활동은 대부분이 국가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함.

[도표 #3 북한의 외자유치기관]

기관명	종별	계통	대상	비고
대풍투자그룹	주식회사	국방위원회, 조선노동당	외국기업, 금융기관	
합작투자위원회	정부기관	내각	외국정부	
대외경제투자 협력위원회	정부기관	내각	외국기업	합작투자위원회 산하

※ 출처: 조선신보 등 각종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해외동향 일지

□ 영어권(미국)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국무부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한의 로켓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며, 클린턴 장관은 김성환 외교장관에 이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로 논의했다.
	백악관	에어포스원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 지원에 대한 합의를 진척시킬 수 없다. ○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텔레문도TV 인터뷰 / 블룸버그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공조할 것이다. ○ 대북 식량지원은 국제 규정과 국제 규범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 후 브리핑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 회원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개탄했으며 대응조치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유엔 총장	대변인 성명 (로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문 사무총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실패에서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거역한 만큼 개탄스런 일이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
4.15(일)	공화당	CBS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매케인 상원의원,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대치-협상-원조가 20여년간 반복됐으며 이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6(월)	국무부	정례브리핑	○ 독자적인 대북제재 강화방안을 살펴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화 계획이 없다.
		미국-브라질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 (AFP통신)	○ 클린턴 장관, 북한이 새로운 도발행위를 할 경우 추가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합의했다.
	국방부	브리핑	○ 패네타 장관,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도 감행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조취를 취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후 브리핑 (유엔 미국대표부)	○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며 핵실험은 북한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4.17(화)	국무부	정례브리핑	○ 2.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며, 우리는 당시 영양지원 검토에 합의했다. ○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약속한 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시 국무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안보리 의장성명에 이은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평양사령관	방한 국방부 기자단과 회견	○ 라클리어 사령관, 북한이 로켓 발사 실패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동맹국과 함께 모든 범주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핵실험 기지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	대변인	○ 북한측이 미사일·핵 실험 동결과 관련된 미국과의 합의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한에 사찰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영어권(유럽)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유럽연합 (EU)	성명 (dpa통신)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北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국제의무를 분명히 어긴 것으로 이런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외교부 (프랑스)	성명 (유럽1 라디오 방송/연합) *외신 확인 불가	○발레로 대변인, 北의 로켓 발사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

□ 영어권(호주 · 뉴질랜드)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총리·외무부 (호주)	성명 (시드니모닝 헤럴드)	○길라드 총리·카 장관, 北의 로켓 발사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부 (뉴질랜드)	로이터통신	○맥컬리 장관, 北이 최근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 영어권(필리핀)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외무부	Inquirer	○실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개탄한다. 북한은 도발 행위를 멈추고 탄도 미사일 기술의 사용 또는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르고 모든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

□ 영어권(인도네시아)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6(월)	외무부	Jakarta Globe	○ 많은 국가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중요한 시점에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력과 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영어권(말레이시아)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4(토)	외무장관	New Straits Times	○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로켓 발사와 관련된 북한의 모든 결정이나 행동을 규탄한다. 북한의 행동은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영어권(UAE)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5(일)	외무부	Khaleej Times	○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했으며 북한의 실패한 발사 시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

□ 영어권(인도)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외교부	The Diplomat	○ 인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 영어권(싱가포르)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외무부	Channel News Asia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하며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영어권(대만)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외무부	Focus Taiwan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하며 미사일과 핵실험 유예 합의 준수를 촉구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르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한다. 대만은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 일본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히로시마 시장	지지통신	○핵무기 근절을 원하는 피폭지인 히로시마의 소원에 역행한다.
4.13(금)	교토 지사	지지통신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
4.13(금)	야마구치현 지사	지지통신	○현민에게 큰 불안감을 준다.
4.13(금)	가와사키시 시장	지지통신	○납치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번 행동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
4.14(토)	총리실	총리 발언	○미사일발사는 UN안보리결의 위반이며 용인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다.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5(일)	외무성	외무상 기자회견	○강하게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또 다른 도발행위를 막기 위해 안보리는 적절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빠른 시기에 나와야 할 것이다.
4.16(월)	참의원	항의결의문 채택 (지지통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커다란 불안을 가져오는 폭거이다. 일본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함과 함께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4.17(화)	외무성	외무상 담화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UN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3년 전 의장성명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일본 정부는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4.17(화)	방위성	방위상 기자회견	○시카타 방위대신 보좌관을 팀장으로 하는 '발사사안에 관련된 검증 및 대응 검토 팀'을 출범시킬 것이다. 자위대의 운용 외에 이지스함, PAC-3 및 레이더 등 필요한 자위대 능력 등에 대해 검증함과 함께 향후 대응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4.18(수)	외무성	외무상 발언 (중의원 예산위원회)	○UN안보리의 판단에 맡기며, 일본 독자적인 추가경제제재는 당분간 보류할 생각이다. UN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따라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할 것이다. 그 쪽이 더 효과적이다.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8(수)	총리실	총리 발언 (중의원 예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미사일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한다. 북한은 의장성명을 진중하게 수용해 기존 결의를 즉시 준수하고, 또다른 도발행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 중국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중국 외교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상황과 관련국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한반도와 지역 평화안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대화로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은 계속해서 북, 러, 미, 일, 한국 등과 소통하고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으로 인한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이는 각국의 공동이익과 부합하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북한 위상 발사 전에 중국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 북 위성 발사 후 중국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국은 北, 러, 美, 韓, 日 등 각국과 계속해서 소통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은 각국의 공동이익이자 책임이다. 각국이 더욱 멀리 보며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적절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협조할 것이며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16(월)	중국 외교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일 채택된 UN안보리 의장성명은 각국의 계속된 협의 결과이며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 중국은 책임감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협의에 참여했고 안보리가 대화 추진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서 출발해 이번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정세가 급변되지 않기를 강조하는 바이다. ○ 6자회담 추진,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는 각국의 공동이익이자 책임이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생각이다. 대화를 통한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 대화와 협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선택이다. 2.29 협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9협의의 이행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며 대화로서 현안을 해결했으면 한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각국과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	--------	-------------	---

□ 러시아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0(화)	공군참모본부	인테르팍스 통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로켓발사체 궤도에서 벗어나 러시아 영토로 추락할 위협이 있을 경우 격추할 것이다. 하지만 전투 대비태세 혹은 미사일·대공 방어망 등급 격상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
4.10(화)	외무부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결정이 UN안보리 결정을 무시하는 사례로 평가한다. 타개방안은 정치·외교적인 틀 내에서 찾아야 한다. 4월 11~12 개최되는 G8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이란,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4.11(수)	국방부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찰기 동해 출현 관련, 정기 훈련의 일환이며 북한 위성발사와 관련 없다.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2(목)	외무부	이타르타스 통신사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 공간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UN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4.12(목)	외무부	외무부	○북한의 위성발사 의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평화적인 우주 프로그램 개발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러한 발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6자회담 참가국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4.13(금)	참모본부	인테르팍스 통신사	○러시아 우주통제시스템은 은하 3호 로켓 발사체 발사를 기록했다.
4.13(금)	외무부	인테르팍스 통신사	○북한 위성발사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UN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라 북한은 탄도로켓을 이용한 군사· 민간 차원의 모든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 금번 발사로 6자회담 재개가 힘들어 질 수 있다.
4.13(금)	외무부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핵 문제 관련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마련 및 역내정세 안정화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계속 노력할 준비 됐다. ○南·北간 대화재개 및 관계 안정화를 기대하며,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완강한 호소에도 불구 하고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우주실험 발사실패로 인해 다른 국가가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 으로 생각한다.
4.13(금)	국방부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잠깐 동안 로켓을 추적했지만, 몇 초 후 모니터 화면에서 사라졌다. 한국 인근 해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6(월)	외교부	레스푸블리카 언론사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6자회담에 복귀, NPT 재가입, IAEA 통제 하 모든 핵 관련 활동 이행을 호소한다.

□ 우크라이나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3(금)	외교부	우크인포름 언론사	○북한이 로켓분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져야 할 책임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의무사항 이행과 건설적인 6자 회담 참여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 한다.

□ 우즈베키스탄

일 자	기관(국가)	출처	주요 내용
4.17(화)	외교부	우즈베키스탄 뉴스	○UN안보리 제 1874호를 위반하는 탄도 로켓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도 소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지키고, 한반도 내 긴장감을 확산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北 장거리 미사일 성능, 의도 및 기대효과 관련 해외분석

표제 관련 최근 미·일·중·러의 정부·연구기관 및 언론사의 발표, 보도 사례를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 개관

- 4.13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과 발사 의도, 기대 효과 등에 대해 각 국가별 입장 차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분석 및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축적 부족에 따른 실패를 거론하고 있으나, 세부 실패 원인 및 기술수준에 대해 각 국가별 정보기관에서 분석된 자료는 외부공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각국별 입장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는 로켓 관련 기술수준이 ICBM 수준까지 향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추가 미사일 및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미사일 실패 원인은 '최고 동압에서의 문제 발생 또는 엔진 결합'의 가능성 제시
- 일본의 경우 이번 발사는 실질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이었다고 분석하며, 미사일 개발능력을 협상카드화하는 시도로 판단
 - 미사일 실패 원인은 '충분한 지상실험 부족 △연료펌프 이상, △엔진·제어계 고장, △노동 미사일 4개가 결합된 1단 로켓 연소중 문제 발생 등' 가능성 제시
- 중국은 북한 미사일은 중국의 장정 1호와 유사하며, 미국 서부지역까지 공격 가능한 8,000km 사거리로 판단하고, 북한의 3단 설계 로켓 및 탄두 기술의 부족함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다고 분석

2012.4.23(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사일 실패 원인은 △탄두 방열 문제 미해결, △4월의 고공 기상상태 불리 등 제시
- 러시아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직 미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
- 미사일 실패 원인은 △조종시스템 결함, △엔진작동 오류, △역학하중 미극복 등 제시

붙임 : 北 장거리 미사일 성능, 의도 및 기대효과 관련 해외분석 보고서 원문

北 장거리 미사일 성능, 의도 및 기대효과 관련 해외분석

4.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성능에 대한 기술분석과 의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변국 공개정보를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 영어권

① 북한 장거리 미사일 성능 관련 기술분석

○ 실패 원인은 최고 동압에서의 문제 발생(4.13, PBS)

- 「찰스 빅」(탄도 미사일 전문가 / 美 GlobalSecurity.org 선임 기술 연구원),
 - ‘최고 동압(maximum dynamic pressure 또는 Max Q)에서 발사체가 조각나는 전형적인 문제가 3단 로켓에서 일어났다.’
 - ‘1단 로켓은 120초까지 계속 연소한 다음 자동 정지했으며 고도 151km까지 올라갔다. 비행시간은 총 4~6분 정도였다.’
 - ‘향후 몇 달간 3국의 정보기관들이 계속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며, 수치가 바뀔 것이다.’
 - ‘이번 실패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 발사체는 주로 같은 부분에서 적어도 세 번 실패했다.’
 - ‘2006년에 발사 후 35초 만에 동력 문제가 발생했고, 2009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3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3단 로켓이 사실상 그냥 떨어져 나갔다.’

○ 최고 동압에서 문제 발생한 것 아닐 것이다.

(4.15, All Things Nuclear ☞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블로그)

- 「데이비드 라이트」(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미사일 전문가),
 - ‘로켓 발사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사항은 발사체가 가속화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 ‘이것을 동압 (dynamic pressure 또는 알파벳 ‘q’로 나타냄)이라고 하며 동압은 공기밀도와 로켓 속도의 제곱과 비례한다.’

- ‘저고도에서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동압도 낮고 고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동압도 낮다. 그 사이에 Max Q라고 불리는 최고 동압점이 있는데 로켓이 고도를 상승하며 압력이 가장 높은 시점을 가리킨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하 3호가 Max Q 시점, 또는 직후인 발사 후 81초에 기술적 결함으로 산산조각 났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은하 3호의 동압을 컴퓨터 모델로 산출한 결과 Max Q는 로켓이 고도 11km지점에 도달한 60초 정도 시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주 왕복선이 Max Q에 이르는 고도와 거의 동일하다.’
- ‘81초 시점에서 동압은 최고점의 반 이하로 내려가고 최고 동압 시점에서 20초 지난 후이다. 게다가 81초 시점에서 로켓의 속도는 0.9 km/s정도이므로 초음속 시점이 훨씬 지난 후이다.’
- ‘우리는 아직 은하 3호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로켓이 조각났다고 알려진 시점이 틀리지 않은 이상 Max Q가 실패 원인이라는 주장은 의문스럽다.’

○ 로켓 폭발 원인 여러 가능성 있다.

(4.13, All Things Nuclear ☞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블로그)

- 「데이비드 라이트」(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미사일 전문가),
 - ‘의도적이지 않은 폭발이거나 로켓 오작동 또는 궤도 이탈로 지상 통제실에서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엔진에 문제가 생긴 후 통제실에서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 로켓 동체가 회전하면서 산산조각 났을 수도 있다.’

○ 北 로켓 발사 실패, 美 정보당국에 도움(4.13, VOA)

- 「팀 브라운」(세계 안전 및 군사정보 사이트 글로벌시큐리 분석가),
 -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기술발전을 과시하려 했으나, 발사 실패로 북한의 프로그램이 초보단계라는 것이 입증됐다.’
 - ‘예를 들어 운반에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 은 군대나 미사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클로즈업해 보면 보통의 건축용 크레인임을 알 수 있다.’

o 北 로켓 기술 진전 없다.(4.17, AP)

- 「닐 헨슨」(스탠포드大 국제안보협력센터),

- '결론적으로 로켓의 신뢰도에 큰 결함이 있어 보인다. 2006년 발사 이후 두 번째로 비행 초반 1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적어도 1단계 로켓 기술은 2000년대 초반 수준에서 멈춘 것으로 보인다.'
- '은하 2호와 은하 3호의 가장 큰 차이는 로켓에 쓰여진 3이라는 숫자이다.'
- '그러나 발사장에서 로켓 조립과 연료 주입은 순조롭고 신속했으며 적어도 지상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보여준다.'
- '은하 3호보다 큰 로켓을 위한 새 발사장의 지지탑이 5년간 로켓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북한의 계획을 뒷받침한다.'

- 「데이비드 라이트」(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미사일 전문가),

- '로켓이 이렇게 빨리 실패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로켓은 매우 복잡하며 수십 개의 요인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실패할 수 있다.'
- '따라서 각 부분이 작동하는 것을 넘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북한은 이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o 北의 비행 기술에 진전이 없다.(4.18, 美 상원 세출위 청문회)

- 「패트릭 오라일리」(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

- '북한의 발사는 또다시 비행 초기에 실패했다. 우리의 경험상 신뢰도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험을 해야 한다.'
-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시험할 때마다 매번 이를 보여줬으며, 북한의 최근 비행 시험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다.'

o 북한 로켓 발사 실패 원인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4.14, SPACE.com)

- 「브라이언 위든」(美 Secure World Foundation 기술고문 / 前 美우주사령부 공군장교),

- '미군과 역내 동맹국들은 북한보다 실패 원인을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적 첩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 '1단 로켓 또는 2단 로켓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반된 분석이 있는 만큼 실패 원인 추정이 매우 어렵다.'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도 및 기대효과

- 北, 미사일 발사 실패로 추가 실험 가능성(4.16, 폭스뉴스)
 - 미국 관리자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실패는 김정은 정권이 추가 실험과 더욱 도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
 - '북한이 전례없이 발사 실패를 시인했으나, 연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실험에 초석을 다졌다.'
 - '미국 관리자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 중국

① 북한 장거리 미사일 성능 관련 기술분석

- 전문가 분석 : 북한 3단 미사일 및 로켓 기술 아직 미완성
(4.14, 금일조보 ☞ 절강성 일간지)
 - 북한은 1998.8월, 2009.4월 백두산 1호와 은하2호 탑재로켓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2006년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마찬가지로 발사 후 40초만에 궤도를 벗어나 추락했음.
 - 같은 시리즈의 미사일, 로켓의 세 차례 발사 실패는 북한의 3단 미사일, 로켓 기술의 미완성을 보여준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함.
 - 韓·美·日 등의 국가들이 이번 북한의 발사를 강렬히 반대한 것은 탑재로켓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비슷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 지금까지 북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최대 사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정도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로 일본 국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임.
 - 북한이 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ICBM 능력을 갖춘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 본토 공격까지 가능하기에 미국이 걱정했던 부분임.

- 사진상으로 은하3호 외관은 은하2호와 일치하며, 이는 두 로켓이 외형, 엔진 등의 기본적인 설계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의미함.
- 즉, 은하2호 발사 실패 경험을 토대로 기술적 수정을 했고, 은하3호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3단 탑재로켓으로 볼 수 있음.
- 북한 정부는 3단 설계, 직경 2.4m, 높이 30m, 발사무게 91톤, 초기 추진력 120톤으로 은하 3호의 기본 데이터를 공개했음.
- 은하 3호 로켓 성능은 70년대 중국의 장정1호와 매우 비슷함. 장정 1호에 비해 은하3호의 무게가 더 무거운데 이는 북한 로켓 기술 수준이 장정1호에 못미침을 의미함.
- 이로써 북한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 위력은 장정1호의 원형인 동풍4호 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동풍4호의 미사일 위력이 탄두 중량이 2,300kg일 때 최대 사거리가 4,000km이며, 4,000km 사거리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음. 이에 북한은 탄두 중량을 줄여 대포동 2호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었음.
- 간단히 계산하면 대포동 2호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최소 500kg 줄일 때 사거리는 5,900km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의 3단 설계된 은하3호 로켓을 500kg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고, 사거리는 8,000km로 이는 미국의 하와이, 서부 시애틀까지 공격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은하 3호 로켓 발사 실패로 북한의 3단 설계 로켓 및 탄두 기술의 부족함을 보여줬음.
- 장거리 미사일과 ICBM의 전투력은 더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 먼저 탄두의 대기 진입 후 방열문제임.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대기층으로 돌아올 때 최대속도는 20배 음속으로 공기 마찰 후 대량의 열량을 발생함.
- 대포동 2호 미사일은 2006년 발사 후 40초 후 궤도 이탈로 실패했고 1998년, 2009년 발사한 광명성 1호와 광명성 2호는 미국이

실패로 발표했음. 이에 북한이 탄두 방열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음.

-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500km에 불과하고, 북한이 사거리가 더 먼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방열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현재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적음.
- 북한이 탄두 방열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좁은 국토와 해군, 원양 탐지선 부족과도 관련이 있으며, 탄두 방열 문제는 먼저 발사 후 탄두 재투입 문제를 해결해야 함. 좁은 국토의 북한에서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전거리 비행 실험은 어려움.
- 해상 발사 또한 해군의 지원이 없고, 또한 국제적 압력 속에서 이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비행 실험을 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국제적 환경의 변화없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방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탄두 위력과 방열 문제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제어 시스템 또한 장거리 미사일과 ICBM의 기술적 장애 가운데 하나임.
- 제어 시스템 정밀도 부족으로 탄도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는 핵탄두 살상 반경보다 크고, 그 위협력도 그렇게 크지 못함.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을 발전시킨 것인데, 300km 사거리의 CEP는 500m에서 800m임. 1,000km 사거리의 노동 미사일 CEP는 2km 이상으로 이런 미사일 제어 정밀도는 1/1000에서 2/1000사이임.
-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이 이러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6,000km 사거리 CEP는 6~100km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위협력을 가지려면 핵탄두 중량은 100만톤급으로 되어야 함.
- 현재 북한의 폭발력은 1,000톤급의 원자탄으로 살상반경은 1km가 되지 않음. 미사일 오차가 10km가 되면 그 타격 위협력은 그리 높지 않음.
- 또한 정밀도 실험 시 좁은 국토와 부족한 해군 지원력으로 인해 미사일 전거리 비행 후 낙하지점의 정밀도를 분석하기 힘들 것임.

○ 북한 위성 실패 관련 몇가지 의문(4.14, 신경보 ☞ 베이징 지역신문)

- 의문 #1 : 발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 발사 후 60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고, 4월 날씨도 발사에 불리함. 로켓 설계 전문가에 따르면 로켓 점화 후 30초, 60초대가 가장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대임.
- 30초에는 로켓 속도가 커지고 대기밀도 또한 크며, 60초대에는 압력이 최대가 되어 로켓에 미치는 압력도 큼. 4월 고공 바람 또한 세기 때문에 로켓 발사에 불리한 시기임. 고공바람은 겨울에 가장 세고 6월에 가장 약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로켓 발사는 6월을 선택함.

- 의문 #2 : 이번 발사 실패는 기술적 퇴보를 의미하나?

- 전체적인 기술은 발전했으나 중국보다 40여년 뒤진 상태임.
- 1998.8.31일과 2009.4.5일 북한은 광명성 1호와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음. 두 차례 발사에서 로켓의 1,2단 분리와 연소는 모두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3단 엔진 고장으로 궤도 진입에는 실패함.
- 「리우장융」(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이로 인해 발사가 실패했다거나, 기술적 퇴보로 보기는 어렵다. 발사 실패가 모두 기술적 원인은 아니고 부품 문제나 다른 돌발적 변수 등의 문제도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전체적인 위성 기술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의 로켓 전문가에 따르면 발사탑 내의 로켓 외관 사진과 북한이 발표한 데이터를 통해 볼 때 광명성 3호 로켓은 중국의 70년대 인공위성 탑재 로켓과 비슷하다고 한다. 정확히 보면 40년 정도 뒤쳐졌다고 할 수 있다.

- 의문 #3 : 북한이 고의로 폭발시켰다?

- 고의 폭발보다는 부품 문제로 인한 폭발로 보여지며, 중국 로켓 전문가는 북한이 고의로 폭발시켰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함.
- 일반적으로 로켓의 고의 폭발은 △로켓이 예상 궤도에서 벗어났거나 △균형을 잃어 희망이 없을 때이며 이번에 고의 폭발

했다면 시기가 너무 빨랐음. 2차 분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폭발하는 것이 이번 발사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텐데 그 전에 폭발했음.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도 및 기대효과

- 北, 위성 발사로 강성대국 과시(4.14, 홍콩 봉황위성 TV)
 - 「쑤하오」(국제문제전문가), '위성이든 미사일을 쏘든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으로 삼은 올해는 의미가 큰 해이다. 외신기자 현장 취재를 허용한 것은 위성 발사를 세계에 과시하려고 한 것이다.'
 - 「정하오」(시사평론가), '노동당 대표자 회의, 김일성 탄생 100주년, 강성대국 건설 원년과도 관계가 있기에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발사이다.'
- 北, 위성 발사로 김정은 지위 공고히 하려 한다.(4.12, 홍콩 봉황위성 TV)
 - 「푸샤오티엔」(시사평론가), '김정은에 있어 국내 세력 결집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이를 통해 절대 권위를 강화, 공고히 할 수 있기에 이번 위성 발사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이름을 알리고 조상들을 기념하며, 유훈을 관철하기 위함이다.'
- 北 위성발사는 제3차 핵실험이 목적이다.(4.13 홍콩 봉황위성TV)
 - 「정하오」(시사평론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정치, 전략·군사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적으로 4월의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위성 발사를 통해 黨·軍을 결집시키고, 김정은의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려 할 것이다.'
 - 또한 100여 명의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위성발사 현장뿐 아니라 공장을 참관하게 하고 경제성과를 선전하기도 했는데, 이는 정치적 선전임. 물론 외신 기자들의 현지 취재를 허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김정은의 대외개방 의지를 보여줌.
 - 최종 목적은 위성발사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3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전략적 의도가 있을 것임.

- 북한이 단순히 위성을 쏘았다고 봐서는 안되며, 위성발사를 통해서 △정치적 위성을 발사, △3차 핵실험 준비, △韓·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이용했음.
- 北, 위성 발사 실패, 그러나 두 가지 목적 달성
(4.14, 첩장완바오 ⇨ 절강성 지역신문)
 - 「선덩리」(북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요한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 △원조를 받지 않으면서까지 위성 발사를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의 갖가지 억제 벗어남, △실패로 끝났지만 다음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 △발사성공으로 인한 기술 과시 등 세 가지 효과 중 앞의 두 가지 목적은 달성했음.
 - 발사 실패로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또다른 실험을 할 것이며, 그 시기는 기술 개선과 정치·외교적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임.
- 北, 위성 발사 통해 대외 개방 창구 열려고 한다.(4.10, 홍콩 봉황위성 TV)
 - 「정하오」(시사평론가), '김정은은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식시키려 한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북한 경제 발전을 선전하려 한다.'
 - 외신기자들을 현장에 초청한 것은 이러한 외부 압력을 통해 그의 정권이 안정적인지 다시 한 번 테스트하는 것이며, 위성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외국 언론의 취재 앞에 성공을 필히 다짐할 것임. 이것이 바로 북한이 가진 특징임.
 - 이런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정권 안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발사 실패 후에 관련 인사 조정에 나설 수 있음.
- 北 위성 실패 관련 전문가 의견(4.14, 신경보 ⇨ 베이징 지역신문)
 - 「리우장용」, '북한은 광명성 3호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자 참관 허용, 위성파편의 낙하지점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등 국제관례를 따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임. 이는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과 달리 투명성과 대외개방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어서 발사 실패도 스스로 인정했을 것이다.'

- 「양시위」(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북한이 발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이며, 북한이 계획부터 발사 실패 때까지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정치 사상 변화와 자신감 및 개방성을 보여준 것이다.’

□ 일본

① 북한 장거리 미사일 성능 관련 기술분석

○ 北, 발사를 안이하게 생각했다.(4.14,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폭발해 발사가 실패한 점에 대해 전문가는 충분한 지상실험을 반복했다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초보적인 실수라고 지적했음.
- 폭발은 1단 분사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쿠보타 나미노스케」(전 방위청 기술연구본부 제3연구소장)는 ‘연료펌프가 중간부터 이상하게 작동해 엔진이 고온이 되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함.
- 또한 지난번 발사 때 사용된 엔진을 개량했을 때 발생하기 쉬운 것이 ‘진동연소’이며, 엔진의 형상을 변경했을 경우 이상한 진동이 생겨 엔진을 폭발시키는 일이 있다고 함.
- 「쿠보타」, ‘충분한 지상실험을 했으면 이런 실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 작업으로 바빠야할 발사 직전에 인공위성을 공개하는 등 경험이 적은데 발사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 北 미사일 엔진·제어계 고장(4.13, 닛케이)

- 현재 상세한 실패원인은 불분명하나 전문가들은 ‘엔진과 제어계에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로켓과 미사일 발사의 기본기술은 같으며, 끝부분에 탑재하는 것이 인공위성인지 탄두인지의 차이만 있음. 전문가라도 외관만 보고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미사일은 대포동2호 개량형과 흡사함.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스즈키 카즈토」(훗카이도大 교수), '2단 부스터 점화 때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2단을 두껍게 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엔진을 개량한 결과 연료누출 등을 일으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방위성 원로는 '정규 궤도를 벗어나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상에서 명령을 보내 자폭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음.
 -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고, 북한의 미사일에 사용된 액체연료는 고체연료보다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려움.
 - 액체연료는 연료와 산화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 연료실에서 펌프로 주입해야 하며, 구성부품이 많음. 이러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엔진 고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2009년에 발사한 대포동 2호의 개량형에 비해 일부 기술적 변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으며, 미사일 직경이 두꺼워져 내부 배관과 제어계 등을 수정한 듯함.
 - 2단을 분리하기 전부터 1단에서 이미 제어계와 구동장치가 고장났었다는 견해도 있음. 목표지점으로 미사일을 날리기 위해서는 내부에 삽입한 센서로 가속도와 고도, 자세를 측정해 여기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스의 분사각도를 조정함.
 - 북한은 인공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남쪽으로 발사해 지구를 남북으로 도는 '극궤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임.
 -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극궤도에 위성이 진입하면 지표를 살살이 관측할 수 있지만 동쪽으로 발사했을 때에 비해 연료를 대량으로 주입할 필요가 있음. 무게 증가를 기술력이 따라잡지 못해 고장났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 위성기술에 정통한 일본우주포럼 「요시토미 스스무」 상무이사는 '4.12일 발사를 연기한 단계에서 미사일 기체에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고, 4.13일에 발사를 해야만 했던 정치적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함.
- 北, 김정은 신격화에 필사적이다.(4.18, 주간 아사히)
- 은하 3호는 '대포동 2호 개량형'과 거의 흡사하며 3단 구조임. 1단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을 4개 묶은 것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 전문가들은 문제가 사전에 예측됐으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1단 로켓 연소중에 문제 발생했다.(4.13, 산케이)

- 「타구치 츠토무」(군사기술 전문가), '북한이 예고한 비행루트를 날지 못하고 낙하했으며, 이는 명백한 실패이다.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3년전에 발사된 '대포동 2호'의 성능 향상형이다. 3단 로켓 중 1단 로켓이 연소중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6,000km급인 '대포동2호'의 기술확립 목적은 얻지 못했다.'

○ 발사실패 원인, 전문가에게 듣다.(4.13, TBS뉴스)

- 「쿠로이 몬타로」(군사 저널리스트), '로켓실험의 큰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 발사직후와 분리 때이다. 기술적 결함보다도 실수의 가능성이 더 높다.'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도 및 기대효과

○ 北, 김정은 신격화에 필사적이다.(4.18, 주간 아사히)

- 은하 3호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대한 선물이었고, 미국 본토에 직접 도달하는 ICBM 기술을 손에 넣어 미국에 강인한 협상카드를 내밀 예정이었음.

- 아직 확립되지 않은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가 가장 빠르다'고 판단한 군부의 존재가 배후에 있는 것에는 틀림없음.

○ 김정은은 조종당하고 있다.(4.16, 주간 현대)

- 김정은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할 때 지도해 온 2명의 '교육 담당'이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영철 대장임.

- 북한 외무성의 발사연기 의견은 김정은이 아니라 리영호와 김영철에 의해 김정은에게 가기 전에 기각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은 軍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 두 사람에게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

- 리영호와 김영철은 오랫동안 김정은을 교육해온 인물이며, 이들이 김정은 왕조가 되자 두각을 드러내 평양 내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임.
 - 집무경험이 없는 김정은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저 수궁하는 수밖에 없었음. 그리고 인공위성발사가 선언된 것임.
 - 김정은은 김일성종합대학 포병과를 전공했고 졸업논문은 'GPS에 의한 미사일 유도'였는데, 이때의 지도교관이 리영호였음. 리영호에게 있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신의 교육성과를 국내외에 보여 그 힘을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임.
 - 현재 리영호는 4.25일에 실시되는 조선인민군 창건 80주년에 원수 승격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사일 발사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
 - 군 내부에서의 구심력을 높이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미사일 발사는 꼭 필요했던 것임.
- 북한의 위성발사는 모험인가? 쾌거인가? (3.17, 하신기의 깊이읽기10)
- 최대 목적은 강성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군과 인민을 고무시켜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데 있음.
 -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국위 선양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임.
 -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능력을 과시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경수로문제와 평화조약 체결을 일괄처리하려는 의도임.
- 북한, 미사일 다음은 핵실험?(3.27, 닷케이 비즈니스)
- 탄도미사일 발사는 식량부족과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에게 실적 없는 젊은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얼마 되지 않는 수단임.
 - 핵무기의 운반수단 확보를 보여줌으로써 3대 세습이라는 기형적인 왕조의 존립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것임.

10) 日 조선대학교 강좌장 및 조선신보 기자 출신의 재일동포로 북한 관련 정치 평론가

○ 인공위성 북한의 의도 (3.19, 이데이시 타다시 NHK 해설위원)

- 4.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기념일을 앞두고 있고, 당대표자회와 김일성 생일에 맞춰 국위선양 및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권력 과시용 실적을 만들고 싶은 의도가 당연히 있을 것임.
- 한국도 4월에 총선, 12월에는 대선이 있고, 군사기술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함.

□ 러시아

① 북한 장거리 미사일 성능 관련 기술분석

○ 조종 시스템 결함으로 보인다.(4.13, 이타르타스)

- 러시아 로켓·우주 전문가,
 - '1단 엔진이 예정했던 120초가 아닌, 약 1분간 작동했고, 이후 곧바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조종 시스템 결함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로켓이 계획했던 궤도에서 벗어났고, 이후 자동적으로 사고 폭발장치가 작동했을 것이다.'

○ 발사에 실패하지 않았어도 핵탄두 탑재할만한 기술수준 아니다.
(4.13, 리아 노보스티)

- 북한은 로켓기술과 관련, 정확성, 소형화, 경량화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문제 외에도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오랫동안 보유하기 힘들 것임.
- 엄밀히 말해 북한은 핵 폭발 물질을 발사체에 핵탄두로 탑재하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음.
- 이번 발사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보유는 아직 멀어 보이며, 조만간 성공한다고 해도 서울과 일본에 국한되는 지역시스템 차원일 뿐 미국까지 위협하는 수준은 아님.

○ 근본적인 발사실패 원인은 기술수준이 낮은데 있다. (4.14, 브즈글라드)

- 「알렉산드르 젤레즈냐코프」(치올코프스키 우주과학 아카데미 연구원)

- '1단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원인으로서는 △조종시스템 결함, △엔진 작동 오류, △역학하중을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 있다.'
- '정확한 원인은 추가정보 파악 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북한의 과학기술 근간이 그다지 튼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발사 실패는 예측했던 결과다.'

- 「이반 모이세예프」(모스크바 항공우주단체 대표)

- '우주로켓은 매우 복잡하다. 모든 연결사슬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 '북한은 근본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며, 기술발달 수준이 매우 미약하다.'

②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도 및 기대효과

○ 김정은은 아버지 생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4.12,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북한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떠한 요인 혹은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때때로 저명한 대북 전문가들조차도 이해 불가능한 기존구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함.
- 이 경우 북한 지도부의 파벌간 다툼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이를 입증해줄 요인이 없다는 사실임.
- 금번 로켓발사와 관련,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맞이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해 왔기 때문에 인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선전적 목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 「게오르기 톨로라야」(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누구나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접한 사람이라면, 김정은이 아버지의 의지를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 '위성발사는 김정일 생전에 계획했던 일이고, 김정은은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미국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 금번 로켓발사는 정치·선전적인 측면이 크다.(4.18, 극동문제연구소)

- 「알렉산드르 젤레즈냐코프」(치올코프스키 우주과학 아카데미 연구원)

- ‘정치 선전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제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북한의 금번 위성발사는 로마시대의 ‘빵과 서커스’ 통치법과 같다. 빵이 부족하니 인민의 굶주림을 불거리로 대신하는 것이다.’
- ‘해외 참관단 초청 목적은, △전 세계에 과시, △발사의 평화적인 성격 입증이다.’
- ‘북한의 대외정책은 항상 강·소국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고수해왔으며, 역사적으로 일본 통치를 겪은 한국인들은 이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 ‘남·북한 모두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최초 우주인을 탄생시켰고, 실패하긴 했지만 2차례의 위성발사 시도가 있었다.’
-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日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 IV

["북한에서 본 對中·對러 경제관계"]

'12.2월 日 '동아시아 무역 연구회'에서 작성하고,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서 발행된 '일본무역진흥회(JETRO) 분석보고서'의 북한 관련 분석내용의 원문자료를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북한에서 본 對中 경제적 관계

○ 북한의 對中 경제정책 동향

- 2000년 이후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함.
- 2000~2001년에 걸쳐 많은 유럽연합(EU)국가와 국교 정상화를 하는 등 유럽과의 경제관계도 개척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핵문제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았으며, 유럽과의 경제관계 확대도 수면하에서는 움직이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이같은 엄격한 국제정치상황 속에서 북한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 특히 2003년 이후 현저해졌으며, 중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5년부터는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을 급증시켰음.
- 투자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양국간 '투자우대 및 투자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계기로 증가했음.
- 2006.1월에 당시 김정일이 방중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의 경제교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에서 운영한다' 방침을 제안했다고 함.
- 中·北간 투자관계도 정치주도형에서 시장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컨트리 리스크와 취약한 산업 인프라, 양측의 투자에 관한 생각차,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무역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음.
- 中·北관계의 긴밀화는 2008.2월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악화 일로를 걷는 남북관계 동향의 영향도 받고 있음. 노무현 정권 말기까지 북한에 지원했던 쌀과 화학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이 제공되지 않는 등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큰 실정임.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지원을 자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생명선으로 이용해왔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의 역할을 中·北 경제관계로 옮기게 됨.

[도표 #4 중국의 대북주요투자 사례]

분야		규모	협정시기	중국측 투자자	북한측 투자자	진행상황
자원개발	무산철광	70억 위안	2005.2	통화강철집단	-	이윤분배 문제로 북한측이 중단 요청
	용등탄갱		2005.1 (길림신문 보도)	중국·오광집단	-	구체적인 협상은 지금부터 진행
	유전공동개발	5억 달러	2005.12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	진행 중
	해산동광	-	2007.11 (JOGMEC보도)	만향집단공사	해산청년동광산	15년간 계약, 정련기기 도입
현지시장개발	컴퓨터	130만 美달러	2004.11 (길림신문 보도)	난징팬더전자집단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	생산중
	자전거	65만 美달러	2005.1	텐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생산중
	시장	100만 달러	2005.6	요녕태성국제무역유한공사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	보통강물자교류시장을 운영중
	배합사료	97.2만 美달러	2003.4	허핑축산업주식회사	은파산무역회사	2005.11부터 운영중
	백화점	5000만 위안	2004.8 (KOTRA보도)	중쉬그룹	평양제1백화점	중단, 투자포기
수산자원협력	원산	-	2004.11 (연합뉴스 보도)	베이징 종합화학무역공사	상명무역총회사	
	일본해해역	-	2005.8 (투자조선 보도)	다롄해양어업집단	삼대성무역회사	

※ 출처: 배종렬, '中·北 경제관계 특성과 변화전망'

- 한국과의 관계악화는 북한의 대중무역 증가라는 형태로도 나타났음. 이같은 中·北무역의 증가추세는 북한의 2006.7월의 미사일발사실험, 2006.10월의 제 1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UN안보리결의 제 1719호에 의한 제재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받지 않았음.
- 2009.5월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UN안보리결의 제 1874호에 의한 경제제재가 이뤄진 2009년 무역액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

o '공동개발, 공동관리' 구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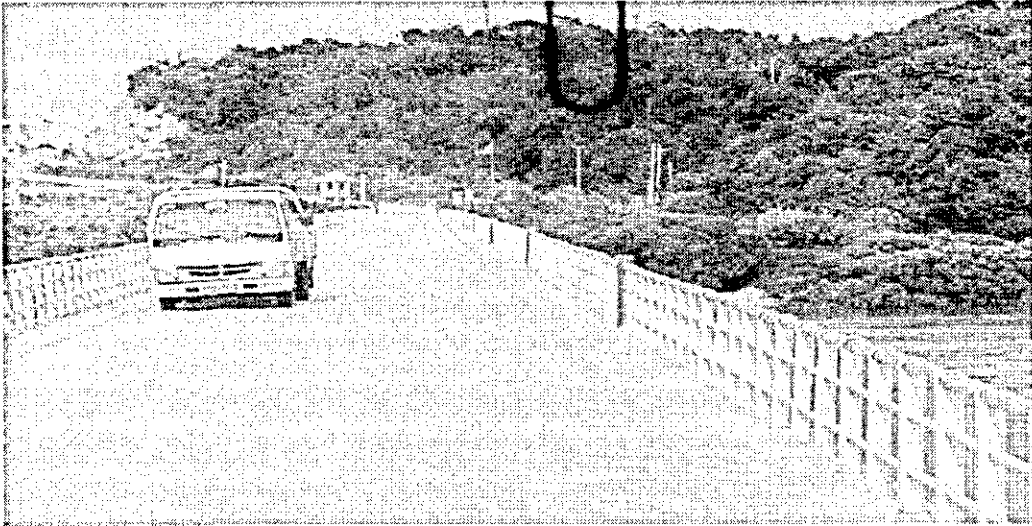
- 2009년 북한에 인접한 중국의 두개의 省 경제개발 프로그램이 중앙의 국무원 승인을 받아 국가프로젝트로 채택됐음. 2009.7.1일 요녕성의 '요녕연해 경제벨트 지역발전계획'이 원칙 승인됐음. 이 프로젝트는 2009~202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 경제발전계획임.
- 요녕성 프로젝트에는 황해연안의 도시이자 북한과의 국경도시이기도 한 단둥시가 중점대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단둥시내에 '산업원구'라는 신도시를 건설을 비롯해 항만기능의 확장, 흑룡강성, 길림성과 연결된 철도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음.
- 단둥시 담당자와의 인터뷰와 설명자료를 종합해보면 임항산업원구는 단둥의 신도시 계획과 하이테크 산업원구, 중북 경제무역협력구, 설비제조원구, 항만공업원구의 5개로 크게 나뉘어져 이 계획에 따라 단둥에서는 현재 시가지보다도 압록강 하류근처에 신도심이 건설되고 있음.
- 2011년에 착공이 시작된 신압록강대교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이미 전시된 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음. 심양~단둥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음.
- 2010.3월에 건설이 시작된 이 고속도로는 약 4년 안에 개통될 예정이고, 단둥은 단순히 막다른 국경도시가 아니라 중국대륙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를 연결하는 대동맥의 관문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음.
- 다음으로 2009.8.30일에 국무원이 승인한 길림성의 '중국 투먼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임. 이 계획도 대상기간이 2009~2020년인 장기 프로젝트이며, 1990년대 초부터 UNDP가 주도해온 '대투먼강개발(GTI)'을 국내경제 계획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국내 국경지역의 개방 및 개발을 위한 시험적 역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계획은 장춘시, 길림시 및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지역으로 하여 요녕성, 흑룡강성 및 내몽골자치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함.
- 바다가 없는 내륙성이면서 동해까지 15km 떨어져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 동해로 나가는 루트 건설이 이 계획의 핵심임.
- 이와 함께 내몽골자치구의 아르산시부터 몽골 동부 초이발산시까지 철도를 건설해 몽골 동부에서 동해를 연결하는 중화국제루트를 건설해 이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기지로 승격시키는 것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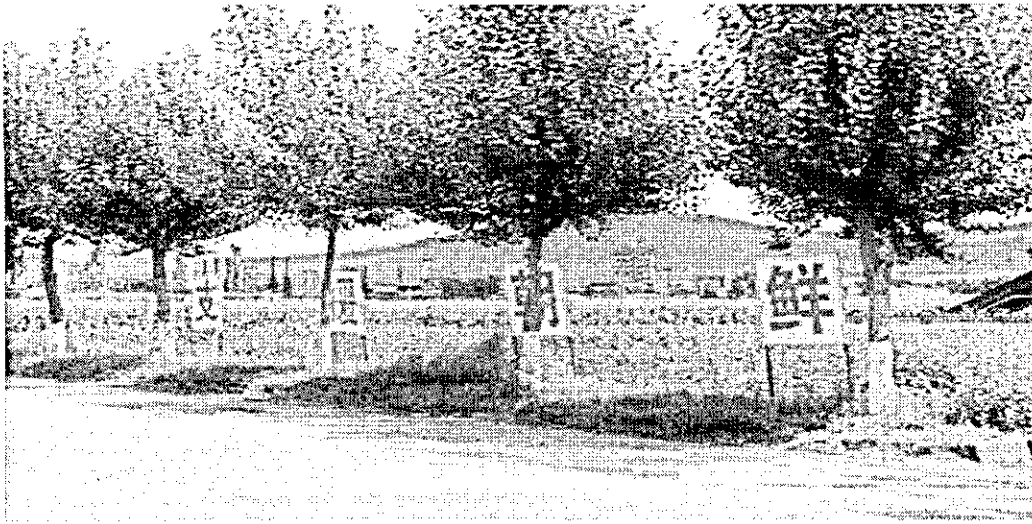
- 북한도 이에 호응해 2009년 GTI에서 이탈했지만, 2009.12월에 김정일이 나선시를 방문해 무역회사를 시찰하였으며, 2010.1.4일에는 나선시가 '특별시'로 지정됨과 함께 같은 달 27일에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이 개정돼 同지대의 사업유형에 '투자'와 '관광'이 추가돼 지대 밖의 국내 기업과의 거래가 인정되게 됨.
- 이로 인해 同지대는 북한국내로의 투자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기업창설 심의, 승인권한이 그 지역으로 돌아오는 등 전체적으로 1993년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입법 당초의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음.
- 이 두개의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경향으로 첫 번째는 中·北간 경제협력이 양국의 상호구상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자국의 지방경제개발 전략을 먼저 만들어 그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 형태를 규정해 이를 바탕으로 중국측의 투자가 이뤄지는 등 하여 실제 경제교류가 이뤄지는 것임.
- 북한측도 중국측의 프로젝트에 호응해 나선지구의 투자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등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사를 표하고 있음.
- 2010.5월 김정일의 방중에서 다렌시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의 당 및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통성과 생활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리커창 부총리와와의 담화 등 중국 동북지구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보도되고 있음.
- 요녕성과 길림성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이 작년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과의 안정적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한편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과의 간담 중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건설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에서는 '현재의 중국 경제발전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고 보도되는 등 경제건설노선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남아 있는 점도 다시 한번 보여줬음.
- 中·北 국경에 걸쳐있는 취안허교(북한에서는 '원정교'라고 함)의 보수작업이 2010년 3월에 시작되어 5월말에 완성, 6월 14일에 개통됐음. 이번 보수 수리비는 약 400만 위안(약 5200만엔)으로 전액 중국측이 부담했다고 함. 중국측의 부담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구상은 원정세관에서 나진시내까지의 도로포장 공사로 확대되고 있음.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사진 #1 준비가 완료된 취안허(원정)교]



[사진 #2, 3 나진시내의 도로포장 공사현장]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1.1월에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생산된 석탄(갈탄)이 북한의 나진항에서 상해항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돼 나진항은 길림성이 바다로 나가기 위한 출구가 되었음.
 - 현재 중국의 내항항로로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제정치적 환경 개선에 따라 중일무역과 중한무역에도 이용할 의도가 있을 것이며, 나진항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은 길림성의 발전 계획 중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고있음.
 - 요녕성과 길림성의 두개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경향으로 첫 번째로는 中·北간 경제협력이 양국의 상호구상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중국이 자국의 지방경제개발전략을 우선 만들고 그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 교류의 형태를 규정해 이를 바탕으로 중국측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 지는 등 하여 실제 경제교류가 실시된 것임.
 - 다음으로 中·北간 프로젝트구상은 정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실행될 때에는 계약 주체의 선정과 계약의 방식 및 내용, 자금회수 등 일반적인 국제적 경제거래와 똑같은 거래 형태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측과의 인식차와 대립,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음.
 - 북한측도 중국의 프로젝트에 호응해 나선지구의 투자환경정비를 추진 하는 등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양측의 감각이 크게 차이나며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임.
 - 향후 中·北 경제관계는 중북간의 긴 교류의 역사와 북한의 안정이 중국 국익에 이바지하는 현실적 이익이 반영돼 정치적 배려가 숨어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으로 양국이 양보해나갈 것임.
 - 중국이 인프라 건설자금을 제공해 중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한 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관리해 운영해나가는 방식이 취해 지기 시작했음.
-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지정과 나선경제 무역지대의 재활성화
- 2011.6월에 요녕성 단둥시에 인접한 황금평과 위화도가 경제특구인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로 지정됐음.
 - 길림성 훈춘시 옆에 있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함께 중북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프로젝트의 착공식이 열렸음.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당시 착공식에는 북한측에서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조선측 위원장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수유 합작투자위원회 위원장, 평안북도 당위원회의 이만건 책임서기, 나선시 당위원회의 임경만 책임서기, 평안북도 인민위원회의 최종건 위원장, 나선시 인민위원회 조정호 위원장 등 중앙과 평안북도, 나선시 관계자와 근로자가 참가함.
- 중국측에서는 공동지도위원회의 중국측 위원장인 천더밍 상무부장과 요녕성 당위원회의 왕민 서기, 길림성 당위원회의 쑨정차이 서기, 류홍차이 주북대사, 요녕성 인민정부의 천정가오 성장을 비롯한 정부와 요녕성, 길림성 관계자와 근로자가 참가함.
- 이처럼 中·北간 공동개발, 공동관리 프로젝트는 양국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 문제에 착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방에만 맡겼던 中·北 국경의 지역경제개발에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었음.
- 나진항에서 열린 착공식에서는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력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나진항의 현대화, 나진항-원정도로의 개수를 연내에 마쳐 중계화물수송과 관광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연설이 있었음.
- 나선경제무역지대 중북공동개발 1차 착공 프로젝트로서 나진항-원정도로 개수와 아태나선 시멘트 공장 및 조선 나선시-중국 길림성 고효율 농업모델구 착공식, 나진항 경유 중국 국내 화물중계수송 출항식, 자가용 관광의 출발식이 이뤄졌음.
- 전력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나선시에 이르는 고압 송전선을 건설해 중국에서 송전을 함으로써 이미 진출한 중국 기업과 중국과의 거래를 하는 북한기업에 안정된 전력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2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 북한에서 본 對러 경제적 관계

○ 현재까지 북한의 對러 경제관계

- 1990~91년 舊 소련의 붕괴와 함께 북한과 소련간 무역은 70%이상 감소했으며, 지금까지의 국가간 의정서에 따른 무역 대신에 경화결제로 변경된 후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역관계는 소원해졌음.
- 21세기에 들어설 즈음 관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음. 2000.7월 당시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러·북 공동선언'에 조인했고, 다음 해인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2001.8월에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스크바공동선언 등이 조인돼 양국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식으로 만들어짐.

- 이러한 관계가 설립된 이후, 러시아의 하산~나진間 철도 개수공사의 기초가 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의 접속문제 등이 합의되었으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조금 뒤인 2006년부터였음.

o 2008년 이후의 새로운 동향

- 북한은 러시아와도 나진항을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음. 同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전돼 2006년 3월 북한의 김용삼 前 철도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북 양국간 철도연결을 위한 문제를 토의했음.
- 첫 번째 단계 조치로 나진- 하산間 철도 개수 근대화에 합의했고, 같은 해 7월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이 방북해 김용삼 前 철도상과 회담을 가졌음.
- 나진~하산間 철도와 나진항의 개수사업을 러시아 철도주식회사가 담당하기로 결정돼 양측은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 현지조사를 실시해 철도와 항구의 운영방식 등에 합의함.
- 2007.4월에는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주식회사가 하산~나진 철도구간의 개수 근대화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으며, 각서에는 나진~하산 철도구간의 개수 근대화사업을 위해 러·북 합작기업을 설립한다고 쓰여 있음.
- 같은 해 11월 러시아 철도대표단이 나선을 방문했고, 나진~하산間 철도 일부구간과 나진항에 대한 최종조사를 실시해 사전준비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음.
- 2008.3월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측은 평양에서 회담을 열어 나진항에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해 나진~하산間 철도를 개수,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중계수송에서 협력하는 것과 이상의 사업을 담당하는 합작기업 창설에 관한 법적 및 기술적 문제 등을 협의했음.
- 러시아 철도측은 하산~나진間 철도개수를 계기로 나진항에 납입되는 화물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경유로 유럽에 수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오랜 기간 건설사업은 중단됐었지만, 2010.5월부터 러시아 철도 자회사 'RZD스트로이'가 참가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준비가 진행되어 갔음.
- 중국의 적극적인 對北진출 특히 나선경제무역지대로의 투자가 급증해 더 이상 지연되면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했기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때문임. 러시아가 장래에 나진항을 이용하는 옵션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함.

- 2011.10.13일에는 하산~나진間 54km 가운데 러시아측에 가까운 32km 공사가 완공돼 시험운행이 이뤄졌으며, 2012년 여름에는 전 구간이 표준궤와 광궤의 혼합궤도로 완성될 예정임.
- 2011.8월에 나진항에서 항만 관계자에게 실시한 청취조사에서 러시아가 조만간(9월경) 나진항 제 3부두의 바다쪽 절반부분의 개수공사에 착수한 뒤 육지쪽 절반을 개수하는 플랜을 가동시킬 것이라 했음.
- 同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묻자 중국이 제 3부두 사용권 취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며 러시아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중국이 권익을 사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큰 결정타가 된 듯함.
- 북한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에 지쳐 중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됨.
- 그 외 프로젝트로는 2011년 8월24일에 러시아 우란우데에서 실시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연결되는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을 북한 영내를 통과하는 것이 있음.
- 러·북 양국은 한국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파이프라인의 부설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이 프로젝트는 러·북間 뿐만 아니라 한·러間에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남·북관계의 개선 등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음.

최근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들의 현지 르포 종합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등과 관련 북한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현지 르포를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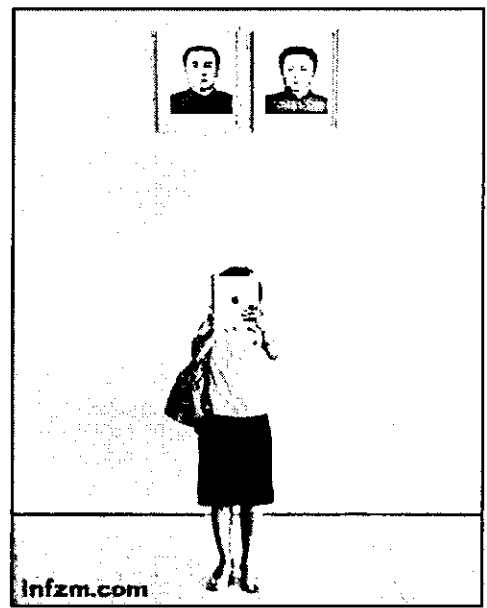
□ 중국

○ 북한 민간에 부는 상품경제, 김치부터 주택까지 구입 가능
(3.23, 남방주말 시사주간지)

- 북한의 견고한 정치체제와 경제 시스템 속에서 '시장'이 조용히 활성화되고 있으며, '나비부대'와 같은 북한의 신흥 상인계층은 국경을 넘어 상품을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북한의 한 시장에는 각종 난전에 크고 작은 그릇 안에 담긴 각종 해산물도 있고, 아동복, 담배, 식용유, 철광석, 수도관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매매되고 있음.



<심슨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
그러나 미 제국주의 만화 속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DMZ에서 사진사의 iPad를 가져가 자신을 찍는 북한 여성>
소수이지만 중국에서 건너온 iPad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수 엘리트만이 이러한 사치품을 향유할 수 있다.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김풍비」(가명, 평양 주민), '중국에 있는 상품이면 다 있다. 지역마다 이러한 시장이 1~2개는 있다. 크기는 통일시장보다 작지만 일반적으로 농구장 2~3개 크기 정도는 된다.'

「유충식」(상해 외국어대학 정치학자), '이러한 시장이 북한 전역에 이미 300개가 넘는다.'라고 언급

북한의 시장은 중국의 도시와 농촌 경계에 위치한 농산물 시장 같지만 이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임.

표면적으로 북한은 아직도 수십 년 전의 중국처럼 舊소련식 국가 배급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0년간 북한 주민들은 식량구입권을 가지고도 국영상점에서 충분한 곡식을 얻기가 힘들었고 배급표가 있어도 양말 한 짝 살 수 없었음.

국가 배급에 의존하고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

오늘날 매일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는 것은 이미 대부분 북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되었고, 이러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평양과 단동을 자주 드나드는 한 무역상이 기자에게 '과거에는 시장에 그저 난전만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철제 지붕의 상가도 들어섰다.'고 알려주었음.

일반적으로 1m가 안되는 작은 난전이고, 시멘트 탁자 위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아예 땅 위에 놓고 팔기도 하지만, 상가 내부에는 더 많은 물품들이 갖춰져 있음.

판매자들은 모두 여성이며, 북한 당국은 40세 이상의 부녀자만 난전에서 물품을 팔도록 규정했으나, 이러한 연령 제한은 이미 없어졌음.

난전의 가격표는 거의 종이판으로 상품명과 가격이 적혀 있고, 시장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상품의 흥정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교류되며, 국가적 행사가 있는 휴일은 문을 닫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02년 농산물 시장이 합법화되면서 북한은 시장 교역 결제는 정부 발행 화폐로만 하도록 규정했음.
- 「존 에버라드」(前북한 주재 영국대사), '2009년 이전에는 거의 북한의 원화로 결제했지만, 현재 일부 제품은 외국돈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 「박기병」(가명, 단동 상인), '인민폐가 비교적 더 많이 쓰이며, 달리는 가치가 높아 거스름돈 나눠주기가 힘들다.'
- 북한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은 종합시장은 북한 시장 경제의 일부분이고, 평양에서는 매매금지 대상인 주택까지 암암리에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음.
- 북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 주민들의 주택은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배급함. 그러나 직장 이동 등으로 민간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개인 거래가 있었음.
- 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방(매매가능한 모든 건물)'이 이미 알려진 비밀이었고, 주택 가격은 평방미터당 인민폐 2,000위안 정도임.
- 북한 시장 소비자들의 수입원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국가에서 주는 월급만으로는 시장에서 일상적인 소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현재 북한 시장에서 쌀 1kg은 북한돈 3,000원 이상으로 암시장 환율로 계산하면 중국 인민폐로 4~5위안이고, 이는 중국 시장의 가격과 비슷함.
- 북한 명문대학 교수의 월급(북한돈 4,000~5,000원)으로는 쌀 1.5kg에 맥주 2병 정도를 살 수 있는 실정임.
- 2011.12월 러시아의 한 학자는 <동아시보>에서 '과거 10~15년 동안 북한 일반 가정의 대부분 수입은 암시장 거래로 나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일본 <아사히신문>도 '75% 북한 주민이 국가 경제 체제로는 생활할 수 없기에 민간 시장에서 식품을 조달한다'고 보도함.

북한의 농산물 시장들은 우선 배불리 먹고자 하는 현실적인 바람에서 생겨난 것이며, 1990년 이전에 합법화된 시장은 농민들이 자급자족하고 남은 곡식과 야채를 매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

그러나 지하 교역이 빠르게 생겨났고, 농산물 이외의 생필품도 대량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합법적인 농산물 시장 이외에 각지에 이런 암시장이 생겨났음.

각종 암시장이 북한에 속속 생겼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청개구리 시장', '매뚜기 시장', '나비부대'임. 이런 별칭은 순찰자가 출동하면 상인들이 빠르게 도망가면서 붙여졌음.

* '나비부대'는 은유적 표현으로 대부분 암시장의 상인들이 북한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기 때문임.

암시장 거래는 간단하게 이뤄지며, 거주 지역 골목이나 가정 내에서도 이뤄지고, 길가에 있는 사람도 모두 거래를 함.

여성들은 물품을 치마 속에 숨겨두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물어오는 손님들에게 치마 속 담배와 맥주 등을 꺼내 판매하고, 가끔은 국영시장에서 볼 수 없는 금기 물품들도 있음.

「박기병」(가명, 단동 상인), 「남편은 대학교수, 부인은 시장 난전 장사꾼인 경우도 있고,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가 군인이고 모두가 상인이다!」

북한은 2012.1월 시장 단속을 단행했음. 김정일 사망 얼마 후, 북한 정부는 유혼 관철을 위해 美 달러와 중국 인민폐 등의 외화 사용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발표함.

그러나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무너지자 지도자들은 모든 주민에게 고기국은 말할 것도 없이 쌀, 양말을 공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북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생계를 위해 뛰어 다녀야 했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개인주의 색채가 짙고 개인 영리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집단주의 정신에 위배됨.
- 2003.3월 북한은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바꾸고,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를 허가하고 이중 가격제를 인정함.
- 이로써 그동안 몰래 장사를 해왔던 개인 사업자들이 더욱 많이 생겨났고 정부 허가만 받으면 소형 점포,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리 밑 난전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고, 길가에서 닭을 팔거나 24병들이 맥주 상주도 꺼내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임.
- 「유충식」(상해 외국어대학 정치학자), '7.1 조치는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후 북한에서 시장 활동은 합법화되었다.'
- 「서문길」(길림대학 교수), '농민시장의 명칭 변화는 북한 당국이 시장의 공산품 거래 행위를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자유시장이 한꺼번에 확립된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시장 경제를 국가배급제도 안에 도입시키려 시도했었음.
- 2009년에는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단행으로 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북한 주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저축한 돈을 잃게 되었었고, 인플레이션 및 곡물 공급 부족 현상도 나타났음.
- 「유충식」(상해 외국어대학 정치학자), '북한 시장의 특징은 당국의 시장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판매자 자격 제한, 영업정지로 시장을 통제하는데 이를 통해 시장 경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 2011.12.19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中·北 국경 도시 단동의 북한 상인들은 고액에 백합화를 구매했음. 구입량이 증가하자 백합화 가격은 40~50위안까지 치솟았고, 이는 평양 시민 월급의 10배 인데도 구매했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애도기간 종료 후 이들은 다시 단동으로 돌아와 광천수에서 부터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구입해 신의주로 옮겨 갔고, 다시 평양을 포함한 북한 각 지역으로 수송되었음.

2011년 美 의회의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는 이들을 신흥 계층으로 정의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 구조로 북한에는 5개의 계층 생겨났다고 함.

최상층 권력 엘리트는 노동당의 黨·政·軍 간부로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받으며 고가의 수입 상품을 향유하면서 현행 정치, 경제 제도를 유지하려 함.

두 번째 계층은 해외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며, 세 번째 계층은 시장과 상업 활동을 통해 폭리를 취한 무리들이고, 네 번째는 도시 평민, 최저계층은 농민으로 구분되며, 이들 농민은 직접 재배한 것을 시장 판매 또는 생필품과 교환해 생계를 유지함.

20년 전 북한의 사회 구조는 출신성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조건이었음.

오랜 변혁을 거쳐 이러한 부분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한 러시아 학자는 <북한의 새로운 계층 구성>이라는 책에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가정 출신성분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돈을 버는 능력이 사회적 배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함.

북한의 신흥 상인 계층이 각 분야에서 黨·政·軍 엘리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중요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임.

「박기병」(가명, 단동 상인), '북한을 떠나 합법적으로 단동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북한 엘리트들이다.'

북한 시장에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품이 많고, 상품의 1/3이 북한산, 2/3는 수입산인데 수입산의 90%이상이 중국제품임.

「서문길」(평양에서 유학 중인 길림대학 교수), '비용, 교통, 신청비 등을 포함해 원가를 계산해보면 북한 시장에서 파는 상품 가격이 중국 시장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신의주는 中·北 무역의 허브라 할 수 있으며, 신의주 항구에 최근 2년 동안 대형 창고들이 속속 생겨남.
- 1990년 이후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주요 수출, 수입국으로 두 나라와의 수입, 수출이 전체의 60%, 50%이상을 차지했음.
- 통계를 보면 2010년 中·北 무역 총액이 34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2011년 中·北 무역 총액은 56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 中·北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면서 북한 새 지도자는 이들에 대해 미묘한 태도를 보임.
- <도쿄신문>은 '2012.1월, 김정은이 외화 획득과 공장운영에 우수한 인물은 누구든지 자타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대열에 끌어와야 한다'고 보도함.
- 이는 외화를 획득해 북한 정부에 충성을 한다면 이들 경제 모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신흥계층은 계획 체제 이외의 부분에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힘이 됨.
- 「김강일」(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 '개혁 초기의 중국보다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 의식이 강하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면 중국보다 더 빠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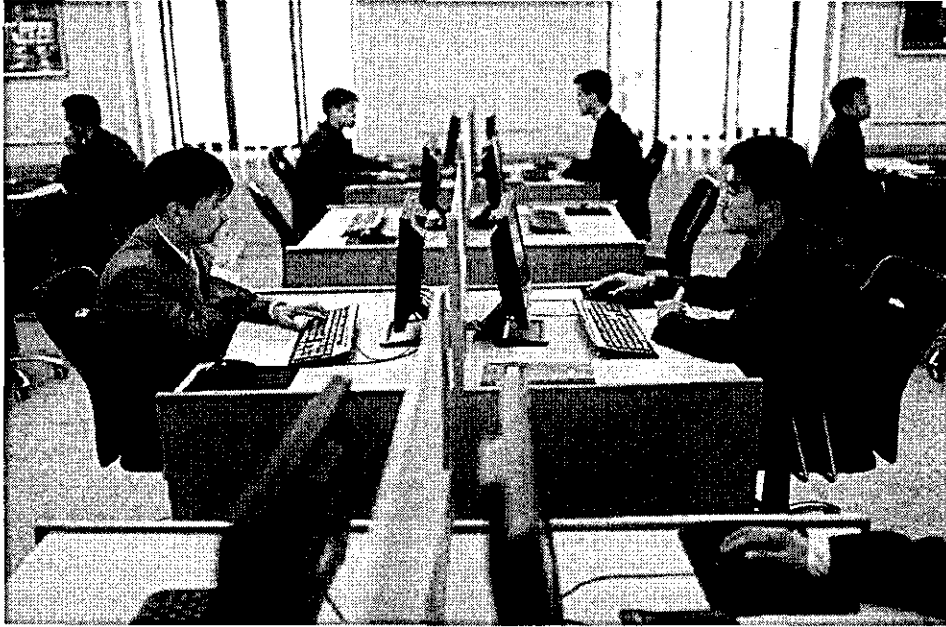
○ 김일성대학 탐방, 선진 시설 및 무료 급식 제공(5.1, 신화사)

- 4.30일 중국 CCTV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취재 영상을 방영함.
-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실에서 한 여대생에게 전세계 웹사이트를 모두 접속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자 공개하지 않음.
- 12,000명의 대학생들이 수영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개인별 1시간씩 사용하도록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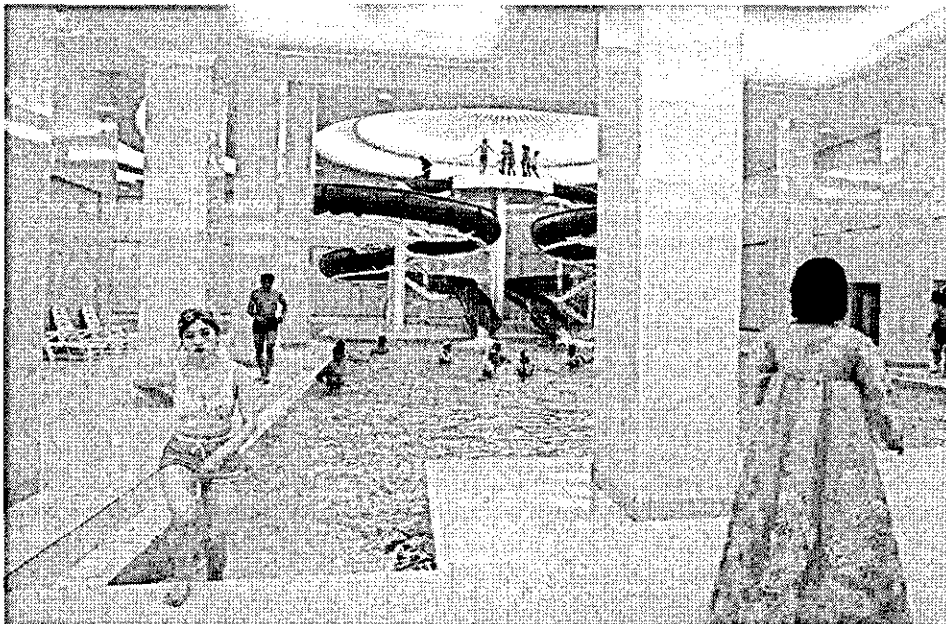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오늘 점심식사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위대한 장군님이 주신 영양가가 매우 높고, 커다란 빵 1개를 먹었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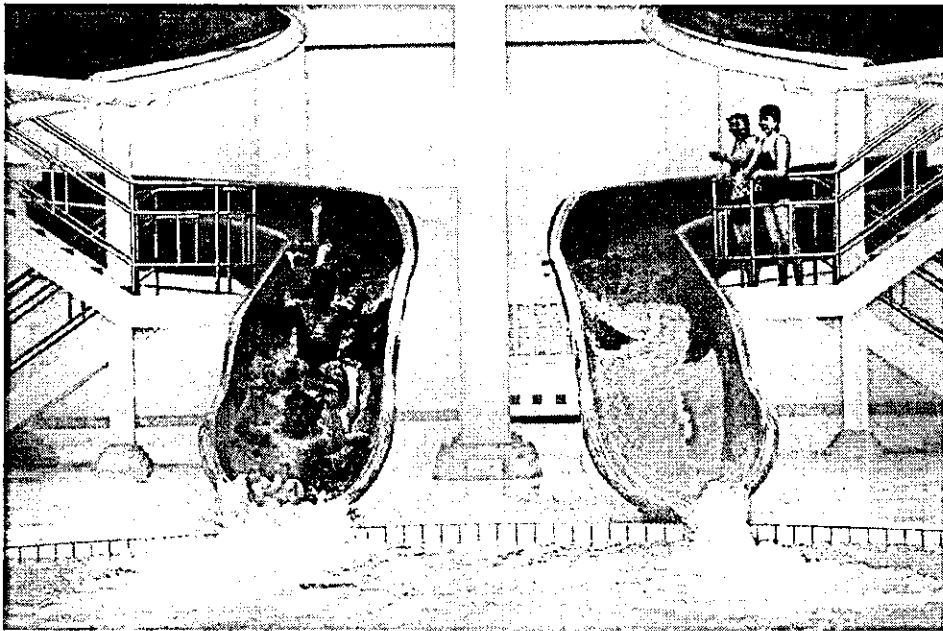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실 모습】



【김일성 종합대학 수영장 모습 #1】



【김일성 종합대학 수영장 모습 #2】



○ 북한의 밤 문화, 가라오케·나이트클럽 등 모두 다 있다.

(4.27 북청망 ⇨ 베이징 청년보 인터넷판)

- 1.30일 북한 수도 평양의 밤 분위기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으며, 전기가 부족한 평양의 밤은 200만 인구의 도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음.
- 이웃국가 중국과 한국의 휘황찬란한 밤과는 분명히 대비를 이루고 있으나, 극소수 여행객들에게는 평양식 밤 문화가 허락됨.
- 외국인 특사와 사업가들을 제외하고 매년 2천여 명의 서양 관광객이 평양을 찾는데 대부분 유명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아리랑 공연기간 외에는 북한 정부에서 더 많은 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함.
- 국제개발구호기구인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의 도움으로 2005년 개업한 서양식 카페 '별무리(Pyolmuri)'도 있음.
- 독일식 오븐과 스파게티 제면기가 있는 '별무리'에서 애플파이, 카푸치노를 맛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구경도 할 수 있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2011년 이집트 통신회사 Orascom은 북한에 이동통신 기술을 가져다주었고, 긴치마와 통굽신발에 다양한 장식품이 달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음.

밤이 오기 전, 대동강을 따라 김일성 광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름다운 광경을 담을 수 있었으며,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주체사상탑이었음.

평양에도 나이트클럽과 카지노클럽이 있음. 1,001개의 객실을 보유한 양각도 호텔이 바로 그곳이며, 외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호텔 중 양각도 호텔의 카지노와 가라오케가 가장 뛰어나고, 이곳은 북한 현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음.

양각도 호텔 지하의 나이트클럽에서는 70~80년대의 유행가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많을 경우 새벽 3시 반까지 영업을 하지만 보통 1시 반이면 문을 닫음.

나이트클럽이 부족하면 바로 옆 '이집트 궁전'이라는 이름의 카지노에 들러도 되며, 이곳은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호텔 투숙객이 아니면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자신의 가이드와 상의해야 함.

【이집트 궁전 카지노 모습】



□ 일본

○ 넘쳐나는 꽃제비들, 한류드라마 밀매에 나서는 공안조직(4.20 산케이)

-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부터 강화된 국경 단속이 암시장과 중국제품에 의존하는 국민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
- 中·北국경 왕래와 국내 이동이 제한되어 물류가 중단됐기 때문임.
- 철도역 주변에는 꽃제비들로 넘쳐났으며, 한류드라마를 밀매해 살아남으려는 비밀경찰 조직까지 생겨났음.
- ‘이대로라면 아사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김정은의 제 1비서 취임이라는 축제 뒤에 다가올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함북지역의 한 가구당 배급된 특별배급은 ‘백미·옥수수·콩 15일치, 맥주·소주 한 병씩, 식용유 1인당 250g, 된장, 과자 1봉지, 조청, 우산, 학생복, 남성용 러닝셔츠’ 등이었고, 아직 배급되지 않았으나 담요도 배급된다고 했다 함.
-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최대 축전이라고 홍보해왔으며, 그만큼 ‘평양의 지하철고에는 배급품이 쌓여있을 것이다.’, ‘100주년에 맞춰 100종목의 물품이 배급될 것이다’ 등의 소문이 퍼졌었다고 함.
- 실물을 본 주민들로부터는 ‘겨우 이것인가?’, ‘새로운 지도자도 별거 없네’ 등의 실망감이 나왔다고 함.
- 여성주민 중 한사람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 뒤 연속으로 행사에 동원돼 마음 편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함.
- 국민생활에 가장 타격을 준 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배급제도 대신에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장마당’의 영업정지 조치였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장마당은 암시장에서 발달한 후 공인되었지만, 작년 12.19일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상을 이유로 영업을 금지되었음.

그로부터 10일 후에 재개되었지만 활기는 돌아오지 않았음.

탈북자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취해진 국경왕래 규제가 원인으로 중국 주재의 조선족으로부터 친척방문을 명목으로 반입되었던 중국제품이 들어오기 힘들어졌음.

또한 불온한 싹을 자르기 위해 국내 이동을 허가하는 통행증 확인을 엄격히 함으로써 인적, 물적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음.

주식인 옥수수조차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어 가재도구를 팔아 먹고사는 주민들이 속출했다고 함.

집을 처분하는 케이스도 나타나서 평양 남쪽의 교통 요충지 사리원역에는 집을 잃은 가족 등 꽃제비들로 넘쳐난다고 함.

김정은 체제 출범 후에 일어난 '인위적 경제난'은 생각지도 못한 여파를 가져왔음.

주민들의 이동과 밀수를 묵과하는 대가로 받아왔던 뇌물이 끊기자,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조직까지 어려워지기 시작함.

보위부는 탈북과 사상범을 단속하는 조직으로 특히 북한으로 불법으로 반입돼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DVD 적발을 강화했지만 여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 중국으로부터 드라마 DVD를 밀수해 브로커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함.

배급에 의존해온 병사와 군수공장 직원들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하며, 어떤 병사는 작년 여름 기자의 질문에 '내년 봄에는 절반 이상이 허약(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다.'라고 대답함.

「이시마루 지로」(임진강 편집장), '단속강화는 김정일 사망이라는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향후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적 축제가 끝난 지금부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대량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1990년대에 이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

○ 특별배급에 불만의 목소리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 여론

(4.16 아시아프레스)

- 4.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북한 전역에서 개최되었지만, 이에 맞춰 국가로부터 지급된 '특별배급' 내용이 빈약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음.
-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민족 최대의 경축일'로 지정되어 매년 국민들에게 특별배급이 실시됐으나, 1990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 속에 내용물은 점점 나빠졌음.
- 지역차가 있지만 평안남도에서는 작년 김정일 생일 때 800g 정도의 과자세트와 소주 한 병이 배급된 것이 전부였음.
- 이에 비하면 올해 '특별배급'은 종류도 양도 많은 편이었으나, 정보를 제공해준 여성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 '강성대국이 되므로 올해 4.15일의 특별배급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인민반장도 말했고,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므로 100 종류의 배급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배급된 것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실망했다.'
- 올해 2012년은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해'라며 북한 당국은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지만 북한 국민의 대다수는 강성국가의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올해는 김일성생일 100주년인 특별한 해이므로 '특별배급'도 성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었으며, 그만큼 민중들의 실망이 컸던 것 같음.
- 취재 협력자인 여성은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서도 '발사에 쏟아 부을 돈이 있다면 인민들의 삶도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또는 아깝다는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전함

○ 발사 직후의 북한내부 모습 (4.14 아시아프레스)

- 국제적으로 주목을 모은 북한 로켓 발사가 이뤄진 4.13일 오전 아시아프레스는 북한내부 취재협력자와의 통화를 시도 해봤음.
- 태양절을 앞두고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경계태세가 강화돼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서의 대화였는데, 악화되는 생활고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조용한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음. 현지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
 - Q : 그쪽 생활은 어떤가요?
 - A : 많이 힘듭니다.
 - Q : 먹고 사는게 힘들다는 얘긴가요?
 - A : 그렇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Q : 생활은 이전보다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 A :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 Q :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A : 그렇습니다.
 - Q : 살고 계신 지역에서는 현재 전기가 공급되나요?
 - A : 주민용 전기 공급은 전혀 없습니다. 있더라도 5분 정도 입니다. 그것뿐입니다.
 - Q : 당국은 검문소를 늘려 통행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통제가 엄격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 A : 말씀대로입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별이가 꽤 줄었습니다.

○ 오랜만에 식량 가격이 안정되었다. (3.5 아시아프레스)

- 북한 각 지역의 식량가격이 지난 몇 주간 안정된 것으로 확인 됐음.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 파트너들이 전해왔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내부 정보를 전하는 잡지 '임진강'의 취재 협력자들은 2.26일부터 3.4일까지 주요 소비물자 가격을 양강도 혜산시와 함경북도 청진, 무산, 회령 총 4개 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모두 장마당에서의 판매가격임.
- 함경북도 3개 도시
 - 국내산 백미 1kg 2,700~3,300원
 - 미가공된 옥수수 1kg 900~1,200원
- 혜산시
 - 국내산 백미 1kg 3,000~3,300원
 - 중국산 백미 1kg 2,700원
 - 미가공된 옥수수 1kg 1,350원
- 휘발유는 1kg 6,500~8,000원, 중국 위안화 1위안 = 북한 원화 640~655원, 美 1달러 = 북한 원화 4,000~4,100원(실제 환율)
- 북한의 식량가격은 2011.10월경부터 두 달에 걸쳐 급등락을 반복해 불안정했었음.
- 김정일 사망 직후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자 백미의 암시장 가격이 1kg당 1만원으로 급등하는 등 혼란이 나타났었음.
- 식량배급제가 1990년대에 마비된 이후 북한 주민의 약 80%는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해서 살고 있을 것으로 아시아프레스에서는 보고 있음.
- 또한 식량가격의 변동은 거의 위안화 교환환율 변동과 일치하며, 원 - 위안화 환율의 안정이 식량가격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함.
- 2011년 후반에는 평양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건설자재와 차량, 휘발유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야 해서 외화수요가 급증해 한때 1위안이 800원을 넘었었음. 즉 조선 원이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시장의 식량가격도 급증했던 것임.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월 이후 북한 당국은 김일성 생일에 맞춰 일시적으로 식량 배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가격 하락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경제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3.20 중국망 일본어판)

- 평양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함. 최근 북한은 경제 발전의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있음.
- 하나의 예로 2011.1월 북한은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치했고, 이곳에서 경제건설 및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제정을 담당함.
- 평양의 최근 경제발전 모습을 보면 비즈니스 분위기가 꽤 짙어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2012년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문을 연다.'는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평양 각지에서 건설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시민의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양에서는 옥류관, 청류관, 창광미식가 등 음식 서비스 거점이 새롭게 건설되었고, 개선 청년공원과 중앙동물원 등의 오락시설도 보수됐음.
- 레스토랑과 슈퍼가 늘어남으로써 평양은 크게 변화했음. '환구 시보' 기자가 몇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면적 약 500 m² 정도의 슈퍼가 평양에서는 큰 편이었는데, 2012.1.5일에 영업을 시작한 '광복지구상업중심'은 3층짜리 건물로 바닥면적은 3300m²이며 상품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 오랜 기간 북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지인은 현재 평양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이 또 생겼어?' 라는 말로 인사하는 것이 유행이다'라고 반농담식으로 얘기해줬음.
- 평양에 있는 외국인 전용호텔에는 주로 북한 고객이 오며, 식사 때가 되면 레스토랑은 모두 만석으로 대부분이 북한 사람임.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새롭게 연 레스토랑에는 추천메뉴가 있으며 불고기가 맛있는 곳, 맥주가 맛있는 곳, 중화요리가 맛있는 곳 등 다양하고, 이것은 모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임.

□ 미국

○ 북한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소비문화 생겨났다. (2.25 AP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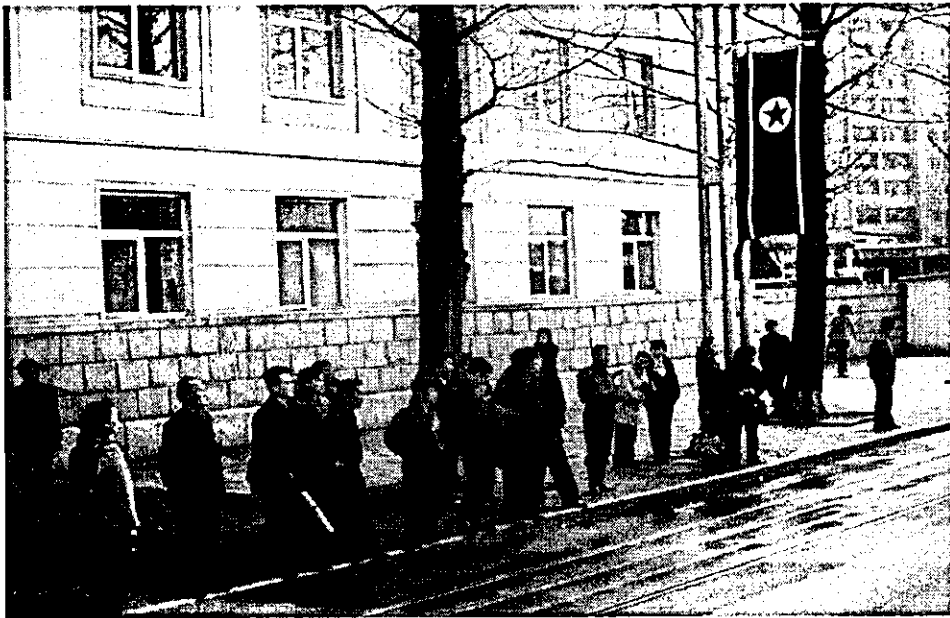
-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중국인들은 북한에 대형마트가 주는 즐거움을 소개하면서 주민들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는 값싼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음.
- 이는 북한 지도부의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주의는 3년 전 경제력과 새 지도자 김정은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착수했던 선전활동의 일환임.
- AP가 찾은 평양 시내에 위치한 '광복지구상업중심'은 중국 측이 6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구경하러 오기에 좋은 곳이라고 평가됨.
- '광복지구상업중심'에는 중국산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유명한 땅콩버터 브랜드 '스키피(Skippy)' 제품, 스페인산 올리브 오일, 스누피 등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미국·유럽·일본산 유명 제품들도 중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음.
- 그러나 평양에 상륙한 새로운 소비문화는 엘리트 계급과 노동자 계층 간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음.
-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중국산 '그레이트 월' 적포도주의 경우에는 북한돈 81,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이는 보통 북한 주민이 먹는 한 끼 식사의 300배에 달함.
- 북한에서는 평양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접한 북동부 나선에서도 중국이 깔아준 도로로 중국산 물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오고 감.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지난해 8월 AP가 방문한 한 나선의 실내시장에서는 여성들이 샴푸·쌍안경·하이힐이 쌓인 탁자 뒤로 줄을 서 있었고, 어떤 여성은 토끼고기와 닭도 판매하고 있었음.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싱가포르 기반의 비영리 대북 민간교류단체 조선익스체인지 집행이사), '북한 주민 사이에 경영관리를 배우려는 욕구와 외국 문물에 대한 개방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

【평양 시내 도로변 주민 모습】



【평양 광복지구상업중심 모습】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김일성, 김정일 동상 제막식 모습】



【인민군 창건 80돌 음악회 모습】



【평양 지하철역 주민들 모습】



·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평양에 신축된 아파트 모습】



【평양 식당 내 외화교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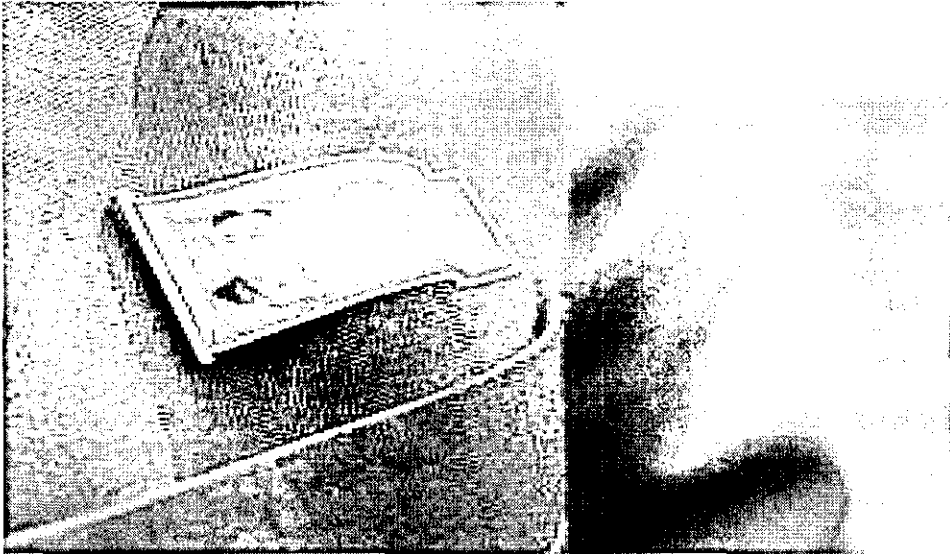
【평양 음식점 노래방 기계의 광명성 로켓 발사 배경 동영상】



□ 러시아

○ 북한 체제, 불치병에 걸린 것 같지 않다. (4.20 리아 노보스티)

- 북한의 주요 기념일인 김일성 100회 기념 생일행사가 평양에서 며칠 동안 치러졌고, 리아 노보스티 특별 통신원이 현지에서 북한 인민들의 지도자 사랑을 추적해봤음. 취재 끝에 내린 결론은 북한 체제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임.
- 북한은 태양절과 김정은이라는 새 지도자가 등장하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50여명의 해외 언론인을 초청했지만 여전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제외됨.
- 평양 공항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핸드폰 보관소이며, 국경에서 핸드폰을 수거하고 출국 시 돌려주기 위해 소유자 이름을 적어놓음.
- 어처구니없는 액수인 100달러를 지불하면 북한 국내용 카드로 사용하는 중국산 핸드폰을 며칠 동안 임대할 수 있음.
- 공항에서 모든 손님들은 '가이드'를 만나는데, 관광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 방문이 불가능함. 대부분의 가이드는 잘 훈련된 군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 세계 각국 언어를 곧잘 함.
- 이러한 안내 통역원 없이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공항으로 택시는 물론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임. 도시에서도 돌아다닐 때면 가이드와 함께 다녀야 한다.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가이드는 항상 뒤를 따라다님.
- 모든 가이드는 전부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모두 그려진 배지 또는 김일성 배지를 차고 다님.
- 가이드는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님', 김정일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은 '존경하는 동지'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음.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며,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음. 전문가들은 김일성 100회 생일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발사를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실패원인을 지적하기도 했음.

언론인 숙소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46층짜리 양각도 호텔이었음. 현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야 하는 거리임.

북한 측은 매번 비용을 청구했으며, 본인 확인 배지는 20불, 'Press'라고 쓰인 완장은 30불이었음. 이러한 문건은 사실상 의무사항이었음.

가이드 서비스는 100불, 버스비용 또한 100불이었고,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에 이 또한 의무사항이었음.

기자들을 위해 고속 인터넷이 제공되는 최신식 프레스 센터를 제공했지만, 인터넷 비용도 30분당 7유로씩 지불해야했음. 그러나 이웃 중국에서는 금지하는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음.

큰 버스에 기자들을 한꺼번에 태우고 중앙통제식으로 시내를 보여줬는데, 창문에서의 촬영도 금지됐음. 가이드는 '우리가 데리고 가는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고 얘기함.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견학시 가이드는 갑작스럽게 몇 시에 호텔 로비에서 모일지를 말해줬고, 우리가 갈 곳은 버스가 장소에 도착해야만 알 수 있었음.

이렇게 우리는 갑작스럽게 군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김일성 경기장과 김정일 동상 제막식에 도착했었음.

지정된 시간에 모여 신체와 소지품 검사가 시작되는데, 우선 모든 물건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쳐야 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으며, 방사선 검출기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기구로 검사를 했음.

해외 언론인은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취재하기 위해 초청됐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 자국의 업적을 알리고, 동시에 이런 업적이 평화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임.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언론인들에게 이 분야 전문가를 대동할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북한의 초청 때문에 가장 저명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 프랑스, 미국의 전문가 몇 명이 응했음.

하지만 정확한 발사일엔 말하지 않았고, 언론인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소문만 무성했음. 4.13일 오전에는 인민학습당 견학이 예정돼 있었음.

하지만 신체·소지품 검사를 받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견학이 취소됐고, 대신 오후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다시 오후에 모이라고 말했음.

이제 '발사' 장소에 데려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몇 분 뒤 우리는 서방 언론을 통해 발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기자들은 한마디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임.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음. 우리 모두 로켓발사 장면과 정보를 얻기 위해 관제센터에 갈 준비를 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공식적으로 사실상 '발사에 실패'했으며, '전문가들이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발표했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발사장이 아닌, 김정일 동상 제막식에 데려갔고, 로켓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음.

북한인들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려 했지만 사실상 그럴만한 능력이 없었고, 중요한 행사에 데려갔지만 가이드는 언론인을 어디로 데려갈지조차 몰랐음.

약 250여명의 해외 언론인은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새로운 김일성 동상이 있는 산 정상까지 10분 만에 뛰어올라가야만 했지만, 뒤통지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도 없었음.

태양절 행사시 광장에서 딱딱한 모습의 군인 행렬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박수와 '만세' 소리로 답했고, 동시에 녹음된 박수와 '만세'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음.

열광적인 반응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연단에 등장하자 절정에 달했고, 김정은의 공식 연설은 종이에 쓰인 그대로 읽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중들에게 북한의 새 지도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북한은 과거노선 전환 의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임.

'강대국이 자신의 의지를 소국에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힘이 있다'며, 그는 로켓과 핵무기 보유를 시사했고, 그의 연설이 끝나자 광장은 열렬한 박수와 함께 대규모 확성기에서는 이전에 녹음해놓은 '김정은! 김정은!'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음.

저녁에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보기 위해 대동강변은 평양 주민들로 북적였는데, 이렇게 불꽃놀이를 구경나오는 것도 원하는 사람 모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나 동맹의 초청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함.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음. 북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현대 러시아인에게는 익숙지 않은 어떤 감격스러운 어투가 있었고,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舊소련 시절을 연상케 한다.

(4.29 ddd 157 쿠르스크 주 지역일간지)

- 「알렉산드르 체트베리코프」(쿠르스크 주 하원의원, 김일성 생일행사 시 방북),
 - '2011년 방북 러시아인은 총 100여명으로 추정되며, 정부 사절단 차원에서 방문도 약 3개월간의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했다.'
 - '젊은 지도자 김정은과 나이 든 장관들이 참석한 300여명이 초청된 북한정부 환영리셉션은 舊소련 시절을 연상케 했다.'
 - '감시와 통제가 엄격했지만, 눈을 피해 방문한 노점상에서는 거의 물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
 - '특이한 점은 시내건물 창문에 블라인드 혹은 커튼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인 듯하다'라고 주장

최근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추진 동향

최근 북한 나선특별시 경제 및 인프라 개발 관련 공개정보를 종합하여 보고드립니다.

□ 중국

○ 中, 북한의 나선항 사용권 확보로 물류항 부족 해소

(2.23 / Sina 포털사이트)

- 중국이 나선항을 이용해 화물 운수를 하게 되면서 편리한 물류 노선이 더 생겼고, 중국 동북지역에 경제건설을 하면서 내륙의 화물을 외부로 운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있음.
- 투자개발 외에도 나선시는 특유의 관광자원이 풍부함. 산, 바다, 아름다운 경치, 기후, 자연경관, 나선항은 천연적인 부동항으로 지리적 이점도 많음.
- 전문가들은 中·北의 나선 개발 협력으로 Win-Win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항구자원을 이용하고, 북한은 중국의 기초 인프라시설 건설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음.
- 「뤼차오」(요녕성사회과학원 북한문제 전문가),
 - ‘중국이 나선항을 사용하게 되면서 전체 나선 자유무역지대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항구 건설로 가공, 보관 등 관련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이는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
 - ‘중국은 항구 건설을 통해 내륙 물자를 외부로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절강지역 뿐 아니라 한국, 일본지역 수출도 편리하다’고 주장
- 그러나,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나선항구 사용이 경제 협력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김민용」(히로시마평화연구소 북한 문제 전문가),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中·北의 경제무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對北 조절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으며, 「뤼차오」(요녕성사회과학원 북한문제 전문가), '중국은 그저 물류 운송 루트를 하나 더 얻을 뿐'이라고 주장

○ 나선경제무역지구, 북한의 선진 제조업 기지 될 것이다.

(2.5 / 중국신문망)

- '12.25일 폐막된 길림성 제11회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中·北은 북한의 나선경제무역지구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며, 이는 북한의 선진 제조업 기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
- 2012년 길림성은 북한의 교통시설, 자원 개발, 국제여행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
- 현재 길림 훈춘에서 북한 나진의 2급 도로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2년 연내 완공 예정임.

○ 中, 북한 나선향 사용권 획득 (3.9 / 경제관찰보)

- 2012년 북한 나선향 고속도로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면 연변주는 내륙의 물자를 외부로 운송할 수 있게 되며, 즉 나선향을 통해 길림성 동부에 새로운 물류운송 채널이 생긴다는 것임.
- 2011년에도 나선향 선적 후 상해, 영파(닝보)로 물류를 운송해 비용을 많이 절감했음.
- 중국 투먼강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은 국제산업협력구역, 변경 자유무역구역, 中·北 경제협력구, 中·러 경제협력구로 구성되며, 中·北 나선경제무역구를 통해 변경무역을 발전시킬 것임.

○ 나선평구, 경제적 가치 얼마나 되나? (2.22 / 中 산경신문)

- 北·中이 나선평구 개발에 합의하면서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진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처럼 경제특구부터 시작해 북한이 경제 개발에 나선다면 북핵 및 동해문제 등도 상대적으로 안정화 될 것임.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양측의 협력으로 이 지역에 실질적인 발전이 있다면 향후 동북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선지역은 중국의 두만강·연변·길림성 일대의 대외개방 창구 역할을 할 것임.
- 자본이 풍부하고 인프라시설 개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중국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의 협력은 아시아 통합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나, 북한 정책의 잦은 변화로 제2의 신의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나선특구 시찰 중국기업 모집 및 금속공업 투자상담회 개최

(3.1 / 혜충호텔망)

- 북한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 단체인 '북조선 나선 화상회'가 중국 기업들의 북한 탐방 및 상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공고 게재

- 주최 : '북조선 나선 화상회(華商會)'
- 주관 : 길림성 훈춘시 전흥회의 서비스 유한공사
- 초청인사
 - 황철남 : 북한 나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왕영강 : 中·北 나선경제무역합작구 영도팀 판공실 부주임 중국정부대표
 - 황용남 : 북한 나선특별시 경제합작국 국장
 - 김영남 : 북한 나선특별시 경제합작국 부국장
 - 강태환 : 북한 나선특별시 외자기업 서비스센터 주임
 - 임강호 : 북한 나선특별시 관광국 국장
- 참가 신청 : 2012년 5월 29일까지
- 상담회 일정
 - 6.1일 : 연길, 훈춘 도착
 - 6.2일 : 북한 도착, 나선시 정부 상담회
 - 6.3일 : 시찰 및 관광
 - 6.4일 : 중국 이동
- 관광 일정
 - 6.4~6.8일 : 북한 금강산 5일 여행
 - 6.5~6.7일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3일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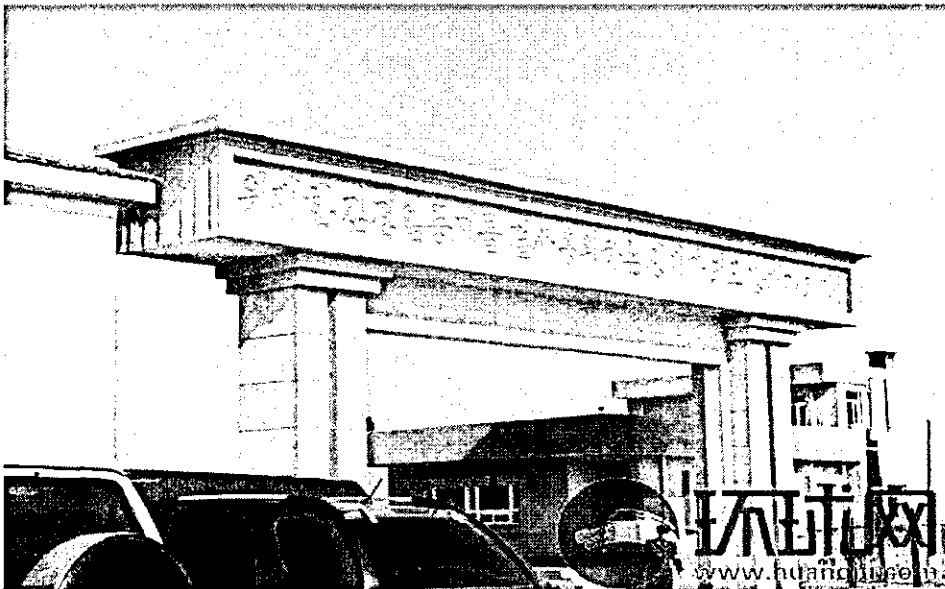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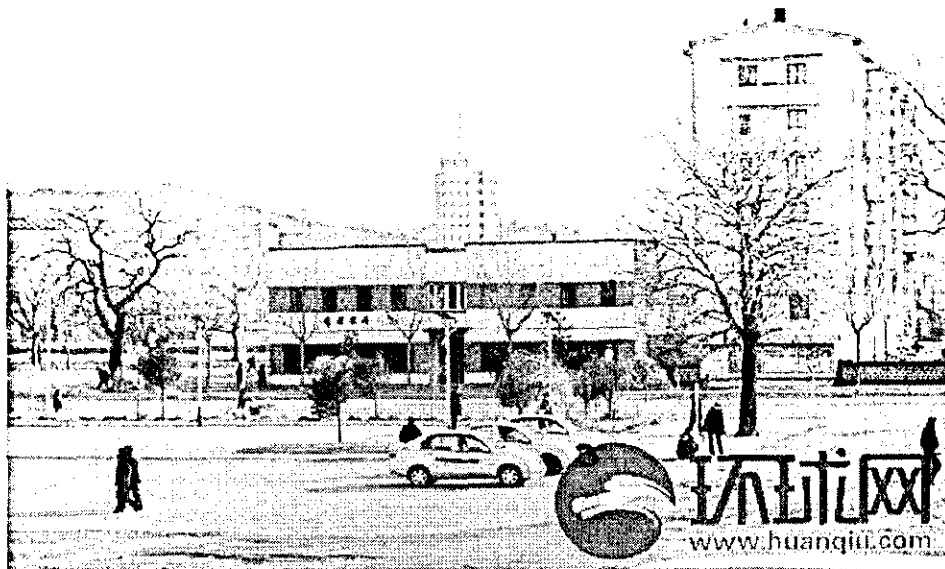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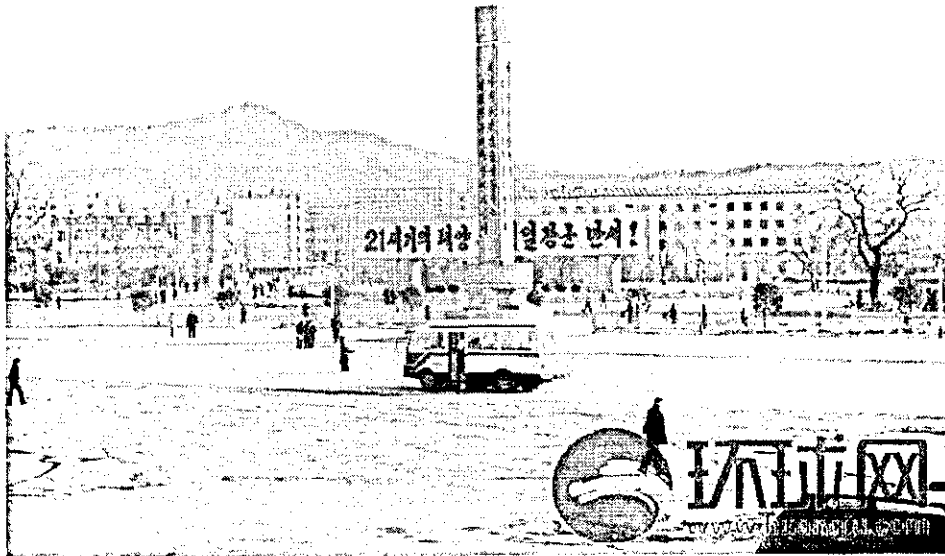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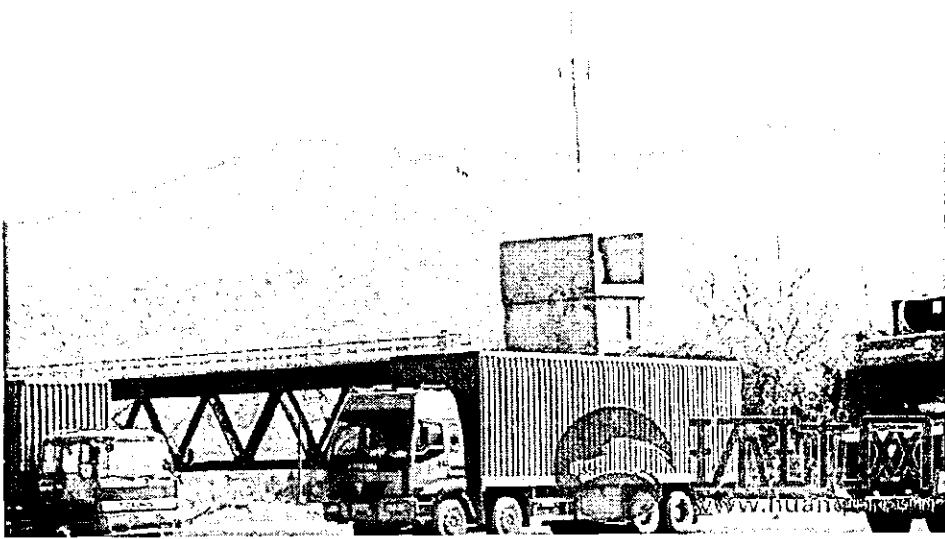
- 두만강 국제협력시범지구 건설, 유럽·미국 기업가에 개방
(3.8 / 홍콩 봉황위성TV)
 - '12.3.7 「천웨이건」 (길림성 副省長), '현재 두만강 국제협력시범지구 건설을 구상중이며, 이는 中·北 나선경제무역지구 건설과 中·러 항구자원 개발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므로 유럽,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
- 나선향 협력, 동북아 지역 발전 이끌 것이다. (2.17 / 홍콩 봉황위성TV)
 - 나선향이 개통되면 전체 한반도의 동해안에 많은 투자 가치가 생길 것이며, 중국 동해안의 여러 항구와 연결되면 한반도 남북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임.
- 中·北, 나선 경제무역지구內 건설 시작 (3.20 / 중국신문망)
 - 2012년 길림성은 기초인프라 시설, 농업, 관광 등 산업을 중점으로 북한 나선경제무역지구 내의 건설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대형기업들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함임.
 - 길림성 두만강 개발 주임에 따르면, 길림성은 올해 항구, 에너지, 교통 등 기초인프라 시설 건설을 중점으로 나선경제무역지구 內 핵심 인프라시설 건설을 시작하며, 이로써 자동차·섬유·식품·가전 기업들의 입주를 유치할 예정임.
 - 북한측 자료에 따르면, 나선지역은 이미 국제전화·팩스·휴대폰 통신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현재 100여개의 외자기업과 14개 외국기업이 들어와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음. 다만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임.
 - 길림성 두만강 개발 주임은 '계속해서 중국의 유명 기업들이 이곳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언급
 - 길림성은 이미 나선경제무역지구 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구를 설립했으며, 2012년內 對北 협력 관련 정책을 완성해 중국 기업들에게 정책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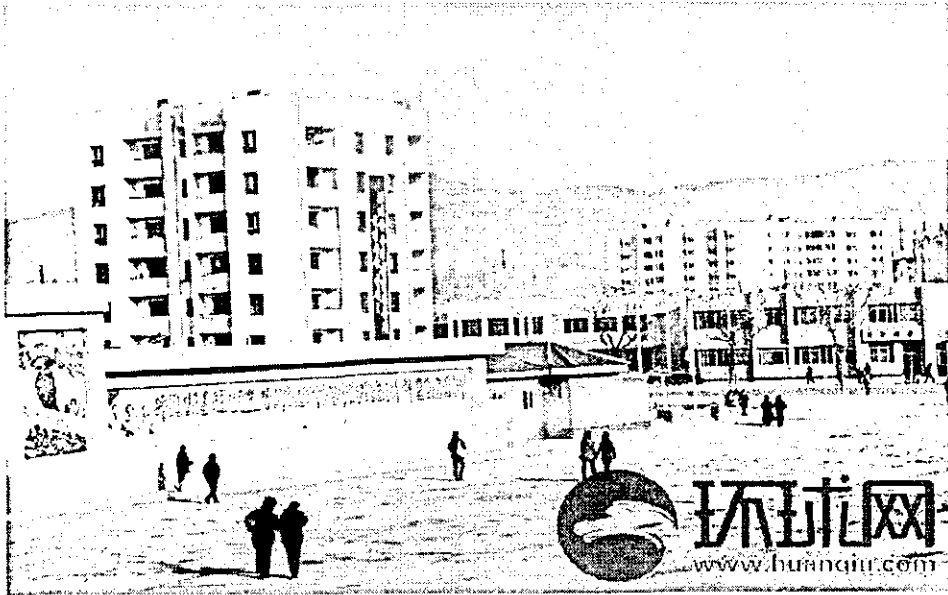
○ 北 나선특구 현장, 환구시보 단독 보도 (3.19 / 환구시보)

- '12.25일 중국이 나선항 4,5,6호 항구의 50년 사용권 획득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 후 환구시보의 나선지역 취재 현장 사진을 보도 하며, 항만뿐 아니라 관광산업이 현지 정부의 큰 지원을 받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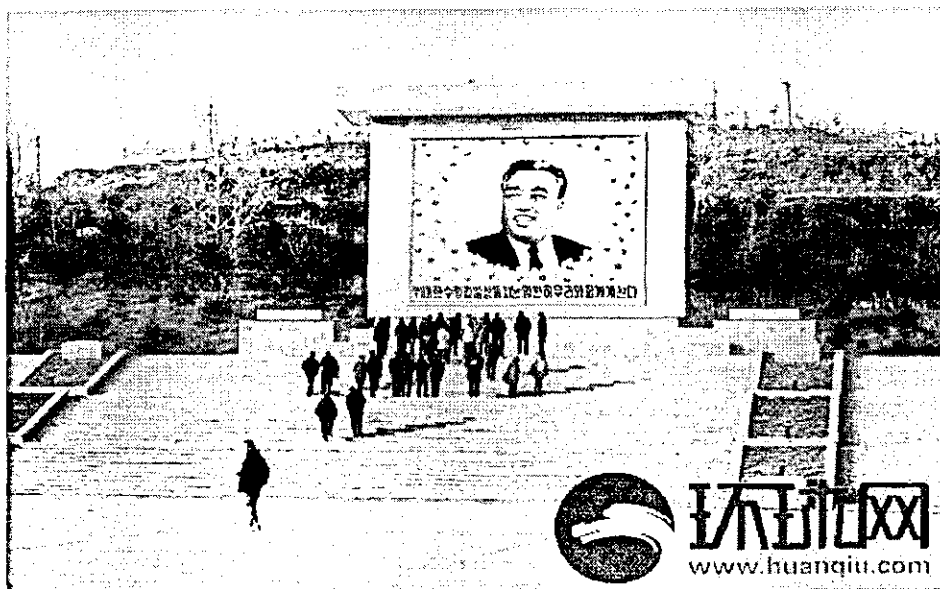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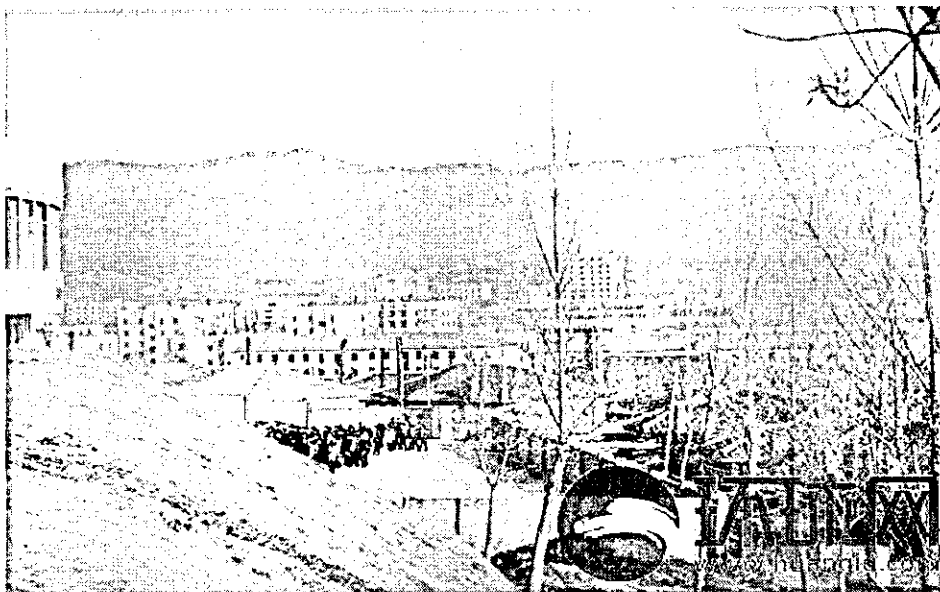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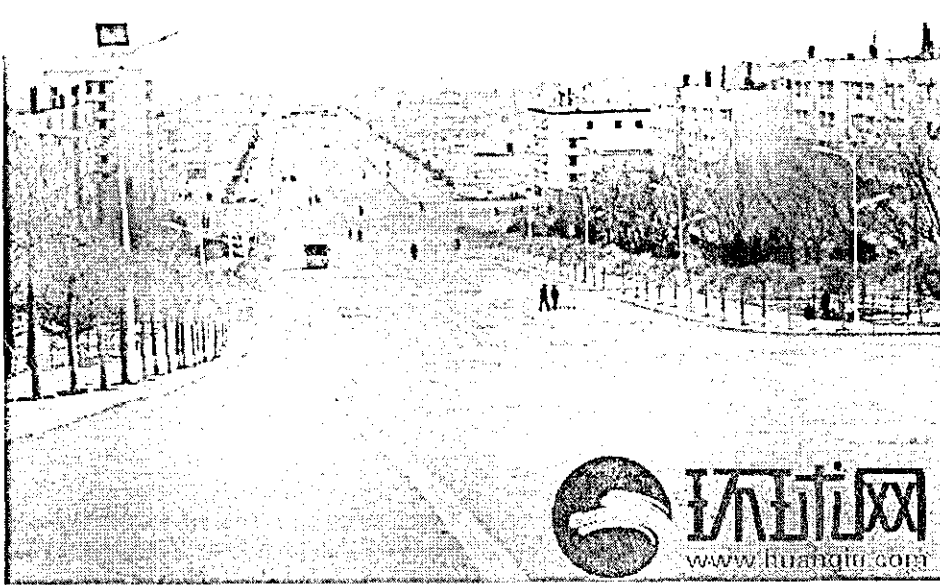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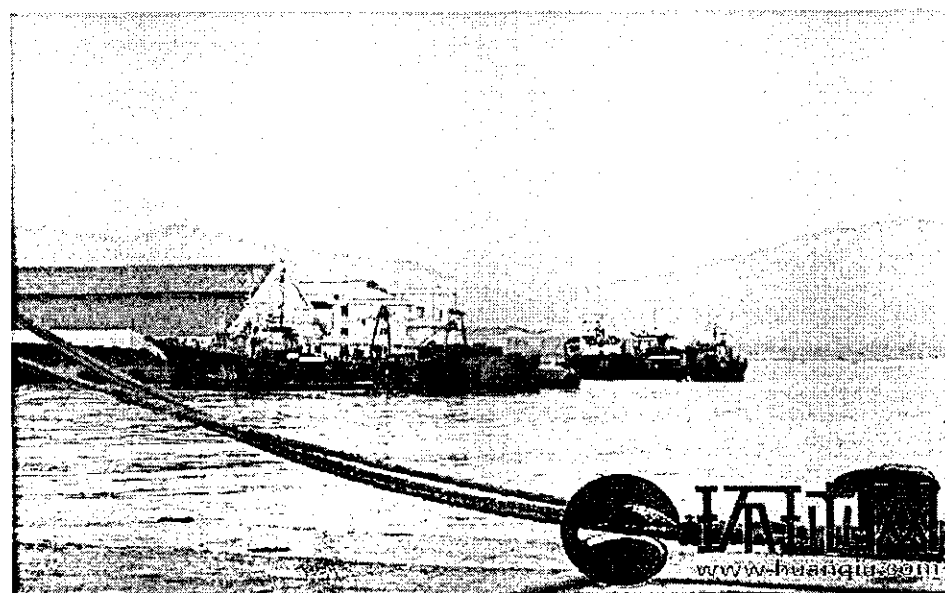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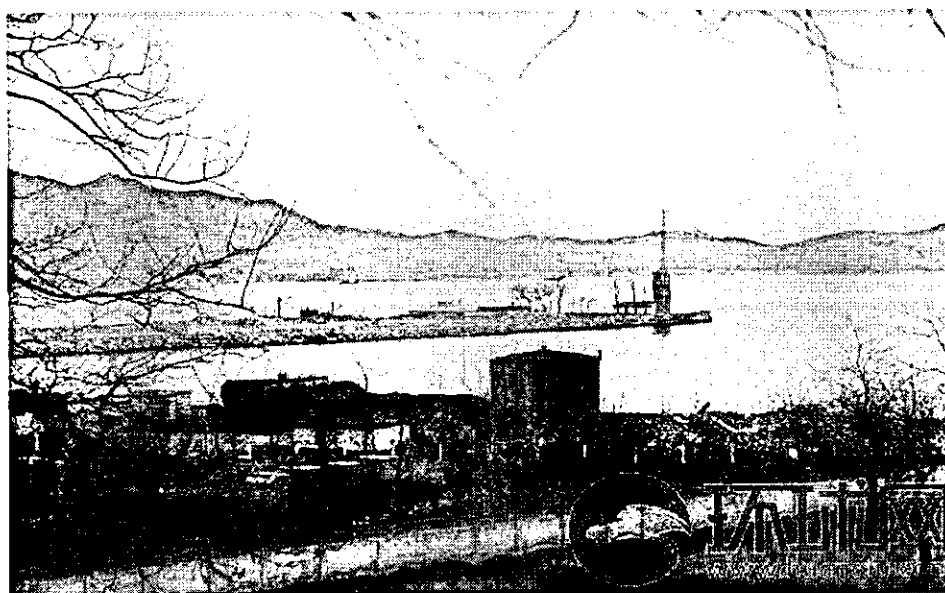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한국, 中·北 나선특구 경제협력에 걱정 (2.17 / 홍콩 봉황위성TV)

- 중국 국제정치학원 잔더빈 박사,

- '中·北 나선특구 경제협력으로 이 지역의 중국 편입에 대해 한국이 걱정하고 있다.'
- '나선지역 협력은 中·北 양국의 필요에 의해 오랜 시간 걸쳐 결정된 것으로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 협력이다'라고 주장

□ 러시아

○ 산적(벌크)화물용 터미널 건설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1.12.22 / 디비 로스 대 극동지역 인터넷 언론사)

- 「블라디미르 야쿠닌」(러시아철도공사 사장),

- '북한측과 우선 산적(벌크)화물용 터미널을 건설하고, 이후에는 컨테이너 터미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내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하산~나진 철도재건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11.12.22 / Rzd-partner ⇨ 러시아철도공사 정보포털)

- 「블라디미르 야쿠닌」(러시아철도공사 사장),

- ‘김정일 사후에도 하산~나진을 잇는 철도재건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 ‘500만t 규모의 수송이 이루어지는 나진항 터미널 건설이 착수될 예정이며, 철도 구간은 수출용 석탄을 운송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 ‘나진항 터미널을 한국과 동북아에서 오는 컨테이너 환적 터미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향후 연간수송량을 1,700만t까지 늘리기 위해 러시아 철도구간 현대화 작업도 계획 중이다.’
- ‘하산~나진 구간 재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83억 루블(약 3천 200억원)로 평가된다’라고 언급

○ 2011년 러·北 철도구간 이용객 수 현황 (1.24 / 러시아 철도공사 사보)

- 하산~두만강 구간 이용객 : 15,300명(2010년 대비 298명 증대, +2%)
- 러시아~북한 구간 이용객 : 8,015명(2010년 대비 1350명 증대, +20.3%)
- 북한~러시아 구간 이용객 : 7,248명(2010년 대비 1052명 하락, -12.7%)

○ 철도 프로젝트 2012년 내에 마무리 될 것이다.

(2.2 / 인테르팍스 ⇨ 통신사)

- 「발레리 수히닌」(駐北 러시아 대사),

- ‘러시아 하산역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이어지는 철도구간 및 통관화물 수송을 위해 나진항 부두 중 한 곳의 재건 공사가 2012년에 마무리 될 것이며, 재건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은 모든 참여국들에게 이득을 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2.6월부터 하산~나진구간 상시운행 착수 예정이다.

(2.27 / Zdr-gudok 러시아 철도공사 지역소식지)

- 하산~나진 철도 전략구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2012.6월에는 상시 철도운행이 가능할 계획이며, 구룡평~웅산 구간과 나진항역 철도길, 배수구조 및 교차로 공사 등이 남은 상태임.
-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응라터널(3.8km) 개보수 공사가 시작됐으며, 웅상(499m) 및 만포터널(301m) 공사는 4월에 착수할 예정이고, 철도길은 6월에 개통되지만 터널공사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임.
- 4월부터 총 34명의 북한 철도 전문가들이 러시아(우수리스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임.
- 첫 6개월은 러시아철도공사 전문가들이 철도운영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북한 인력이 대체하는 방식이 될 것임.
- 나진항 터미널 노동자들을 포함해 수송담당 인력은 총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北 철도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3.2 / Zdr-gudok 러시아 철도공사 지역소식지)

- '두만강~나진'구간 철도 재건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
- 복합궤 레일 28.9km구간 중 24km, 전철기 49개 중 44개, 교차로 13개 중 10개의 설치가 이루어졌음.
- 나진항 수송과 관련, 두만강 통과시 이용되는 친선교(1km)의 안전성 검사(대틀보, 난간교체) 문제가 제기됐음.
- 현재는 친선교 통과 수송량이 많지 않지만, 향후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수송을 지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北 외국인 투자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

(1.30 / 이타르타스 ⇄ 통신사)

- 북한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산 안전과 사회보험, 고용, 노동계약 체결, 노동조건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시행함.
- 전문가들은 심각한 에너지·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내부상황에 따라 북한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혜적인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나선경제무역지대 ('11.7.12 / 쉐니치 신문)

- 2010년에 비해 주민 생활이 근대화됐으며 활기찼고, 중국과의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전되고 있음.
-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이 일반화 됐고, 요금이 비싸 장시간 통화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무료함을 달래려고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이 많아졌음.
- 2011.5월부터 중국 국경에 있는 원정세관과 나진을 잇는 도로의 포장공사가 시작되어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러시아 하산에서 나진항을 잇는 철도의 개수작업이 재개됨.
- 2010년말~2011년초, 2011.5~6월 두 차례 중국 훈춘산 석탄을 덤프트럭으로 나진항까지 수송한 후 배에 적재해 상해항으로 보냈는데 이 루트가 혼잡한 중국 철도의 대체 루트 기능을 함.
- 현재 中·北 양국간 프로젝트가 주가 되고 있으나, 장래에 일본 항만과의 연계도 시야에 넣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 수 없음.
- 이 지역에서는 6.9일에 中·北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프로젝트 착공식이 있었음.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中·北공동개발 1차 착공 프로젝트로 나진항~원정도로 개수와 아태 나선시멘트공장 및 나선시~길림성 고효율 농업 모델구 착공식, 나진항 경유 중국국내 화물중계수송 출항식, 자가용차 관광 출발식이 개최됨.

○ 러시아, 본격적으로 나진항 개발에 착수 ('11.8.23 / 산케이신문)

- 나진항 3호 부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르면 9월경 나진항 개축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임.
- 러시아가 나진항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中·러·北 3개국의 국경지대인 미묘한 지역에서 인프라 정비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의도도 있는 듯함.
- 러시아는 2008년 극동 하산에서 북한으로 통하는 철도보수와 3호 부두개발의 댓가로 49년간 항만 사용권을 획득함.

○ 나선시, 무역 등 3개 사업을 주축으로 개발 ('11.9.7 / 교도통신)

- 북한은 나선시를 중계무역, 가공, 관광 등의 3개 사업을 주축으로 개발할 것임.
- 나선시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건설했고, 나진~연길시와 나진~블라디보스톡 헬리콥터 정기편을 취항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협상 중임.
- 러시아 국경과 나진을 잇는 철도와 중국국경과 나진을 연결한 도로 보수공사도 2011년 가을까지 거의 완료될 예정임.
- 약 100개의 외자계 기업들이 나선시에 진출함.

○ 중국, 북한 긴급지원 뒤에서 추진 중인 일본에 대한 위협

(3.3 / 주간 다이아몬드 ⇄ 주간지)

- 나진항은 1930년대 초기에 일본이 만든 항구임. 중국은 이곳에 2005년부터 손을 뻗었으며 나진항 부두를 60년간 조차했음.
- 중국은 나진항 부두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나진항은 중국령이 된 것임.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은 2005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으며, 일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야 함.

○ 총길이 54km의 러·北 국경 철도 '11.10월에 시험운행

('11.9.9 / 산케이신문)

- 「야쿠닌」(러시아철도공사 사장),

- '러시아 극동 연해지방인 하산역과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하는 54km의 철도 보수구간에서 10월에 처음으로 열차를 시험운행할 계획이다.'
- '러시아와 북한의 노선폭이 다르기 때문에 2008.10월에 시작된 보수 공사에서 겸용노선을 부설했다'고 언급

○ 북한 경제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3.20 / 중국망 일본어판)

- 평양과 나선경제특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함. 얼마 전 '환구시보'는 김정은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나선경제특구에서 실시한 취재를 보도했음.
- 나선은 북한 북동부에 위치하는 특별시이며, 예전 중국의 심천과 같은 존재임. 기자가 본 나선은 북한의 향후 동향이 반영된 가장 민감한 첨단도시였음.
- 보수된 취안허~원정대교에는 매일 일정한 양의 차량이 오고 가고 있으며, 나선으로 향하는 트럭에는 석탄과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훈춘과 연결에서 오는 트럭에는 해산물이 적재됨.
- 나선에는 나진, 선봉, 웅상 3개의 항구가 있으며, 나진항이 제일 규모가 크며 잘 정비되어 있음.
-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도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은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지구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나선에서는 구체적인 신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음. 이번에 자동차로 나진으로 들어가자 3개의 새로운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나선시 대외경제협력국 직원에 따르면 빌딩은 중국의 한 개발업자가 투자하여 건설한 아파트라고 함.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아직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팔렸으며, 구매자는 나선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현지 북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함.

나선에서 장기간 무역에 종사한 연길 출신의 조선족 상인은 '장기간의 민간무역으로 현재 나선과 주변지역에는 20만 위안 이상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는 민간상사와 비즈니스맨이 다수'가 있으며,

'나진시장은 이미 이 지역의 일용품 집산지로서 번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트럭은 북한상사 트럭에 직접 납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금전과 화물을 직접 교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언급

- 이 시장의 잠재성에 주목한 조선족 상인은 또 다른 시장 형성을 위해 북한측의 토지사용증을 손에 넣었음.
- 프로젝트의 사용면적은 1.3만 km²가 넘으며 사용기한은 30년이며, 건재공장 프로젝트는 점유면적 5만 km², 토지의 사용기한 20년 등 다른 곳에서도 이같은 토지사용증을 발견할 수 있었음.

나선에서 사업투자를 해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중국 비즈니스맨뿐만이 아님. 나선시 중심에 있는 '남경호텔'은 예전에 일본군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사용했던 사령부였음.

나선특별시에서 기업유치와 자금도입을 관리하는 관리에 따르면 러시아 비즈니스맨이 이미 나선과 계약을 했으며, 3층짜리 호텔을 증축해 호화 호텔을 건설할 예정임.

또한 러시아 비즈니스맨은 나선시 정부와 면세점 투자건설을 추진하는 상담도 진행했음. 자세히 보면 활발한 경제요소를 라선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음.

나선 법률과 정책 어디에도 '시장경제'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지만, 이곳의 무역가격은 '수급쌍방의 합의가격을 존중한다'라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음.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에서 오랜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훈춘의 비즈니스맨은 '북한에서 무역가격은 보편적으로 정부의 가격정책에 따른다. 수출입도 정부의 가격정책에 따라 과세한다.'
- '이 점이 북한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인 비즈니스맨이 하기 어려운 점이며, 손해본다고 느끼는 점이다. 그런데 고맙게도 나선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언급
- 나선 농장은 2011년에 새로운 생산 분배 방법을 시도했는데 연간 수확 30%를 정부에 내고 70%는 농장이 갖는 방법임.
- 2011년은 풍작이었기에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수확량이 증가했고, 덕분에 농장 종업원은 400kg정도의 식량분배를 받을 수 있었음.
- 이러한 생산 분배에 대한 시도가 중앙 당국에 보고되었는데, 질책은 커녕 2012년에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장려했다고 함.
-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 가고 싶을 경우에는 호적등록된 지역 관련부문의 허가와 소개장이 필요하고, 나선도 예외는 아님.
- 또한 합영기업이 북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먼저 당국에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이 최종적으로 받는 40%는 공적가격으로 환전된 북한 화폐로 지급됨.
- 나진항은 오랜 기간 사용된 낡은 항구로 북한측 관계자에 따르면 작은 산을 폭파시킬 예정이고, 토사로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항구를 건조한다고 함.
- 산이 있던 자리에는 창고구역·물류구역 등 항만과 일체화된 부속구역이 건설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길지 않다 하고, 새로운 부두 몇 개는 수심이 최대 30m에 달한다고 함.
- 항만경제는 나선의 3대 경제 중 가장 크지만, 건설주기도 가장 많이 소요됨.
- 「황철남」(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나선의 2대경제는 중계 무역과 관광여행이다. 관광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있는 경제 프로젝트이지만, 나선시에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를 환영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얘기해 달라. 나선훈별시의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미국

○ '나선경제무역지대 개정법'과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의 의의

(5.2 / 38North)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 다음날인 지난 3.17일, 조선중앙통신은 '나선경제무역지대' 개정법과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공개함.
- 하루 차로 공표된 두 발표는 자국의 기술적 역량 뿐 아니라, 외자유치와 무역확대를 위한 전략을 내세우려는 북한측의 명백한 의도를 보여줌.
- 이 두 법의 3가지 공통적 특징은 △투자자 위험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보호책 제공, △중국·러시아 외 한국 등 다른 국가의 투자 및 교역 허용, △투자자들의 실질적 문제 해소를 위한 승인 및 관리 절차의 구체적 명시로 꼽을 수 있음.
- 투자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와 보호책은 △최대 50년간 토지 사용 양도권, △건물소유권, △생산·고용·임금책정·영업·가격 책정 등 사업 운영 재량권, △국제 관례 및 기준 참고, △여러 통화로 시장 및 금융 서비스 접근 허용, △경제적 안전 및 신변안전 보장, △세제 혜택, △특혜 관세, △신소·조정·중재·재판 등 4가지 분쟁 해결방안 등을 포함함.
- 두 번째 특징인 중국·러시아 외 국가에 대한 개방은 북한의 국제 관습 및 기준 준수에 대한 기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투자 가능성도 제기함.
- 이러한 가능성은 한중 FTA 초기 단계에 이미 논의되고 있고, 이 두 지대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참여는 경험을 넘어 역내 경제 통합의 가능성 또한 제시함.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관리 원칙과 관리기관 및 관리위원회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명시, 그리고 두 지대 관리 방식의 일치는 舊法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줌.
- 또한 성공적 외자유치와 효과적 新法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려는 상부의 결정을 반영함.
- 잠재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항들은 新法의 신뢰성을 높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북한의 언행일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
- 두 경제지대에 대한 新法은 개성공단의 경험 모델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줌.
- 주요 차이점은 △합작회사 등 개성공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양한 사업 모델의 가능성,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 및 관리 재량권 강화, △다양한 통화의 사용 허용 등임.
- 개성공단은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의 차기 정권 하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나선·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의 통제 완화가 향후 개성공단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 北, 외자 유치 주요 전략으로 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 개발

(11.10.12 / New York Times)

- 1991년 나선특구 지정 후, 北은 외자유치 시도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으며, 일부 해외 전문가들과 경제인들은 북한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회의적 입장이지만 1980년에 중국이 개방을 시작하면서 경제특구로 지정한 심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 나선항은 동북아 지역에서는 드물게 얼지 않으며, 나선시 관리들은 해운업, 수산제조, 관광을 경제 성장의 축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나선시 관리들은 외국 조립공장과 첨단 기술 공장을 원한다며 유인책으로 세제혜택, 완전한 통제권 및 중국보다 낮은 수준인 1인당 최저 80달러의 월급을 보장하겠다고 함.

- 「황철남」(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나선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세계에 알려달라!’
 - ‘본격적 외자 유치에 위해 나선시는 시급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중국 회사가 중국 국경과 접하는 도로를 포장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전기를 사들이고 중국에서 노하우를 전수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다.’
 - ‘나선시에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 도입하기 위해 태국 회사인 Roxley 그룹과 계약했으며, 외국인들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도록 국경수비대와 합의를 했다.’
- 그러나, 핵심적 관건은 북한체제의 이념이 경제 성장을 촉발할 장기적 개혁을 허용할 것이냐는 것임.
- 일부 전문가는 2009.12월 김정일의 나선시 방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적어도 나선시에서는 실험적 개방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또한 새로운 투자 유치 도모를 위해 北 국방위원회가 최근 국가 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립, 재중동포 박철수가 두 조직의 총재로 선출됨.
- 박철수 총재는 북경에 사무실을 두고 외국인들의 나선 방문과 크루즈 등 인솔을 담당함.
- 포브스誌는 지난 달 박철수 총재가 미국 사업가들과 북한에서 코카콜라 생산 시작 방안을 협의했다고 보도함.
- 한 인터뷰에서 박총재는 ‘시장이 국가 발전을 이끈다. 우리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투자를 환영하며,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북한 시장에 참여하기가 더 쉽다’라고 발언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브래들리 밥슨」(前 세계 은행 컨설턴트),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중앙 통제를 재확립하기 위해 북한 지도자들은 나선특구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

○ 나선경제특구, 北 초유의 관광기회 제공 (3.18 / 뉴스코프)

- 최근 오픈한 나선경제특구는 현지 마켓 및 은행 방문, 항만 노동자 관찰 등을 통해 북한의 일상을 체험하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함.

○ 中, 나선지역에 새로운 소비문화를 들여왔다. (2.25 / AP통신)

-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접한 나선 지역에서 중국이 깔아준 도로로 중국산 물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다니고 있음.
-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싱가포르 기반 비영리 대북 민간교류단체 조선익스체인지 대표), '북한 주민 사이에 경영관리를 배우려는 욕구와 외국 문물에 대한 개방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 나선특구, 도로개선 놀라울 정도이다. (2.24 / RFA)

-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싱가포르 기반 비영리 대북 민간교류단체 조선익스체인지 대표), 美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나선지역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도로가 놀라울 정도로 포장돼 개선됐다는 것이다.'
- '나선지역 도로 포장 공사는 中 4개 회사의 투자와 감독 하에 中·北 노동력이 투입된 것으로 2011.11월까지 공사진도는 약 90%가 완료됐다.'
-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문제는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北 사업자와 통화가 불가능해 투자자들에게 큰 불편이 있다.'
- '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나선특구에 대한 과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협력과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홍콩기업, 나선 카지노 영업 중단 (2.21 / 블룸버그통신)
 - 홍콩 앰퍼리그룹은 김정일 사망으로 나선경제특구에 운영중인 카지노의 영업을 당분간 중단함.
 - 「셔먼 우」(홍콩 앰퍼리그룹 대변인), 「카지노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나, 호텔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별다른 비상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발표
 - * 앰퍼리그룹은 1999년부터 나선 특구에 150개 객실 규모인 5성급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 나선특구 中 기업들, 추가 투자 꺼려하고 있다. ('11.11.28 / RFA)
 - 조선익스체인지, 「북한이 나선경제특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적극적인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
- 나선특구 개발, 과거와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다. ('11 10.13 / VOA)
 - 「딕 넨토」(美 의회조사국[CRS] 연구원), 「중국도 낙후된 동북3성 지방 개발을 위해 나선특구 개발을 공식적인 개발전략으로 채택했다. 나선특구 개발이 황금평특구 개발과 함께 北 경제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
 - 「존 박」(민간단체 미국평화연구소 연구원), 「2011.6월 나선특구에서 열린 中·北 공동개발 행사에 천더밍 상무부장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참석해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나선 특구 개발을 위한 中·北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해외 투자자들, 나선특구 교통노선 구축 경쟁 중이다.
('11.9.26 / 워싱턴포스트)
 - 中·러시아 건설사들, 오랫동안 방치됐지만, 지금은 해외투자의 오아시스로 부상한 나선경제특구와의 교통노선 구축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중국은 31마일(약 53km)의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국 노동자들을 텐트 생활까지 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도 2억 달러를 투입한 34마일 철도 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음.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中·러시아는 韓·日로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나진의 3개 항구 사용을 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나선특구에 진출에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마커스 놀랜드」(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선특구 개발에 있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도로 건설이 한창이지만 건설 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싱가포르 기반 비영리 대북 민간교류단체 조선익스체인지 대표), '2011.8월 나선 방문시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데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발언

北 휴대폰 시장 / 오라스콤 관련 日 언론보도

4.27일자 WirelessWire News(日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언론)에 게재된 최근 북한의 휴대폰 시장 실태 및 이집트 오라스콤社 관련 분석보도를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北 휴대폰 시장 활성화 실태

○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수 지속 증가

-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2008.12월에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2월에는 드디어 가입자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해졌음.(출처 : 2012.2.2 블룸버그)
-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북한의 휴대폰 시장 실태가 서비스 개시 이후 시간의 경과, 그리고 가입자수 확대와 함께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

○ 이집트 오라스콤과 합작으로 3G서비스 개시

- 북한의 휴대폰 서비스는 북한 국영기업인 조선체신회사와 이집트 대부호 사위리스 일가의 오라스콤 텔레콤¹¹⁾이 설립한 공동출자 회사(출자 비율 : 조선체신회사 25%, 오라스콤 텔레콤 75%), 고려링크¹²⁾에 의해 2008.12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함.
- 고려링크社는 당국으로부터 당초 4년간 사업독점권부 25년간의 면허를 부여받은 북한에서 유일한 휴대폰 사업자임.
- 네트워크에는 3G(W-CDMA)¹³⁾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계약 형태는 프리페이드式만 있음.
- 고려링크의 로고마크에는 하루에 천리(약 4,000km)를 달리는 북한의 상징이기도 한 날개를 가진 전설의 말 '천리마'가 그려져 있음.

11) 2011년 12월 이집트측의 출자원이 오라스콤 텔레콤에서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로 변경됐다.(상세한 것은 뒤에서 서술)

12) 고려링크는 서비스 브랜드명. 정식 사명은 CHEO Technology JV Company

13) 오라스콤 텔레콤의 2011년 제3사분기 결산에 서비스 라인업의 하나로 'HSPA'라고 기재되어 있어 모바일 인터넷은 HSPA대응으로 추측된다.

[그림 36 : 천리마가 그려진 고려링크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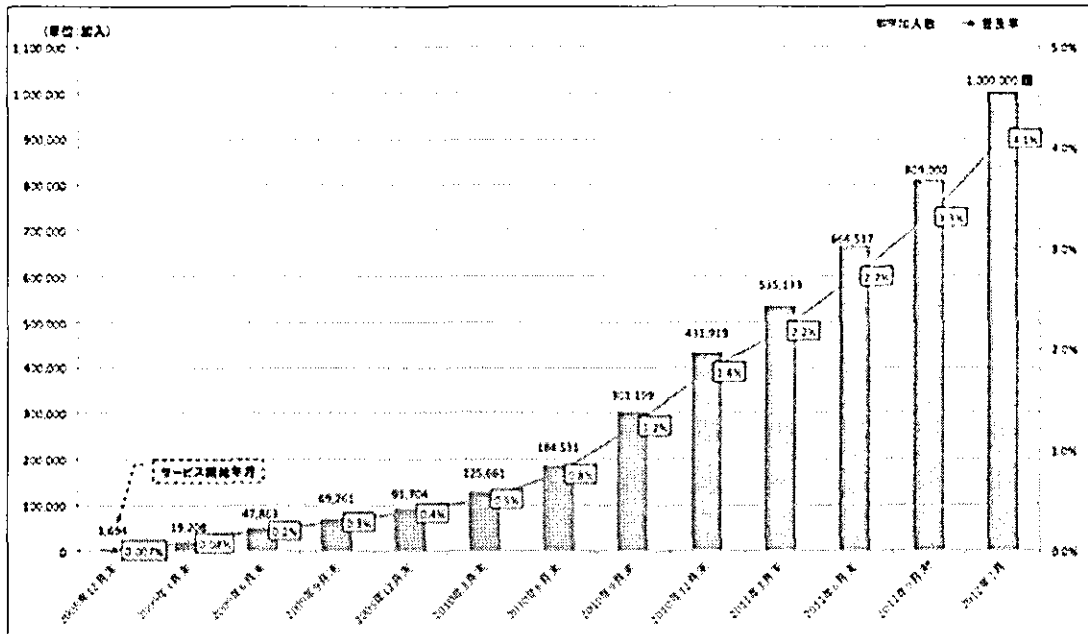


- 북한에서 휴대폰 서비스는 고려링크의 3G 서비스가 처음이 아님.
 - 지난 2002.1월에 고려링크의 북한측 출자자인 조선체신회사와 태국의 록슬레 퍼시픽의 합작회사인 '동북아시아 전화통신회사'가 2G(GSM)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가입자수는 2003년말 시점에서 약 2만건에 달했음.
 - 그러나, 당국은 2004.5월에 돌연 휴대폰 사용금지령을 공포했고, 이로 인해 북한 내에서 공식적인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렀음.
 - 2004.4월에 중국 국경 부근의 용천역에서 발생한 열차폭발 사고에 휴대폰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발단이 되어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함.
 - 2008.12월에 이집트의 협력하에서 개시된 3G서비스는 약 4년 만에 이르는 휴대폰 서비스의 공백기간을 거쳐 새롭게 시작됐음.
- 한계에 대한 우려
- 서비스 개시월(2008.12월) 시점에는 불과 1,694건이었던 고려링크의 휴대폰 가입수는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급증해 2009.12월말 시점에서 약 9만건, 2010.12월말 시점에서 약 43만건, 그리고 2011.9월말 시점에서는 약 80만건에 이르렀음.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2012.2월에는 이집트측 출자원인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앤드 테크놀러지가 100만 가입을 돌파했다고 발표함.
- 지난번 GSM사업에서 가입수가 2만건 정도에 그쳤던 점을 생각해보면 고려링크는 극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7 : 고려링크의 휴대폰 가입수/보급률 추이]



※ 청색 막대그래프 : 가입자수, 붉은색 그래프 : 보급률

※ 가입수 = 오라스콤 텔레콤의 각 분기 결산을 바탕으로 작성
(2012.2월 실적은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테크놀러지의 발언에 근거한 수치)

※ 보급률 = 미국 통계국 공표 각 한 해의 중간 인구를 바탕으로 산출
(2012.2월 실적은 2011년 중간의 인구를 사용)

※ 2012.2월 숫자는 공표 시기 근거이며, 100만 가입을 돌파한 구체적 시기는 불분명함.

- 서비스 개시로부터 불과 3년만에 100만 가입에 달했다고 하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약 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휴대폰이 일반 시민으로까지 널리 침투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 실제로 휴대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고위 관계자나 극히 일부 부유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겉으로는 일반 시민의 소지도 인정하고 있는 듯하지만,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가격은 약 350달러(2011.1.20 로이터)이며, UN 통계국 공표의 북한 1인당 GDP(504달러, 2010년)의 약 70%와 유사함.
- 1인당 평균 월수입이 불과 약 15달러(年 환산액 = 약 180달러)라는 통계도 있어 북한에서 휴대폰은 아직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치품임.
- 바로 최근에 전 분기 대비 20% 이상의 가입증가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개시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고려링크는 순조롭게 가입을 늘리고 있지만 이 증가세에 그들이 드리워질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의 모든 조직활동을 지도하며 부유층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당원수는 약 300만 명이며, 또한 당원 중에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은 일부라고 함. 그러므로 100만 가입에 도달한 지금 조만간 가입의 증가에 한계가 나올 것임.

○ 휴대폰 이용상 제약 존재

- 고려링크는 2011.9월말 시점에서 453기의 기지국을 설치했으며, 서비스 제공지역도 평양 외에 14개 주요도시와 86개 소도시로 까지 확대됐음. 면적 커버리지는 14%이지만 인구 커버리지는 이미 94%이며, 선진국에 손색없는 수준으로까지 이르렀음.
- 고려링크는 음성통화와 함께 SMS와 MMS, 보이스 메일, 영상 통화 등 다양한 각종 VAS(부가서비스)도 도입을 완료했음.
- 2011.6월부터는 고객간 이용할 수 있는 잔액 이행 서비스도 도입됐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됐다. 충전용 프리페이드 카드 판매점은 평양을 중심으로 약 50개 점포로까지 확대됐음.
- 이와 같이 서비스의 라인업이 늘어나 편리성도 높아지는 한편 당국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일부 층으로 한정하거나, 통화는 국내로만 제한하는 등 다양한 이용상의 제약을 가하고 있음.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휴대폰을 소유하더라도 정보 도구, 생활 인프라로서의 활용은 커녕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조차 뜻대로 할 수 없어 본래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없는 상태임.
- 또한 휴대폰은 국내외 정보유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정보통제가 국가체제 유지의 핵심인 북한에 있어 휴대폰은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음.
- 그래서 북한에서는 당국이 승인한 감시 및 도청이 가능한 단말기만 이용이 허가되며, 당국의 관리하에 놓여있지 않는 외국인 입국자의 휴대폰 반입도 금지됨.
- 2011.11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북한에서 치러졌을 때에도 일본 선수와 일본 서포터들은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었음.

○ 외화획득 수단에 휴대폰 비즈니스를 활용

- 자국 통화의 신용성이 낮은 북한에 있어 외화획득은 중요한 국책이며, 휴대폰 비즈니스도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고려링크는 2011.2월부터 기존 북한 원 표시 요금제와 함께 유로화 표시의 '유로 팩'이라는 이름의 특별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음.
- '유로 팩'은 유로화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크가 아닐 때 음성과 VAS(부가서비스)를 무료 이용 혜택이 있음.
- 외화획득에 나서고 있는 북한은 휴대폰 비즈니스에서도 유로화 지불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외화벌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함.

○ 북한에서 보기 드문 광고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

- 북한의 광고산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링크는 서비스 개시 초부터 라디오와 신문,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광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음.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1.9월 북한이 의장국이 되어 평양에서 개최한 국제태권도 연맹(ITF) 주최의 제1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고려링크가 독점 스폰서였음.
- 세계 약 80개국으로부터 약 800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고려링크는 대회장 내 각 곳에 광고를 게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음.
- 해외에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국제대회를 통해 자국의 휴대폰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어필한 사실은 북한이 휴대폰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결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음.
- 오라스콤 텔레콤도 이같은 협찬광고 참여는 북한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함.

○ 북한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날 가능성

- 2011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휴대폰과 소셜 미디어가 민중 봉기의 원동력이 되어 정권붕괴를 가져온 ‘아랍의 봄’이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매우 낮음.
- 정권 붕괴로 치닫게 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각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대체로 높으며, 가장 낮은 예멘에서도 약 절반에 가까운 46%(2010년말 시점)이고, 가장 높은 리비아에서는 172%(2010년말 시점)에 달했음.

[표 1 : 북한 및 정권붕괴가 된 아랍 4개국의 휴대폰 가입수 및 보급률 비교]

	북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휴대폰가입수 (2010년 말)	431,919	11,114,206	70,661,005	10,900,000	11,085,000
보급률 (2010년 말)	1.8%	106.0%	87.1%	171.5%	46.1%
(참고) 정권붕괴 시기	-	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8월	2011년 11월

※ 출처: 북한 이외의 4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 인용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휴대폰이 대중화된 이들 국가에서는 휴대폰이 정권붕괴를 일으킨 방아쇠가 된 일반 시민간의 정보유통 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함.
 - 이집트의 휴대폰 보급률도 87%(2010년 시점)로 높으며, 오라스콤 텔레콤이 자국 이집트에서 출자하고 있는 휴대폰 사업자인 모비닐¹⁴⁾의 고객도 이집트의 정권붕괴에 조금은 가담한 격이 됨.
 - 오라스콤 텔레콤의 파트너로서 휴대폰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로 비춰질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휴대폰 보급률은 불과 몇 퍼센트 정도로 매우 낮으며, 고객의 대부분은 북한 당국의 측근 및 부유층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
 - 게다가 휴대폰은 당국의 엄격한 감시 및 관리 하에 놓여 있어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반체제적인 정보발신은 불가능함.
 - 또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접속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이유에서 현 상황에서 휴대폰이 북한의 정권을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일은 없을 것임.
- ‘양날의 칼’인 북한의 휴대폰 사업. 향후 전망
- 북한에 있어 휴대폰 사업은 경제성장력 향상의 기폭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유지의 위협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양날의 칼’임.
 - 사위리스 일가는 최종적으로 약 2,400만명의 인구 확대에 의한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북한의 휴대폰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을 것임.
 - 그러나 북한측은 국가체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는 현 체제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14) 오라스콤 텔레콤의 빙펄콤으로 매각 후 오라스콤 텔레콤에서 스핀오프되어 2011년 12월에 고려링크와 함께 OTMT산하로 들어갔다.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처럼 갑자기 가격을 내려 저소득층으로까지 한꺼번에 보급이 확대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음.
- 그러나 북한은 휴대폰 비즈니스가 이제는 경제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음.
-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대부분은 중국제이며, UN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에는 평균 단가 약 80달러로 약 43만 대가 수입됐음.(2012.1.17 The Wallstreet journal)
- 앞에서 얘기한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단가 약 350달러에서 단순히 수입원가를 뺀 베이스로 1대 판매당 약 270달러를 벌고 있음.
- 2010년 수입총수 약 43만 대에 이 금액을 곱하면 매출액에서 직접비를 뺀 연간 이익금액은 1억 1,610만 달러에 달함.
- 2012.4월에 발사된 미사일 비용으로 약 8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 1년치 식량비에 해당한다고 함.(2012.4.13 중앙일보)
- 이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경우 휴대폰 비즈니스 가운데에서도 단말기 판매로 인한 매출액에서 직접비를 뺀 연간 이익(2010년 수입대수 베이스)만으로 2개월 치의 식량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휴대폰 비즈니스가 이처럼 거액의 이익을 가져오는 현실에서도 북한 당국은 감시·관리체제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일정한 확대노선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임.
- 향후 휴대폰 사업의 추진방법을 놓고 이집트측의 사위리스 일가와 북한 당국사이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 차와 온도차가 존재할 것임.
- 양측의 의도를 잘 일치시킨 뒤 원활하게 휴대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휴대폰 사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현행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사업독점권이 2013년 전후로 끝나며, 그 후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복수 사업자의 진출은 당국의 감시·관리체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현재의 1개사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제약 하에 놓여있지만 서비스 개시로부터 3년간 북한의 휴대폰 사업은 계속 성장해 가입자수 100만 명을 돌파했음.
- 가입자수 증가의 한계도 우려되는 가운데 고려링크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가입자수 증가의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됨.
- 대부분의 부유층이 속한 것으로 추정된 조선노동당의 당원수 약 300만 명에 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북한에서 본격적인 휴대폰 보급기의 도래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임.

□ 이집트 오라스콤社 관련사항

○ 이집트와 북한의 긴밀한 관계

- 한국의 약 절반 정도의 인구(약 2,400만명)가 있으며 서비스 개시 시점의 보급률은 실질적으로 0%라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북한의 휴대폰시장을 이집트는 어떻게 하여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
- 양국은 오랜 기간에 걸친 군사적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것이 휴대폰 비즈니스에서의 제안 성립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양국의 밀월관계는 2011.1월에 당시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 나기브 사위리스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에서도 알 수 있음.
- 사위리스 회장은 김정일과의 면담도 가졌고, 북한의 정상이 직접 외국의 기업인을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임.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의 국영미디어 조선중앙통신사는 김정일이 나기브 사위리스를 따뜻하게 맞이해 통신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오라스콤 텔레콤에 의한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전함.
(출처 : 2011.1.24 조선중앙통신사)

- 사위리스 일가의 대북 투자는 통신, 금융, 건설 분야 등 다양함. 이제 이집트는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됨.

○ 사위리스 일가가 북한을 고집하는 이유

- 고려링크의 모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은 2011.4월에 러시아 제2위 휴대폰 사업자인 빔펠콤에 매각됐음.¹⁵⁾

- 이와 함께 본래대로라면 고려링크도 빔펠콤 산하로 들어가 사위리스 일가에 의한 경영과 결별할 운명이었음.

- 그러나 북한 휴대폰 사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사위리스 일가의 강한 의향 하에 오라스콤 텔레콤에서 스핀오프되어 사위리스 일가가 신설한 지주회사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앤드 테크놀러지(이하, OTMT)'로 이행되었음.

- 'OTMT'의 회장으로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이었던 나기브 사위리스가 취임했으며, 경영방침도 그대로 계승되었음.

- 사위리스 일가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북한 휴대폰 사업을 고집한 것일까? 그 해답은 결산수치에서 알 수 있음.

- 오라스콤 텔레콤의 2011년 3/4분기 결산¹⁶⁾에 따르면 휴대폰 사업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고려링크의 비율은 약 4%로 낮음.

- 그러나 同 회사의 지주비율이 75%이상으로 개별 결산수치를 공표한 5개 시장의 각 영업수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을 보면 고려링크가 125%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한편, 다른 4개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 아니면 한자릿수 증가에 그침.

15) 직접적으로 매각한 것은 사위리스 일가가 97%주식을 보유한 윈드 텔레콤. 윈드 텔레콤은 오라스콤 텔레콤의 51.7% 주식을 보유. 윈드 텔레콤 매각과 함께 오라스콤 텔레콤도 빔펠콤 산하로 들어갔다.

16) 고려링크 실적은 구 출자원인 오라스콤 텔레콤 결산에서 공표됐지만 2011년 12월 오라스콤 텔레콤사가 OTMT산하로 이행됨과 함께 2011년 제 4사분기부터 공표대상 외가 됐다. 이 때문에 공표가 끝난 고려링크의 최신실적(2011년 제3사분기 결산) 수치를 채택. 기사 집필시점(2012년4월20일)에서 새로운 출자원이 된 OTMT는 결산공표 미발표

[표 2 : 5개 시장의 실적비교]

	koryolink (북한)	Djezzy (알제리아)	Moblink (파키스탄)	Bangialink (방글라데시)	Telecel Globe (아프리카)
영업수익 (단위:1,000달러)	41,495	486,671	281,490	129,306	21,340
구성비율	4.3%	50.7%	29.3%	13.5%	2.2%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25.0%	9.5%	5.5%	7.2%	-23.9%
EBITDA마진	80.0%	59.1%	41.0%	33.4%	32.8%

※ 출처: 오라스콤 텔레콤의 2011년 3/4분기 결산

-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EBITDA마진(수치가 클수록 수익성이 높음)에서도 고려링크는 80%라는 높은 비율을 기록해 5개 시장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음.
- 또한 극단적으로 높은 EBITDA마진은 3/4분기만의 이상수치가 아니고, 바로 직전인 2/4분기를 보더라도 2011년 1/4분기가 87.6%, 2/4분기가 84.3%로 3/4분기를 웃돌았음.
- 이자 지불 前, 세금 공제 前, 상각 前 근거의 이익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휴대폰 비즈니스는 영업수익의 무려 80% 이상이 이익(2011년 3/4분기 결산 베이스)이며, 매우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
- NTT 도코모의 EBITDA마진(2010년도)은 37.1%, 인도 최대 통신사 바티 에어텔은 33.7%(2011년 3/4분기)라는 점에서도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음.
- 사위리스 일가가 오라스콤 텔레콤 매각 후에도 고려링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이유는 양국의 밀접한 관계가 바탕에 있었지만, 고려링크의 성장력과 수익성에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김정은 新체제하에서 또다시 휴대폰 사용 금지?

- 2011.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은 현재 김정은을 국가 최고 지도자로 하는 후계체제를 굳히고 있음.
-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2012.1.26일 과거 갑작스러운 휴대폰 사용 금지령의 재래를 방불케 하는 뉴스를 전함.
- 한국의 NGO인 Good Friends 정보에 의하면 100일상(喪)의 기간 동안 조선노동당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범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한다는 경고했다고 함.(2012.1.26 텔레그래프)
- OTMT는 North Korea Tech 인터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음. (2012.2.15 North Korea Tech)
- 상반되는 정보가 나오고 있어 금지 실태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후계체제를 갖추는 과도기에 있는 현재의 북한에 있어 국내외 정보 유출입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휴대폰 사용에 과거 이상의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함.
- 그러나 2004.5월에 발령된 휴대폰 금지령이 재차 공포되는 일은 없을 것임. 일시적인 사용금지를 전한 보도가 나온 다음달 2월 나기브 사위리스가 북한을 방문해 정부 고위관계자와 만났으며 신체제 하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위리스 일가에 있어서도 현재 성장궤도에 있는 북한의 휴대폰 비즈니스가 혹시라도 중단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온 막대한 투자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만은 결단코 피해야 함.
- 휴대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집트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양국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행동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최근 북한 사회 관련 중국 언론 보도 종합

최근 북한 內 관광, 자동차 여행, 경축행사 참석 등으로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언론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판스이」 중국 SOHO그룹 회장, 북한을 말하다

(5.10, Sina 포털사이트)

- 「판스이」 중국 SOHO그룹 회장은 1주일간 북한 여행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은 '정보 단절'이었다고 언급

※ SOHO 그룹은 1995년 현재의 판스이(潘石屹) 이사장과 장신(張欣) CEO가 공동설립한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임.

- 중국의 5.1 노동절 연휴에 「판스이」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1주일 동안 북한을 여행 후,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여행에 대한 감상을 소개함.
- 북한은 견고한 정치체제와 경제 시스템 속에 시장이 조용히 활성화되고 있으며, 「나비부대」와 같은 북한의 신흥 상인 계층은 국경을 넘어 상품을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북한은 매우 독특한 곳임. 현재 세계는 모두 개방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는데, 북한이라는 곳은 정보가 단절된 지역임.
-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북한도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모를 것임.
-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휴대폰,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북한 생활 중 정보의 단절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일 것임.
- 북한 사람들의 복장은 단정했고, 남녀 모두 검정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굉장히 깨끗했음.
-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알 수 있었음.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우리 여행팀은 아시아인 5명, 서양인 12명으로 모두 17명이었는데, 북한 사람들의 눈을 보니 우리에게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분위기와 비슷해 보였음.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매우 상업화된 도시인데 반해 북한은 그렇지 않았음. 상점이나 식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전국에 커피숍 1개소, 피자집도 1개소만 있음. 시장도 없으니 광고판도 없어 길가는 매우 깨끗했음.

북한 사람들은 3~40년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의 아름다움 같은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었음. 브랜드 의류나 좋은 車 같은 것에 대한 과시욕이나 남과 비교하는 심리가 없어 보였음.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려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하고 개방해야 함. 개방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음.

한 민족이든 한 국가든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며, 혼자 있으면 절대 발전 할 수 없음. 외부와 문화, 정보를 교류하고 충돌해야 발전할 수 있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정보 단절이었고, 북한 사람들은 현재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름. 거의 대부분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음.

그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큰 카메라는 가져갈 수 없고 콤팩트 카메라만 가져갈 수 있음.

우리가 먹었던 식사는 황제가 먹던 밥이라 불렀는데, 콩나물과 두부, 김치, 쌀밥에 고기는 전혀 없었음. 우리 아들은 고기가 없다고 먹지 않았음.

[「판사이」 중국 SOHO그룹 회장 인터뷰]



[평양시에서 본 제복착용 여성들]



[평양시 거리에 즐지어 서있는 주민 모습]



[평양시 거리를 걷고있는 주민 모습]



[평양시 거리를 걷고있는 주민 모습]



[평양시 거리를 걷고있는 주민 모습]



[평양에 있는 커피숍과 정원 모습]



[평양시 거리를 걷고있는 주민 모습]



[핸드폰 사용이 일상화된 모습]



[평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주민 모습]



[남성 양복 색깔과 질도 비교적 다양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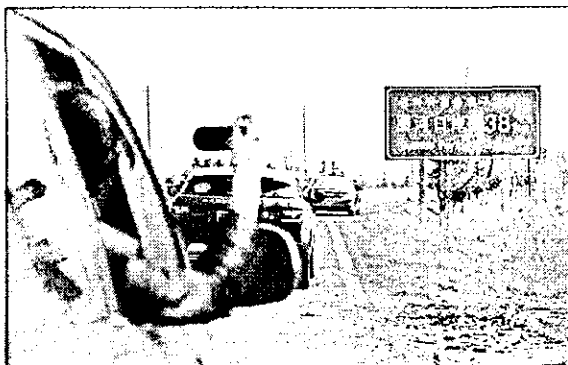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모자 착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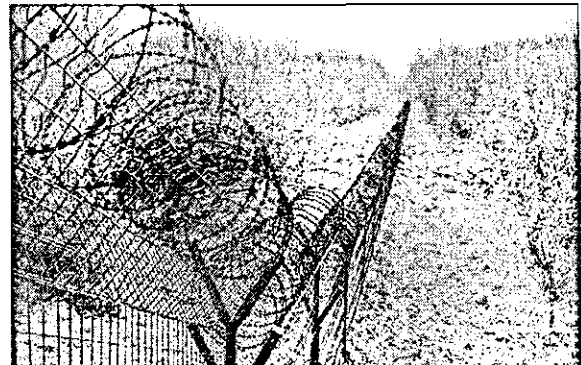
o 북한 나선특별시 자동차 여행 후기 (5.21, 환구망)

- 중국의 권하 국경 출입구 수속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북한의 원정 지역 수속 시에는 제한이 많았음.
- 망원경, USB, 녹음기, MP3, MP4, 전문 카메라와 휴대폰과 같은 전자 기계를 휴대할 수 없었고, 촬영 또한 지정 장소에서만 허락되었음.
-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신비한 곳으로 여겨졌음.

[권하국경 출입구 인근 표지판 모습]



[철망 우측이 중국, 좌측이 러시아, 사진 상단의 우측 두만강 건너편이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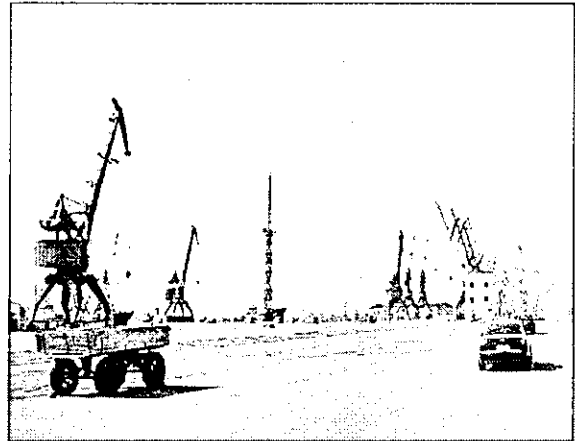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농민이나 어린이들을 만나자 중국 관광객들이 음식물을 건네주기도 했는데, 군인이나 관련자가 없으면 북한 주민은 거리낌없이 음식물들을 받았음.[사진#1]
- 나선시의 거의 모든 자동차는 중국산이었고 북한산 자동차는 보기 힘들었음. 2011.6월 길림성은 정식으로 북한 나선시의 개인 자동차 여행을 개방했는데 중국 차량들이 통과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음.[사진#2]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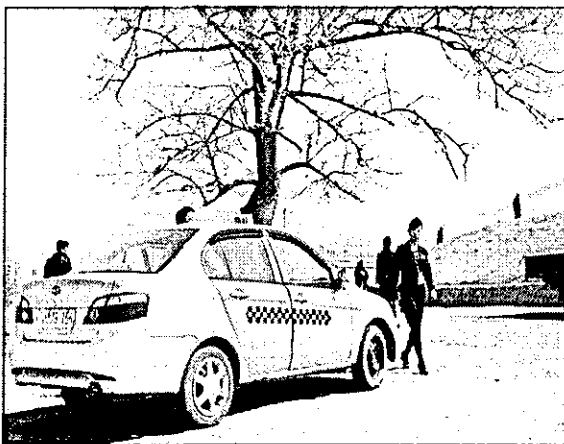


[사진#2]



- 나선시에는 택시도 보기 힘든데, 거의 모두 중국 <천진 제1 자동차>의 “Xiali N5”였음. 택시비도 매우 비쌌고, 보통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음.[사진#3]
- 비파도 해변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가슴에 지도자 배지를 달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음. 나선시 주민들은 모두 지도자 배지를 달아야 하는데 신혼부부도 예외는 아님.[사진#4]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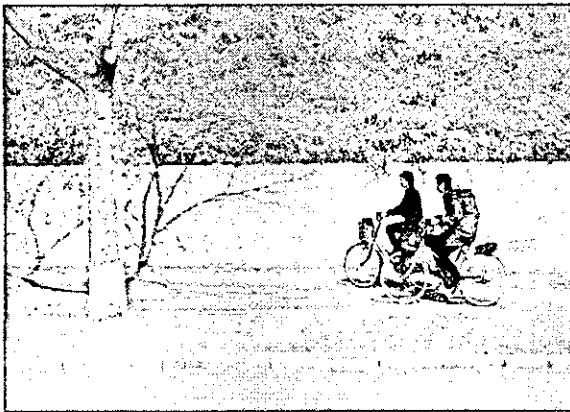
[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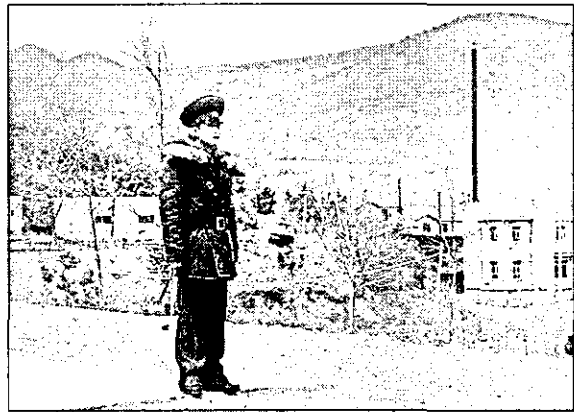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나선시는 유일하게 북한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외 개방 자유경제무역구이자, 제3국인이 무비자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사진#5]
- 나선에서는 市중심이든 외곽의 농촌이든지, 총을 찬 군인들을 자주 볼 수 있음. 또한 가이드 외에도 안전 요원들이 따라 다녔음. 옷차림은 가이드들과 거의 비슷했지만 이들의 업무, 말투, 태도는 완전히 달랐음.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음.[사진#6]

[사진#5]



[사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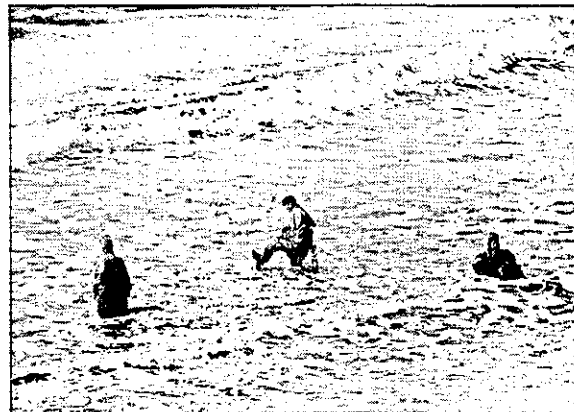


- 중국 권하 항구 부근 상가에서는 北·中·러의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두만강 맞은편에 있고 중국보다 1시간 빠른 북한 원정리의 항구 지역에는 1곳의 북한 상점도 보이지 않았음.
- 나선의 해안가에서 해초를 채취하는 어민들이 있었으나, 중국 자동차 여행객들이 나선에 도착한 이튿날, 군인들이 이들을 철수시켰음.[사진#7]

[중국 권하 항구 부근 기념품 상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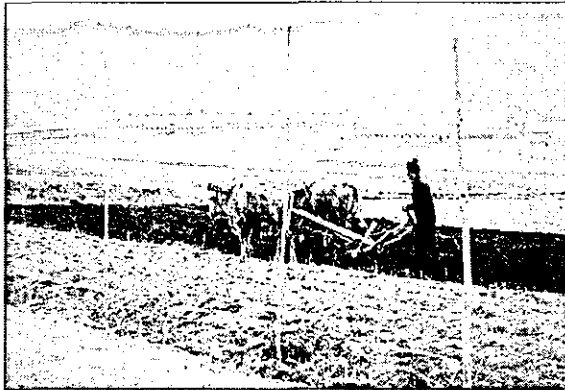
[사진#7]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내륙 지역보다는 나선지역이 경제적으로 발달했고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소를 이용해 농사짓고 있었으며, 생산력이 비교적 떨어졌음.[사진#8]
- 북한 경제는 공유제이지만 이곳에서는 종종 길가 노점상들을 볼 수 있었음. 북한의 에너지와 전력 부족으로 나선과 같은 경제 특구에서도 밤에는 정전이 되곤 했음.[사진#9]

[사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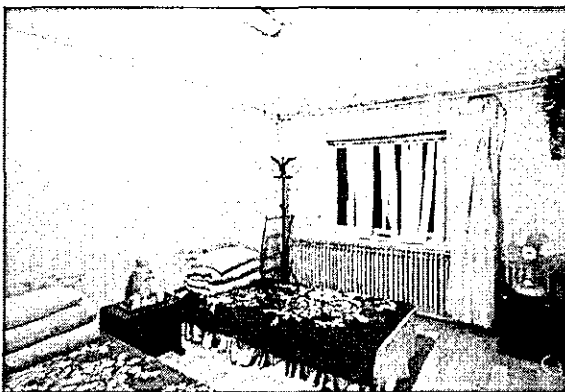


[사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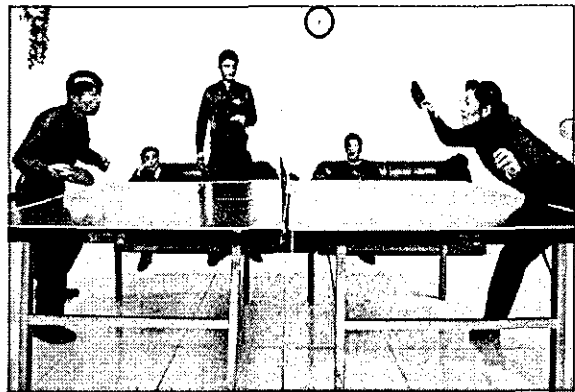


- 나선시의 비교적 고급인 외국인 초대소의 방 안에는 온수나 TV·인터넷도 없었고, 보온병·세수대야·방석·휴지통 등은 모두 'Made in China'였음.
- 탁구를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 일부 호텔에는 탁구 시설이 있어 직원들이 밤에도 운동을 즐길 수 있음.[사진#10]

[나선시에 있는 외국인 초대소 실내 모습]



[사진#10]



- 비파도의 상점 주인은 거의 대부분 중·장년 여성들이었는데 중국어는 하지 못했지만 인민폐는 알고 있어서 중국 관광객들의 흥정을 받아주기도 했음. 쇼핑 후, 북한 가이드는 커미션 명목으로 해산물을 건네받고서야 상점을 나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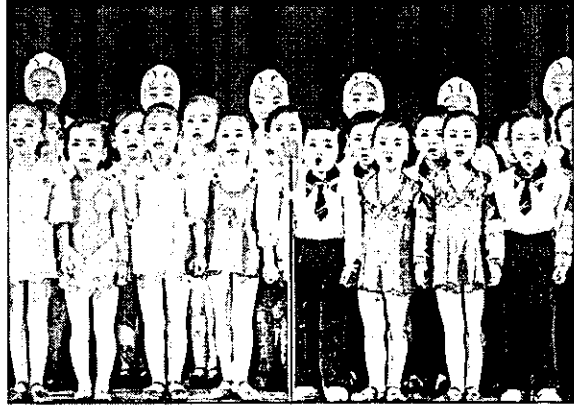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나선시 극장에서 열린 어린이 공연은 관광객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음. 그러나 극장 규정에 따라 관광객들은 공연 후 미리 준비한 과자, 사탕, 초콜릿 등을 지정된 탁자 위에 놓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직접 아이들에게 줄 수 없음.

[비파도 상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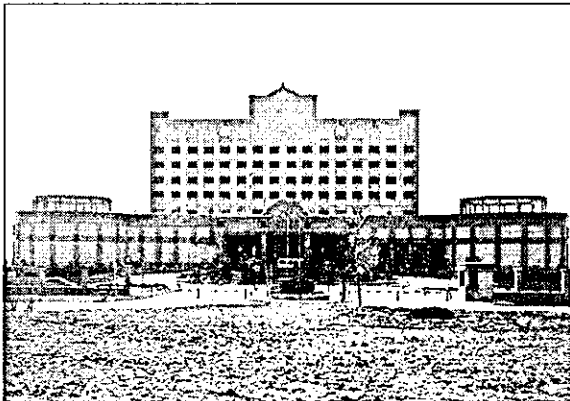


[어린이 공연]



- 해변에 설립된 '엠퍼러 오락 호텔'(현지와 중국인들은 이곳을 "엠퍼러 카지노"라 부름)은 나선시의 대표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로 이곳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며, 길림성 연길 조선족 자치주 외에도 심양, 장춘, 하얼빈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음. 이곳에서 2만 위안(한화 약 370만원)의 칩만 구매하면 숙식은 무료 제공임.
-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인지 식탁에는 해산물들이 자주 올라왔고, 육류는 거의 볼 수 없었음. 다재다능한 호텔 직원들은 식사 후,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중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음.
-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훈춘시와 러시아, 북한이 접한 지역으로 한 번에 3國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은 이 도시를 중요한 관광지로 만들었음.

[엠퍼러 오락 호텔]



[호텔직원 공연]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참관기(5.3, 시대주보 17 광저우 시사주간지)

- 2012.4.12일 러시아제 소형 TU(투플레프) 여객기를 타고 駐中 북한대사관과 중국의 '사월청춘' 웹사이트에서 모집한 중국인 10명이 평양을 방문함.
- 이들 가운데에는 청화대 교수(허칭), 군사전문가(차이샤오추안), 환구재경(環球財經) 주임편집장(장지앤)과 이번 취재 주인공인 '스마난'이라는 남성도 있었음.
- 이들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음.
- 평양 순안공항 로비에서 거대한 관중 함성소리를 들었음.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소리로 '김-정-은', '김-정-은'을 외치고 있었음.
- 소리에 놀라 둘러보니 하루前 열린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제1서기로 추대된 화면이 스크린으로 방영되고 있었음.
-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초대할 이 나라가 자신들을 믿지 않고 자유도 허락하지 않아 여러 차례 마찰이 일어날 것임은 예상하지 못했음.
- 물론 초대 손님을 불쾌하게 하는 이런 북한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며, 오랜 외침으로 타국의 멸시를 받은 북한이 과도하게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것은 이해함.
- 공항에서 버스로 평양 기차역 옆의 고려호텔에 도착했는데, 평양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외국 손님이 거주함. 이곳에는 외국인 전용 연회실, 냉면관, 회전전망대, 헬스장, 마사지샵, 가라오케, BAR 등이 있음.
- 로비에 들어서니 중앙의 붉은색과 분홍 꽃들이 눈에 들어왔으며, 통역은 위에 있는 것이 김일성花이고, 아랫부분이 김정일花라고 알려주었음.
- 당시 호텔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외빈들이 있었음.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흑인·백인·십자가를 지닌 종교인·일본인도 많았고, 북한계 외국인, 中·北 국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조선족 중국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 개혁개방의 공신들로 불리움.
- 며칠 후 관광버스로 광장에 갔는데 20대의 차량에 40명씩, 총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음.
- 고려호텔 투숙 이후로는 우리에게 갇힌 동물처럼 어떤 자유도 없이 규정된 일정대로 움직여야 했고, 행사 불참가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반드시 가야만 했음.
- 북한 당국의 초대를 받아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세계 각지의 기자들의 처지도 다를 바 없었음.
- 우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자, 북한의 경축퍼레이드에 초청된 사람인데 북한 주민과 마음대로 대화할 수도 없었고,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음.
- 통역뿐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따라다녔고, 함부로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으며, 방에서는 인터넷도 할 수 없었음.
- 석식 후 통역과 함께 거리로 나간 후에는 상점에 들어갈 수도, 대열을 이탈해서도 안되었고, 200m를 가자 되돌아와야 했는데 그것도 원래 왔던 길로 되돌아와야 했음.
- 4.13일 아침 북한측은 잠을 깨우더니 로비로 내려오라고 명령했고, 호텔문을 나서자 많은 기자들을 볼 수 있었음. 그들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서해위성발사장'이라고 대답함.
- 그러나 이 날 기자들을 포함한 양각도 호텔에 있던 160여명은 모두 서해로 간 것이 아니라 평양 도서관으로 갔음.
- 그 시각 한 달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은하탑재 로켓이 북한시각 7시 36분에 이미 발사가 되었음.
- 그러나 외빈들은 이날 평양 교외,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를 방문했기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후에 호텔방의 TV를 본 후에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음. 기자들과 우리를 초청해놓고 왜 이렇게 몰래 발사했을까하고 생각했음.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통역에게 달려가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는데, 통역은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모른다'고 했으며 말하기를 꺼려했음. 다른 통역들도 모두 모른다고만 얘기했음.
- 4.14일 북한측은 5시에 깨우더니 다른 큰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북중우의탑을 보여줬음.
- 당시 너무 화가 났었음.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알 수 있었음. 문을 나서면 가져갈 수 있는 곳과 불가능한 곳만 간단히 알려주었음.
- 대형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4시간 전에 광장에서 줄을 서야 했었음.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했는데 습관인 것 같았음.
- 그래서 '이것은 당신네들만의 규칙이다. 또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규칙은 양측의 의논 후 만들어지는 것인데 한 쪽에서 우리 규칙이라고 우기면서 꼭 가야 한다고 하면 어찌냐?' 하면서 화를 냈음. 매일 이런 식이어서 적응이 안 되었음.
- 북한이 손님을 초청했지만 외출 불가, 일반 북한 주민들과 접촉 불가, 미사일 발사도 참관 불가, 게다가 재미없는 곳만 데려갔음.
- 그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우리는 북한이 개최하는 성대한 행사의 들러리였음.
- 김정은이 참석한 열병식 후, 외신 기자들은 인터뷰를 거부하는 북한 주민들로 인해 인터뷰할 대상들을 찾기가 힘들었음.
-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1980년대 이후 출생자인 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김정은의 나이를 모르는 건, 이런 사실이 굉장히 비밀로 부쳐진다는 뜻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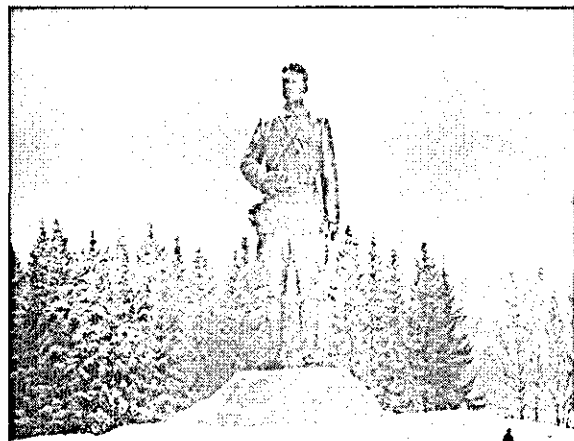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통역에게 '김정은의 3년간 스위스 유학생활은 어떻게 보느냐?' 라고 물었더니 '스위스에서 생활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대답함. 그들은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포병학과를 졸업했고 어려서부터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것 밖에 아는 것이 없었음.
 - 며칠 연속 큰 행사에 쫓아다녔더니 감기가 걸려, 4.16일에는 좀 쉬겠다고 했더니 북한측은 안된다고 했음.
 - 이날 오후 김일성 100주년 대형 문화 공연이 있었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호텔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김일성 광장으로 가야 했음.
 - 김일성 광장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몇 시간 동안 호텔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곳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봐야 했고, 몇 시간 후 함께 춤도 추었음.
- 최근 북한의 주민 생활 모습 (4.12, 환구망)
- 북한의 핵문제는 줄곧 국제사회의 이슈였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음. 오랫동안 세속과 단절 되어 더욱 신비하게 느껴지는 북한임.

[길 안내를 하는 북한 인민군 여병사]



[김일성 동상]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백두산 기슭에서 삼을 들고 눈길을 걷는 주민들] [백두산 기슭에서 삼을 들고 눈길을 걷는 주민들]



[길거리의 선전 포스터]



[김일성 기념비를 닦는 모습]



[4.11 북한 노동당 당대표대회 참가를 위해 평양에 모인 각지역 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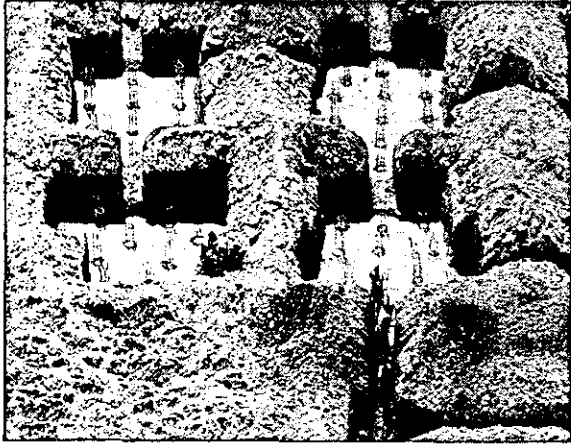


[조화를 들고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주민들]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평양의 건축현장]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는 기차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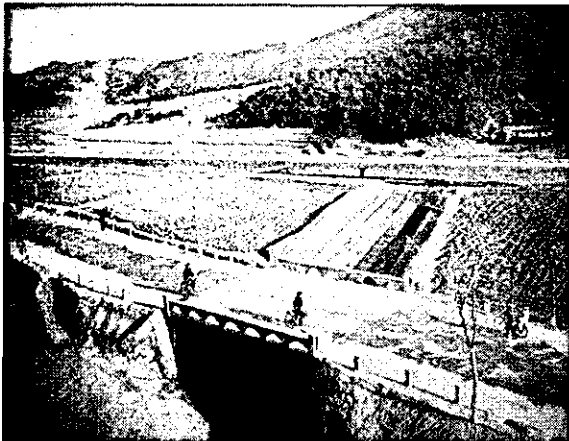
[음식을 준비하는 승무원들]



[열차 내 식당칸]



[인적이 드문 거리]



[감자를 굽는 여관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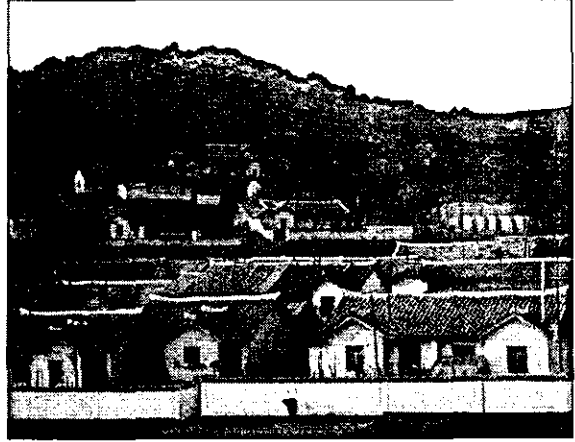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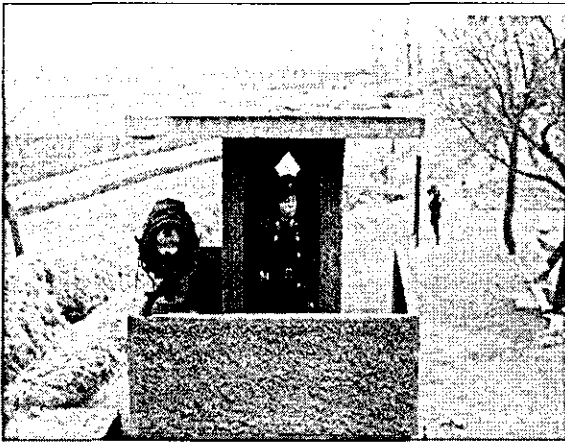
[평양 버스 모습]



[철도 부근의 마을]



[철도선 부근의 군사초소]



[외신 기자가 찍은 북한의 농촌 모습]



[농촌 어린이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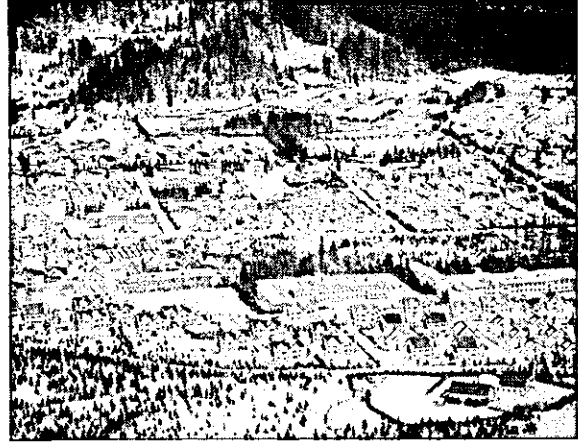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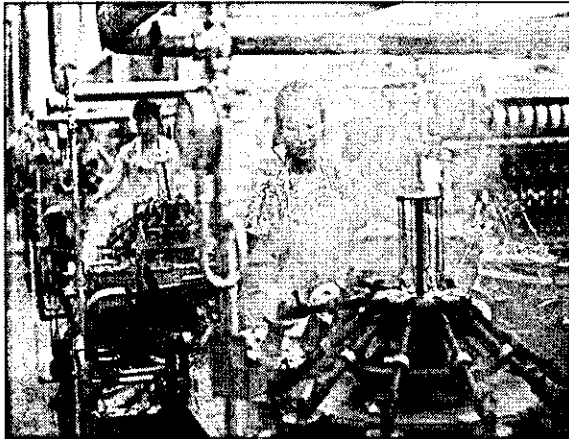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닦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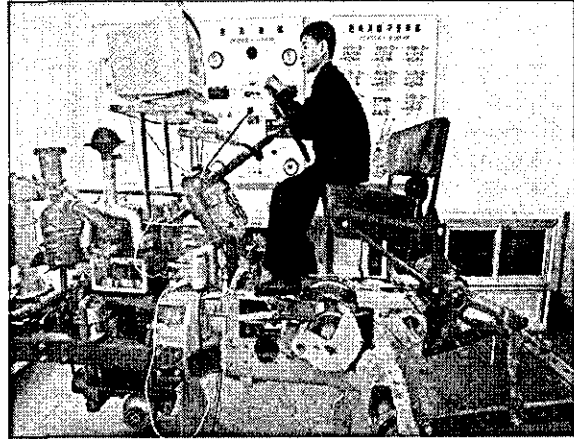
[백두산 아래의 눈덮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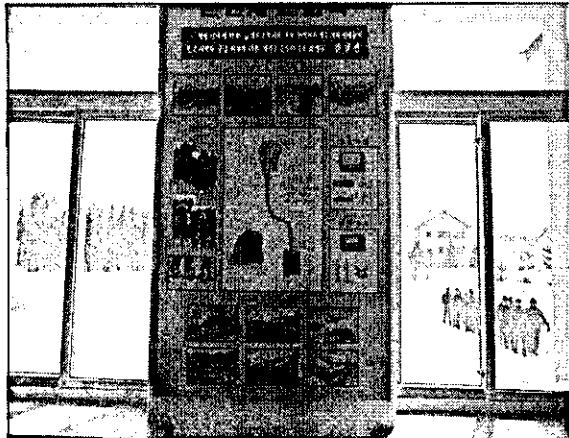
[평양의 섬유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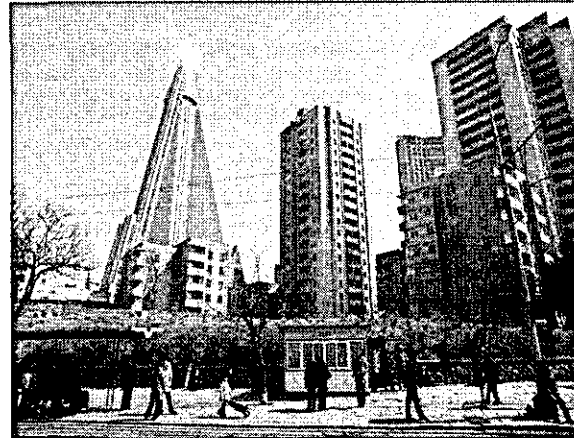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트랙터를 운전하는 학생]



[학교에 걸린 '전쟁에서 생존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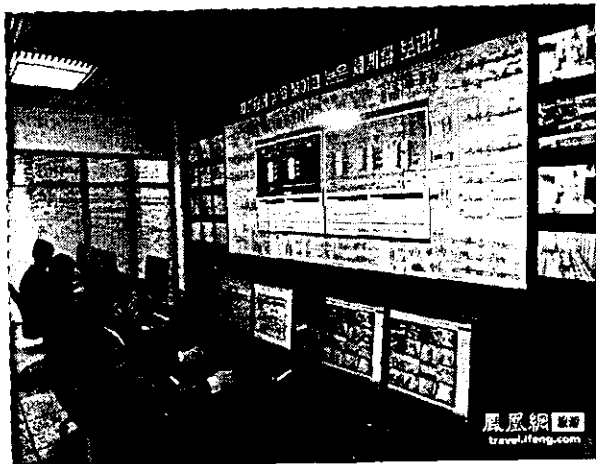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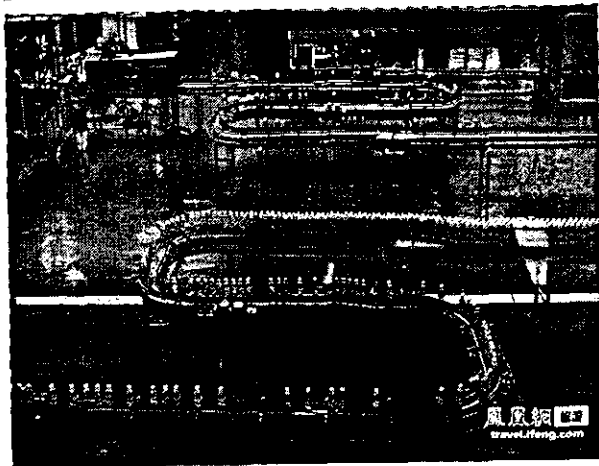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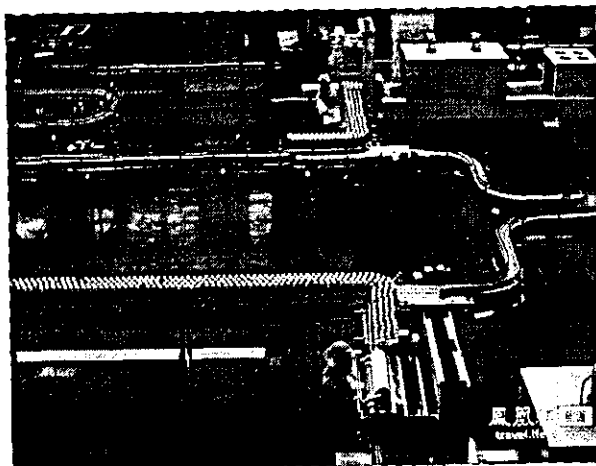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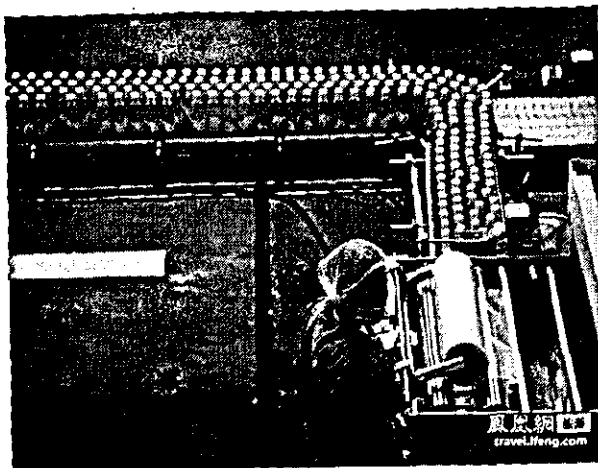


[류경호텔과 아파트]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평양 교외에 위치한 최첨단 '주스 공장' 사진 (4.11, 봉황망)



2012~2014년 북한 중기 지원 계획

- 스위스개발협력처(SDC) -

'12.5.9일 발표된 스위스개발협력처(SDC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2012~2014년 북한 중기 지원 계획'을 번역하여 보고드립니다.

□ 북한 상황

○ 정치적 사정

-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1970년대 말 북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세계관인 '주체사상'(독립·자기의존·자기 방어)으로 대체됐다.
- 북한은 인권 침해로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고 있으며, 중요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집회, 표현, 이동, 정착의 자유가 없다. 국제적인 인권 사찰단은 북한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 언론은 국가가 통제하고 시민들은 사실상 외국 뉴스를 접할 수 없으며, 정치적 반대는 용인되지 않는다.
- 외교 상황은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로 설명된다.
- 한국과의 관계는 2010년 소규모 접전으로 현재 깨지기 쉬운 상태이며, 추가적인 군대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의 대선으로 정부 변화가 일어날 경우 2013년 남북 관계가 다시 호전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은 있다.
- 2003년 이후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6자회담을 열어왔으나, 북한은 2009년 6자회담에서 철수했다.
- 북한이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는 모든 참가국들에게 적용돼야 한다.
- 북한은 한국의 미국 핵무기 위협과 정기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가 해제돼야만 핵 유예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 2011년에는 경제 및 식량 위기 압박이 커져 유엔 기관들은 운영조건 개선에 대해 북한 정부와 협상이 가능했다.

○ 경제적 사정

- 정보의 부족 : 북한 국가 재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미완성이었으며, 북한의 실제 상황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회·경제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 전 동유럽 공산권의 과거 무역 파트너들을 잃어 북한의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 북한의 해외무역은 1990년 이후 50% 이상 감소했다.
(2010년 수출은 연 20억달러 수준)
- 북한은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수출 산업이 취약하여 수입에 필요한 제한된 통화만 만들어내고 있다.
- 개성과 나선 등 경제특구 2곳과 2011년 중반 신의주 주변 中·北 국경선 압록강에 위치한 섬 2개에 오픈한 세 번째 특구 외에는 해외직접투자(FDI)가 드문 상태이다.
- 에너지·기계·예비부품·생산자재 등 자원의 부족으로 산업과 농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산업 관심사의 20% 만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재도 부족하고 냉전시대 공공 인프라는 구식인데다 유지상태도 형편 없다. 수송력 부족으로 상품과 식량의 전국적인 배분도 지연되고 있다.
- 북한은 노동인구의 30%가 농업 생산과 수입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
- 농업(삼림 관리 및 어업 포함)은 수년간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는 30%에서 20%로 떨어졌다.
- 농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2011년 가장 낮은 생산율을 기록했다.
- 식량 부족을 고려하여 특히 농업 분야의 경제 개혁, 해외투자과 대규모 개발지원의 수용과 증진은 경제 및 식량 상황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 그러나 이는 국제기업들의 업무와 접근조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인도주의적 사정

- 북한 인구의 1/4은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재 300만명 이상이 극심한 영양부족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
- 이는 특히 어린이·임산부·수유부·노인들에게 심각하다. 5세 미만 어린이 33%가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임산부 및 수유부의 28%는 영양결핍 증세를 겪고 있다.
- 글로벌 기아 지수(GHI)는 1990년 이후 20% 낮아졌으며, 2010년 '심각한 (serious)' 상태인 19를 간신히 넘었다.
- 의료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시스템은 인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다. 의료진과 병원은 과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낡고 불충분한 인프라, 부족한 자원, 부적절하게 훈련된 직원들 때문이다.
- 상수도 인프라는 황폐한 상태이다. 85%가 공식적으로 물을 얻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물심부름으로 하루 수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수질은 빈곤층에 부족하다. 영양실조와 영양 부족과 함께 좋지 않은 수질과 불충분한 위생조건은 유아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의 19%가 설사 관련 질병으로 숨졌다.
- 북한의 모든 중요한 개발지표는 최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3년 이후 수명은 6세 이상 낮아져 66세 수준이다.
- 유아·임산부 사망률은 1993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현재 유아는 1000명당 26명, 임산부는 10만명당 77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빈혈(임산부 30%)과 결핵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1990년대 초 이후 난방연료(특히 석탄)의 부족과 농지의 필요로 북한의 기존 삼림은 대대적으로 제거됐으며, 이는 일부 침식을 초래하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 대북 인도지원 프로그램의 전략적 초점

○ 비전과 목적

- 중기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들의 실정,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상대적인 영향력, 스위스 정부 및 국제사회의 전략적인 체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특히 단기적인 인도주의적 목적과 중·장기적인 주민생활 개선 사이에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대북 인도지원의 비전은 인도주의가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한편, 목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제한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환경보호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 인도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식량안보 및 소득보장 개선과 영양실조 대책 마련, △물 공급과 폐수 관리 개선, △토지 및 환경 보호 개선 등이다.
- 이 같은 목적들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 중기 지원 프로그램 목적 그룹에는 주로 시골 및 저소득 인구(연금 수급자·실직한 공장근로자들)가 포함됐다. 분유 프로그램의 주요 수혜자는 전국의 유아와 젊은 어머니들이다.

○ 개입 영역과 조치

- 프로그램의 목적은 2개의 개입 영역에서의 조치들을 통해 달성될 계획이다.
- 영역 A(공중 보건) : 비위생적인 물에 의한 질병과 유아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물·위생에 대한 조치
 - 대부분의 질병은 불량한 식수 공급이 원인으로, 공급 장치가 오래 됐으며, 관리상태가 형편없다.
 - 많은 지역에서 거주자들은 건물 옆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나, 이는 기존 물의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책이 아니다.
 - 직접적인 인도지원 조치 또는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식수 공급(접근성 및 품질 면)과 폐수 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주민들의 영양 상태에 대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 이는 설사 관련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귀중한 열량, 비타민, 미량원소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임산부 사망률을 낮추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도 제공해 준다.
 - 유엔아동기금인 유니세프에 따르면 유아의 20%가 영양결핍 상태로 영양실조도 문제이다. 스위스의 분유 지원은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영양실조를 막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 영역 B(식량 안보와 토지 및 환경보호) : 경사지에서의 농경법과 침식 방지에 대한 개선

2012.5.30(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영양실조와 영양부족은 반복되는 만성적인 것으로, 북한 주민들이 15년 이상 겪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경사지 관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영양상태(식량의 양·질·다양성)를 즉각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주민들은 협력에 기반한 농업생산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공공 식량 분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 식량 부족은 지역 주민들을 경사지로 내몰아 농경법에 대한 지식 없이 간단한 도구만을 사용해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 이는 광범위한 삼림 벌채와 침식을 초래하여 자연재해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 경사지 관리 프로젝트는 침식을 예방하고 재식림과 생물의 다양성을 강력히 장려하며, 식량 생산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양 및 식량 안보 개선으로 환경 보호와 함께 토지 보호를 이상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지원을 통한 추가 조치 :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훈련된 의료진도 부족한 상태이다.
- 의료보험제도의 종합적인 재건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인도지원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조치가 제외된다.
 - 그러나 인도지원 프로그램은 ICRC가 의료 인프라(지방병원)의 종합적인 재건을 달성하고 의료진을 훈련하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리적인 초점

- 대북 인도지원 프로젝트는 유동성과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북한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한으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영역은 경사지 관리 프로젝트 지역과 일치하는 평양 남동부의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다음 단계로 북한 정부와 프로젝트 영역 확장에 대한 대화를 가질 계획이다.
- 어린이와 젊은 어머니들 사이의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은 세계 식량계획(WFP)이 북한 전역(11주 중 8곳)에서 시행한다.

□ 대북 중기 지원 계획의 이행

○ 협력 및 파트너 기관

- 영역 A(공중 보건) : 식수 공급은 도시경영성과 지역 인민위원회와 함께 직접적인 인도지원 조치로 선택된 지역에서 이행된다.
 - 유엔 파트너 기관들에는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이 포함돼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비정부기관(NGO)들은 이미 식수 공급을 복원해본 경험이 있다.
 - 분유는 계속 WFP에 직접 전달되고, 고가의 고열량 식량과 첨가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부적으로 가공처리 될 예정이다. WFP는 파견근무 중인 스위스인도지원(SHA)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 영역 B(식량 안보와 토지 및 환경보호) : 경사지 관리 프로젝트는 중국 국토부와 환경보호부와의 협력으로 이행된다.
 - 국제 NGO인 국제농산림연구센터(ICRAF)는 이에 대한 지원과 훈련의 책임이 있다.
 -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이 프로젝트에서 선구자로 새로운 프로젝트 분야에 침투하기 위해 다른 국제 기관들과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긴급 원조 조치 : 사회적 위기 또는 환경적 재해 등에 따른 생명 구조와 희생자들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을 위한 긴급 원조를 제공한다.
- 스위스인도지원(SHA) 전문가들은 필요시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해 배치된다.
- 적절한 파트너들 역시 높은 물류 수용력을 가진 다각적 기관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함께 경우에 따라 선택된다.

○ 이행 세부원칙

-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쌍무적인 프로젝트 지원(지원 또는 국제 NGO들과 파트너십에 대한 권한)과 함께 직접적인 대북 조치에 대한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 다각적인 기관을 통한 쌍무적인 프로그램 지원은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주요 이행 세부원칙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며, 필요할 경우 임시파견이 제공될 수 있다.

2012.5.30(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프로그램 이행은 총들에 민감한 프로젝트 관리의 원칙과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정치적 대화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른 기부자들과의 제휴는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는 지식 교환에 따른 이득을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프로그램에 관련된 행위자인 국가 세력들이 파트너 기관들에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요건에 대한 계획 및 결정 과정에 개입할 것이다.
-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거나 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재해 위험 감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된 조치들에 의해 지원될 계획이다. 재해 위험 감소에 대한 조치는 경사지 관리 프로젝트의 고정된 요소이다.

o 재정 및 인적 자원

- 2012~2014년 중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예산은 인도주의적 사정에 따라 500만~600만 스위스프랑으로 추정된다.
- 인도지원 프로그램의 개입 영역 두 곳에서의 이행으로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보통의 자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섞인 균형잡힌 프로그램과 함께 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노동·기획·조정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게다가 높은 수준의 소유권과 자주성으로 인해 투자의 지속이 보장된다.
-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심난하고 제한적인 작업 및 생활 환경은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인도지원 직원들은 조정관, 부조정관/프로그램 매니저, 관리·재정 및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위한 프로그램 보조원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 스위스 외무부와 다른 다양한 부처들이 현지 직원 8명을 제공한다.
- 스위스개발협력처(SDC) 인도지원의 아시아·미국 부서는 운영 조종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북한에서 스위스인도지원(SHA) 조정관은 프로그램 이행과 평양 사무실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중국 베이징의 스위스 대사관에 위치한 인도지원 사무실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 2014년 후 출구 시나리오

-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따라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2014년 후 4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 진다.
 - A. 스위스개발협력처(SDC) 인도지원은 대북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한다.
 - B. 인도지원이 북한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데다 SDC의 역내협력부서(RC) 및 글로벌협력부서(GC)를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C. 프로그램 이행이 인도지원에서 역내협력부서로 바뀐다.
 - D. 인도 지원은 2012-2014 중기 프로그램을 이행 후 북한에서 철수한다.
- 잠재적인 시나리오들은 중기적 검토의 일환으로 베이징 스위스 대사관을 비롯해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연루된 부서, 스위스대외홍보처(FDFA)의 정치 관련 부서들에 의해 논의돼야 한다.

[SDC 북한 중기 지원 규모]

단위 : 스위스프랑(1스위스프랑 : 한화 1,220원)

연도	프로그램 관리	식수 공급	분유 WEP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	ICRC	계
	영역 A			영역 B		
2011	15만		400만		50만	465만
2012	70만	30만	300만	50만	50만	500만
2013	70만	75만	300만	60만	50만	555만
2014	70만	100만	300만	50만	50만	570만
계(12~14)	210만	205만	900만	160만	150만	1625만

* 영역A: 공중보건, 영역B: 식량안보, 토지, 환경보호

최근 북한 사회 관련 일본 언론 보도 종합

최근 북한 內 행사 참석, 관광, 사업 추진 등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북한 사회변화와 관련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일본

○ 북한에서 생각하다. (5.6, 5.11, 5.13 / 다나카 사카이¹⁷⁾의 국제뉴스 해설)

- 교토지역 조총련, 학자, 좌파계 시민단체 등 친북 교류조직인 '日北우호교토네트' 방북단에 참가하여 지난 4.28~5.3일까지 방북했음.
- 방북단은 약 60명으로 참가자 대부분은 대학에서 조선관계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와 대학원생이었지만 조총련과 알고 지내는 일본인도 몇 명 참가했음. 학자 가운데에는 북한을 자주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
- 이번에 언론 기자도 몇 명 동행을 희망했지만 북한이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학자 중에서도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쓴 사람은 비자를 받지 못했음.
- 이번 방북단은 각 학자의 연구분야에 따라 경제, 국제관계, 민속학, 역사, 신문방송학 등의 그룹으로 나뉘져 관심에 따라 북한 내에서의 일정이 짜여 있었고, 필자의 경우 경제그룹을 신청했음.
- 북한에서의 여정은 개성에서 1박한 뒤 평양에서 계속 지냈음. 함흥시 협동농장 견학을 신청해 승인받았지만 평양에 도착해보니 함흥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음.
- 평양은 비교적 풍요롭지만 동해안쪽은 식량부족이 심각하다고 보도되고 있어 동해안 농장을 가서 식량사정을 직접 확인하려 했던 참가자들이 많았는데 모두 낙담했음.

17) 국제정세 해설가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처음에는 낙담했지만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해줬고 고려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허가해줘서 참가한 학자들은 놀랐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평양시내의 평양호텔은 외출이 허용되지만 고려호텔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방북단에게 큰 개방이었음.

북측 안내원은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사회과학자협회의 초대로 온 믿을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출이 허용된다'고 얘기했지만 일행 가운데에는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등 북한의 다른 단체로부터 초대받은 그룹도 있었고, 그들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음.

같이 간 그룹의 학자들에 의하면 3년 정도 전까지 방북단은 일반시민과 대화할 수 없었고, 일본 엔을 북한 지폐로 환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북한 지폐를 보는 것조차 거부당했다고 함.

이번에는 호텔에서는 환전을 거절당했지만 中·北 합작으로 세워진 쇼핑센터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방문했을 때 환전소에서 외화를 조선 원으로 환전해 주었음.

북한에는 두 개의 환율이 존재하며, 호텔 음식비용은 1엔=약 1원의 공정 환율로 지불했지만, 상업중심의 환전은 1엔=46.5원의 실제 환율이었음.

오늘의 시세	
유로	5.330 원
미달러	4.000 원
일본엔	46.50 원
중국엔	635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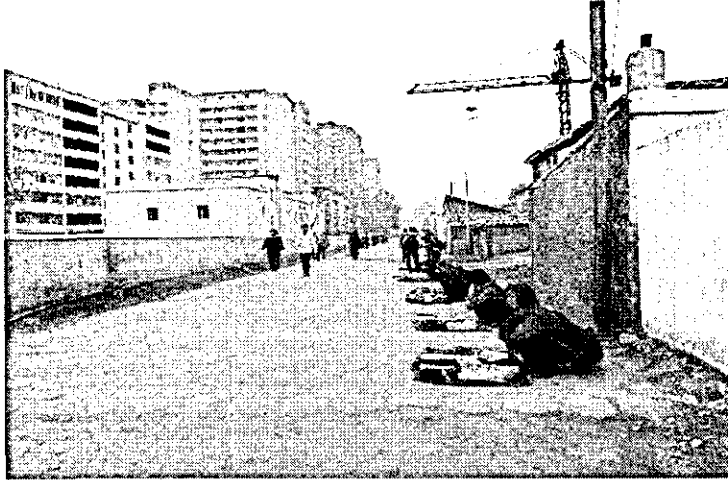
2012년 3월 22일

[광복지구상업중심 환전소 환율표로 3월말 결정 가격이며, 한 달 이상 변동없음]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필자도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 매일 산책을 나갔고 평양역 뒷편에 가보기도 했음. 평양역 앞쪽은 깨끗한 거리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 '쇼윈도'적인 거리였음.

그러나, 평양역 뒷편에는 행상을 하는 아줌마들이 길바닥에 담배와 의류, 채소 등을 파는 소규모 자유시장이 있어 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다른 실상을 볼 수 있었음.



[평양역 뒷쪽 거리에서 장사하는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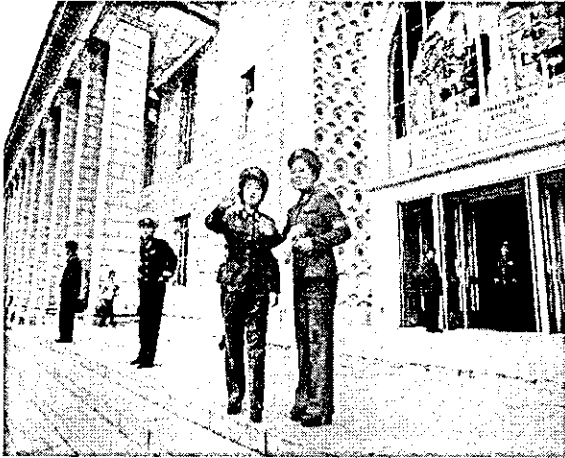


[평양역 뒷쪽으로 가는 육교이며, 하단에 장사하는 주민들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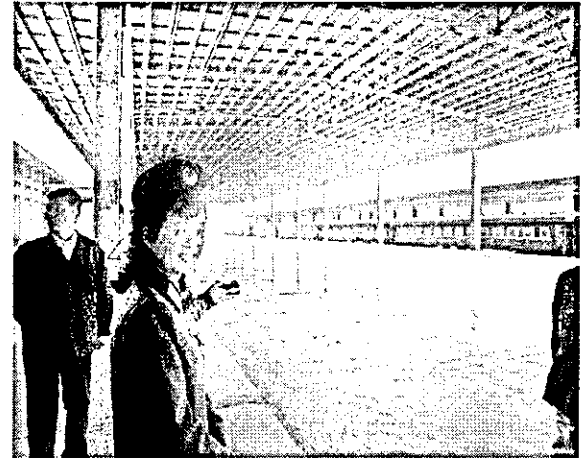
지하철 회수권(1회 5원이며 10장 묶음)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2번 정도 타러 갔었음. 지하철은 3~5분 간격으로 왔는데 가끔 고장이 원인인지 멈추는 일이 있어 일정상 1~2시간 여유있는 시간에 멀리까지 가면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두 정거장만 가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음.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고려호텔에서 걸어서 3분거리에 있는 평양역(지하철이 아닌 장거리 열차역, 평양역전에 있는 지하철역은 영광역)에서 사진을 찍자 여성 역무원 3명에게 '사진 어찌구 저찌구'라는 말을 들었음. 촬영 금지라는 말 같았는데 그녀들의 눈은 웃고 있었음.



[평양역 여성 역무원들]



[평양역 1번선 홀]

- 평양역에는 장거리객 같은 사람들은 조금 있었지만, 역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자 여성직원에게 쫓겨났는데 아마도 경관 미화를 위해서일 것으로 보였음.
- 고려호텔의 선로쪽 방에 묶었던 방문자에 따르면 사람으로 꽉 찬 열차가 평양역에 도착하는 모습을 몇 번 봤다고 함. 북한의 철도 대부분은 정전으로 자주 멈춘다고 하는데 장거리 열차 운행자체는 하고 있는 것 같음.
- 이번 방북단은 사전에 조총련과 합의해 북한측에 방문하고 싶은 곳을 전달한 뒤 승인을 얻어 함흥방문 등의 여정을 짰음. 그러나 평양에 도착해 고려호텔 회의실에서 사회과학자협회 사무국과 첫 회의를 해보니 협회가 정한 여정은 달랐음.
- '동물원 참관', '서커스단 공연관람', '노동절(5월1일)관련 행사 참가' 등 관광스러운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 동행한 학자들은 '학술교류와 조사를 하러 왔지 놀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일정으로는 귀국 후 대학측으로부터 뭘 하고 왔느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반발하며 함흥방문과 농장견학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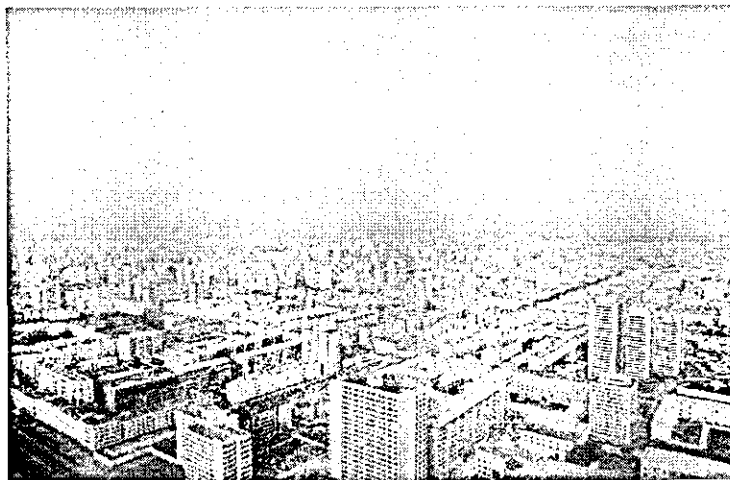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사회과학자협회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잠시 나갔다 들어온 뒤 '동물원에 갈 것이지만 동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온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겠으며, 노동절 행사회장에서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해 안내인(감시역) 없이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실현됐음.

관료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북한에서는 외국인에게 보여줘도 될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며, 함흥 등 쉽게 보여줄 수 없는 장소를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음.

그 대신 평양 시내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도록 허가한 것임. 자주 북한을 방문한 학자들에 따르면 평양 시민의 생활은 몇 년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았음.

비교적 저렴한 국산 담배와 맥주가 나돌고 있고, 아파트 건설이 진행돼 주택사정이 개선되었으며,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음.



[평양시 북동 교외 지역에 새로운 고층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

이러한 주민생활의 경제적 향상이 북한 당국의 자신감으로 이어져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친북학자단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평양 시민과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다고 허가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됨.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한편 방문할 수 있는 지방도시는 비교적 풍요로운 개성이라는 정해진 장소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함흥 방문은 막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됨.
-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 법학, 외교학부장을 포함한 교수진과 만났으나, 북한측 학자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 덕분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우리측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하지 않으며 얼버무리는 얘기로 끝내는 일이 잦았음.
- 그러나 학자들 얘기에서 북한이 시장경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부활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음.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김일성 생가를 방문중인 주민들]

- 1989년에 방북했을 때 본 평양 사람들은 영양상태가 나빴는지 얼굴에 버짐이 핀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현재 평양을 활보하는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얼굴색이 좋음.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벗어나 평양시민의 생활상황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통근 시간에 길을 걷는 여성 중 90%가 바지 차림이었으며, 치마는 매우 적었음. 몇 년 전까지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지도 때문에 여성들은 마지못해 치마를 입었지만 지도가 해금되자마자 모두 움직이기 편한 바지차림을 하게 됐다고 함.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일요일에는 데이트를 하는 젊은 남녀도 많았으며, 이때는 스커트 차림이 많았음.
- 5.1일 노동절 휴일, 평양 시내의 녹지 여기저기에서 피크닉과 야외 파티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보였음.
- 노동절 행사가 진행됐던 대성산유원지 잔디밭 광장에는 2개의 단체가 운동회를 하고 있었고, 모두 근심없는 즐거운 표정 이었음.



[대성산유원지에서 열린 운동회에 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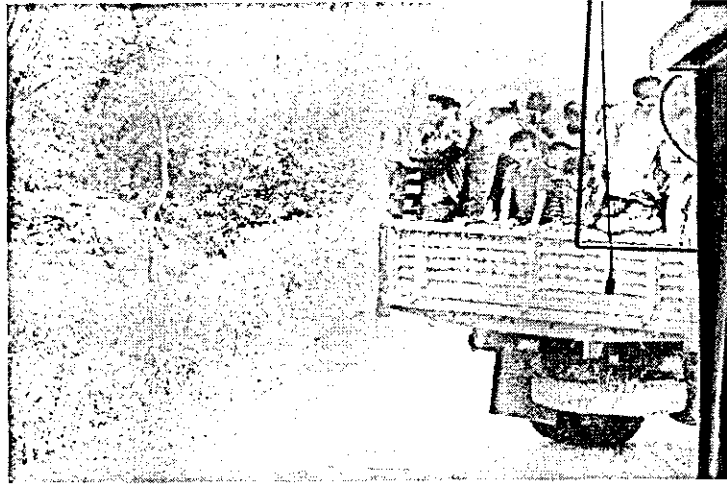


[용악산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사람들]

- 점심을 싸와서 먹는 사람들과 근처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기 등의 재료는 배급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것이 었음.
- 같은 날 오후에 방문한 '용악산공원'이라는 절이 있는 산 중턱 에서도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단체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틀고 춤추거나 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음.
- 이 공원은 교외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소형버스나 트럭(사람들은 짐 실는 곳에 탄다)을 타고 왔음.
-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양시민 중에서도 일부 부자이며, 많은 시민들은 고기 등을 전혀 먹을 수 없을 것 이라는 견해도 있을 것임.
- 분명 평양시민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며 외관으로는 경제 상태를 식별할 수 없으나, 이 날 용악산 이외의 여러 공원 이나 녹지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음.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먹다 남은 음식이 많았지만 주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바비큐 파티는 시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행사인 것처럼 보였음. 부자들의 특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음.



[야외 연회를 마치고 트럭 짐칸에 탑승하여 귀가하는 사람들]

동물원은 만원이었으며 대표소에는 긴 줄이 서있어 들어가지 않았음. 이런 광경은 20년전 중국의 지방도시 휴일 모습과 비슷했음.

그 후에 방문한 개성은 20년 전의 길림성의 연결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음. 중국은 자유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고 북한은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상태는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한 뒤 10년정도 경과한 1980년대 후반의 중국 지방도시와 닮은 느낌이 들었음.



[동물원 대표소에서 입장권을 사려고 줄 선 사람들]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이번에는 농촌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평양에서 개성으로 갈 때 창밖으로 농촌의 광경을 봤는데, 2시간 반 동안 4대~5대의 트랙터를 봤지만 팽이 등을 사용해 수작업을 하고 있는 쪽이 더 많았음.

북한의 주민생활은 향상되고 있음. 북한 당국도 재정이 다소 회복돼 외국으로부터 맥주 조제장치를 수입해 '대동강 맥주 공장'을 세워 국내 맥아와 홉을 사용해 맥주를 만들어 1리터 70원(실세 환율로 약 1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170개 직영 맥주가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음.

북한 당국은 외국으로부터 담배 제조기와 필터를 수입해 국내산 담배잎을 이용해 새로운 담배를 만들어 싸게 팔고 있음.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극빈에서 벗어나 조금씩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이대로 쪽 풍요롭게 될지는 의문임.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해 중국 정부가 기대하듯 시장경제정책과 외국자본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중국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중국식으로 국민의 개인적인 시장경제활동을 허용해 버리면 사회의 정치적 긴장이 느슨해지고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져 정치적으로 붕괴해 오히려 혼란스러워져 다시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음.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지원하게 되어 김정일은 몇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고 북한은 중국에 최대의 경의를 표했음.

2002.7월에 7.1경제조치를 발표해 미국·일본 등의 분석관들은 북한도 중국식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할 것이라 생각했음.

장성택과 김경희가 정권 중추로 경공업주도의 경제강화책을 담당하면서 김정일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작년 말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경희 부부는 김정일의 절충자역으로 북한의 경제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서 북한이 중국의 권유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중국식 시장경제책(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

그러나 이번에 평양에서 필자가 참가한 방북단과의 회담에 응한 사회과학자협회와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제 및 법률 등의 학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자 모두가 '시장경제정책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음.

또한,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났고, 계획경제정책에 근거해 배급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시장경제정책의 도입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중국에는 중국의,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방식이 있다'라고 대답했음.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용인하고 있는데 북한의 학자들은 '국가의 생산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국가가 인민들에게 물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과도적으로 시장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다. 생산력이 늘어나 배급이 완전해지면 시장은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하려 했던 2002년의 가격개정은 실패해 2007년경부터 북한 당국은 배급제의 재강화로 전환했음.

그러나 정책적 전환과 관계없이 현실적인 면에서 자유시장이 북한에 침투했고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적어도 평양 시민들의 삶은 향상되었음.

국영공장·기업소 등 많은 기관이 계획경제에 근거한 생산과는 별도로 자유시장에서 팔기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배급과 공적급여(생활비)와는 별도의 소득을 종업원에게 주고 사람들은 이것으로 생활하고 있는 듯함.

북한에서는 최근 이집트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평양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음.

휴대전화는 2만엔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평양 중심가를 걸으면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걸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음.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북한 전체에 100만 대의 휴대전화기 있으며 대부분이 평양에서 사용된다고 하며, 입학 선물로 친척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선물받는 대학생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자유시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만이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비율은 극히 일부의 부유층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음.

계획경제 정책과 시장경제 정책을 비교해보면 시장경제 쪽이 부자가 되고 싶은 개인의 사기(士氣)를 끌어내므로 정치선전으로 사람들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계획경제보다도 성공하기 쉬움.

이런 면에서 북한의 계획경제의 재도입은 좀처럼 잘 진행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국영기업은 계획경제 밖에서 시장경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위로부터 묵인받고 있음.

국가는 국영기업이 사적으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상납하게 하여 그 자금으로 배급을 늘릴 수 있게 됨.

북한 당국은 앞에서는 시장경제를 없애고 계획경제로 돌아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를 묵인하고 그 벌이를 국가가 가로채 계획경제용 자금으로 쓰고 있는 듯함.

배급제가 잘되면 북한은 시장에서 돈버는 재능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수품의 배급을 보장하는 한편, 재능있는 사람은 자유시장에서 돈을 버는 혼합형 경제가 될 것임.

북한은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배급제의 계획경제를 수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5~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임.

그 기간 동안 북한은 남북화해와 6자회담을 진전시키지 않는 쪽이 상책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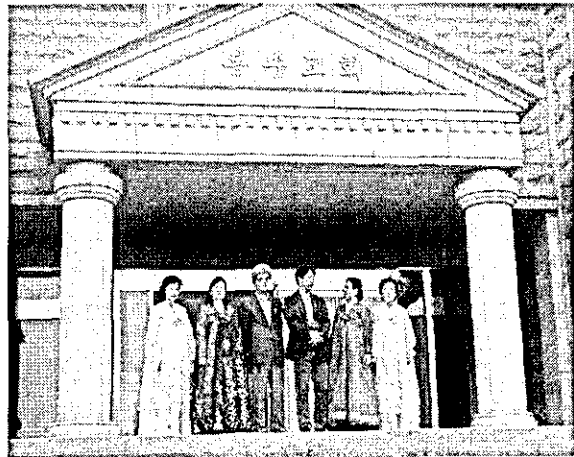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올해 말에 대선이 있으며, 내년부터 새로운 정권이 북한에 대한 융화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음.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도 재정 재건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축소를 원하는 의견이 정계에 있으며, 오바마가 재선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임. 중국 역시 빨리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싶어함.
- 이처럼 내년 이후 韓·中·美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는 자세를 강화할 것 같은 가운데 북한도 표면상으로는 긴장완화를 바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융화를 늦춰 시간을 벌고 싶을 것임.
- 이런 시각으로 얼마 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릅쓰고 위성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북한이 국내 경제를 살려 정치적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의 진전을 늦춰 자국의 일정에 맞추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측이 짜놓은 우리들의 일정에는 봉수교회의 일요일에배 참석이 포함되어 있었음.



[봉수교회 목사(중앙의 넥타이를 멘 사람)]



[치마저고리 모습의 간부 신자들.
중앙의 남성 2명은 일본인]

- 4.2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봉수교회에 가보니 교회 목사가 우리들을 맞아주었고 사회과학자 방북단인 우리들에 대해 그의 첫 말은 '사회과학자는 마르크스가 종교는 미신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마르크스가 쓴 모든 것을 읽어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남동생은 유대교 랍비였다'라고 말함.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사회주의인 북한 사람인데 갑자기 사상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해서 놀랐으며, 아마도 놀래키려는 작전인 것 같았음.

정장차림인 목사는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음. 교회 신자들도 아무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음. 밖에서는 달고 있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 뺐다고 함.

노동당원은 무신론자이어야 하므로 신자 중에는 노동당원이 없을 것임. 신자 가운데 일당독재가 아니라는 점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민주당 당원은 있다고 함.

사회민주당은 종전 직후 창당 때부터 기독교인이 많았으며, 노동당 정책을 전면 지지하고 있음. 여성신자 중에는 치마저고리 차림을 한 사람도 있었음.

외국인의 평양여행 일정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의 예배 참석이 포함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함. 교회에는 우리 외에도 네덜란드에서 온 여행객들도 있었으며 찬송가가 나오자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음.

목사는 유럽과 일본에서 온 방문객을 환영하듯이 설교에서 베토벤과 노구치 히데요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위인의 사례로 등장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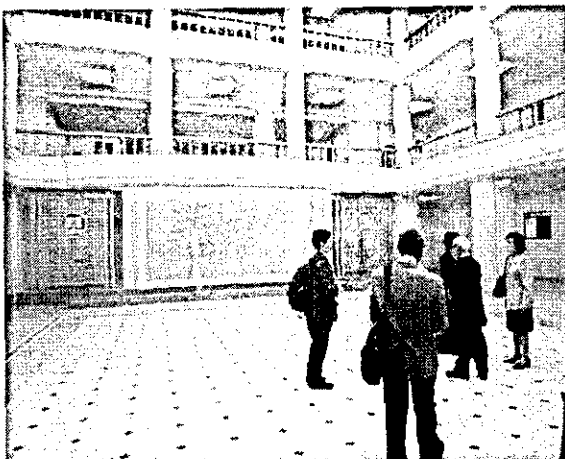
개성을 방문했을 때에는 천태종의 영통사라는 불교사원을 방문했음. 두 명의 승려가 있으며 600명의 신도가 개성시내 등에 있다고 함.



[영통사의 가람과 승려]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우리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두 명의 승려와 한 명의 사무원 (당국자?)만 있었으며 신도도 참배객도 없었음.
- 북한에는 30개 정도의 불교 사원이 있으며, 전국에 40명 정도의 승려가 있고 그들이 독경 등을 배우기 위한 '불교사원'이 평양에 있는 것 같음.
- 평양에 있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해 학부장 3명을 포함한 쟁쟁한 대학 교수진과 만났는데 대학방문에서도 필자는 '보여주기식' 인상을 받았음.
- 대학 건물(전자도서관등)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김정일이 대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직필의 메모를 확대한 벽화가 도서관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컴퓨터(OS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와 리눅스 베이스의 국산 OS가 섞여 있었음)가 100대 정도 있었던 전자 열람실에는 10명 정도의 학생만 있었는데, 우리들이 대학을 방문한 날은 4.30일인 평일이었음.
- 김일성대학은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므로 대학생들은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임. 도서관이 대학생으로 꽉 차 있었다면 대학의 광경이라고 납득했겠지만, 사태는 전혀 달랐음.



[직필벽화가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의 웅장한 현관]



[아름답지만 학생이 거의 없는 열람실]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북한에서는 올해 강성대국이 되기 위한 생산 가속의 국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을 근로봉사 등 교외 작업에 참가 시키게 하고 있음. 그래서 교내에서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임.

김일성대학에서 경제학, 법학, 국제관계학(외교학) 학부장과 교수들을 만났음.

3개 학부 모두 북한을 강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학부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법학과 외교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토목 공사 등 인해전술의 근로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북한은 매우 비효율적인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음.

필자가 귀국 후 남은 방북단들은 5.3일 '하나음악정보센터'를 방문했음. 이곳도 평양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일정에 포함되어 있음.

이곳은 김정일의 발안으로 평양시민이 디지털녹음된 음악을 자유롭게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유럽기관의 협력으로 세워진 시설임.

이곳을 방문한 방북단 참가자에 따르면 이곳에도 음악을 듣기 위해 오는 시민이 거의 없었다고 함. 노동절 휴일에 평양의 동물원이 만원이며, 문 앞에서 입장권을 사기위해 줄을 서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임.

평양에서는 '3대혁명전시관'이라는 박물관 중에 인공위성 발사에 관한 부문 전시도 견학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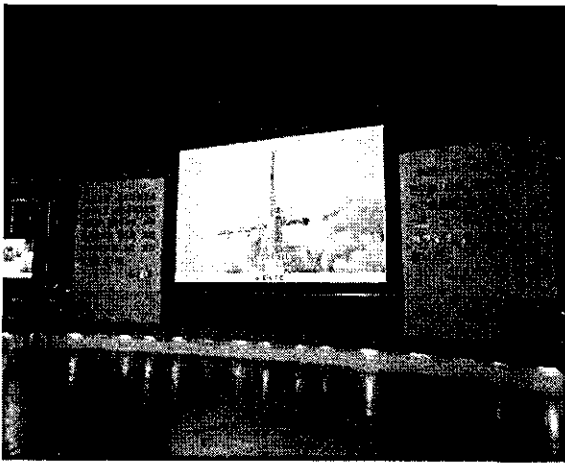
이는 4월 중순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해 일본에서 '위성발사가 아니라 미사일용 로켓의 시험발사일 것'이라는 말이 나와 우리 방북단을 받아준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여정에 포함시켜 준 것이었음.

전시관 설명원에 의하면 북한은 외국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력으로 98년에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이 위성은 신호를 발신하면서 2년 동안 위성궤도를 돈 이후 궤도를 벗어나 행방불명이 됐다고 함.

- 2009년에는 마찬가지로 자국의 기술만으로 광명성 2호 발사에 성공해 이것은 현재까지도 470 MHz의 신호를 발신하면서 위성궤도 1바퀴를 104분에 돌고 있다고 함.



[인공위성 전시관]



[지금도 지구를 돌고 있다는 광명성 2호 모형]

- 4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는 보도됐듯이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위성 발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은 이집트의 미사일 설계도를 훔쳐 개발했지만 하나도 위성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전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의 광명성 2호가 정말 지금도 위성궤도에서 470MHz의 전파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 북한 이외의 국가 관측기관이 이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가라는 점이 궁금해졌음.
- 북한이 과거의 위성발사 성공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예를 들어 일본 조총련에 신호를 수신시켜 조총련이 수신기록과 수신방법을 발표해 일본과 세계 천체관측자들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 됨.
- 그러나 조총련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음. 역시 북한의 위성발사는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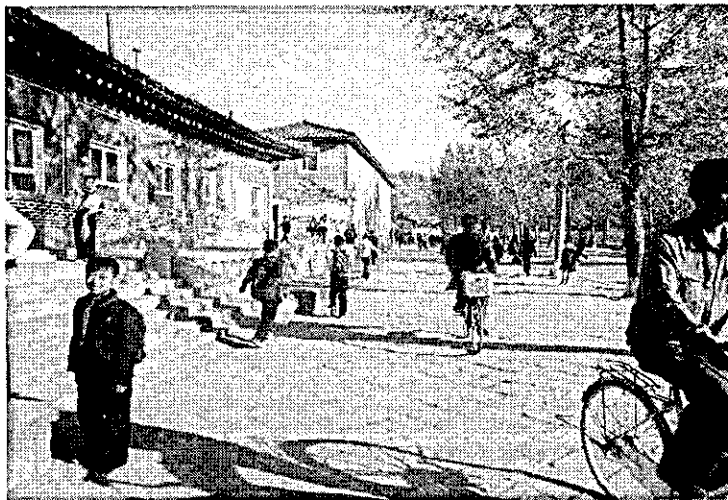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전시관에서는 CG로 만든 인공위성이 성공리에 발사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고, 미술(그래픽)로써는 예뻐지만 사실성은 입증되지 않았음.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방문 前·中·後에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조총련을 포함한 북한측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나, 요구받은 것과 다른 행동을 했을 경우 다음 방북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평양에서 4일 동안 체류했을 때 한 번도 호텔이 정전되지 않았지만, 개성에서는 밤에 몇 번이나 정전됐고 호텔은 그 때마다 자가발전기를 움직여 전기를 공급했음.

개성에서는 미관을 중시하는 평양에서 보이지 않았던 자전거 통근족들이 있었음.



[자전거가 많은 개성시내의 아침]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개성시내의 주요도로는 포장되어 있었지만 울퉁불퉁했음. 그러나 개성시내에서 개성공업단지로 가는 길은 도중부터 포장 상태가 급속도로 좋아져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음.

개성시내의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고 교차점에서 제복을 입은 안전원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개성공업단지내 도로는 신호등이 많았으며 주변의 모던한 건물과 맞물려 한국풍의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었음.

○ 평양의 고급 외제차, 일본제품으로 풍요로움 연출(5.13 산케이)

- 김일성 생일 100주년의 축하행사가 열린 4.15일 전후, 북한 평양시내의 가게 앞에는 일본산 고급 승용차와 PC,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이 대량으로 진열되어 있었다고 방북한 북한 전문가가 이와같이 전했다.
- 방북한 북한 전문가는 방북 후 평양에 체류하며 중앙보고대회 등의 기념행사를 참관했고 4월 하순에 귀국했음.
- 특권층이 사는 평양시내에 일본제품 등 외국제품을 넉넉하게 진열함으로써 풍요로움을 연출했으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향상에 일본제품이 이용되었음.
- 증언에 따르면 평양시내의 레스토랑과 매점에는 컵에 담은 청주와 담배, 인스턴트커피 등 일본산 기호품이 대량으로 진열되어 있었음.
- 정보기기류를 다루는 평양정보센터에는 소니와 NEC 등 일본 업체의 신형PC가 전시되어 있었고 판매도 하고 있었음.
- 승용차 시승판매장도 설치돼 시민들이 도요타 외에 벤츠 등 독일산 고급차를 구매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함.
- 日·北간에는 현재 일본 정부의 독자적 제재로 금수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은 중국을 경유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됨.
- 김일성 광장 근처에는 신축된 고층 아파트가 잇달아 완성돼 있었음.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서 형체를 드러냈지만 북한이 4.15일까지 완성해 영업개시를 목표로 했던 105층짜리 '유경 호텔'은 조명이 꺼져있었으며, 내장이 20층 전후까지 밖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함.
- 방북한 북한 전문가는 '외국인이 숙박하는 호텔보다 평양시내 특권 부유층을 위한 아파트에 노동력과 자재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을 것이며, 평양 시민들은 선택받아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김정은의 정치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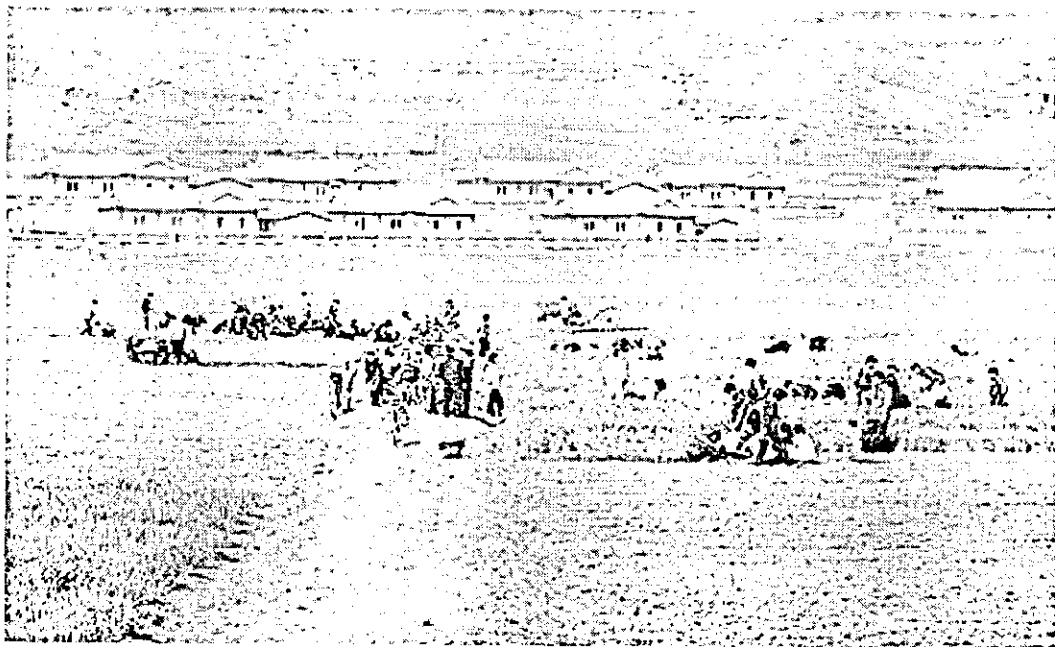
최근 북한 사회 관련 러시아 언론 보도 종합

최근 북한 내 각종 행사 참석, 관광, 사업 추진 등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북한 사회변화와 관련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北 직접 방문, 내부 경제상황을 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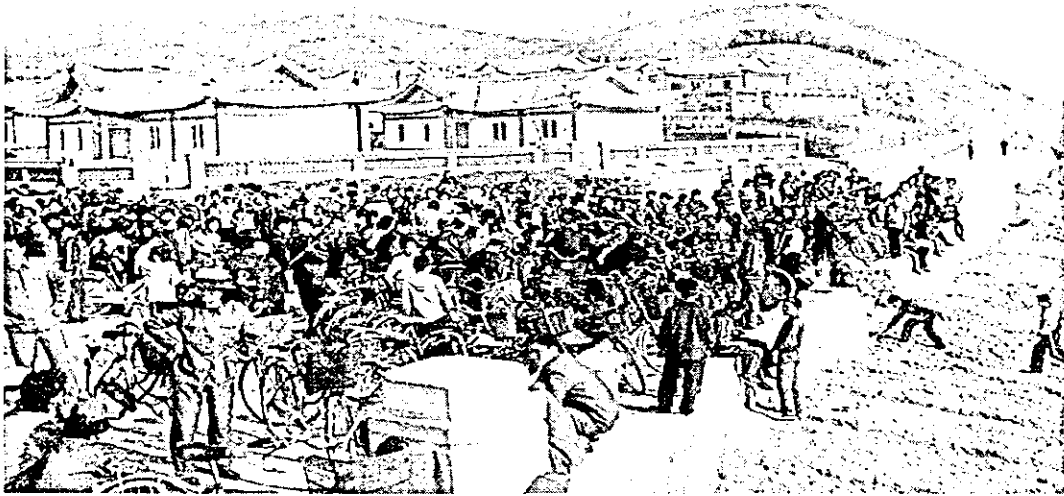
(5.19, segodnya ㉠ 우크라이나 일간지)

- Segodnya 통신원은 북한을 방문, 내부 경제상황과 주민소득, 그리고 현지 상점에서 과연 무엇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봤음.
- 북한에서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공식적인 집단노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후 '우수 노동자'에게 상을 주며, 이러한 식의 '노동 전투'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생산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일반적임.



['노동전투' :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밤을 지낸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도 안 가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또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 시기에 들판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잔다고 가이드는 통신원에게 말했다.
- 외곽 도시인 개성을 방문한 나는 우연히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약 5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 짐칸에 벽돌이라든지 잔돌을 실어 나르고 있었음.



[휘발유가 없어 자전거로 돌을 싣고 가는 모습]

- 돌은 산악지대 논에 물을 대는 저수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필요함. 집단농장에 휘발유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전거로 돌을 실어 나르는 것이라고 가이드는 인정함.
- 오랜 대화 끝에 북한 주민의 평균 임금과 연금액을 밝혀낼 수 있었음.
 - 연금 수령자들은 2,000~3,000원을 받으며, 우수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4,000~7,000원을 받고, 군 장교들의 경우에는 10,000~15,000원을 받고 있음.
 - 비교를 위해 예를 들면, 도시에서 대중교통 가격은 5원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데는 50~300원이며, 농촌 상점에서 본 중국산 부엌칼은 367원이었음. 현지 보드카(25~30도) 가격은 100원, 담배는 30~200원임.
 - 북한에서 돈과 임금은 부차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하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다든지, 목욕탕·영화관·극장을 간다든지, 전차를 탄다든지, 보드카, 아이스크림 혹은 담배를 구입할 때임.
 - 식료품과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족한 공산품은 쿠폰 혹은 배급망 목록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짐.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우리에게 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임금은 충분하다. 중·고등 교육, 의료혜택 등을 모두 무상으로 받고 있다. 휴가라든지 어디에 놀러갈 기회는 회사에서 자주 제공해줘 예를 들어, 축제같은 연휴 때는 많은 공장들이 다같이 집단으로 놀러가게 해준다고 얘기함.
- 개인 비즈니스는 북한 법률상 금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 도시에서 즉석 가판대를 발견할 수 있었음. 가이드는 '이러한 가판대는 이따금 인민보안원의 단속을 받는다'라고 함.
- 판매상들은 길을 따라 쪽 늘어앉아 있었고, 품목은 다양하지 않았는데, 무와 배추 다발, 소금, 조미료 같은 것들이었음.
- 북한에는 2가지 타입의 환율이 존재하며,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임. 이상한 형태의 화폐 분배 및 유통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임.
- 공식 환율에 따르면, 1달러당 약 100원, 1유로당 140원을 환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북한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북한은 극심한 외화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외화 획득을 위해 모든 가능, 불가능한 수단을 쓰고 있는 실정임. 현지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6,000원이 넘었음.
- 사실 북한 내에서 환전을 하는 것은 운 좋게 해외에서 일을 했던 북한의 일부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임.
- 하지만 이들은 외화 임금의 60%를 국가에 의무 납부해야 함. 이후 남는 40%는 특수 외화상점에서 소비할 수 있음.
- 외국인들은 호텔에서 공식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며, 외국인 주머니에서 외화를 빼내기 위한 외화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잊힌 舊 소련 시절을 연상시켰음.
- 외화상점에서는 대개 중국 혹은 홍콩산 제품을 볼 수 있었고, 판매원은 현지 특산물이라든지 장식품을 구매하는 외국인들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에게서 외화를 건네받고, 센트나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잔돈을 거슬러 주며 돈을 챙길 궁리를 했음.

○ 북한에서 모든 외국인들은 잠재적 스파이다.

(5.16, segodnya ☞ 우크라이나 일간지)

- 북한에 가기 전부터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핸드폰을 수거할 것이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허락 받지 않은 곳을 사진 찍을 경우, 메모리 카드를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음.
- 손전등을 가져가면 좋다고 과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친구가 말하면서 손전등을 빌리는 것도 공짜로는 안되고, 현지 감시원들이 나를 계속 따라 붙을 것이라고도 했음.
- 북한에 도착해서 나는 내가 읽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북한을 혼자 여행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됐는데, 나중에 북한 사람들은 내게 외국인들은 '잠재적인 스파이'라고 말했음.
- 공항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들은 통역담당 최씨와 가이드 박씨라는 2명의 매력적인 젊은이들이었음.
 - 박씨는 군인같은 동작과 걸음걸이를 보여 북한 정보당국 관계자가 아니냐는 나의 질문에 웃음기 없이 '국가안정보위부' 소속이라고 말하고는 바로 큰 소리로 웃으며 '농담이다'라고 말했음.
 - 그는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또 어떤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음.
 - 호기심 많은 외국인에게 있어서의 질문 금지 사항으로는 군대, 일반 주민들 거주지, 상점, 그리고 북한 내부 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한 질문은 '도발'로 간주했음.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박씨의 경계심은 여행 둘째 날 확인할 수 있었음. 호텔에서 나와 도시 구역으로 향했던 나는 10분 뒤 20미터정도 뒤 떨어져 따라오며 손을 흔드는 박씨를 볼 수 있었음.
- 가이드는 내게 다가와 '북한에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보이는 '흰 까마귀'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의 없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며 최씨는 솔직히 내게 말했음.
- '외국인이 금지 장소에서 길을 잃으면, 어차피 주민들이 당신을 곧장 발견할 것이고, 경찰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했음.

북한의 수도 평양을 보고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로 숨긴 것일까 라는 것이었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양에는 약 4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도로는 오후 내내 텅 비어 있었음. 이따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둘러 가는 듯한 사람들이 보였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살아가는데, 8시간 일 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수면을 취한다는 원칙을 따른다'고 가이드는 말했음.

우연히 카드를 하며 원형으로 앉아있는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음. 노동시간에 카드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김일성의 규율을 어기는 행위였음.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도박, 게임, 복권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통역원 최씨는 이러한 행위를 '담배를 피는 대신 노는 것이다'라고 정당화시키려 했음.

하지만 카드 게임에 열중하는 그룹은 확실히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서두르지 않아 했고, 그들의 휴식 시간은 내가 박물관중 한 곳을 전학하고 온 시간 동안인 적어도 2시간 이상 지속됐음.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평양은 저녁이 되자 활기가 돌았음. 도로에는 무질서한 혼잡 대신 질서가 잡혀 있었는데, 전차나 버스 줄을 설 때조차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음.
- 평양에는 교통수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 버스'와 일반 트럭을 이용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트럭에 '승객'을 태우는 것을 덤프트럭으로도 한다는 사실이었음.
- 북한에서 일반 승용차는 적으며, 국가 혹은 공공기관 소유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승용차를 개인소유 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우 소유할 수 있음.
- 이들을 제외한 일반 북한 주민들의 개인 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것은 자전거인데, 대부분의 북한 성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면허증, 주민번호 없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었음.
- 북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대개 파란색 제복에 흰색 양말을 신은 여경들과 헬멧을 쓴 남자 경찰들이 있었음. 견장을 찬 경찰이 규칙을 어긴 사람을 잡아 주민번호와 면허증을 가져가는 것을 봤음. 듣기로는 북한에서 여성들은 자전거를 못 탄다고 함.
- 내가 본 대부분의 자동차는 중국과 일본산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신형이었고, 가끔씩 러시아차도 보였음.
- 평양에서 화려한 외관의 많은 고층 건물들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용접공과 미장공이 일을 하고 있었고, 아래층과 중간층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
- 15~20층짜리 새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엘리베이터의 90%는 전기 문제로 인해 고층으로 한번도 운행되지 않았음.
- '자본주의자들이 석유와 가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힘든 상황이다. 아파트에 전기를 아침, 저녁으로 2~3시간 정도 준다. 그럴때면 축제 분위기다'라고 평양 공원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내게 북한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생활용수도 하루에 2시간씩 주는데, 용수가 공급되면 물을 모아 아파트 내 모든 통이 꽉 찰 때까지 받아두는 식이었음.
- 평양 거주민 아파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화장실에 들어가 익숙한 자세로 변기 버튼을 누르려 시도했지만 아무 것도 없었음. 변기에 물탱크가 없었던 것임. 그 대신 물이 담긴 양동이와 나무통이 있었음.
- 고층 거주지 엘리베이터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고, 운행도 되지 않았음. '목욕탕을 비롯한 엘리베이터 등은 부르주아들의 전유물이고, 낭비다. 양동이로 부어서 씻을 수 있고,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 이것은 김정일 수령님께서도 하신 말씀이다'라고 가이드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웃으면서 말했음.
- 아파트 난방 시스템은 전통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난방기 대신 뜨거운 물로 바닥이 가열되는 방식임. 부엌에는 바닥에 설치된 특수한 작은 난로가 설치돼 있었음.
- 작은 난로는 연탄을 댔는데, 연탄은 가정운용 특별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배급된다고 함. 거의 대부분의 북한 아파트에는 보이는 곳에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 놓았음.



[손님으로 방문한 북한가정 :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가 눈에 띈다.]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거의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 있어서 똑같은 점은 발코니에 꽃들이 많다는 것임. 발코니는 개방적이고 유리를 끼우려면 인민반장의 특별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고 했음. 하지만 그러한 허가를 받았다 치더라도, 상점에서 틀을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상품이 없기 때문임.
- 외국인에게는 현지 상점 출입이 제한됐음. 식료품점을 들어가려던 나는 '살아있는 방호물'과 맞닥뜨렸는데, 상점에 들어서자 판매원이 일어나 손짓을 했음.
- 북한말을 모르지만 상점 내부 상품을 보는 것은 안된다는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음. 나는 가이드를 설득해 몇 군데 더 북한 상점들을 들렀음.
- 대형 상점들은 쌍둥이처럼 서로 비슷해 보였는데, 판매대는 텅 비어 있었음. 상품이 없는 상태를 감추기 위해 똑같은 타입의 천 실내화, 고무장화 등이 진열돼 있었음.



[구소련 시절을 연상시키는 상품품목 : 고무장화와 소년단원의 넥타이]

- 내가 아는 북한 지인들은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을 쿠폰과 카드로 분배한다고 했음. '필수품인 연료, 쌀, 고기 배급은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엄격한 관리 하에 이루어 진다'라고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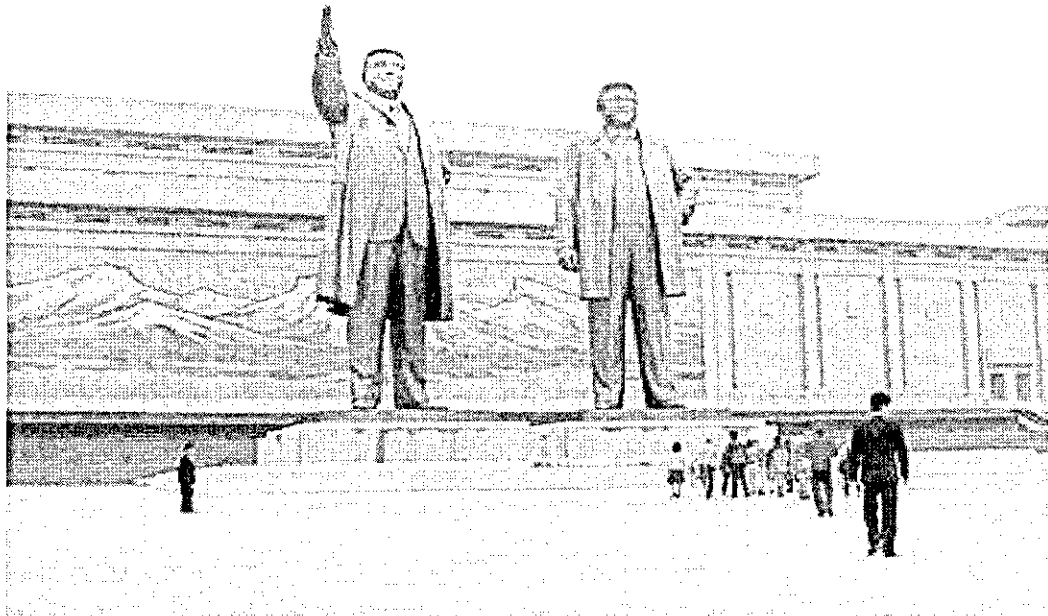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성인 1인당 평균적으로 매월 쌀 14kg, 고기 2kg, 계란 10개가 배급되는데, 배급량은 주민이 어떤 회사에 어떤 직책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음.
- 많은 상품들은 상점 혹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배분되며, 일반 전자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TV 혹은 라디오 수신기를 우수 노동자에게 주기도 한다고 함.

○ '김' 왕조 국가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5.16, segodnya ☞ 우크라이나 일간지)

- 최근 북한은 실패로 끝난 우주위성 발사, '자본주의' 국가들과 지속적인 충돌, 핵실험, 정치적 폐쇄성 등은 북한을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었음.
- 이러한 견지에서 'Segodny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삶을 엿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음.
- 블라디보스토크-평양發 '고려항공'을 탔을 때 스텐디스가 승객들에게 '코레야' 잡지를 나눠줬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에 김정일의 사진이 더 추가되어 있었음.
- 잡지 내용은 1960~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전히 제국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었음.
- 북한에 도착해 받은 첫 번째 인상은 도시 전체가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을 기리는 커다란 박물관 같다는 것이었음.
- 거대한 동상, 신전과 같아 보이는 묘 등을 볼 수 있었음. 북한에서는 헌법조차도 공식적으로 김일성 헌법이라 호칭함.
- 모두가 가슴에는 지도자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다니며, 이에 있어서 예외는 없음.
 - 흥미로운 사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려진 큰 배지는 북한의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노동당원들이 착용하고 다님.
 - 나머지 배지는 북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콤포몰레츠(공산당원)와, 그 밖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차고 다님.



[아버지와 아들 : 김씨 왕조는 반세기 넘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 북한에는 천도교 청우당과 조선사회민주당 등이 있지만, 이들 정당은 오랫동안 북한을 완전하게 지도하는 어머니뻘인 조선노동당에 의해 인정된다.
-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 조선사회민주당 혹은 천도교 청우당 당원이 되는 것은 세습처럼 이어지며, 만약 아버지가 청우당 당원이었다면 아들은 노동당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정당의 당원들은 실제 노동당 당원들보다 주체사상이라든지 북한의 지도자를 더욱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사회민주당 당원이나 청우당 당원은 모든 행사에 첫 번째 대열에 서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한다는 것을 광적으로 입증하려 한다고 함.
- 평양에서 북한 일반인들 사이에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 중 한명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음.
 - 꼬치구이와 소주를 먹고 있던 이들은, 술기운 덕택에 눈에 띄게 외국인에 대한 긴장감을 내려놓은 듯 보였음.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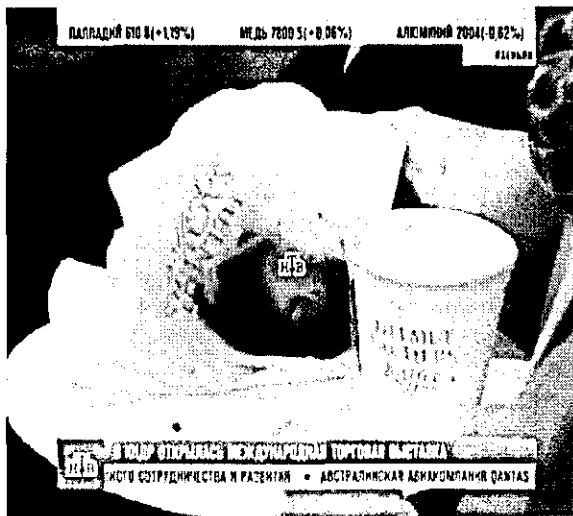
- 북한 주민들이 현 지도자인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북한인은 '매우 강하고, 겸손한 분이다. 할아버지를 닮았다. 자기를 싫어하는 이들을 총살을 시키지도 않았다'라고 대답했음.
- 그는 더 이상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내가 한 질문은 사실 바보 같은 질문이었음.
- 오늘날 북한은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라 할 수 있음. 자발적으로 무인도에 머무르며, 스스로 만들어 입고, 먹고, 나아가 드는 것임.
- 하지만 자주경제의 주체사상은 누가 봐도 국가를 교착상태로 빠뜨렸고, 모든 북한인들은 기근을 겪었음. 1995~1999년까지 북한에서는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수십만명이 사망했음.
-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의 전쟁 상태에 있음. 남북으로 나뉜 분단 상황은 남북한 모두에 문제가 되고 있음.
- 北, 국제 박람회 개최했다. (5.22 NTV ㉠ 방송사)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투자를 매우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함.
 - 북한 시장은 전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벌어들이는 수입은 엄청날 수 있음.
 - 이혁철(DVD 생산 합자회사인 Hana Electronics 판매 매니저),
 - '2011.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회사에 방침을 내리셨는데, 북한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전자 제품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 '그러한 덕택에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용 DVD 플레이어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



[박람회 개최 자료사진 1]



[박람회 개최 자료사진 2]



[박람회 개최 자료사진 3]



[박람회 개최 자료사진 4]

○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관광을 조명했다.

(1.10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신문)

- 현대 러시아인들은 어떤 극단적인 것들을 체험하길 원하며,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거나, 또 알고 싶어 하는 것임.
- 그리고 바로 북한을 관광하며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임. 북한의 지도자 교체와 관련, 러시아 여행사들은 향후 북한 관광을 늘리는 안을 적극 타진하고 있음.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또한 관광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든지, 관광 확대 및 유람선 관광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있음.
-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 관광을 계획하는 여행사는 그다지 많지 않음. 이는 북한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성, 관광 진행시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제한적인 조건들, 관광 루트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실상 관광객 수가 적다는 점에 기인함.
- 2011년 9개월간 연해주 지역을 통과,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226명인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75명이 줄어든 수치임.
- 사실상 원 수치는 이보다 더 많은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선 중국을 방문한 후, 연해주를 통과해 북한을 입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세르게이 알렉세예프(프레가트 아에로 여행사 대표),
 -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북한을 관광하기를 원하는 관광객 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관광객들은 우선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여행할 사람을 찾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여행도 지능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에 관해 읽고, 또 어떠한 제한사항이 따른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 ‘지난해에도 이러한 타입의 단체 관광객을 북한에 보냈는데, 사실상 80%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 ‘북한 관광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롭고 특징 있는 구성으로 짜여 있는데, 러시아 관광객들은 대개 전체주의가 지배했고, 어디를 가든지 감시의 눈이 따랐던 舊소련 시절의 향수를 느낀다는 어떠한 일종의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한다.’
 - ‘현재 북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혹은 비디오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자기기를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이용한 메시지 전달, 또한 개인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의 행위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관광하고 돌아온 관광객들은 모두 만족스러워 한다. 봄이 되면 또 1개의 그룹을 보낼 예정이다. 관광객 모집은 전 러시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관광비는 싸지 않다. 하루에 거의 70유로 정도가 소요 되는데, 비자를 받는데 10유로가 든다. 일반 비자를 받는 시간은 2주 정도 걸린다. 유람선 관광의 경우 주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측과 연해주-중국-북한 3國을 아우르는 루트를 개발 중이며, 주로 러시아, 중국 관광객이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하산-나진 구간 철도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통관 지점이 건설 중이다. 이 또한 지역 관광개발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 관광은 대부분 해수욕 휴가라든지 평양 방문이 주를 이룬다. 매주 Air Koryo가 출항하고 있다'라고 밝힘.

북한 황해도 지역 식량위기 관련 분석보도

지난 5.11~24일까지 아시아프레스(일본 언론 사이트)에서 '곡창지대 황해도의 식량 위기는 왜?'라는 제목으로 4회간 특별 연재한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특별연재] 단순한 '식량부족'이 아닌 이유 (5.11 아시아프레스)

○ '농민들이 굶어 죽어...' 현지주민 인터뷰

- 현재 북한 남서부 황해도지역의 주민들이 식량을 손에 넣지 못해 매우 곤궁해져 있는 것 같다.
- 북한 내부 아시아프레스 복수 취재협력자들과 3월에 중국에서 인터뷰한 황해도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현지 상황은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혼란에 빠졌음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제껏 '평양을 먹여 살린다'고 까지 불려진 북한 제일의 곡창지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전체 상황은 아직 명확하진 않으나, 현지점에서 밝혀진 정보를 통해, '곡창지대의 식량위기'를 분석하려 한다. (이진수¹⁸⁾)
-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3년 정도 전부터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역전 대합실은 남녀 노소의 꽃제비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3월 하순, 황해남도 40대 여성)
- '제가 사는 황해남도 ○○군에서는 농민들 사이에 영양실조가 만연해 아사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은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인육을 먹은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하순, 황해남도 30대 남성 농민)
- '황해남도의 농장간부에 직접 물어봤을 때, 농민의 생활은 정말로 참혹하며, 수확물은 군대가 갖고 싶은 만큼 군량미로 가져가 버리고, 군대는 농민의 살림은 안중에도 없다고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3월 상순, 현지 취재차 방문한 구광호 <임진강>기자)

18) 아시아프레스 북한취재팀

- '황해남도 해주시에서는 매일 아사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지로부터 온 사람에게 며칠 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어 함경북도의 식량사정은 황해남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두 끼는 함북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만, 쌀의 고장 황해남도에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5월 상순, <임진강> 함경북도 취재협력자 하수련)
- 이렇게 북한내부 사람들로부터 황해도 주민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늦어도 3월에는 식량사정의 악화가 이미 위기의 수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북한 당국이 내외에 널리 '축복에 휩싸인 풍요로운 북한'을 알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의 '4.15' 이후에도 상황이 호전될 조짐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
- 한편 다른 언론과 인도지원 단체로부터도 황해도 식량위기에 관련한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
- 미국의 RFA(자유아시아방송)는 4.4일자 기사에서 '황해남도의 농촌도 이미 식량고갈 상태', '한 농촌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아이가 아픈 부모를 내쫓는 등 말하기도 꺼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의 증언을 전했다.
- 또한 4.21일자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황해남도에서 2011.12월말부터 2012.4월 사이에 2만명이 아사', '현지 노동당 간부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사태가 개선됐는지는 불명', '하루에 천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낸 지역도 있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 덧붙여 한국의 인도지원 NGO인 「좋은 벗들」도 4.25일자 뉴스레터에서 노동당 간부의 증언을 통해, '황해남·북도에서는 풀도 남아 있지 않다', '난의 행군 시절보다도 참혹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 단순한 '식량부족'은 아니다

- 그렇다면, 왜 지금,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 식량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2.6.1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황해도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접촉도 용이하지 않다. 그렇듯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분석에는 제약이 있는 사실이다.
- 아시아프레스에서는 곡창지대에서의 기근 발생 원인을 김정일 사망 후의 내부상황과 황해도의 입지, 북한 경제의 조건과 역할 등에 비춰 다음 세가지로 생각한다.
 - (1) 농촌으로부터의 수탈 : 국가권력과 도시가 농촌을 착취, 수탈하는 경제구조
 - (2) 농업의 구조적 부진 : 2011년의 흉수, 집단 농업의 한계, 횡행하는 부정부패
 - (3) 정치적 인재(人災) : 김정일 사후의 통제강화와 정치적 낭비의 결과

□ [특별연재] 국가에 모두 빼앗긴 농촌(上) (5.14 아시아프레스)

○ 농촌으로부터의 '수탈 구조'란?

- 북한 제일의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량 위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의 위기'에 주목해야 한다.
-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농촌에서 왜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 주요 원인은 국가에 의한 '수탈'에 있다고 아시아프레스에서는 보고 있다. 적지 않은 황해도의 농민들은 이미 견딜 수 없는 곳까지 몰리고 있다. (이진수)

○ 빼놓을 수 없는 '우선배급대상'에 대한 배급

-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는 북한 시정(施政)의 특징으로 배급 제도가 있다. 전국민의 식량과 기본적인 생활물자, 주거 등의 의식주를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하려는 제도다.

- 그러나 그 실태는 괴멸 상태로 식량배급의 경우 90년대 이후 오늘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배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실정이다. 즉, 배급이라는 국가의 '배려'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셈이다.
- 현재, 식량배급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수령절대제, 일당독재라는 북한의 정치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룹에 한정돼 있다.
 - 구체적으로는 노동당과 행정기관의 간부, 인민군, 보안원, 보위부원, 군수사업, 우량광산 및 탄광 등 기업소의 직원과 그 부양가족, 그리고 평양시민들이다.
 - 행정운영담당, 치안과 질서를 지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집단, 지하자원의 수출로 외화를 버는 노동자,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쇼윈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양 시민 등으로 각각 특징을 띠고 있다.
-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급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전 인구의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¹⁹⁾되는 농민이 생산하는 곡물이다.
- 그 중에서도 쌀의 최대 생산지인 황해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인민군과 평양시민이 소비하는 '군량미'와 '수도미'이다.
- 인민군대는 119만²⁰⁾(추정치), 평양 시민은 200여만명²¹⁾(추정치)라는 큰 규모의 집단인데다 군인과 평양시민 모두 자체적인 식량생산수단이 빈약해 자급할 수 없기 때문에, 황해도로부터의 공급에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농촌에서 생산한 것을 도시의 주민과 국가기관에서 소비하는 구도이다.

○ 우선은 군량미와 수도미

- 북한의 농업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집단농장(북한에서는 협동농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농장에는 해마다 생산계획이 할당된다.

19) 한국통계청 '북한통계(2011년)'에 의함. 정확하게는 36.8%(2008년)

20)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2010년)'에 의함.

21) 2008년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유엔기준에 의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평양시 전체 인구는 약 325만명임. 그러나 그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간다. 국가 전체의 인구를 봐도,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최소 1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총인구가 2,405만명으로 지난 1993년 조사 당시보다 284만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치'이다. 게다가 그 후 평양시는 면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한층 더 줄어들고 있다.

이 계획의 달성이 농장의 목표이고, 그 여부가 농장간부와 농장 전체의 평가 기준이 된다. '군량미' 및 '수도미'로서 공출해야 할 분량도 미리 이 생산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옥수수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 옥수수 사이에 콩을 심는 중이라고 한다. "올해 분배는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고 싶어도 농장에 작물이 없어 주지 못한다"는 설명을 간부한테 들었다"고 대답했다. 2010년 6월 <림진강> 김동철 기자 (C)아시아프레스

- 문제는 '군량미'와 '수도미'도, 그 공출량이 해마다의 수확량에 따라서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경지면적과 과거 실적에 따라 미리 결정돼 있다는 점이다.
- 예를 들어 수해 등 자연재해나 전력 부족 등 농장 차원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금년의 수확량이 줄었다고 해도, 국가는 받아가야 할 것을 해당 농장의 농장원(농민)보다 먼저 가져가는 것이다. 당연히 농민의 몫은 줄어든다.
- '국가에 대한 공출 할당은 의무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낮고 부족할 경우 농민이 받는 분배가 줄어들게 됩니다. (황해남도 40대 여성)
- '분배'란, 한 해의 노동의 대가로 농민에게 배분되는 몫을 지칭하는 말이다. 가을의 수확기에 나눠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개 곡물로 주어지지만 농장에 따라서는 현금이 동시에 지불되는 곳도 있다.

- 하지만, 이 '분배'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은 산이나 자택 주변에 꾸린 '개인 밭'에서 경작한 부수입으로 간신히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 최근 몇 년 황해도 지역에서는 비료와 농약의 부족, 집단농업제도의 한계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생산이 침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언급한대로 필요한 분량을 먼저 국가가 갖고 가버리는 일이 농민의 생활을 압박해 온 것이다.

○ 그래도 부족한 '군량미'

- 이렇듯 최근 몇 년간 농민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국가에 의한 '수탈'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군량미'의 징발이 특별히 눈에 띈다.
- 경제가 파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구의 5% 전후인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즉 돈이 없어, 분수에 안맞게 덩치만 커진 '비생산집단'을 부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인민군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 농장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수확물을 모으고 있을 군대에서 충분히 식량이 퍼지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에는 '부정유출'이 있다. 원래 말단 병사에게까지 배급돼야 할 식량이 군 간부 등에 의해 시장으로 팔려버리는 것이다.
- 식량배급이 없는 일반 주민은 주로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사서 먹기 때문에 군대의 간부는 '부정유출'을 해서 부업을 하지 않아도 귀중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 그 결과, 말단 병사에게 가야 할 식량이 시장에 유통돼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하지만, 김정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선군정치'를 내건 북한은 부정유출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으로 군 간부의 물질적 불만을 달래면서도, 군의 영양실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때문에 군량미 징수를 증가시켜 사태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2011년 7월 평안남도에서 촬영된 영양실조로 허약해진 병사들의 모습. 후방에 이송 중인 공병부대다. 건설에 중사하는 부대의 영양상태는 특히 열악하다. 촬영: 구광호 (C)아시아프레스

- 그 예가 2011년 연초부터 봄까지 농민이 아닌 주민에 대해 이루어진 군량미의 징발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1인당 수 kg의 식량이 의무 할당됐다.
-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시장 관리원이 그 자리에서 군량미 공출을 가차없이 요구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농촌 이외의 대상에게 군량미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 [특별연재] 국가에 모두 빼앗긴 농촌(下) (5.15 아시아프레스)

○ 식량위기발생은 '인재(人災)'

- 농촌에서 아사자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국가에 의한 '수탈'에 있다. (이진수)

○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이중수탈'

- 아시아프레스가 취재한 바로는 올해는 아직 작년처럼 상인이나 도시 주민으로부터의 군량미 징발이 확인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군량미는 이미 충분한 것일까? 그렇지 않고 '빼앗는 대상'을 바꿨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다.



수확이 끝난 옥수수농장에서 이삭을 줍는 여성. 2008년 10월 촬영 : <임진강>
심의천 기자 (C)아시아프레스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임진강>의 구광호 기자로부터 보고되고 있다. 2월에 황해남도의 농촌지역 몇 군데를 취재 했을 때 목격한 광경이다.

‘본래라면 말리고 있어야 할 수확된 벼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현지의 농촌 간부에게 물었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농민에게 도둑맞아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軍이 수확 후 곧바로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분배’가 하나도 없는 농촌도 있다.’

이런 상황이 황해도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는 현시점에서 정보가 충분치 않다. 하지만, 불과 일년 만에 군량미 부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로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의 모습이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루어진 군량미 징발이 도시 상인 등 농민 이외의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던 군대가 수확 직후의 농촌에서 모조리 가져가는 수단을 취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2012.6.1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그리고 농치지 말아할 할 부분이 '수도미'의 징발수요 증가이다. 평양에 사는 구광호 기자에 의하면, 2011년 여름 무렵부터 평양시내에서는 식량배급이 일시적으로 정상화 됐다. (현시점의 평양시내의 정확한 배급상황은 불명확하다).
- 올해 4.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춰 평양 시민의 충성심 만이라도 얻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걸쳐 무리하게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부담 역시도 당연히 황해도의 농촌에 덮쳤을 것이다.

o 모두 빼앗긴 농촌

- 이러한 기존의 공출과 더불어 이중 공출을 요구하는 구도는 지난 1~2년 동안 황해도의 식량사정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말, 황해남도 농촌으로부터 중국을 방문한 한 현지주민은, 군대의 가혹한 군량미 징발에 대해 오열하면서 이렇게 증언했다.
 - '가을이 되면,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확보하려고 수확물을 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 '훔친 것을 땅에 판 구멍이나 집안에 숨깁니다만, 징발을 위해 마을에 온 군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것마저도 전부 가져가 버립니다. 1월인데도 벌써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농촌으로부터 '군량미'로 공출된 옥수수들 길가에서 말리는 병사. 이때부터도 일부에서는 건조나 탈곡도 되기 전의 곡물이 일부 공출되고 있었다. 2008년 10월 촬영 : <림진강> 심의천 기자 (C)아시아프레스

- 100만이라고도 300만이라고도 추정되는 아사자를 낸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곡창지대인 황해도는 함경도 등에 비해 적은 피해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 황해도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함경북도에서는 대규모 식량 위기가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 즉 지금까지 황해도의 농촌에서는 할당된 '군량미'나 '수도미'를 어떻게든 내왔다. 하지만 최근 국가에서 요구하는 군량미의 공출량 증가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결국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 장사로 생계유지를 시도할 수 있는 도시 주민과 달리, 현금 수입을 얻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농민들이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국가가 농촌으로부터 갖고 갈 만큼 갖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 현재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을 이해하려할 때 중요한 것은 식량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농업의 부진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무계획적이고 도를 넘은 수탈이 농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 이것이 필자가 식량위기발생의 이유를 '인재(人災)'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 [특별연재] 농업 부진의 구조 (5.24 아시아프레스)

○ 농장간부 '농업이 잘 되지 않을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

- 지금까지는 황해도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량위기가 인재(人災)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수확물을 수탈해가는 국가와 농촌의 관계를 분석했다.
- 다음은 '북한 농업의 현재'를 분석한다. 북한 당국의 무계획과 집단농업제도의 폐해에 의해 농업부진은 극에 달해 있다.

- <임진강> 구광호 기자가 인터뷰한 황해남도의 한 농촌간부는 '농업이 잘 되지 않을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
- 황해남도는 북한 제일의 곡창지대로 대부분은 쌀이, 그 밖에 옥수수와 보리 등이 재배되고 있다. 북한의 농업 시스템은 농민과 토지를 협동농장에 조직한 집단농업이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이나 舊소련과 비슷한 조직구조라 생각하면 된다.
- 최소 단위는 8~20명씩의 '분조'이며, 그것이 몇 개씩 모여서 '작업반'이 된다. 작업반은 축산·농산 등의 품목이나 농기계, 수리 등 분야마다 조직돼 있고, 농장 전체를 협동농장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장'이 통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농장은 대체로 '리'라고 불리는 마을(행정단위)을 형성하고 있다.
- 농업부진의 이유 #1 : 산림황폐로 수해빈발



정상까지 개간된 산. 나무가 거의 없다. 2010년 5월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국 측에서 촬영. 촬영:이진수

- 2011년 여름, 황해남도 일대에 대형 태풍이 덮쳐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갔다. 국영미디어인 조선중앙통신은 2011.8.1일 수해의 규모에 대해 '주택 2,900여동이 완전파괴, 수십명 사망, 농지 595평방킬로가 침수 및 유실됐고, 8,000여명의 주민들이 가설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은 북한 농경지의 약 3%에 해당한다.

※ 한국 통계청 '북한통계(2011년)'를 토대로 산출. 북한의 경지면적은 약 191만ha. 수해피해 규모가 북한 발표와 같은지 여부는 불명

'2011년 수해의 영향은 컸습니다. 연안부의 논밭은 대부분 떠내려갔습니다. 초봄, 꽃이 피는 시기에 비가 겹친 적도 있어 작년 생산은 특히 나빴습니다.' (황해남도 40대 여성)

장마철의 집중호우는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북한에서 매년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 원인은 구조적인 국토의 황폐화에 있다.

북한 대부분의 서민은 비싼 석탄 대신 장작을 일상의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이용한다. 장작은 다름 아닌 산의 나무를 벌채한 것이다. 산에 들어가 땀감용 나무를 매고 내려오는 주민들의 모습은 <임진강>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도 많이 등장한다.



땀감용으로 쓸 나무를 짊어진 여성. 땀나무는 어른 키 이상의 길이이다. 땀감을 팔면 장사도 된다. 산에서 내려 온 곳. 2008년 9월 황해남도 해주시 교외. 촬영: 심의천

또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거나 현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마을 근처의 산 경사면은 대개 농지로 개간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산은 북한 주민이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 빠트릴 수 없는 자원이다. 하지만 그 자원은 유한하다.

- 남벌과 무계획한 개간의 영향으로 9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민둥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년간에 모든 산림의 30%가 소실됐다는 유엔기관의 보고도 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12.4월에 발표한 '세계산림현황 2011'에 의함. 산림면적은 1990년의 820만ha에서 566만ha로 줄었다. 이러한 보고서도 벌채된 나무의 대부분이 연료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나무가 없어 산의 보수력(保水力)이 저하돼, 약간의 비에도 수해가 발생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농업부진의 이유 #2 : 전력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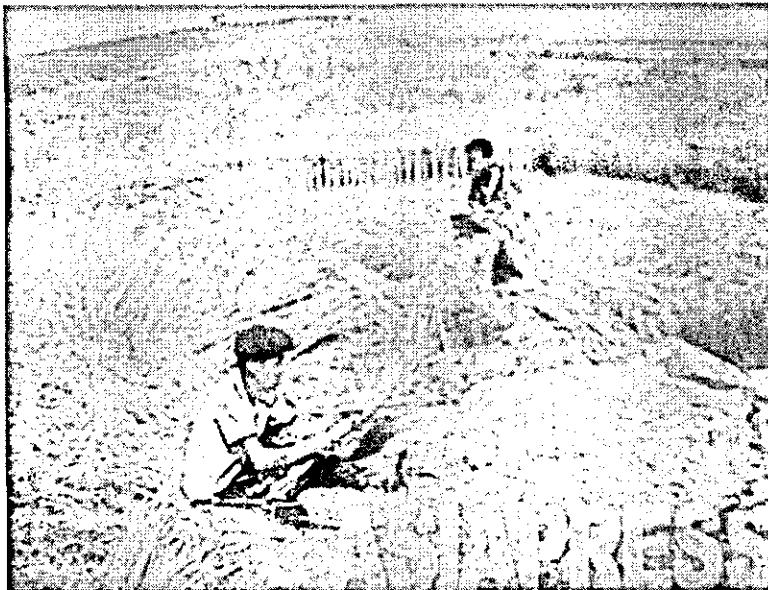
- 심각한 전력난도 곡물생산에 말 그대로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가고 있다. 전력사정은 1990년대 이후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빛이 없는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증언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전기의 공급은 설날, 2월 김정일 생일, 4월 김일성 생일 외에는 5월의 농업 준비기에 조금 있을 뿐입니다.' (황해남도 40대 여성)
- '전기는 보안부, 보위부, 병원 등에는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에는 3월까지 아침, 저녁 식사시간에 2시간씩 공급된 정도입니다. 양초도 비싸서 사지 못하므로 밤에는 일찍 자든가, 기름을 스며들게 한 솜으로 램프를 대신합니다.' (황해남도 30대 농민남성)
- 전력부족에 의해 펌프가 움직이지 못하자, 논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도 곤란해지고 있다.
- 수력발전은 겨울철에는 하천이 얼어붙기 때문에 현저히 발전량이 떨어지는 데다 계절에 따라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 한편 화력발전은 국내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양질의 석탄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지만, 최근 몇 년은 외화 벌이 때문에 대량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해 국내 수요분이 부족한 상태다.

- 전력부족은 황해도뿐만 아니라 평양 중심부와 나선특별시 등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심각하다.
 - 예를 들어 5월초 현재 함경북도 회령시 일대에는 중심부를 제외하고 전기의 공급이 거의 없다고 현지의 취재협력자가 전해 오고 있다.
- 농업부진의 이유 #3 : 닿지 않는 비료, 농약, 영농자재
- 5.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국에서 모내기가 일제히 시작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모내기의 중요한 시기에 나누어 줘야 할 비료가 크게 부족하다.
 - 북한에서는 원래 국내의 화학공장에서 생산된 비료를 협동농장으로 할당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전력난이 심해지자 원료도 부족해져 비료생산이 계속 저조하기 때문에 유통되는 화학비료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원래라면 겨울부터 봄 사이에 협동농장마다 생산계획에 근거해 할당된 비료가 도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입비료를 황해도 필요량에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부정유출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몇년전부터 농장에는 비료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까지 오는 사이에 부정유출(횡령)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황해남도 40대 여성)
 - 질소와 요소 등의 원료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황해도 시장에서는 kg당 4,000~8,000원으로 화학비료가 팔리고 있다.
 - 이것은 원래 작업반마다 배분된 것을 중앙 및 道の 간부,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 등 중간 간부가 횡령해 시장에 부정유출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료 없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농민들은 그것을 구입하게 된다.
 - '나누어 주는 비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장마당에서 농민들이 제 돈으로 사야 합니다.' (황해남도 30대 농민남성)

- 국가로부터 농장에 공급되어야 할 비료를 간부들이 횡령한 다음 농민에게 강제로 사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농민 입장에서는 '비료부족=수확량 저하'라는 문제에 대해 비료를 구입해야만 하는 식으로 떠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는 결국 현금 부담이 늘어나 생활을 이중으로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농약과 비닐, 트랙터 등의 영농자재도 크게 부족해, 농민의 자기부담이 강요되고 있다.

- 농업부진의 이유 #4 : 농민의 '의욕'저하

- 북한에서는 농민을 업신여겨 '농포'라고 부른다. '농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북한의 농업은 '세습제'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아이는 반드시 농민이라는 봉건시대와 같은 신분제도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러지 않으면 농장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벼를 수확하는 농민들. 아버지와 아들로 보인다. 농민의 아들은 농민이 아닌 집
에 시집가든지, 공부나 스포츠에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대를 이어 농민이 될 수
밖에 없다. 2008년 9월 황해남도 과일군. 촬영 : 심의천

-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이 힘들고 생활이 가난한 농민이 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군인이 제대할 때에 농장에 강제적으로 배치되는 일도 적지 않다. 농민자신도 '농포'라고 자조할 정도니 그 지위는 사회에서도 최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2012.6.1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그 농민들로부터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은 삼중고, 사중고의 악조건이 의욕을 빼고 있다.

‘예를 들어 봄에 우박이 내리고 벼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도 그것은 그뿐, 다시 일으켜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기력도 농민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년 내내 농사일을 했는데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의욕이 나오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황해남도 농장간부)

그 때문에 농장원들은 가능한 대충 일하려고 한다. 작업 능률은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다. 다른 현지 주민은 ‘농민은 일하지 않고, 농번기 지원에 동원된 학생과 주부가 일하고 있다. 농민은 참견할 뿐이다’라고 그 모습을 전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농장 간부는, ‘부족한 비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의 새벽 2시에 일어나 퇴비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 두 끼의 부실한 식사로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날 기력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라고 구광호 기자에게 말했다.

배고픈 것은 인간뿐이 아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한 소도 충분히 사료를 먹지 못해 뺨뺨 말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황해남도 40대 여성)

황폐하고 자연재해에 약해진 국토, 경제파탄에 기인한 전력과 영농자재의 절대적 부족, 집단농업의 비효율성, 간부의 부정 부패, 부담을 강요당하는 농민의 노동의욕 저하 등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농업은 생산부진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를 정면으로 받은 농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경희 관련 일본 언론 분석보도

지난 6.2~3일 일본 언론 '산케이신문'과 '뉴스포스트 세븐'에서 각각 보도한 북한 김경희 관련 분석보도를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김정은의 어머니는 누구? 보이기 시작한 신체제의 권력구조

(6.2, 산케이신문)

○ 김경희는 김씨 일가를 통합하는 어머니역

-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최근 동물원과 유원지, 소년단 초청 행사 등으로 바쁘다. 이는 '인민애'를 강조해 '어버이'라고 불린 조부 김일성의 지도자 이미지를 흉내내는 신격화 작업으로 보인다.
- 각 국의 정보기관 및 전문가들의 관심사는 '누가 김정은을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 김정은이 제1비서에 취임한지 두 달째가 되는 지금 권력의 핵심은 고모인 김경희라는 견해가 급부상하고 있다.
- 김씨 일가는 김일성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쳐 늘어나고 있고, 직계를 비롯한 친족과 딸린 식구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김정은이 3대째인 것과 마찬가지로 친족들도 세습하고 있다. 그들은 이른바 '태자당'을 형성하고 있다. '태자당'은 일족과 더불어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부터의 중진의 자제도 포함되어 있다.
- 신체제하에서 북한 권력층의 관심사는 오로지 특권 계층의 人事이다. 또한 '이 그룹의 이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나중에 반중앙과 분파의 최대요인이 될 수 있다(강인덕 前 통일부장관)'고 추정되어 왔다.
- 복수의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김씨 일가의 이해조정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김정일과 가장 가까웠던 김경희라고 한다. 김경희의 공식 직책은 黨정치국원, 黨비서, 대장으로 4.15일(김일성 생일 100주년 행사)의 서열은 6위이다.

2012.6.1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경희는 실제로 정치에 대한 야심이 작은 인물이다. 그러나 일가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김경희 밖에 없다. 그녀는 하루 2~3시간 정도만 일하는 스타일이다.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현재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고 있다(정보통)'고 한다.
- 일본의 북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희는 김정은의 어머니역을 맡고 있다'고 한다.
- '김정일 사후, 일가의 어머니역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경우 친모인 고영희가 재일교포 출신으로 지도자 어머니로서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친모의 존재자체가 이미 삭제되었다. (정보통)'
-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는 권력 공동체이다. 체제 내부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이며 공동체의 중심인 김정은을 '어머니'가 지탱하는 구조라고 한다.

o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을 둘러싼 정보전

- 한편 표면적인 무대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최룡해이다.
- 최룡해는 당정치국 상무위원 외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 국방위원과 軍의 넘버2로도 발탁돼 서열 4위이다.
- 김정은이 軍을 시찰할 때에도 동물원을 시찰할 때에도 수행 인원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최룡해이다.
- 참고로 최룡해는 원래 당 관료였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黨의 최고 직위, 軍 감시조직의 최고자리에 앉았다. 후견인으로 가장 유력시되었던 장성택을 뛰어넘은 것이다.
- 최룡해는 원래 장성택의 부하였던 인물이다. 1980년대 장성택은 조선노동당 청년사업부 부부장으로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했는데 당시 장성택派의 한 명이었던 최룡해였던 만큼 이번의 역전 인사는 주목을 받고 있다.

요즘 들어 장성택과 관련된 평양發 정보는 장성택의 권력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들로 갈라져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첫 번째는 장성택에 관한 악평이다. '이미 최측근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 '그는 결단력이 없으며 측근들 사이에서의 구심력도 떨어졌다', '김경희와의 사이도 나쁘며 냉대받고 있다'는 등의 설이 있다.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실은 장성택이 최측근'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에 따르면 최룡해와의 역전된 인사는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

김경희가 전담하고 있는 권력 핵심 부분에서 부부가 모두 후견인으로 전면에서 나섰을 경우 주변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내, 군내를 도맡는 김정은의 지도자 역할을 최룡해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속속들이 아는 최룡해라면 장성택도 조정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해설이다.

장성택은 당정치국원, 당군사위원, 당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대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서열 8위이다.

당행정부장으로 통괄하고 있는 인민보안부는 신체제 출범과 함께 3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주민의 신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전권사항이었던 여러 조사권도 장성택이 쥐고 있으며 권력에 흔들림은 없다는 등의 정보도 있다.

이러한 핵심층의 모습이 정책결정과 노선변경에 어떻게 연관될 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술취한 김경희, 도청알면서도 심야에 김정남과 장시간 통화

(6.3, 뉴스포스트 세븐)

○ 최룡해의 대약진

- 4.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군사 퍼레이드' 때 단상에 나타난 김정은의 옆에는 지금까지 거의 노출되지 않았었던 최룡해가 있었다.
- 장성택의 최측근이었던 최룡해는 4.11일 당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돼 당 간부 서열 3위, 군부서열에서는 넘버2라는 대약진을 이뤄냈다.
- 상사였던 장성택을 밀어낸 이 인물은 대체 누구의 의도였나? 최룡해에 대한 人事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북한의 권력투쟁 구도를 간사이 대학의 이영화 교수가 해설한다.
- '상황이 불안정해 보인다', '누가 지배하고 있나? 장기적 목표가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다'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를 위와 같이 평가했다.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다.
- 김정은은 29세이며 정무에도 어둡다. 이름뿐인 '최고지도자'가 내정과 외교를 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렇다면 정치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인물은 북한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내던진 중대한 2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북한 분석을 할 수 없다.
- 일단 결론부터 말하겠다. 필자가 입수한 내부정보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권력기구 중심에 있는 인물은 김경희임에 틀림 없다. 이것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 확실하지 않는 것은 그늘에 숨은 김경희가 가슴속에 품은 '장기적 목표'이다. 생각 중이거나 애당초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는 확실하다. 권력욕에서 나온 '정권구상'이다.

2012.6.1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물급 간부를 배척해 자신의 측근 세력을 조기에 세우는 작업, 즉 새로운 권력투쟁의 시작이다.
- 내려진 발 뒤편에서 김경희가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김정은)을 조정한다. 이렇게 자파세력 중심의 조정을 세워 국가의 대권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것이다. 조선왕조 시대에 자주 등장한 정권장악의 술책, 북한판 '수렴정치'라고 불러도 될 정도이다.

○ 김경희의 '정치구상'

- 김경희의 강한 기개는 일찍부터 유명하다. 김경희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다음해(2010.9월) 여성으로 군 복무 경험도 없음에도 '대장'에 임명됐다. 참으로 무서울 것 없는 '여장부'이다.
- 김경희의 강한 성격에 대해 필자는 놀랄 만한 에피소드를 들었다. 김정일 전격방중(2006.1월) 직후의 일이었다.
- 김경희는 당시 베이징에 장기 체류중인 김정남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김경희가 술에 취했던 한밤중이었다. 김정남의 전화는 각국 정보기관에 도청당한다.
- 김경희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치 '잘 들어라'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장시간 통화였다.
- 대화 화제로 김정은이 등장했다. 고모가 본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신랄했다. '참을성이 없다', '타고난 난봉꾼' 등이었다.
- 김경희는 이런 변변치 못한 조카의 후견인을 자진해서 맡았다.
-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김경희는 후견인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급사한 김정일의 대역으로서 김경희가 김정은과 '2人 3脚'을 하게 된다.
- 구체적인 징후가 김정일 장례식 때 드러났다. 출석자 명부에서 김경희가 노동당 정치국원 가운데 맨 앞에 있었으며 공식 서열상에서도 5번째로 이름이 불렸다.(장성택은 16번째)
- 또한 미사일 실패 전날에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의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를 장악하는 '조직담당비서'에 취임했다.

2012.6.1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실질적인 권력서열로 말하자면 김경희가 2위에 앉은 것이 된다. 이는 김정은 후견체제에서 앞으로 일어날 지각 변동의 징조이다.
- 김정은의 후계내정(2009.1월)이후 김정일의 지시로 표면적으로는 '거국일치(파벌균형형)'의 후견체제가 구축됐다.
- 그러나 김정은 후계에서 재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인 장성택과 신군부 '삼총사(리영호, 김영철, 김정락)'의 동맹세력이 수면 하에서 권세를 부렸다. 그 탓에 舊 군부 2派(오크렬, 김영춘/현철해, 리명수) 등 다른 파벌은 기반을 크게 잃었다.
- 그럼에도 현재는 사망한 김정일의 지시대로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각 파벌의 실력자가 모두 승진했다.
-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국일치'의 파국이 뻔히 보인다. 舊 군부 원로그룹은 형식상은 승진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력구도의 구석으로 쫓겨난 형태이다.(오크렬은 정치국원 후보이고, 현철해는 정치국원)
- '파벌균형형'이든 '신군부 주도'이든 김정은 후견체제는 근본적인 변화기에 들어섰다. 최종목적지는 김경희의 '수렴정치'이다.

최근 북한 사회 관련 서방 언론 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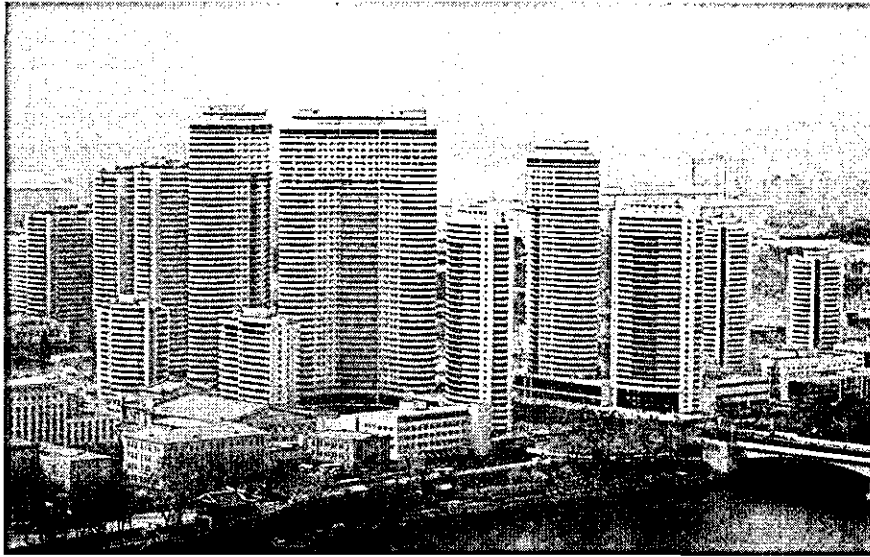
최근 북한 내 각종 행사 참석, 관광, 사업 추진 등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북한 사회변화와 관련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한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미국

○ 4.12~25일 고려여행사를 통한 북한 투어 여행기

(4.27~6.3, American in North Korea 블로그 / NK News)

- 우리는 가이드들과 자유롭게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들은 1990년대 말 심각한 기근을 겪을 때 美 정부가 식량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식량지원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냐는 질문을 하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 정부에 대한 일반 북한사람들의 여론을 바꿀 만큼 식량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함.
- 더 놀라운 사실은 가이드들이 2000년대에도 미국이 식량지원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임.
- 식량 상황은 1990년대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알려지지만 평양 이외 지역에는 식량이 부족하고 배급이 줄었다고도 알려지고 있음.
- 우리가 방문한 함흥, 남포, 원산의 주민들은 건강해 보였지만 이동시 산간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도 보였고 가이드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고 질문하자 모른다고 대답함.
- 2011년 여름 방문시 평양은 자정까지 켜져 있는 호텔과 대형 기념물을 제외하고 밤 9시면 정전이 되었었음.
- 이번 김일성 100회 생일 축하기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의 불을 밝히기 위해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 평양 외곽의 공원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남포시로 가는 주요 도로를 거쳤는데 석탄을 가득 실은 평양 발전소행 덤프 트럭들이 남포 쪽으로 끝도 없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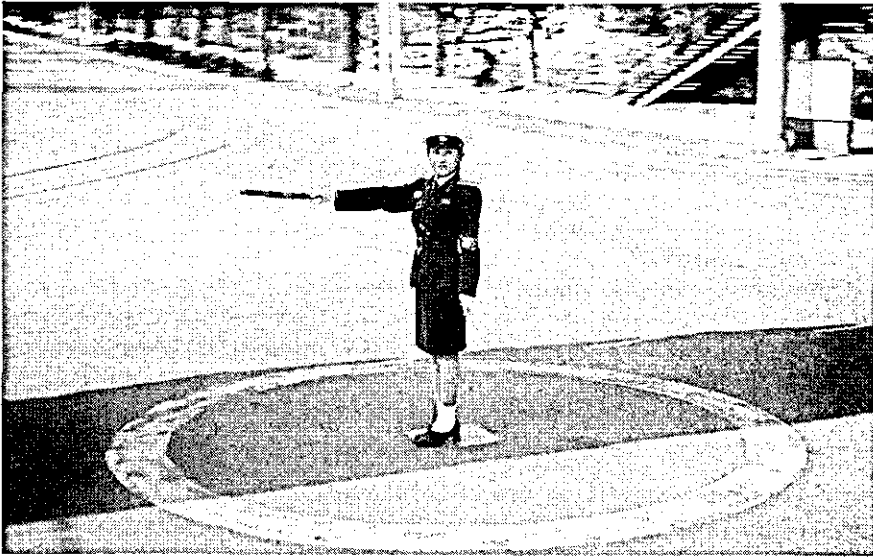
[평양 만수대지구 아파트단지]

만수대지구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00일 만에 완공했다고 알려지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걸렸다고 들었으며 그래도 굉장히 빠른 기간에 완공한 것임.



[만수대 지구 라이트 쇼 장면 / 작년 여름 평양 방문 시 전기부족으로 밤 9시면 정전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변화이다.]

2011년 여름 방문했을 때 평양 교통 안내원들이 현대식 신호등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고 무척 슬펐고 가끔 길가 신호등 스위치를 작동하고,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잦은 정전 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도심 교차로에서 교통 정리하는 모습을 못 봐 섭섭했는데 올해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다시 등장함.



[2010.9월에 사라졌었던 평양 교통안내원들의 부활]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 올 봄 평양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김일성 광장의 김정일 초상화임.



[김일성 광장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김정일은 김일성 이상화를 추진한 장본인이지만 생전 자신의 이상화는 절제했었음.

하지만 김정일 사후 북한 전역에 김정일 초상화와 동상이 출현하기 시작함.



[올해 북한에서 대유행인 휴대폰. 작년 8월 방문했을 때는 거의 보지 못했다.]



[평양시 낙원백화점]



[북한군의 나무 가스발생 방식의 화목연료 트럭]
(wood gasification truck)



[함흥시 등 동해안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 가스발생기 장착 화목연료 트럭]



[원산-평양 도로에서 장작을 가득 싣고 가는 군부대 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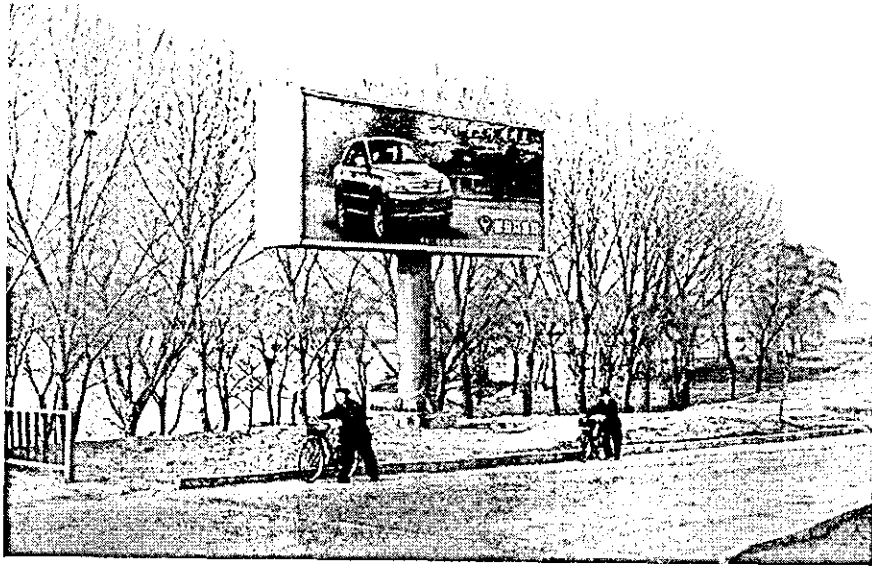


[1라운드당 5유로에 사격장 끝에 있는 우리 안 새들을 사격할 수 있는 평양의 사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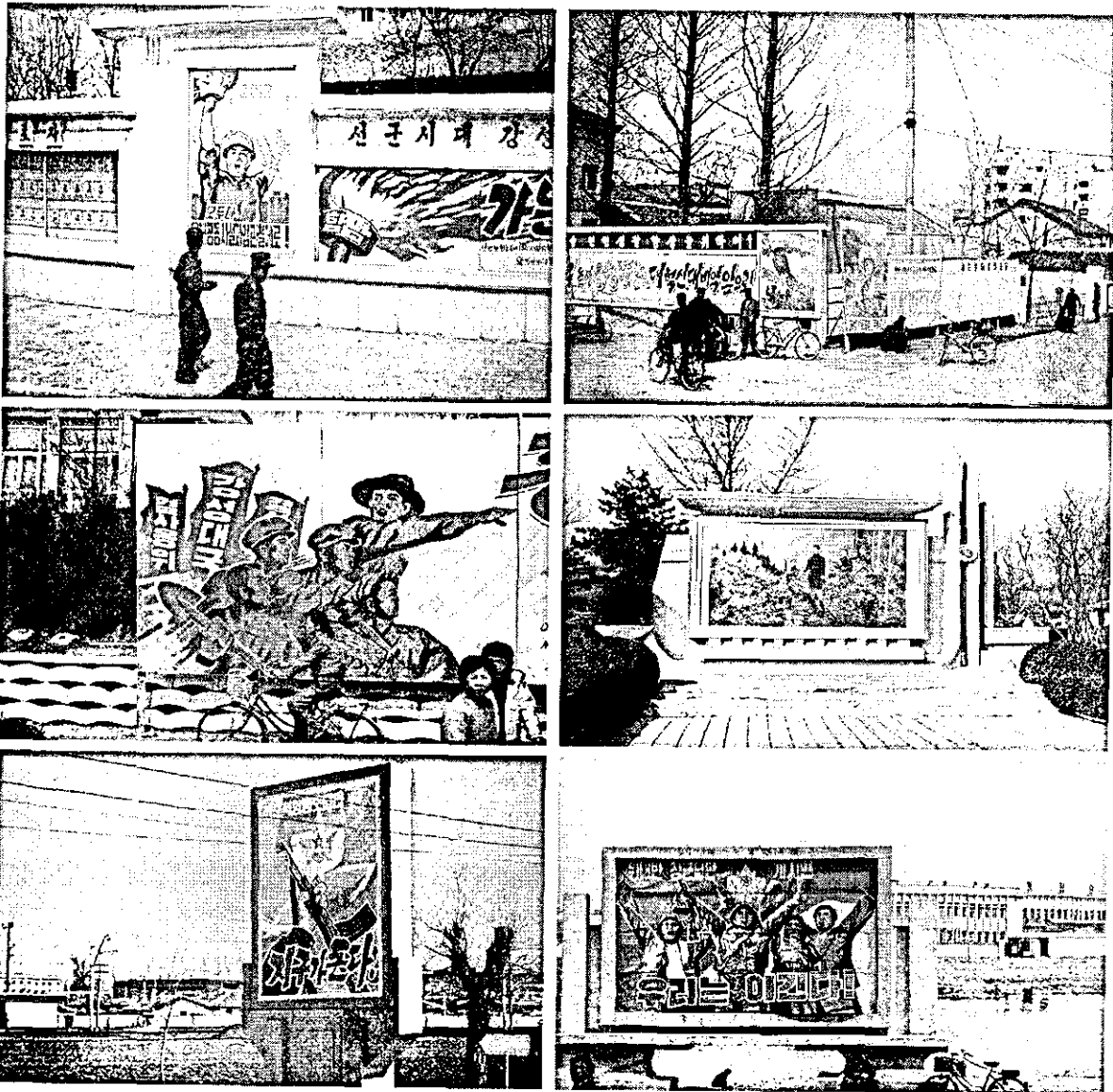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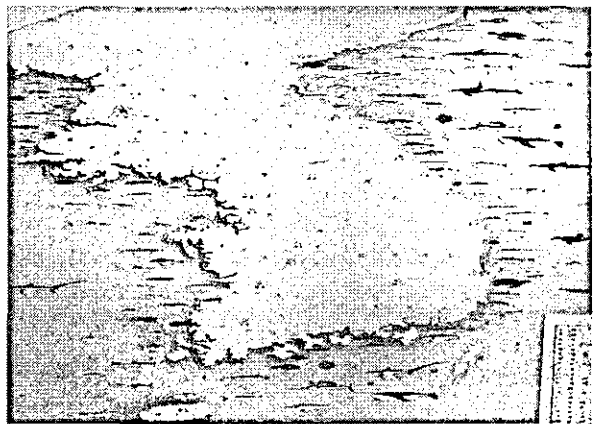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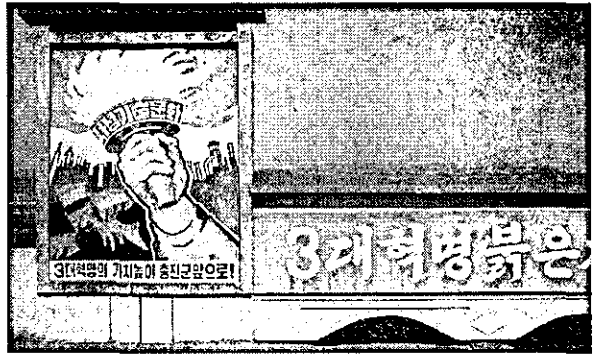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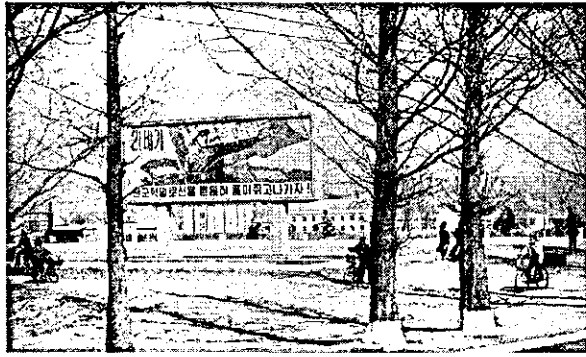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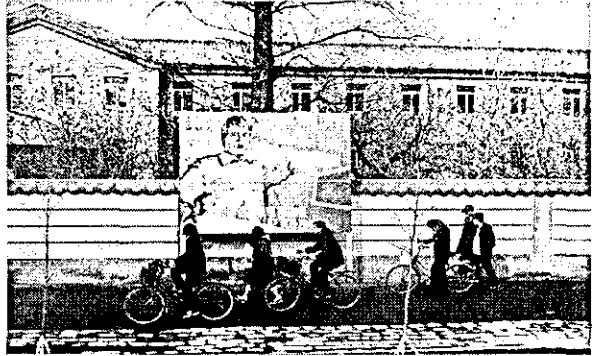
[작년에는 비쩍 마른 닭 한마리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통통한 꿩들로 가득했다.]

[평화자동차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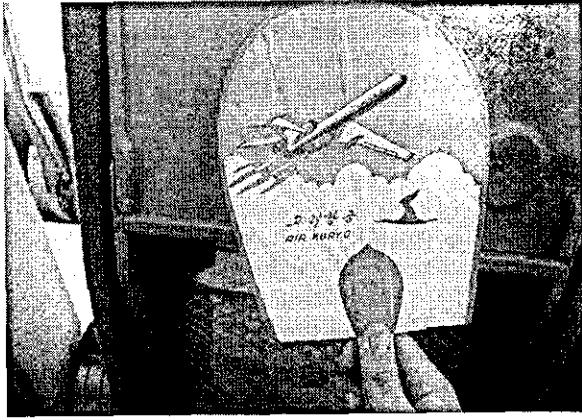


[북한의 각종 선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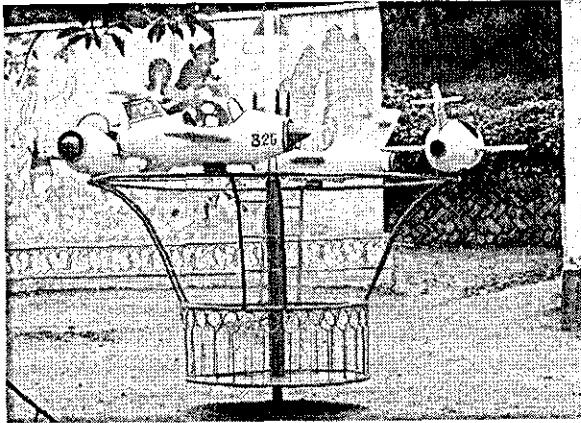
[원산 송도원 어린이 캠프 박물관에 있던 지도]



[고려항공 기내에서 제공하는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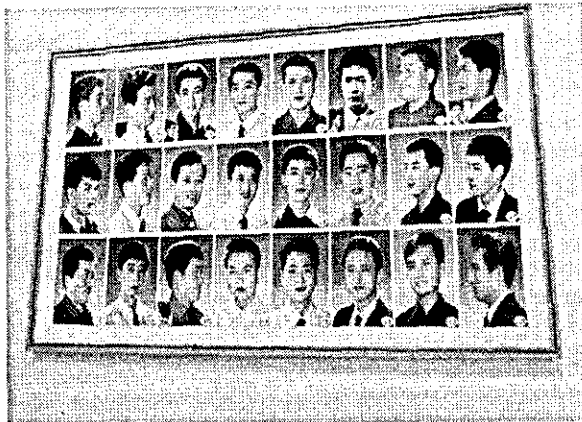
[기차역 플랫폼 부근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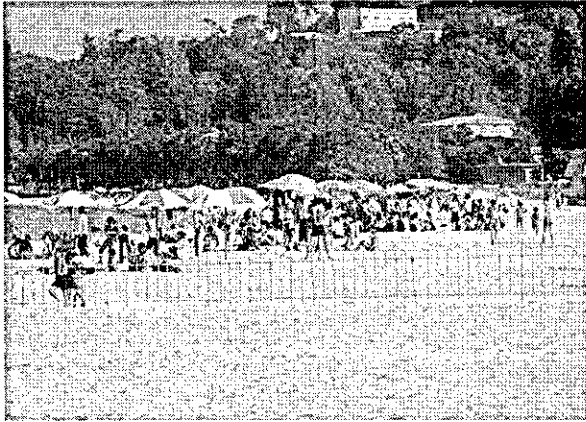
[북한 놀이터의 놀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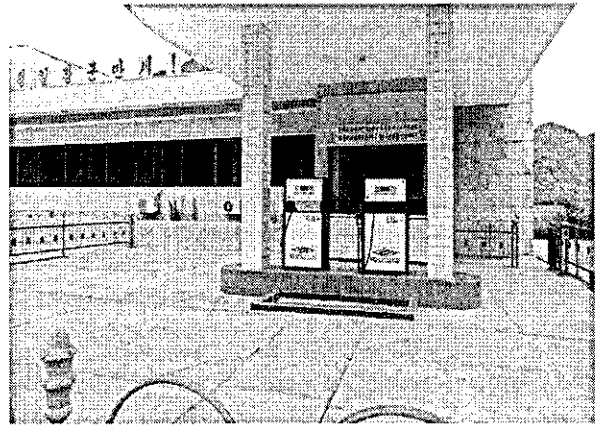
[북한의 미장원]



[북한의 미장원 머리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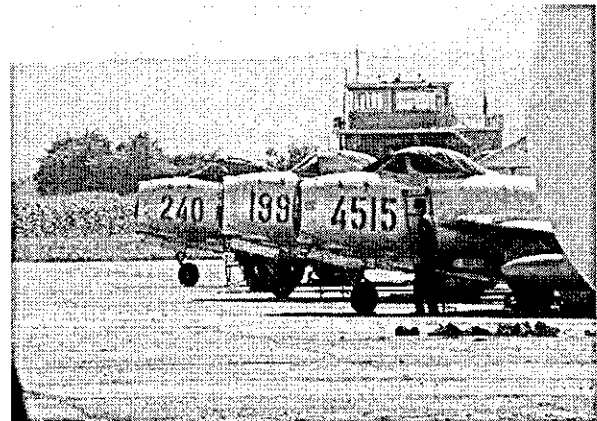
[내국인과 외국인이 분리되도록 설치된
원산해수욕장]



[주유소의 모습]



[1잔에 10유로 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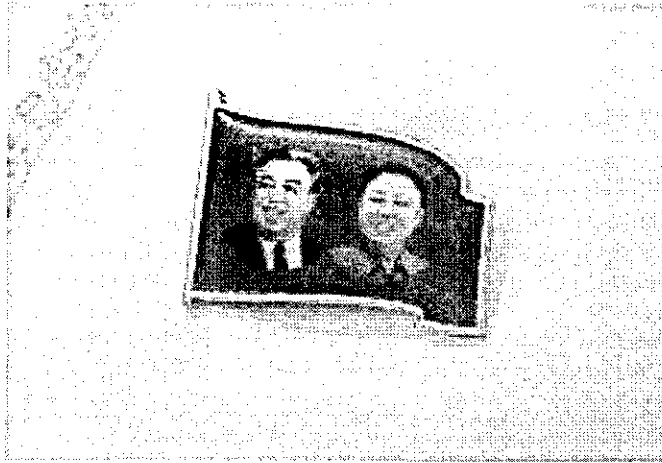


[청진시 비행장]

o 새 김정일 배지로 본 김정일 사후 북한의 이념체제 변화

(5.9 38 North)

- 「루뒤키 프랑크」(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수/한반도 전문가, 4.10-16일 방북),
 -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주민들이 착용하고 있는 새 배지가 눈길을 끌었다.'
 - '수십 년간 김일성 배지는 동상과 함께 체제 우상화의 일부였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 혼자가 아니라 김정일도 함께 있는 큰 배지가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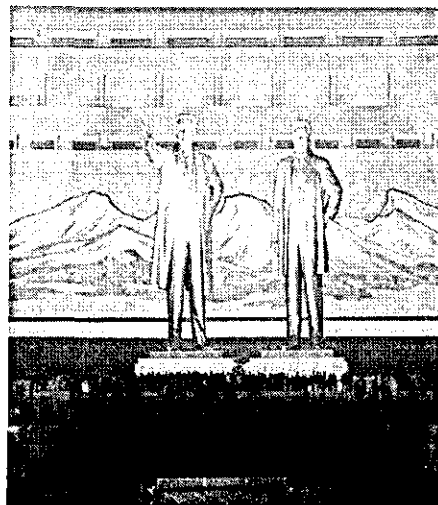
[김일성·김정일 배지]

‘김일성이 독점하던 자리에 이제는 부자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은 방북기간 내내 자주 목격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4.13일 공개된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이다.’

[2010년]



[2012년]



‘사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있는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 가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으며 벽화에도 주로 김일성이 더 높은 지위로 묘사되어 부자가 함께 등장한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일의 위치가 점점 격상되어 김일성과 동격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상과 배지 같은 핵심적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2012년 4월 목격한 새로운 변화는 사후 김정일을 승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격하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 이념체제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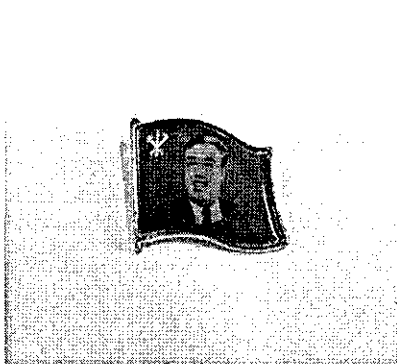
‘김정일은 김일성 우상화가 정통성 확립을 위한 강력하고 믿을 만한 도구이며, 김일성을 대체하는 것은 우상화를 저해하는 것을 알았기에 생전에 김일성만큼 자신을 우상화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아버지 김정일을 더욱 우상화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기존 전략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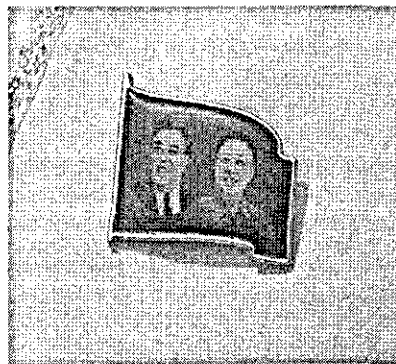
‘그러나 김정은의 이러한 효심으로 인해 김일성 우상화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방북 기간 중, 4가지의 배지 착용법을 보았는데 1)기존 김일성 배지만 착용 2)김일성과 김정일 둘 다 있는 새 배지 착용 3)기존 김일성 배지와 새 김정일 배지 함께 착용 4) 김일성 없이 김정일만 있는 새 배지(김정일 사후 배포)만 착용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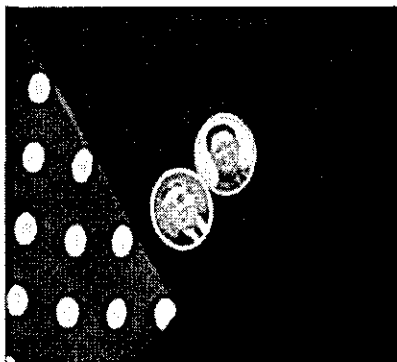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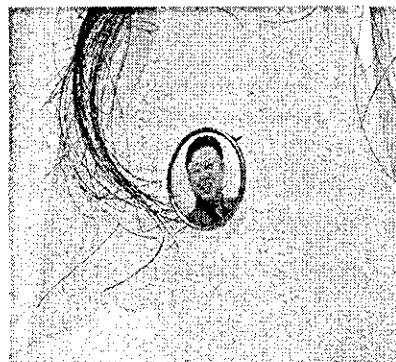
<2>



<3>



<4>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3번과 같은 경우는 전혀 놀라울 것이 없지만 4번과 같이 김일성 배지를 아예 달지 않는 것은 여태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4가지 방법의 배지 착용법은 현재 북한에서 혼용되고 있다.’

‘개성으로 가는 길과 평양에서 본 구호를 직접 세어본 결과, 40%가 김정일 찬양, 20%가 김일성 찬양, 10%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구호였으며 나머지는 당 관련 또는 생산량 증대 및 자위 등 정치적 목적의 구호였다.’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확연히 많이 언급되고 있었으며, 당시 김일성 생일 100회 기념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특히 더 놀라웠다.’

‘4.19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이며 노동당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일성의 나라에서 김일성-김정일의 나라가 된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각각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을 합침으로서 김일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훨씬 더 큰 여파를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해석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북한 체제를 군주제 또는 일반적인 독재 체제로 본다면 김정일이든 김일성이든 지도자에 충성하는 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 외부 압력 및 소련·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성공적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존속한 것은 정보 통제, 엄격한 감시 및 억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요소는 다른 독재체제에도 존재했지만 결국 체제 붕괴를 막지 못했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것인 방어적 국수주의, 단순화된 사회주의 및 종교적 요소가 교묘히 혼재된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신념체제는 체질화되고 당연시된다.’

- ‘이러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매우 가치가 높다.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지속성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징과 의식이 필요하다.’
-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절차를 의식화하고 이미지를 우상화 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만약 북한 주민들이 앞서 논한 우상화의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동유럽권 사회주의자들처럼 해야 할 때 럽 서비스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 실용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북한은 강력한 이념체제가 아니라 약화되고 있는 정보 통제와 억압 체제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이념체제는 이미 매우 약화되었을 것이며 무사안일주의와 두려움만이 북한을 지탱하고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만약 북한 주민들이 이념을 중요시 여기고 지난 20년간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된 이유가 이념 때문이라면 더 이상은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 ‘언젠가 북한 사람들은 2012년 4월이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때라고 회고할지도 모른다.’
- ‘북한 지도부가 동유럽같이 내폭하는 길을 택할지 중국과 같이 개혁하고 변화를 모색할지 결정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 영국

○ 세계 최고 은둔국 北 일상은? (5.30 더 선 ☞ 영국 대중지)

- 밤 11시면 불빛이 사라지는 비밀스런 국가에 잠입해 취재를 했으며, 잔돈으로 껌을 받고 아무도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는지 모르고 있었음.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내 영국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취득한 기자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무실 주소 및 이메일 계정을 위조하고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음.
- 이들은 북한 검문소에서 공산주의 배지를 달고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버스에서 내려져 전세계 마지막 '철의 장막'인 북한에 잠입했음.



[더 선의 두 기자가 김정일과 김일성 동상 앞에 꽃다발을 놓고 영성한 자세로 절하는 모습]

- 국경지역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신의주 마을의 호텔로 향하는 길에 강독을 따라 6층짜리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음.
- 건물들은 외관상으로 괜찮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창문도 없고 모두 텅 비어 있었음.
- 김정일은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을 지으라고 지시했음.
-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며, 도주를 시도하는 이들을 쏘라고 지시받은 군인들이 24시간 지키는 감시탑이 존재함.
- 북한 마을은 가게나 식당도 없이 우중충하고 암울했으며, 어떤 상거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정부 건물도 칙칙한 회색빛이었으며 주택 건물은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벽돌이 허물어진 상태였음.
- 현지인들은 김정일 또는 김일성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으며, 천천히 걷거나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다님.
- 아무도 얼굴에 미소를 짓지 않고 있었으며 대부분 바닥을 응시하며 좀비같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음.
- 우리는 6시간 동안 1940년대식 기차를 타고 200마일을 달려 평양으로 향하는 길에는 무릎까지 물에 잠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논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음.
- 기차가 지나가자 일하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으며, 우리는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답례해주지 않았음.
- 사람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는 다채롭고 거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모자이크가 있었으며, 이들과 노동당 기념비는 외딴 곳에 세워져 있음.
- 47층짜리 양강도호텔에 도착하기 전 숙소에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이 호텔은 소수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평양 호텔 두 곳 중 하나임.
- 북한 고위층은 양강도호텔을 선호하며, 이는 시내 중심에 있는 섬에 위치해 정부 경호원 없이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그러나 무장 경호원들은 섬에서 떨어져 다리만 순찰하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안내원들이 수속을 도왔음.
- 양강도호텔은 1995년에 지어졌으며 엘리베이터가 6개 있으나, 관리자가 거주하는 5층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음.
- 호텔의 모든 객실에는 TV가 한대씩 있었으며,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의 발자취를 포함한 친정권의 선전만 방영되는 채널뿐이었음.
- 호텔 바에는 50펜스(약 900원)짜리 북한 맥주를 팔았으며, 직원은 텀을 거절하고 우리는 잔돈 대신 껌 두개를 받았음.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시내에서는 수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2011.12월 사망한 김정일에게 헌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김정일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음.
- 김정일의 사망으로 만수대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이는 김일성 동상 옆에 위치해 있음.
- 우리는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동상이 잘릴 수 있다는 이유로 너무 가까워서 찍지 못하게 저지당했으며, 안내원들은 이런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
- 평양에는 햄버거와 피자 가게가 있어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 청년식당을 찾았음.
- 직원들은 빅맥을 본떠서 햄버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으나, 고기는 소고기가 아닌데다 빅맥 맛이 하나도 나지 않았음.



[청년식당에서만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지만 맛이 좋지 않음]

- 인민대 학습당에서 만난 안내원은 2,500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실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될 것임.
- 안내원 3명은 모두 비틀즈를 알고 음악을 좋아했으나, 놀랍게도 비틀즈 멤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
- 이들이 비틀즈 외에 알고 있는 서방 스타는 마이클 잭슨이었지만, 잭슨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놀랐음.



[인민대 학습당에서 구식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

-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굶주리며 정부로부터 쌀과 감자 배급을 통해 연명하는 반면, 평양의 통근자들은 선전벽화와 초상화를 보며 금과 크리스탈 상들리에 아래에서 지하철을 기다림.
- 북한은 평양 메트로가 호선 2개와 정거장 1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거장은 3곳일 것으로 여겨짐.
- 오직 특권층 당원들만 녹색과 붉은색 동독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들 한쪽 면에는 독일인들의 낙서가 있음.
- 북한의 일반 시민들은 여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 방문할 때 메트로 역에 연기자들을 배치한다는 소문이 있음.
- 2,400만 인구의 일상은 끊임없는 생존분투의 연속이며, 아무도 임금을 받지 않고 있음.
- 노동자들은 주택을 공급받지만 거의 지저분하고 질이 좋지 않은 건물들임.
- 주택에는 전기가 무한정 공급되지만 평양에서조차 11시면 전기가 끊기는 한편, 김정일과 김일성 동상과 정권 기념비에만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음.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인구의 1%에도 못미치는 계층만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없으나, 시골이나 도시에 거리를 순찰하는 파란색 선동차량이 있었음.
- 선동차량은 확성기를 통해 '열심히 일하라'는 선전만 요란하게 울려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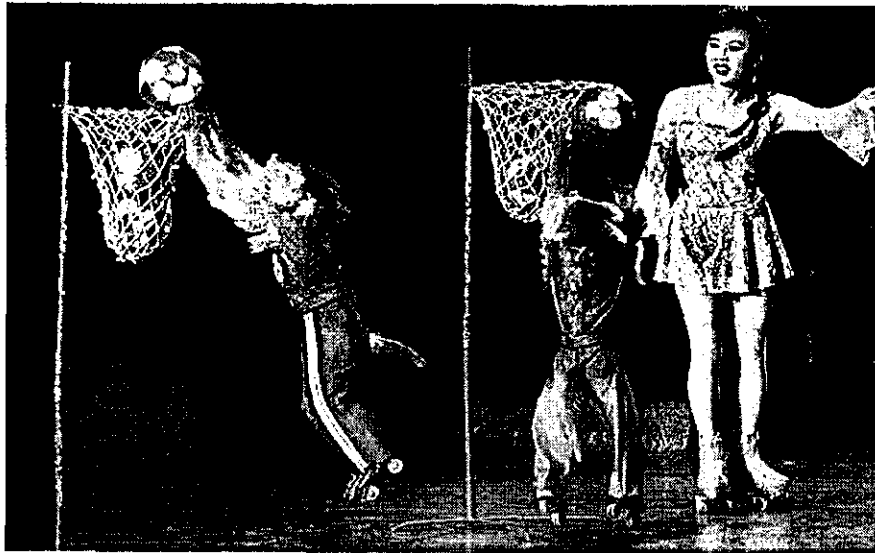
[파란색 승합차가 당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北 서커스 (5.31 더 선 15 영국 대중지)

- 북한은 서커스 공연을 위해 동물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매일 세 차례씩 롤러스케이트를 타게 하고 있음.
- 서커스에 동원된 동물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은 동물 애호가의 격분을 불러일으킬 것임.
- 입이 틀어막힌 곰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매일 두 발로 걷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모욕적인 연출을 되풀이하고 있음.
- 개코원숭이들은 매우 엄격한 각본에 따라 농구 게임에서 빈틈 없는 슬램덩크를 하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한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음.



[개코원숭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미끄럼을 타는 모습]



[개코원숭이가 농구 골대에 공을 넣는 모습]

- 북한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몰래 촬영한 서커스에는 독재국가 지배층의 가혹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남.
- 관객들은 곰 두 마리가 사육사들과 함께 줄을 넘는 것을 보며 손뼉을 쳤음.



[곰들이 사육사들과 함께 줄을 넘고 재주를 부리는 모습]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평양에서 사흘간 열린 서커스 관람료는 16파운드(약 3만원)로, 월평균 수입이 29파운드(약 5만3000원)인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서커스 관람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태임.

서커스 관람석은 3,500명 규모로 어린이와 중국 관광객 30여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어두운 녹색 군복을 입고 김일성 또는 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는 군인들로 채워졌음.

엄숙한 얼굴을 한 군인들은 계획에 따라 손뼉을 치고 웃음을 지었음.



곰들은 북한 숲에서 잡혀 서커스 공연을 위해 훈련을 받은 반면, 개코원숭이는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지 않음.

「벤 윌리엄슨」(동물보호단체 PETA), '북한 서커스에 동원되는 동물 조련은 문명사회에서는 있기 어려운 가혹한 대우이다.'

북한 서커스는 지배계층을 위한 얼마되지 않는 놀이문화 중 하나임.

잠입 취재를 위해 골프 대회에 출전한 비즈니스맨 행세를 했으며, 사진 촬영은 엄격히 통제됐었고 가이드들이 수시로 카메라를 확인했음.

□ 프랑스

○ 北 엘리트, 제재에도 불구하고 풍요 누린다. (4.26 AFP)

- 북한은 수년동안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지만 고급 승용차와 소비재를 향유하는 평양의 엘리트층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임.
-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평양의 고급 가게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짐.
- 평양 주재 외국인들에 의하면 북한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어느 때보다도 도로에 차가 많으며 시내 교통량이 많아 지고 있다고 함.
- 대부분 구형 모델 차량이기는 하지만 신형 메르세데스, BMW, 렉서스, 도요타, 랜드로버 모델도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국제사회는 북한과 엘리트층을 위한 사치품 금수령을 내렸지만 중국을 통한 공급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음.
- 2008년~2010년까지 평면 TV,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품 수입이 2억7200만 달러에서 4억46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2층 규모의 보통강 류경백화점은 식품, 의류, 전자제품, 가구 등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화만 받고 있음.
- 프랑스産 샴페인은 프랑스 국내 가격의 2배 이상인 병당 70 유로(\$93)이며, 보르도/부르고뉴産 와인, 다양한 상표의 위스키, 진, 보드카, 럼주가 판매되고 있음.
- 식품 판매대는 덴마크산 및 뉴질랜드산 버터, 프랑스산 등 유럽산 치즈, 호주산 쇠고기, 코카콜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표의 청량음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
- 일본은 엄격한 대북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일제 식품과 조리도구, 그릇 등 일본 상품이 넘쳐나고 있음.
- 또 다른 판매코너에서는 명품시계와 보석, 향수, 평면 TV, 음향기기 등이 판매되고 있음.

- 이 백화점의 주 고객층은 북한의 정치·군사 엘리트들이지만 신흥 부자들도 포함됨.
-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입품을 판매하는 제한된 숫자의 자유시장이 인기가 많음.
- 2003년 문을 연 통일시장은 7000㎡ 규모로, 각종 수입 식품 및 화장품, 싱가포르 맥주와 서양 술, 한국산과 일본산 전자제품 등 많은 종류의 수입품을 판매함.
- 백화점과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입품들은 모두 중국을 통해 수입됨.
-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에 北·中間 총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87% 상승한 31억 달러를 기록함.
- 전문가들은 북한산 원자재와 중국산 소비재의 물물교환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추산함.
- 평양의 '골든 커플'(남편은 정부 관리이고 부인은 사업가인 경우를 일컫음)을 위한 외국인 운영 이탈리아 음식점 두 곳에서는 피자와 파스타, 이탈리아산 와인,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코카콜라를 즐길 수 있음.
- 스위스 음식점에서는 현지에서 수입한 치즈로 만든 풍뉘 메뉴가 준비돼 있음.
- 김정은 체제가 언젠가 정부 통제를 완화한다면 이러한 소비 문화는 시장경제의 모태가 될 수 있음.
- 중국도 30년 전에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다 지금은 경제 강국이 됐으나 아직 북한에서 개혁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음.
- 평양 외 지역에서는 1990년대 대기근 이후 5세 이하 어린이 중 1/3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UN은 추산하고 있음.

□ 독일

○ 김정은 제국을 들여다 본 짧은 경험 (5.5 슈피겔 17 독일 주간지)

-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10만채는 북한의 현대화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아파트 벽돌은 급속도로 만들어졌음.
- 유럽연합(EU) 대북 특사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무자비하게 아파트 설립 계획을 추진했음.
- 군용트럭이 거주자들에게 물건들을 싣게 하고 친척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시켰으며, 그 자리에 2개의 원형 아파트 타워가 세워졌음.
- 문제는 새 빌딩들이 외교관들에게도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아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임.
- 북한은 에너지 공급에 문제로 난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현지 외국인들에 따르면, 수많은 주민들이 겨울 동안 장작을 조금 때고 있으며 오븐으로 방 하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상태임.
- 수압이 약해 아파트 고층에 종종 물이 나오지 않으며, 물을 얻기 위해 주민들은 양동이를 들고 거리에서 물을 받거나 오염된 강물에서 물을 가져오기도 함.
- 그러나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가 시작되자 평양은 고층 빌딩 꼭대기의 네온사인과 LCD 화면 등으로 인해 갑자기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찼음.
- 밝은 불빛으로 인해 방문자들은 평양이 현대적인 대도시라는 인상을 갖게 됐으며, 북한은 기념행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3일간 휴가를 줬으며 특별 식료배급을 실시했음.
- 가게에는 평상시보다 사과와 상추 등 전시품들로 가득찼으며, 변화가에는 사람들이 사탕·탄산음료·땅콩 등을 사려고 줄을 섰음.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독일 민간단체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은 1990년대와 같이 북한 대부분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2012년 수확은 2011년에 비해 9% 개선됐지만 취약 계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함.

북한전역에 조림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숲 전체를 잘라낸 시골지역에는 토양침식을 막고 메마른 농지를 구하기 위해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있음.

평양 도로에는 중국산 자동차들이 갑자기 등장했으며 2011년 급증했음. 차량은 중국산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이며, 국제적인 금수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소형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중국 국경을 지나다니고 있음.

그러나 도로의 차량들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정부 소유임. 외무성 관계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서툴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자가용의 소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한 국제 구조원은 '북한에 시민사회와 지식인 반체제 인사가 없으며 사실상 문학도 없는데 어디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함.

북한 국영TV는 김정은이 농업노동자·학생·아이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사람들과 교감을 꺼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김정은은 열병식에서 또다른 금기를 깬음. 김정일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한 적이 없으나, 김정은은 20분간 단조롭고 감정이 담기지 않은 연설을 했지만 이를 통해 목소리를 들려줬음.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 “2012년 세계분쟁지역 예측분석 자료”

지난 2011.12월 러시아 ‘나찌오날나야 아바론나(국방)’라는 군사·정치 월간지에 「알렉산드르 크람치힌」 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 소장이 기고한 ‘세계 분쟁 지역 2012년도 예측분석 자료’ 중 한반도 관련사항을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한반도

○ 한반도 정세

- 2010년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 물론 이 지역은 항상 전쟁발발 가능상태에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2010년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현재 북한은 정치시스템의 특이성에 힘입어 경제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북한이 자국의 정치적 특이성을 바탕으로 외부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군사력이다.
- 이는 직접적인 무기거래(이 또한 북한 예산의 주요 항목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 로켓을 포함한 군사력을 이용해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 북한이 보여주는 모든 군사적인 행동은 사실상 자금, 식량, 연료를 원하는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 북한의 주요 거래수단은 탄도로켓 실험이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전혀 건설적이지 못했다. 대북 제재를 가했고,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해 어렵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 정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변했는데, '햇볕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북한과 정치적으로 가까워졌으며, 대북 경제지원도 이루어졌다.
-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내·외부적으로 눈에 띄게 유화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국가에서 형성된 새로운 한국 엘리트 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은 한국의 단일성을 가치 있는 이념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통일은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정책을 취했다.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상호' 대응했는데, 로켓 실험에 핵(특은 핵의 이미테이션)실험을 더한 것이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됐고, 북한은 다시 새로운 단계로의 확산 대응을 이어갔다.
- 북한은 우선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천안함 사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 계획한 결과다. 북한은 확실하게 힘을 과시했다. 희생물로 선택한 것이 최대 규모의 최신식 군함은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작은 모델도 아니었다.
-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대북제재와 같은 '처벌'은 없었기 때문에 자국의 파워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소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 그러자 북한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하는데, 바로 연평도 포격 사태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섬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인 것은 섬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군인 및 주민이 거주했다는 사실이다.
- 피해는 제한적이었는데, 총 4명이 사망(군인 2명, 거주민 2명)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모두 공격 대상의 국지·고립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2.6.2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한국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하는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은 또다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북한 지도부는 다시 전략을 바꿔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다. 북한은 식량공급 재개를 원한다.

이 때문에 공은 한국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 미국이 한국 측에 대화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조만간 대북 입장을 유화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북측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을 수 있다. 즉, 북한이 한 번 더 '공격'을 감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규모의 한국 군함을 침몰시키거나, 혹은 군사시설 중 한 곳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면전 단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치·경제적 대화에 나선다면 모두가 원치 않는 분쟁의 상황으로 가는 극단적인 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UN 안보리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이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면 매우 빠른 시일 안에 한반도는 전쟁단계로 갈 것이다.

전쟁 발발하게 될 경우 북한군이 금방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전개는 김정일 사망 혹은 북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에는 군사독재 혹은 가능성은 낮지만 체제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위기와 내각교체 또한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상의 안은 새로운 한국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한반도 전망

- 전반적으로 조만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남·북한 어느 한쪽이든 내부적으로 급진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향후 1~3년 내 전쟁은 거의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비록 전쟁 발발시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나, 韓·美軍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이라크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 것인데, 북한군이 빠르게 붕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북한의 경우 군사장비가 낙후됐어도 그 보유량이 엄청나며, 준비·동원 가능한 병력의 규모가 크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엄청난 물적·인명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할 수 없다(무엇보다 핵전쟁의 경우).
- 중국은 국경을 접하는, 게다가 자국 수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국가에서의 전쟁을 전혀 원치 않으며, 자국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 중국과 북한간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對中 경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도 전혀 말할 수 없다.
- 중국의 경우, 북한 체제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이는 위키리스크에서도 언급됐다), 反美 완충지 차원에서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제 2의 한국전' 발발시, 중국 인민군은 북한 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1950년대와 같은 상황)한다며 '전쟁중단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2012.6.2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상유지 및 상황복구(38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전쟁 후, 과거와는 달리 중국군은 북한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군이 북한 땅을 떠나는 것은 한국에서의 완전한 미군철수 및 더 이상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보장 받는 경우일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 땅을 떠난다면 중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북한에 세우고 떠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전쟁 발발시, 북한의 현 체제는 거의 100% 파멸의 상황으로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韓·美 동맹이든, 중국이든 간에 북한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다).

한국의 경우,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입을 것이고, 발전 수준은 10여 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북한 영토를 복구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나 혹은 자국 국경에 중국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전쟁은 큰 손실인데, 무엇보다 자국 지위에 타격을 입을 것(이미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긴 하지만)이다.

중국의 경우,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전쟁 발발이라는 시나리오 전개는 중국에 있어서도 엄청난 리스크를 감행해야 하는 출혈이 큰 게임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전쟁에 간섭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제한적인 간섭(예를 들어 공군만 참여)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둘기파'인 현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문제에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중국군이 한국 영토 일부(서울 포함)를 차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2.6.2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만약 대대적인 미국의 군사개입이 있다면 북한은 위협수단으로 미군 혹은 일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환상에 불과한 가능성일 뿐이지만, 북한의 내부적인 붕괴를 가정한다면 이러한 안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한반도 전쟁이 핵 사용 단계 수준까지 간다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나호드카를 비롯한 연해주 남부 지역 도시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수천여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지역에 미군, 혹은 중국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군은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지만, 중국이 2차 한국전쟁의 주요 승리자가 될 경우 중국의 군사·정치적 야심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현재의 '문제' 수준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전은 전혀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전망(5년 이내)으로 봤을 때, '냉전'이 '뜨거운' 전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북한 현 체제 분석 / 경제 문제에 대한 고찰

5.16일 중국의 경제 분야 전문지인 「환구재경」에 게재된 '북한 현 체제의 역사적 생성원인/현황/전망분석'과 '북한 경제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보고드립니다.

□ 북한 현 체제의 역사적 근원, 현황 및 전망 분석

(5.16 환구재경 ⇨ 경제잡지, 환구재경 총편집장 「장지앤」)

○ 북한 체제 안정의 비밀

- 4.14~19일까지 우리 여행단은 평양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태양절 경축행사에 참가해 북한 제3대 지도자 승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
- 권위정치의 가장 민감한 시기는 바로 권력 이양 시기이다. 북한이 세계적인 거센 압박 속에도 순조롭게 권력 이양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과 내부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북한 체제 안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북한 노동당 당기(黨旗) 속에 있다.
 - 다른 공산당 국가의 당기에 낫과 망치가 그려진 것과 달리, 북한 노동당 당기에는 붓이 있다.
 - 이는 북한의 지식층은 노동계급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으며, 지식층에게 풍부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했음을 보여준다.
 - 이에 북한의 현 체제가 지식층의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를 안내하던 한 북한 안내인에 따르면 김일성은 지식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1945년 건국 초기 일본인과 협력하던 지식층을 대거 사면하고 이들을 중요한 지위에 앉혀 많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 동양 전통 사회에서 민심이라는 것은 지식층이 만들어낸 것이다. 동양의 유교적 사회에서 특히 忠君사상이 있는 곳에서

지식층이 한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면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정부는 이데올로기를 주체사상으로 표현한다. 예전에는 김일성 사상과 어록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모두 주체사상으로 바뀌었다.
- 이번 열병식에서 필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초상을 보지 못했다. 또한 마르크스·레닌 주의와 김일성 주의 등은 볼 수 없었으며 모두 주체사상 위주였고 개인에 대한 색채는 열어진 것 같았다.
- 사상통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후대의 해석 여지를 남겨 놓았다. 현재 세계의 각종 종교와 교파 간의 충돌은 대부분 창립자 사망 후 여러 해석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이러한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정치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다.
-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은 바로 국가가 주권을 가지며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주(自主)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사상에 대한 표현은 매우 간단하며 관련 내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의 민족 정서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었다.
- 북한 주민들은 비공개적으로는 북한을 '민족주의 집권(集權) 정치' 라고 말하기도 한다.
- 최신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의 대표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국가의 최고 장관으로 정의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 김일성 일가

- 북한은 그들의 지도자가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선전하지만 필자가 북한에서 깊이 느낀 바는 김씨 일가는 북한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안이었다.
- 김일성 생가 만경대의 전시품 중 정교한 장식과 뛰어난 수공이 있는 상자가 눈길을 끌었다.

- 일반 가정의 소박한 장식품 상자와는 달랐으며 중국이 매우 발전했던 황금기의 궁궐 대신 집안의 상자 또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유물이 없었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경우도 드물다.
- 생가 주변의 벽화는 김일성의 조부가 13세의 제복을 입은 김일성을 이끌고 조상들과 함께 항일운동하던 시절을 묘사해놓았다.
- 미국의 푸에블로호도 보았는데, 해설가는 '북한이 1968년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일성의 조부가 1866년 대동강가의 미국 함정을 침입한 유적지 위에 정박해놓았다'고 설명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김일성의 조상은 봉건 왕조의 귀족으로 김일성의 숙부 등은 모두 항일투쟁 운동에 참여했고, 4대에 걸쳐 일가가 민족 투쟁 운동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 이에 우리는 조선시대 귀족 집단이 김일성을 지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 북한의 항일 운동 핵심 세력은 바로 일본 통치 하에서 기존의 이익을 빼긴 귀족 집단이었던 것이다.
- 이들은 권력과 재산을 빼앗겼지만 북한의 지식과 문화를 계승한 북한 지식층의 뿌리라 할 수 있다.
- 이들 계층이 바로 당시 김일성이 당기 중앙에 붓을 그려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식층이 바로 당시 조선시대 저항한 귀족들이며 대사면을 받았다.

○ 남북 대항, 귀족과 매국노의 힘겨루기

-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한국에서 온 많은 '탈남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북한에 와 이러한 행사 참여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3년형을 받는다.
- 서양식 물질 문명을 누리기 위해 한국으로 도망간 '탈북자'들과 달리 이들 탈남자들은 대부분 사회 지식층 엘리트로 민족주의 신앙 때문에 북한에 온다.

- 민족자주 주체사상은 북한 민족에게 동질성을 갖게 한다. 당시 항일운동을 하던 대부분이 조선 귀족과 민족주의자들이었고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임시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일본과 대항하지 않은 반면 김일성 등은 中·北 국경에서 포화에 맞서 일본인과 대항했다.
- 생각해보라. 열정적으로 직접 전쟁 일선에서 일본에 대항한 이들이 진정한 애국주의자인지 아니면 수천 리 떨어진 임시 정부에 있는 이들이 애국자들인지?
- 한국을 통치하는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일제시대의 매국노 집단이 있다. 한국은 중국 임시정부를 다시 본국에 세운 후, 일제 식민세력의 잔재와 대항하고 청산할 힘이 없어 이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 한국의 좌익 노무현 대통령이 몇 해 전 매국노 청산 운동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되었고 노무현 본인도 정치적인 '자살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 이들 탈남자들과 만나면서 필자는 북한과 한국의 대항이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귀족과 매국노들의 힘겨루기임을 알 수 있었다.
- 한반도의 남북한 민족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은 독립되지 못한 주권이며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식민지로 전락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 누가 북한을 통치하나?

-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안정적인 통치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 북한 총인구는 2,400만이고 군인은 약 120만으로, 군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군 고위장성의 비중도 매우 높다.
- 이전에 군관모는 북한 인민군이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북한에 와서야, 대학 졸업 이상의 군관만이 군관모를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외에는 모두 작은 모자를 쓴다. 우리 일행은 인민군 병사를 보지 못했는데 관광객을 따라 다니는 보안 요원들조차도 모두 고위직이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관련 기관에 속하는 중요 부서와 연구 기관 등도 북한에서는 군대에 소속되고 모두 계급이 있다.
- 열병식 등의 행사에서 필자는 수만 명의 군관모를 쓴 사람들을 봤다. 퇴직한 고위장성들이 모두 경축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북한 군대의 약 5%이상이 대졸 이상의 고위군관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또한 이들의 수가 총인구의 1%를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북한 지도 계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실제로 북한의 군 고위장성과 평양 주민들은 매우 안정적인 통치 계층이 되었으며 현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이다.
- 우리 일행의 통역사 2명은 가이드까지 겸했는데 각각 정치 2세와 군 2세였다. 이들은 모두 중국 베이징 대학을 졸업했고, 중국 유학 시절 한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 그들의 말투에서 북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다.

○ 북한 사회의 진상

- 이번 여행에서 관찰해 보니, 북한의 통치 계층 내부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도 혼란은 없었다.
- 북한은 대외, 대내 각각 다른 방식의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 북한이 한미와 평화협의를 맺고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 상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빈부차이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일반 주민들의 식량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고, 특별히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다.

- 북한에서 주택과 식품은 국가에서 배급하며 의료와 교육은 무상 제공한다.
- 대학생의 비율이 28%이상이고 평양에는 십여 개의 대학이 있다. 대학의 수와 학생 수 비율은 높은 편이고 교사에 대한 대우도 비교적 좋았다.
- 농촌에서는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 농민들이 건물을 높이 지어 곡식 재배를 할 수 있는 많은 땅을 확보하도록 했다.

○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필자가 보기에 북한 미래는 개방을 통한 시장 경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공 사회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 북한의 공유화, 국유화는 기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
- 舊 소련은 차르 군주, 귀족, 자산 계급의 재산을 공유했고 중국도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은 일제시대의 매국노 재산을 청산해 국유화를 진행했다.
- 일제시대 수십 년 동안 매국노는 원래 북한주민의 재산을 약탈했기 때문에 북한의 국유화는 실제로 일본 침략에 대한 청산이라 할 수 있다.
- 공유화와 국유화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전쟁 침략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 중국에서도 국민당이 매국노와 동북 지역의 일본 침략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처리했다.
- 공유화, 국유화에 대한 북한의 역사적인 책임은 다른 나라들 보다는 가볍다.
- 이러한 재산을 기존 주인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실제로 中·北 국경지대에서 일본에 대항하던 북한 유격대의 지도층은 바로 침략자들에게 재산을 박탈당한 조선 시대 이씨 왕조 귀족과 그 후손들이다.

- 이들이 바로 오늘날 북한의 관리층이자 북한 역사상 물려온 재산의 합법적 소유자들이다.
- 북한이 민족 공공 사회 국가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 북한 사회 모델은 기본적으로 정교합일(政教合一)이며, 동양식의 종교인 소위 주체사상은 실제로는 바로 중국 전통의 충군보국(忠君報國) 정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만약 충군이 신앙이 된다면 일본 천황 가계의 만세일계(萬世一系)와 같이 지도자의 후대 세습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 설사 동양의 민주국가라 해도 인도의 간디 가문, 필리핀의 아키노 가문 등은 계속해서 국민 선거를 통해 국민 지지를 받아 지도자가 되었다.
- 또한 영국의 강성시기와 빅토리아 여왕, 러시아의 강성과 피터 대제, 예카트리나 여제, 일본 천황과 메이지 유신이 관련이 있고, 미국 또한 20세기 발전이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강권과 프랭클린의 네 차례 연임에서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북한 인구는 2,500만 정도로 인구는 적고 관리 비용도 적다. 소국과 대국의 권위 통치의 비용과 대가는 완전히 다르며 국가의 관리 비용 측면에서 결정되는 통치의 어려움 정도도 완전히 다르다.

○ 결론

- 종합하면 북한 체제는 지식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은 비교적 안정된 사상과 안정된 지도층과 체제 수호자들이 있기에 현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 현재의 북한을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집단 권력층이 있는 민족 공공 사회 국가라 할 수 있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북한의 정치는 더욱 안정되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 집단 권력층이 있는 민족 공공 사회 국가는 민족의 단결력이 높을 때 더욱 안정되고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 이는 舊소련이 다민족 국가로 붕괴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2012.6.28(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구소련 해체와 전국적인 식량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사건을 거친 후 두 차례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완성했다. 이는 국민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혜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 권력 이양 후 정책과 권력의 연속성은 몇 년 만에 한차례 권력이 바뀌는 민주사회 보다 더 안정적이다.
- 김정은의 연령과 예상수명으로 볼 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안정될 것이기에 중국은 북한의 현 정권과 오랫동안 평화적인 협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세계가 북한에 '돌아오라'고 한다면 이는 더욱 북한의 반감만 일으키게 될 것이다. 단결력있는 민족주의 정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북한 경제 문제에 대한 고찰

(5.16 환구재경 ⇄ 경제잡지, 환구재경 총편집장 「장지앤」)

○ 여전히 부족한 식량, 그러나 힘든 시기는 지나

-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로 북한 방문시 필자는 북한의 일부 학자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일부 기관들을 방문했다.
- 북한 경제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식량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농업의 역사와 농업 관련 수치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 모두 다 알다시피, 북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인구수에 대한 통계는 모두 다르다.
- 한 북한 학자는 북한 인구가 3~4천만이라고 했으나, 이는 UN 통계와 차이가 있었다.
- UN은 2010년 발표한 인구 개발 조사에서 2008년 북한 인구를 2,405만으로 발표했는데 세계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인구를 2,300~2,400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전쟁 시작 전의 수치이다.

- 이 북한 학자는 다시 '1995년 전후로 발생한 기황으로 아사자가 속출해 인구가 감소했으며 당시 수도인 평양에서도 두 달 연속 쌀 한 톨이 없어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 북한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은, '당시 북한 식량부족 문제는 심각했다. 일반 주민들의 한 달 임금으로는 쌀 2kg 밖에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서 본 북한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직접 보니 영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북한 아동과는 달리 부모들의 모습은 대조를 이뤘다. 이에 당시 영양 부족이 심각했음과 현재는 식량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인터넷에는 북한 아사자 사진, 동영상 등이 있지만 자료를 보면 촬영 시간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 당시 북한의 많은 농촌이 가난했는지 몰라도 북한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수도 평양에는 세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빈민촌이 없었다.
- 1960~80년대 초, 북한 식량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농촌의 공급 부족과 노동 생산률 하락으로 식량 생산량이 떨어졌다.
- 1990년대 이후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1995년 이후 식량 생산량은 250~280만 톤 가량이었다.
- 1999년에는 1994년 이후로 최다인 422만톤을 생산했다. 북한의 일년 최소 수요량인 518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96만 톤이 부족한 셈이다.
- 북한 식량 부족에 관한 각 기관의 수치는 많은 차이가 있다.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2012.3월 보고서에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74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식량계획(WFP)의 중국 직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은 41만 4천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여름 수해가 발생한다면 이 수치는 더 커질 것이다'고 했다.

2012.6.28(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인구 대비 식량 부족을 계산하면 1인당 30kg이 부족하다. 현재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650만톤이라고 하는데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예상 수요량은 700만톤이다.(북한 식량 생산량이 많았을 당시에는 800만 톤 이상)
- 650만 톤의 식량 생산량에 2,400만 인구로 계산하면 일인당 540g을 소비할 수 있다.(중국의 경우, '60년~'70년대 1일당 400g의 식량을 소비했고 현재는 900g이다.)
- 이는 북한이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지만 이미 '90년대의 힘든 시기는 지나갔음을 말해준다.

o 까다로운 조건의 국제 원조

-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식량 원조 문제를 언급한다.
- 중신망(中新網)은 2011.6월, <中·北 국경을 오가는 이들의 비밀을 풀다>라는 보도에서 '1995년~1999년 10월까지 중국은 북한에 3,000만 위안의 무상 원조를 했고, 다시 52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 이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지원과 북한 식량 부족 수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제적으로 중국만큼 북한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도 없다. 핵사찰 요구, 최빈곤층에게 식량 지급 등 대부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다.
- 그러나 핵사찰 지역이 '전쟁준비상태'인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사찰을 거부했다.
- 또한 식량의 배급권도 원조자가 가지려고 하는데 이는 사실 북한 인심을 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이다. 작년 일본 대지진 발생시, 일본의 조직폭력 사회가 자선 모금 행사에 참여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에 거절당한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 특히,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시기에도 엄격한 군사적 기강을 유지하면서 강도사건이나 사회 동요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군사적 기강이 강하고, 군심이 단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경지 문제

- 북한의 식량 부족은 경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다.
- 북한 주민 1인당 보유 경지 면적은 1.2묘²²⁾(畝)로 비록 수치상 한국의 0.6, 대만의 0.4보다 높지만 토지의 질은 떨어진다.
- 북한에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단지 1계절인데 반해 온난한 한국은 1계절 반에서 2계절을, 대만은 3계절을 경작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부분이 산지이며 한국은 평원이다.
- 북한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재해 대응 능력까지 떨어져 산지의 생산량을 평원 토지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 또한 북한의 경작지가 대부분 전쟁의 포화를 받아 토지에 대한 생산량이 크게 하락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북한의 1인당 경작지가 한국보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40%가량 밖에 되지 않는데 위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식량 생산 수준이 결코 한국보다 낮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 세계식량계획 「장 삐에르 드 마제리」 북한 총대표는 2007년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다.’
 - 첫째, 북한의 경작지 비율이 낮는데 전체 국토 면적이 12만km²이지만 가용 경작지는 18%에 불과하다. 이런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것에 속한다.
 - 둘째, 북한에는 화학비료, 생산설비, 농업기계가 많이 부족하고, 관개, 재해 대응력도 취약하다. 매년 여름이 되면 북한에는 크고 작은 수해가 자주 발생하며 건조한 봄날씨와 가을 태풍 등이 모든 것이 북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드는 원인이다’고 밝혔다.

22) 1묘=약 666m²

○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원인

- 1990년대 중반 식량 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북한이, 한 때는 식량을 수출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 1980년 950만톤이었던 식량 생산량은 1995년에 불과 350만톤으로 65%이상이 감소했다.
- 2005년 식량 생산 수준이 조금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470만톤으로 1980년대의 절반에 못 미쳤다.
- 10여 년 만에, 북한은 식량 수출국에서 기황국가로 전락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 농업 증산을 위해 북한은 1960년대부터 수리(水利)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위한 농업기술혁명을 시행했다.
- 1960~70년대는 북한 농업 발전의 황금기로, 농업의 현대화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 1980년대 舊소련은 북한에 6만대의 트랙터를 공급했고 논밭에 전력을 이용한 배수·관개가 일반화 되었으며, 화학비료도 충분히 공급되었다.
- 70%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고, 1인당 식량 공급량이 800g에 달했다. 연수입은 1일당 900달러로 뛰어 오르면서 매우 풍족한 생활을 지낼 수 있었다.
- 그러나 구소련 해체로 북한의 공업생산은 하락했고 전력과 농업용 자재 공급 부족, 에너지 부족, 기계 설비 노후 등 농업의 현대화가 갑자기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던 도시화는 북한 농민층이 사라지면서 (농업 경작기술을 지닌 농민이 점점 줄어들)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작 기술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뒤쳐진 농업생산은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
- 1990년대 전, 북한은 농산물을 구소련의 원유와 교환했다. 舊소련이 해체되면서 곡물 가격 책정 체계가 붕괴되었다.
- 이러한 舊소련의 해체는 북한의 농산물과 원유의 교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북한의 1인당 경작지와 곡물 원가는 세계의 대규모 농업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없다.
- 이에 곡물 판매는 물론이거니와 충분한 석유의 공급도 불가능해졌다. 석유가 없으니 곡물 생산이 떨어지고, 곡물 생산 하락은 다시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 토지 부족으로 북한의 곡물 원가 비용이 높아졌고, 舊소련 해체와 미국의 봉쇄 정책 앞에서 북한은 자급자족할 수 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맞았다.
- 특히 북한은 토지는 좁고 인구는 적은 소국으로 공업화의 산업 사슬을 이루기가 힘들다. 자급자족 경제의 실행, 즉 모든 공산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각각의 생산품이 일정한 효율에 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산품의 원가 비용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없다.
- 이에 다른 대국의 산업 사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사슬이 무너지게 되면 큰 재앙이 된다.
- 북한의 도시화는 70%에 이르렀지만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反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회귀했고 현재는 농업 종사자가 약 48%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 이렇게 노동력이 어쩔 수 없이 농촌으로 돌아와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식량이 없기 때문이다.

○ 군수품 생산과 제3산업

- 또 다른 분석도 있다. 북한의 군인은 200만명으로 인구의 1/12을 차지한다. 이는 인구 12명이 군인 1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대한 군사 노동력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 그러나 직접 본 결과, 북한의 군인들도 노동 생산에 참여하는데 군인들이 직접 도로 건설 건축 현장에서 일했다.
- 에너지 수입이 막혀있을 때 에너지 절약과 재해 방지를 위해 대규모 댐을 건설했는데 이런 작업에도 군인들이 모두 참여했다.

- 또한 경기 침체기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군대에 가는 것도 일종의 취업이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 건설에 북한 군대가 참여한다는 것과 북한의 식량 부족이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위성(로켓) 연구와 같이 지출이 많은 군수업이 북한에는 발전되어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번 위성 발사에 8억 5천만 달러 가량의 자금이 들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 만약 쌀 1톤이 400달러라고 계산을 하면 이 돈으로 쌀 200만 톤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약속한 24만 톤의 영양 지원보다 훨씬 많다.
 - 그러나 위성 연구는 원래 많은 지출이 필요치 않다. 만약에 위성 연구에 필요한 인력으로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확할 수 있는 곡물도 없다.
 - 북한은 유한한 자원으로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제한되어 있다. 노동력이 많더라도 기타 제반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 북한의 생산 현장에는 일부의 생산 노동력만이 필요하며 기타 남는 인력은 자원 소모가 필요없는 과학연구와 교육 등의 제3산업에 종사하면 된다.
 - 북한은 연구 영역 뿐만 아니라 교육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 문맹률은 건국 당시 75%였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알며 또한 중등 교육 수준에 이른다.
 - 취학 연령의 아동의 학교 입학률은 35%에서 100%까지 높아졌고, 현재는 300여 개의 대학교가 있다. 1975년 전국적으로 11년제 의무 교육을 시행했고, 1989년에 이르러서는 일반 성인들은 모두 중등교육이 완성되었다.
- o 계획경제 체제로 신용 위기의 폐해를 줄이다.
- 북한은 다른 나라가 겪는 위기 순서와 동일하게 금융, 경제, 신용의 3단계 위기를 겪었다.

2012.6.28(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舊소련 해체와 러시아 금융 위기 시, 북한은 舊소련과 러시아 경제 산업의 하나의 축이 되어 舊소련 / 러시아에 상품을 공급했다.
- 1990년대 루블화의 극심한 평가절하로 북한의 외화보유와 외자무역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러시아 수출 후 받은 루블은 거의 폐지나 다름없었다.
- 북한과 미국이 오랫동안 교전상태(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정전협약이며 평화협약이 아님)에 있어서 북한의 대외 무역은 미 달러가 아닌 루블로 거래했다.
- 루블의 붕괴는 북한의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금융 위기 후에는 바로 경제 위기가 나타났는데 에너지 지원이 없는 북한 농업이 붕괴되었고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
- 경제 위기 후에는 신용 위기가 나타났다.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엄격한 관리감독과 형벌로 경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 북한 화폐의 불안정성은 북한 경제에 있어 커다란 문제로 2009.11.30일 북한은 돌연 12.1일부터 전면적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100원을 1원으로 하며 가구별로 10만원의 舊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자체가 바로 당시의 신용 위기를 보여준다.
- 그러나 다행히 북한은 엄격한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계획경제 체제 속에서 화폐에 대한 의존도는 한정되어 있었고 화폐는 숫자적인 부호에 불과했다.
- 계획경제는 화폐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는 시장경제와 자본 금융 사회에서 경제 요소와 경제의 실행이 화폐를 떠날 수 없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 GDP로 환산하면 식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북한에는 10년 내에 완공되는 건설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건설 사업들이 만들어 내는 GDP는 매우 크다.
- 그러므로 북한 민생은 어려움에 있지만 경제 성장은 그리 느리지 않다.

2012.6.28(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많은 건설 사업에는 군인들이 참여하는데 이는 화폐나 자본의 움직임이 없이 명령에 의해 완성된다.
- 이런 요소들이 화폐금융 위기 가운데서 제약과 완충 역할을 해 북한의 화폐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 또한 북한에는 자동화 기술이 발달되었다. 10년 전에 이미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지하철에는 카드시스템도 있었다.(이는 베이징보다 빠름)
- 1988년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세웠으며, 1990년에는 <조선컴퓨터센터>를 설립해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 최근 북한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의 초·중학교, 소년궁, 전문학교, 대학교, 정부기관, 공장, 도서관은 모두 직접 개발한 언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우리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도서관 자동화와 카드시스템도 견학할 수 있었다.

o 강력한 규율이 바로 강력한 생산력

- 계획 경제에서 규율은 강력한 생산력을 가져온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는데, 예를 들어 북한의 모든 행사는 갑작스럽게 통지되었다.
- 북한 현지인도 큰 대회 행사 통지를 바로 하루 전날 저녁에 통지받았다.(美·北이 장기 준전쟁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행사에 모든 인원이 성공적으로 모집되었다.
- 또 체육관 경축 행사에서 만 여 명이 참여했는데 시작과 끝이 모두 질서정연했고 쓰레기 하나 없이 체육관을 떠났다. 이러한 강력한 규율이 있기에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 같다.
- 북한은 최근에 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있다. 한 친구가 말하길 '10여 년 전 북한에 왔을 때만 해도 평양에 고층 빌딩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 그러나 현재 평양에 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고 대동강변에 얼마 전 공사를 시작한 100만km²의 주택지구는 곧 입주가 시작된다고 한다.
- 공사 시작부터 입주까지 1년이 걸렸는데, 겨울 공사가 중단된 시기를 제외한다면 거의 반 년 만에 이렇게 큰 규모의 건설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북한 사람들은 '중국 심천의 발전 속도도 북한의 속도보다는 느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이 또한 그들의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결과 같다.
- 비록 북한은 위기를 겪었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계획 경제의 회복 조짐이 금융화폐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 또한 유로화로 무역을 하고있는 북한은 유로화의 최종 결제 시스템이 미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직접 독립된 은행카드 시스템을 수립하기도 했다.
- 이외에도 북한의 인터넷, 휴대전화는 모두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 中·北 협력 전망 밝다

- 중국과 북한의 협력 전망은 매우 밝다. 북한의 국제무역 결제 시스템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이 위안화를 통한 국제무역을 한다면 중국의 인민폐가 국제 통화가 될 수도 있다.
- 북한은 이미 중국의 금 채굴을 허가했고, 이런 광산 자원을 국가 신용으로 삼아 중국과 화폐 통용 및 인민폐 차관을 할 수 있다. 북한 경제는 또한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중국의 산업 사슬에 융합되고 있다.
- 평양에서 우리는 의류 생산 공장을 짓는 중국의 사업가를 만났다. 그는 '북한 직원들은 기강이 바로 서 있고 북한에 고등교육이 보급되어 대학 교육률도 높아 노동력 수준이 높은 반면 임금은 낮다'고 했다.

2012.6.28(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또한 중국 문화 산업의 중요한 미래 시장으로 북한 TV는 <삼국연의>, <잠복>과 같은 중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도 좋다.
- 북한 가이드에 따르면, 쑨홍레이²³⁾는 북한에서 이미 유명한 스타라고 한다. 4월, 북한은 중국에 단체 여행을 개방했는데, 북한의 새로운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도 한 단계 발전되리라 믿는다.

23) 중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